

여주와 함께 한 사람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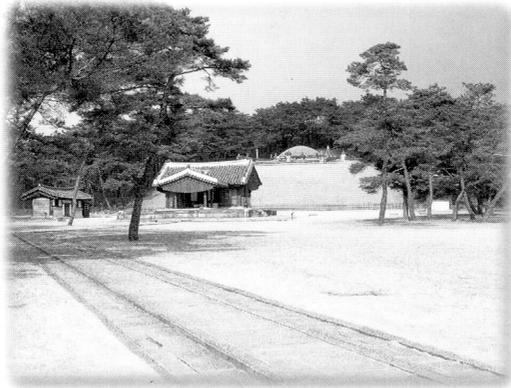


여주문화원

이

백

여주와 함께 한 사람들



여주문화원

이

백

발간사



여주문화원장 한만규

지역문화의 창달을 위해 노력해 온 여주문화원이 자랑스런 여주 선조들의 삶을 조명한 『여주와 함께 한 사람들』을 발간하게 되었습니다.

문화는 한 나라의 국력을 측정하는 척도입니다. 그러므로 전통문화를 계승 발전시키려는 노력 여하에 따라 그 나라의 미래가 좌우된다고 보아도 크게 틀리지 않습니다. 이는 지역의 향토사를 바로알고 가꾸는 것이 곧 지역의 미래를 밝게 만드는 요인이 된다는 말입니다. 이런 점에서 문화유산을 찾아내어 기록하고 보존하는 일이야말로 매우 뜻깊은 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번에 발간하는 『여주와 함께 한 사람들』은 그동안 여주와 인연을 맺어왔던 분들의 일생을 돌아보게 하는 소중한 기록입니다. 이 책을 통해서 우리는 지난날 여주가 국가의 동량을 배출해 내는 인재의 산실이었음을 알게 될 것입니다. 또한 우리와 우리 후손들에게 자긍심을 길러주고 애향심을 높이는 계기가 되리라 확신합니다.

정성들여 만든 책이기에 널리 읽혀지고 읽는 사람마다 여주와 여주인들을 새롭게 인식할 수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다시한번 『여주와 함께 한 사람들』의 발간을 여러분과 함께 기뻐하면서 이 책이 나오기까지 애쓰신 관계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03년 4월

여

백



여주문화원사무국장 조성문

‘과거는 미래를 비추는 거울’ 이라고 한다.
 근래들어 침체일로에 있는 우리 여주의 현실을 안타깝게 여기던 중에 지난 날 화려했던 여주의 명성속에서 오늘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희망찬 미래로 나가는 용기를 얻을 수 있으리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다. 다행히 세종신문이 지면을 빌려주어 그 생각을 모자란 글로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얻었고 그로부터 5년의 세월이 흘렀다.

역사를 제대로 공부하지 못했던 터라 세상을 보는 안목이 일천했으며 흩어져 있는 사료속에서 여주관련 기사를 찾아내는 데도 서툴렀다. 그러나 부족한 글을 애정어린 시선으로 꼼꼼히 훑어보시고 격려와 성원을 보내주신 독자들 덕분에 오늘에 이르렀다. 진심어린 감사를 드린다.

역사속에서 여주와 함께 했던 분들을 찾아 다니는 일은 늘 놀라움의 연속이었다. 한마디로 여주없이 조선왕조 오백년을 상상한다는 것은 불가능할 정도였다. 소용돌이치며 흐르는 역사의 길목에는 어김없이 여주인들이 자리잡고 있었으며 국난은 여주인들의 열정과 희생으로 극복되곤 하였다. 이 자랑스러운 선조들의 일면을 『여주와 함께 한 사람들』 속에 담았다.

만물이 새로운 삶을 위해 약동하는 이 봄에 우리 핏속에서 면면히 흐르고 있을 그 빛나고 소중한 여주인의 정신이 솟구쳐 올라, 꽃망울 터지듯 저 암울한 기운들을 한순간에 희망으로 바꾸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여주와 함께 한 사람들』을 읽는 분들의 따가운 질책을 기다리면서 다시 한번 이 책이 나올 수 있기까지 힘이 되어주신 모든 분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목차

여주를 아십니까? / 11
여주의 왕비(王妃) / 13
서희(徐熙) / 15
이규보(李奎報) / 19
순경태후(順敬太后) / 21
이곡(李穀) / 23
이집(李集) / 25
나옹화상(懶翁和尚) / 27
이색(李穡) / 29
문익점(文益漸) / 31
김구용(金九容) / 33
민재(閔齊) / 35
이존오(李存吾) / 37
권근(權近) / 39
이직(李穰) / 41
우왕(禡王) / 43
경안공주(慶安公主)와 권규(權珪) / 45
이인손(李仁孫) / 47
세종대왕(世宗大王) / 49
소헌왕후(昭憲王后) / 61
이계전(李季甸) / 63
김수온(金守溫) / 65
권총(權聰) / 67
안평대군(安平大君) / 69
어세겸(漁世兼) / 71
최숙정(崔淑精) / 73
단종(端宗) / 75
임사홍(任士洪) / 77
임승재(任崇載) / 79
이장곤(李長坤) / 81
김안국(金安國) / 83
윤사익(尹思翼) / 85

신광한(申光漢) /87
 윤개(尹溉) /89
 윤옥(尹玉) /91
 김주(金澍) /93
 충(忠)·효(孝)·열(烈)의 정씨 일가 /95
 원호(元豪) /97
 이충원(李忠元) /99
 홍진(洪進) /101
 이원익(李元翼) /103
 한백겸(韓百謙) /105
 경섬(慶暹) /107
 정엽(鄭曄) /109
 이식(李植) /111
 이괄(李适) /113
 원두표(元斗杓) /115
 홍명구(洪命耆) /117
 조수익(趙壽益) /119
 여강칠우(驪江七友) /121
 송시열(宋時烈) /123
 홍명하(洪命夏) /125
 조한영(曹漢英) /127
 윤휴(尹鑣) /129
 인선왕후(仁宣王后) /131
 효종대왕(孝宗大王) /133
 이완(李浣) /143
 유흥원(柳馨遠) /149
 민정중(閔鼎重) /151
 민유중(閔維重) /153
 김창집(金昌集) /155
 민진장(閔鎭長) /157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연니 /159
 민진후(閔鎭厚) /161

민진원(閔鎭遠) /163
인현왕후(仁顯王后) /165
홍치중(洪致中) /167
이재(李紱) /169
원경하(元景夏) /171
김양행(金亮行) /173
임윤지당(任允摯堂) /175
김이소(金履素) /177
박준원(朴準源) /179
이문원(李文源) /181
정수영(鄭遂榮) /183
김관주(金觀柱) /185
정순왕후(貞純王后) /187
정약옹(丁若鏞) /189
박종경(朴宗慶) /191
여주의 순교자들 /193
박규수(朴珪壽) /195
홍순목(洪淳穆) /197
최시형(崔時亨) /199
이사벨라 비숍 /201
이세보(李世輔) /203
홍계호(洪啓薰) /205
홍만식(洪萬植) /207
민응식(閔應植) /209
명성황후(明成皇后) /211
홍영식(洪英植) /217
민용호(閔龍鎬) /219
염계달(廉季達) /221
나혜석(羅惹錫) /223
황월선전(黃月仙傳) /225
어떤 여주어인 /227
갑들이와 갑순이 /229

여주를 아십니까?

아득한 옛날, 하늘이 처음 열리고 땅이 생겨난 후 부터 대지를 적시며 생명을 키워갔던 여강의 숨결을 아십니까?

역사가 기록하는 첫 이름이 골내근이며 황려라기도 하고 여흥이라 불리기도 하다가 여주로 이름이 바뀐 내력을 아십니까?

1000명도 넘는 스님들이 모여 자신과 나라를 지탱해가며 밤을 낮삼아 용맹정진하던 청정한 도량의 터를 아십니까?

벽돌 하나 놓으며 무병장수를 빌고 다른 하나에 무사항해를 빌며 또 다른 하나에 극락왕생을 빌면서 탑으로 세운 염원이 아련한 향기로 남은 사연을 아십니까?

한 사람의 부귀와 영화가 아니라 조선이라는 한 국가의 운명을 100년 썩이나 연장했다고 믿어지는 복된 땅에서 살고 계신 줄은 아십니까?

옥좌에서 내려져서 영월로 쫓겨가던 어린 임금의 사무친 설움을 눈물로 흘뿌리며 이 땅의 한 자락을 적시고 간 사실을 아십니까?

임금과 더불어 나라의 안위와 백성의 삶을 보살피던 지고 지순한 왕비의 자리, 이 땅에서 피와 살을 받아간 왕비가 여덟이 넘고 있음을 아십니까?

지금의 우리는 반도 안에서 자꾸 왜소해져 가지만 대륙 경영을 위해 북벌을 준비하던 웅대한 기상의 주인공들이 우리 곁에서 부활을 꿈꾸고 있음을 아십니까?

세상사에 시달려 삶이 고달팠을 때 내노라 하던 시인 묵객들이 여주팔경에 취해 시를 읊고 마음을 씻으며 시름을 풀었던 시절을 아십니까?

반성하지 않는 민족에게 역사는 비슷한 운명으로 다가오는 법입니다.

주변 강대국들과 서양세력이 각축을 벌이던 100여 년전 바로 그때, 기울어져 가는 왕조를 붙들며 세우려고 노심초사하다 비극적 최후를 맞은 국모가 주는 교훈을 아십니까?

사람이 곧 하늘이라며 누천년의 질곡에서 벗어나고자 토해내던 황토빛 함성이 아직도 주록리에서 들리고 있음을 아십니까?

월송리로 숨어든 장길산의 연인 묘옥, 그녀를 보호하기 위해 목숨을 건 창리의 이경손, 이들 애뜻한 연분이 가쁜 숨을 몰아쉬며 양섬 갈대밭을 지나 송파로 흘러간 그 밤을 아십니까?

세종대왕!

그 이름만으로도 태평성대를 연상케 하시는 분, 우리가 이 분과 함께 세계로,
미래로, 나가야 할 소명이 있음을 아십니까?

햇볕에 바래면 역사가 되고 달빛에 물들면 전설이 된다는데

그대! 진정

일광과 월광이 스민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여주를 아십니까?



▲남한강 전경

여주의 왕비(王妃)

여주출신 왕비는 과연 몇 분이나 되는 걸까? 그동안 떠들던 8왕비, 10왕비, 11왕비의 진상을 왕실의 족보인 선원계보기략(璿源系譜紀略)의 내용을 참조하여 알아보자.

- ① 고려 원종비(高麗 元宗妃) 순경태후(順敬太后) 김씨(金氏, ?~1236년 충렬왕의 어머니) 적 경주(籍 慶州). 탄강 황려현(誕降 黃驪縣) 추밀부사(樞密副使) 김약선의 딸.
- ② 태조대왕비(太宗大王妃)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閔氏, 1365~1420 세종대왕의 어머니) 적 여흥(籍 驪興). 탄강 송경철사(誕降 松京鐵祠 - 개성). 여주태생이라는 설이 있음. 여흥부원군(驪興府院君) 민제의 딸.
- ③ 숙종대왕계비(肅宗大王繼妃) 인현왕후(仁顯王后) 민씨(閔氏, 1667~1701) 적 여흥(籍 驪興). 탄강 반송방(誕降 盤松坊-마포) 영돈녕부사 여양부원군(領敦寧府事 驪陽府院君) 민유중의 딸.
- ④ 영조대왕계비(英祖大王繼妃) 정순왕후(貞純王后) 김씨(金氏, 1745~1805) 적 경주(籍 慶州) 탄강 여주읍내(誕降 驪州邑內). 영돈녕부사 오흥부원군(領敦寧府事 鰲興府院君) 김한구의 딸.
- ⑤ 순조황제비(純祖皇帝妃) 순원숙황후(純元肅皇后) 김씨(金氏, 1789~1857 익종의 어머니) 적 안동(籍 安東) 탄강 양생방(誕降 養生坊). 영돈녕부사 영안부원군(領敦寧府事 永安府院君) 김조순의 딸.
- ⑥ 헌종대왕비(憲宗大王妃) 효현왕후(孝顯王后) 김씨(金氏, 1828~1843) 적 안동(籍 安東) 탄강 안국방(誕降 安國坊-안국동). 영돈녕부사 영흥부원군(領敦寧府事 永興府院君) 김조근의 딸.
- ⑦ 철종대왕비(哲宗大王妃) 철인왕후(哲仁王后) 김씨(金氏, 1837~1878) 적 안동(籍 安東) 탄강 순화방(誕降 順化坊) 영돈녕부사 영은부원군(領敦寧府事 永恩府院君) 김문근의 딸
- ⑧ 고종황제비(高宗皇帝妃) 명성황후(明成皇后) 민씨(閔氏, 1851~1895 순종의 어머니) 적 여흥(籍 驪興) 탄강 여주 근동면 십락리(誕降 驪州近東面蟾樂里). 증 영의

정 여성부원군(贈 領議政 驪城府 院君) 민치록의 딸

⑨ 순종황제비(純宗皇帝妃) 순명효황후(純明孝皇后) 민씨(閔氏, 1872~1904)

적 여흥(籍 驪興) 탄강 양덕방(誕降 陽德坊) 증 영의정 여은부원군(贈 領議政 驪恩府院君) 민대호의 딸.

⑩ 정조대왕(正祖大王) 가순궁 현목수빈(嘉順宮 顯穆綏嬪) 박씨(朴氏, 1770~1822 순조의 어머니)

적 반남(籍 潘南) 탄강 양주(誕降 楊州) 증 영의정(贈 領議政) 박준원의 딸

⑪ 순목대원왕비(純穆大院王妃) 민씨(閔氏, 고종의 어머니)

적 여흥(籍 驪興) 탄강 한성(誕降 漢城) 증 영의정(贈 領議政) 민치구의 딸

이를 세분해 보면 여주에서 태어나신 분이 ① ② ④ ⑧ 왕비이고, 아버지가 여주에서 태어나신 분이 ③ ⑨ ⑩ ⑪ 왕비이며, 여주를 내향(內鄉 ; 왕비의 친정이 있는 곳) 으로 두신 분이 ⑤ ⑥ ⑦ 왕비이다.

그러므로 여주출신왕비가 11왕비라 함은 ①~⑪의 왕비를 말하고, 10왕비라 함은 ②~⑪의 조선시대 왕비를 말하며, 8왕비라 함은 ⑩은 왕비가 아닌 빈(嬪)이었고 ⑪도 아들 고종이 나중에 추증하였으므로 ⑩과 ⑪을 제외한 ②~⑨의 왕비를 지칭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서희(徐熙) 1

서희(徐熙, 943~998) 고려 초기의 정치가이며 외교가. 본관은 이천(利川), 자는 염윤(廉允), 내의령(內議令)을 지낸 필(弼)의 아들이다. 서희의 아들 눌(訥)은 수상인 문하시중을 지냈으며 눌의 딸은 현종의 비가 되었다.

993년 거란이 고려를 침입했을 때 안용진(安戎鎭)에서 적장인 동경유수 소손녕(簫遜寧)과 담판하여 80만 대군을 철수케 한 서희의 외교는 국가존망의 위기를 극복한 쾌거였다. 최근의 「코소보」사태에서 보더라도 전쟁은 예나 지금이나 파괴와 약탈과 죽음을 수반하는 비극적 행위다.

천 년 전, 세치의 혀로 참혹한 전쟁을 막은 서희 외교술이 돋보이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더구나, 한일 어업협상에서 우리 어민의 조업방식 중에 하나인 “쌍끌이”를 제외시킨 무지를 보면서 서희의 존재가 우러러 보이기까지 하는 요즈음이다. 우리는 자주 서희의 외교적 활약을 이야기 하지만 당시 어떤 논리로 적장을 굴복시켰는가에 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한 감이 없지 않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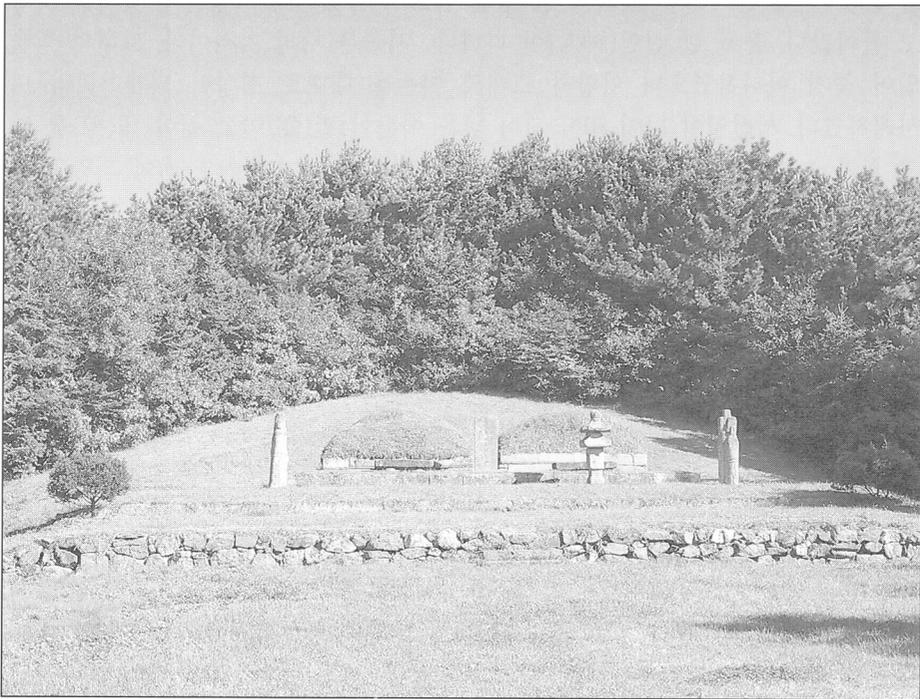
고려사(高麗史)의 기록을 보며 알아보자.

성종 12년(993)에 거란이 침입하자 서희는 중군사가 되어 시중 박양유, 문하시랑 최량과 함께 군사를 이끌고 북계에 나아가 적에 대비하고 있었다. 그러나 전세가 불리해지자 조정안에서는 항복하자는 주장과 대동강 이북의 땅을 빼어주자는 할지론(割地論)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성종은 장차 땅을 빼어주자는 의견을 좇고자 하여 서경의 창고곡식을 백성에게 나누어 주고, 그래도 남는 양곡은 적이 이용할까 두려워 대동강에 던져버릴 것을 명하였다. 이때 서희가 「식량이 넉넉하면 성을 지킬 수 있고, 싸움에서 승리할 수도 있습니다. 전쟁의 승패는 병력이 강하고 약한데만 달린 것이 아니라 적의 약점을 잘 알고 행동하면 되는 것입니다. 더구나 양식은 백성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설령 적에게 이용될지언정 어찌 헛되이 강에 버릴 수 있겠습니까?」 하니 성종이 그의 의견을 옳게 여겨 그만두게 하였다. 또 「서경 이북의 땅을 갈라주는 것은 만세의 치욕이며, 적과 한번 싸워본 뒤에 논의하여도 늦지 않다」고 주장하였다.

소손녕이 「80만 명의 군사가 도착하였다. 만일 강변까지 나와서 항복하지 않으면 섬멸할 것이니, 군신들은 빨리 우리 군영앞에 와서 항복하라」고 위협하며 「고려가 신라땅에서 일어났으나,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고구려땅을 침식하고 있고 우리 거란과 인접해 있으면서도 바다 건너 송나라를 섬기는 까닭에 정벌하러 왔으니 땅을 떼어 바치고 국교를 회복하면 무사할 것」이라고 하였다. 이에 서희

가 「그렇지 않다. 우리 나라는 고구려의 후계자라, 그러므로 나라이름을 고려라 하였다. 그리고 경계를 가지고 말한다면 귀국의 동경이 우리 국토안에 들어와야 한다. 또 압록강 안팎도 우리 땅인데 지금 여진이 가로막고 있다. 그러니 국교가 통하지 못하는 것은 여진 탓이다. 만일, 여진을 구축하고 우리의 옛 땅을 돌려주어 길이 통하게 되면 어찌 국교를 맺지 않겠는가?」하니 마침내 소손녕이 자기네 임금 성종의 지시를 받아 철수하였다. 그 결과 고려는 강동 6주를 얻고 국경을 압록강까지 넓히게 되었던 것이다.

서희, 이 외교의 천재가 금사면 후리 산 53-1번지에 잠들어 있다.



▲ 서희묘

서희(徐熙) 2

지난 11월 7일과 8일 이틀동안 세종문화회관에서는 이천 문화원이 주최하고 이천 서씨 대종회가 후원하는 서희 서거 1,000주기 추모학술대회가 열렸다. 알려진 대로 서희는 이천에서 태어나 여주(금사면 후리 상두산)에 묻혀있다. 한때의 생(生)은 이천에서 받았으며 영구한 생을 여주에 의탁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기에 서희의 생애를 조망하는 1,000주기 추모행사가 여주를 배제하고 열린 것이 못내 아쉽기만 하다. 이 아쉬움의 한 자락을 밑바닥에 깔고 서희의 생애를 들여다 보자.

“국초(고려 초)에 서신일(徐神逸)이 교외에 살고 있었는데 하루는 사슴이 화살에 맞은 채 달려왔다. 신일이 그 살을 뽑고서 숨겼더니 사냥꾼이 찾지를 못하고 돌아갔다. 꿈에 한 신인(神人)이 나타나 ‘사슴은 나의 자식이다. 그대의 힘을 입어 죽지 아니하였으니 마땅히 그대의 자손을 대대로 재상이 되게 하리라.’며 사례하였다. 서신일이 나이 80이 되어 낳은 아들이 필(弼)이고 필이 희(熙)를 낳고 희가 놀(誦)을 낳았는데 과연 계속해서 태사내사령(太師內史令)이 되었고 묘정에 위패를 모셨다.” <역옹패설 이재현>

서희는 서필의 둘째 아들이었는데 성격이 위엄이 있고 바르며, 삼가고 상대방을 공경하였다. 그의 절도있고 강직한 성품을 말해주는 일화들이 있다.

1) 왕이 몰래 절에 가서 놀아서는 안 된다.

성종 2년(983년) 병관어사(兵官御事)가 되어 왕을 따라 서경에 갔을 때 성종이 몰래 영명사에 가서 놀고자 하자 서희가 글로써 극력 만류하니 왕이 계획을 중지하고 도리어 안장과 말을 상으로 내리고 내사시랑(內史侍郎)으로 승진시켰다.

2) 왕이 신하의 막사에 들어와서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왕을 호위하고 해주에 갔을 때 성종의 서희의 막사에 들어오려 하자 ‘신의 막사는 임금께서 들어오실 곳이 못 됩니다.’ 하였고 술을 올리라 명령하자 ‘신의 술은 드릴 만한 것이 못 됩니다.’ 하니 성종이 마침내 막사밖에 앉아서 여주를 올리도록하여 함께 마시고 끝냈다.

3) 옳은 말하는 데는 관직의 높낮이가 없다.

공빈령(供賓令) 정우현(鄭又玄)이 올린 시정 7사의 봉사가 왕의 뜻에 거슬러 처벌의 위기에 몰렸을 때 홀로 ‘옛날에는 임금께 간하는데 관직의 제한이 없었는데 직책을 벗어났다는 것이 무슨 죄입니까? 저는 졸렬한 자질로 외람되이 재

상의 지위에 있으면서 직책을 다하지 못하여 관직이 낮은 사람으로 하여금 정치와 교화에 잘잘못을 논하게 하였으니 이는 저의 죄입니다.’ 라고 하여 정우현을 감찰어사로 뽑게 하였다.

4) 성종 12년(993년) 거란침입시 적이 식량을 군량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왕이 대동강에 버리려하자 ‘양식은 백성의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설령 적에게 이용 될지언정 어찌 헛되이 강에 버린단 말입니까?’ 하며 반대했다.

5) 소손녕이 대국의 귀인으로 자부하고 하대(下待)하려하자 이를 거부하고 동등한 예를 주장하며, 화를 내며 숙소로 돌아와 누워 움직이지 않았다.

서희는 거란의 80만 대군을 혼자서 물리친 외교가다. 외교 담판에서 서희가 거둔 승리는 개인적인 차원에서 보면 그의 외교적인 승리이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고려란 민족국가의 역사성, 고려의 국력에 기초한 고려외교의 자주성과 유연성이 뒷받침된 승리라 할 수 있다. 거란의 1차 침입을 평화적으로 해결하면서 강동 6주의 영토를 확장한 서희의 외교술은 통일을 갈망하면서 새천년, 세계로 뻗어가려는 우리에게 타산지석의 교훈이 될 것이다.

이규보(李奎報)

고려시대 대표적인 문장가로서 사종(詞宗)이라 일컬어지는 이가 바로 백운거사 이규보이다. 이규보(李奎報, 1168~1241)는 여주사람으로 초명은 인지(仁氏), 자는 춘경(春卿) 호는 백운거사(白雲居士)라고 하였다. 22세 때 사마시에 응시하려던 중, 꿈에 규성(奎星 : 이십팔 수 중 하나로 문운(文運)을 주관하는 별)이 나타나 이서(異瑞: 길조)를 보(報)하여 장원 급제한 뒤부터 이름을 규보라 고쳤다. 글을 잘 지어 9세 때 이미 기동(奇童)이라 이름이 나있던 백운거사는 11세 때 숙부가 자기 친구들 앞에서 장난삼아 시를 짓게 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시를 보고는 좌중이 모두 놀랐다.

지로장행모학사(紙路長行毛學士) 기나긴 종잇길에 모학사(붓)가 가고
배심상재국선생(盃心常在麴先生) 술잔의 마음은 항상 국선생(누룩)에 있다.

백운거사는 술을 좋아하여 사마시에 3차례나 떨어졌다. 그가 지은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백운소설에 “당나라 백낙천(白樂天)과는 음주와 광음영병(狂吟詠病)이 천생 같아 낙천을 스승으로 삼는다.”라고 쓸 정도로 시주(詩酒)를 즐겼다. 또 시와 술 외에 거문고를 즐겨 스스로 삼혹호(三酷好)선생이라고 부르기도 했다. 동국이상국집에만 2천 수 이상의 시를 남길 정도로 시를 사랑한 백운거사에게 시는 떼어버릴 수 없는 마(魔)와 같은 존재였다.

시불비종천상강(詩不飛從天上降) 시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건만
노신수득경여하(勞神搜得竟如何) 어이해 애태우며 찾으려는가
호풍명월초상유(好風明月初相諭) 좋은 바람 밝은 달 처음엔 좋아하지만
착구성여즉시마(着久成悵卽詩魔) 오래되면 홀리나니 이게 바로 시마라네

위 시는 삼마시(三魔詩)중에 하나로 이규보 자신이 “내가 연로하여 색욕을 물리쳤으되 시주(詩酒)는 버리지 못했다. 그러나 시주도 때로 흥미를 붙일 뿐 벽을 이루어서는 아니 되니 벽을 이루면 곧 마가 되는 것이다. 내 이를 걱정한지 오래라 점차 덜고자 하여 삼마시를 지어 내 뜻을 보인다.”고 토로하면서 지었던 시다.

백운거사를 두고 같은 시대를 살았던 진엽(陳擘)은 직선(謫仙)의 일기(逸氣)

가 만상(萬象)밖에 서있는 것 같다고 하였고 최자(崔滋)는 일월(日月)과 같아서 감히 칭찬할 수가 없는 천재의 준일(俊逸)한 분이라고 평하였다.

백운거사에게는 개성 서쪽 교외에 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아담한 별장이 있었는데 사가재(四可齋)라 이름하였다. 농토가 있어 가히 양식을 공급할 수 있고 뽕밭이 있어 가히 누에를 쳐서 옷을 지을 수 있고 샘물이 있어 가히 마실 수 있고 나무숲이 있어 가히 뽕감을 조달할 수 있으니 마음에 가한 것이 4가지가 있으므로 사가재라 명명했다. 이곳에서 전원생활의 정취를 맛본 백운거사는 장차 고향인 여주로 돌아와 태평 세월의 농수(農叟)가 되려는 결심을 굳힌다. 그러나 몽고군이 고려를 침략하자 임금을 따라 강화도로 피난한 후 그 곳에서 74세를 일기로 숨졌다.



▲ 백운거사 이규보 시비

순경태후 (順敬太后)

순경태후의 남편인 원종(元宗, 1219~1274)이 즉위하던 때는 7차에 걸친 몽고의 침입이 끝나가고 있던 시기였다. 그러나 30년에 걸친 처절한 대몽항쟁을 포기하고 항복을 택한 고려에게 찾아온 것은 평화가 아닌 또 다른 고난이었다. 유목민족인 몽고족이 세운 원나라는 다른 나라를 정복하면 그 지역의 모든 것을 전리품으로 간주하였다. 그들은 고려에 금, 은, 사냥용 매, 인삼, 잣, 약재 등은 물론 사람까지도 요구하였다. 남자는 거세되어 궁중의 환관으로, 여자는 처·첩, 궁녀, 잡역부등으로 끌려갔다. 공물처럼 바쳐진 고려 여인들을 공녀(貢女)라 일컫는다. 1274년(원종15) 3월 원나라에 투항한 남송인(南宋人)들에게 처를 얻어주기 위해 원나라가 무부녀(無夫女) 140명을 달라고 한 것이 우리나라 공녀선발의 시작이었다. 이에 고려는 결혼도감을 설치하여 여염집의 독신녀, 역적의 처, 파계승의 딸등을 찾아 숫자를 채웠다. 공녀는 ①원나라 황실의 후궁, 궁녀, 시첩, 시비등으로 바치는 공녀 ②원나라의 귀족이나 고관들이 구해가는 공녀 ③원나라에 투항한 송나라 사람들과의 혼인을 위한 공녀 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중 ①과②의 경우에는 반드시 13세에서 16세사이의 나이 어린 처녀라야 했다. 이후 공민왕이 본격적으로 반원정책을 펴기 시작하는 1356년(공민왕5)까지 80년간 1만여명에 이르는 공녀들이 공식적으로 원나라에 보내졌다. 하지만 비공식 또는 전쟁중에 원나라로 끌려가 성의 노리개감이 된 고려여인의 수는 수십만명에 이르고 있다. 이렇듯이 공녀의 헌납이 본격화하자 딸이 공녀가 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일찍 결혼시키는 조혼(早婚)의 풍습이 생겼던 것이다.

이 반인륜적인 처사에 분노한 가정(稼亭) 이곡(李穀)이 원나라 순제에게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려 한 때 공녀의 헌납을 중지시키기도 하였다.

「여자들을 모아들여 공녀를 선발하는데, 예쁜 여자도 있고 미운 여자도 있습니다. 사신에게 뇌물을 먹여 그 욕심을 채워주면 비록 미인이라도 놓아주고 다른데서 구합니다. 이러다보니 한 여자를 얻으려 수백 집을 뒤지게 됩니다. 오직 사신의 말만 통할 뿐 누구도 어길 수 없습니다. 황제의 명령을 띠고 왔다고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 일들은 1년에 한 번 또는 두 번, 아니면 2년마다 벌어지고 있습니다. 한번에 데려가는 여자의 수는 많게는 40-50명에 이릅니다. 공녀로 뽑히면 부모와 친족이 서로 모여 곡을 하는데, 밤낮으로 우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공녀를 나라 밖으로 떠나보내는 날이 되면, 옷자락을 부여잡아 끌다가 난간이나 길에 엎어집니다. 울부짖다가 비통하고 분하여 우물에 몸을 던지거나 스

스로 목을 매어 죽은 자도 있습니다. 근심 걱정으로 기절하거나 피눈물을 흘려 실명한 자도 있습니다. 이런 예들은 이루 다 기록할 수가 없습니다. …」

순경태후가 결혼 이듬해에 낳은 아들이 충렬왕(忠烈王, 1236~1308)이다. 충렬왕은 태자시절 아버지 원종의 자청에 의해 원나라 세조(쿠빌라이)의 큰딸과 혼인하는데 이로부터 고려는 원나라의 부마국(駙馬國)이 되어 자주권을 잃게 된다. 자주권 상실의 상징으로 고려의 모든 호칭이 바뀌었다. 임금은 조(祖)나 종(宗) 대신에 한등급 낮은 왕(王)이라는 시호를 써야 했으며 원나라에 대한 충성의 뜻으로 '忠' 자를 붙였다. 선지(宣旨)는 왕지(王旨), 짐(朕)은 고(孤), 폐하는 전하, 태자는 세자로 바뀌었다. 관제도 고치기를 강요당했는데 중서문하성과 상서성을 합쳐 첨의부로, 추밀원은 밀직사로, 어사대는 감찰사로, 육부는 전리·군부·판도·전법사등 4개의 부서로 축소 조정되었다. 순경태후는 1235년 원종이 태자로 책봉될 때 궁에 들어와 경목현비(敬穆賢妃)로 봉해졌으며 충렬왕을 낳고는 곧 죽었다. 1262년(원종3) 정순왕후(靜順王后)로 추봉되고 1274년 충렬왕이 즉위하자 순경태후로 추존되었다. 1305년(충렬왕31)에 황려현이었던 여주는 태후의 고향이라 하여 여흥군으로 승격하였다.

이곡(李穀)

이곡(李穀, 1298~1351)의 본관은 한산(韓山)이며 자는 중부(仲父), 호는 가정(稼亭). 자성(自成)의 아들이며 색(穡)의 아버지이다. 충청도 한산의 이름 없는 향리의 셋째 아들로 태어난 이곡은 13세에 부친을 여의고 고향을 떠나 유랑하다 영해(寧海 : 지금의 경북 영덕군 영해면)에 정착하여 그 지방의 토호인 함창김씨(咸昌金氏) 김택(金澤)의 사위가 된다.

이곡의 청년기는 원나라가 고려를 지배하기 시작하던 시기로서 원나라를 배척하던 세력들이 무너지고 원나라에 동조하는 세력들이 부상하면서 신분체제가 재편되던 때였다. 더구나 원나라로부터 주자성리학이 전해지면서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한 새로운 과거제도가 실시되고 있었다. 그 당시 과거제도란 지방향리의 자제가 중앙귀족으로 신분상승을 할 수 있는 유일한 통로이기도 했다. 이곡은 충숙왕 4년(1317) 20세의 나이로 거자과(擧子科)에 급제하였고 3년 뒤 문과에 다시 급제하였으나 출신이 워낙 한미하여 크게 빛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이곡은 원나라 과거를 통해 입신을 꿈꾸게 된다. 29세 때인 충숙왕 13년(1326) 원나라에서 치르는 정동행성(征東行省) 향시(鄉試)에 3등으로 합격하고 36세되던 충숙왕 복위2년(1333), 원나라 전시(殿試)에서 당당히 갑과 2등으로 합격한다. 고려인으로서 이런 성적을 거둔 것은 이곡이 처음이었다. 고려로 돌아온 이곡은 정당문학(政堂文學, 종2품), 진현관(進賢館)대제학, 광정대부(匡靖大夫, 정2품), 도첨의(都僉議) 찬성사(贊成事) 등의 벼슬을 하였고 뒤에 한산군(韓山君)에 봉해졌다.

이곡은 포의(布衣 : 평민)에서 일어나 재상의 지위에 오른 사람이다. 지금도 불우했던 한 시절을 떨쳐버리고 부귀와 공명을 얻는 이들이 적지않다. 그러나 이곡 - 이색 - 이종선(李種善) - 이계주(李季疇) - 사육신의 한사람인 이개(李愷)로 이어지는 가계에서 보듯이 대를 이어 깨끗한 이름을 전하는 이들이 사라진지 오래다.

이곡이 여주에서 귀양살이 할 때의 이야기다.

당시 원나라에서는 고려의 동녀들을 마구 징발하여 갔기에 고려인들로부터 원성이 높았었는데 이곡이 원나라 황제에게 고하여 동녀차출을 금지시켰다. 이를 못마땅하게 여긴 원나라 관리들이 고려에 압력을 넣었고 압력을 못이긴 이곡은 어쩔 수 없이 원주 지내촌(지금의 북내면 가정리)으로 귀양을 오게 되었던 것이다. 어느 여름 갑작스런 폭우에 금당천이 범람하였는데 이상하게도 금당천 한

북편을 중심으로 여흥쪽으로는 홍수가 넘쳐나고 강원도 쪽은 물이 얇아 낚시질 하기에 좋을 정도의 여울이 졌다고 한다. 이즈음 개성으로부터 하루를 사이에 두고 두패의 군사들이 이곡을 찾아 여흥으로 내려오고 있었다. 먼저 내려온 군사들은 이곡을 억류하여 멀리 영해로 귀양지를 옮기게 하라는 명을 받고 오는 군사들이요, 뒤에 내려온 군사들은 귀양지를 옮기지 말고 석방하여 대궐로 모셔 오라는 새로운 명을 받고 온 군사들이었다. 먼저 온 군사들은 홍수로 인해 금당천을 건너지 못하였고 하루 뒤에 도착한 군사들은 물이 빠진 금당천을 건너 이곡을 개성으로 모셔갔다는 이야기가 오늘에 전하고 있다. 착한 이는 하늘이 돕는다는 진리에 다름아닌 이야기다. 이곡이 머물렀던 북내면 가정리의 지명이 이곡의 호에서 유래된 것임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이곡은 유학의 이념으로써 현실문제에 적극적으로 접근하였으나 항몽전쟁에 실패한 이후 원나라에 예속되어가던 고려에서 그의 이상은 실현되지 못하였다. 그의 심회가 반영된 시들이 [동문선]에 100여편 가까이 수록되어있다. 이곡은 한산의 문헌서원(文獻書院), 영해의 단산서원(丹山書院)등에 배향되었고 저서로는 [가정집] 4책 20권이 전한다. 시호는 문효(文孝)이다.

이집(李集)

만리 길 나서는 길 처자를 내 맡기며 맘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중략)
- 그 사람을 가졌는가 < 함석헌 >

이 집은 그 사람을 가졌으리라 믿어진다. 그가 개성 용수산(龍首山) 아래 살고 있을 때 대중 앞에서 신돈의 전횡을 비판한 일이 있었다. 이 일로 생명의 위협을 느끼자 가족들과 함께 아버지를 등에 업고 남모르게 경북 영천에 있는 최원도(崔元道)의 집을 찾아갔다. 마침 그날 최원도는 마을 사람들을 모아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는데 이집을 보자 짐짓 노한 기색을 띠우며 “이것은 화(禍)를 신고와서 서로 함께 하자는 것이다.” 하고는 소리쳐 내쫓고 이집이 앉았던 사랑채까지 불질러 버렸다. 쫓겨난 이집은 “최우(崔友)는 나의 지심우(知心友; 서로 뜻이 통하는 친구)인데 이는 필시 나를 위하는 짓이라.” 생각하고 가까운 숲속에 머물며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과연 밤이 깊어지자 최원도가 지팡이를 끌고 이집이 있는 곳으로 와서 “이우(李友)는 여기 있는가.”하고 찾으니 서로 얼싸안고 집을 돌아가 낮에는 다락 위에서 거처하고 밤에는 규중(關中)에서 자게 되었다. 얼마 뒤 이집을 잡으려는 군사들이 영천까지 왔으나 문전박대를 받고 쫓겨났던 그가 다시 최원도의 집에 머물고 있는 줄은 까맣게 몰랐다. 이집은 이곳에서 3년간 은거하는데 1년이 채 되기 전에 이집의 아버지가 별세했다. 이집의 아버지를 극진히 봉양하던 최원도는 장례를 준비하고 슬퍼함에 있어서도 친부모와 다름없이 하였다. 최원도는 이집의 아버지를 자신의 선영에 모셨다. 얼마 뒤 이집이 ‘조선의 8대명당’에 드는 곳을 찾아내고는 “내가 자네에게 입은 은혜는 태산같으나 갚을 길이 없네. 여기 명당자리를 상하로 두개를 얻었는데 밑에 명당은 한량없이 좋은 자리고 위의 묘터는 그저 쓸만한 터라네. 내가 은혜의 만분의 일이라도 갚는 뜻에서 아래터를 줄테니 부디 저버리지 말고 받아주게.”하니 최원도가 “아닐세. 자네와 나는 형제와 같은데 은혜 운운함은 말도 안 되네. 자네의 효심으로 얻은 자리인데 어찌 내 부모를 그 자리에 모시겠나.”하며 극구 사양하면서 자기의 부모를 윗자리에 모셨다. 이후 이집의 후손들이 산 밑

에 보은당(報恩堂)이라는 집을 지어놓고 최원도의 은혜를 추모했다고 한다. 이런 연유로 60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음력 10월 10일이 되면 경북 영천의 나현(蘿峴)에서는 양가가 같은 날에 묘제를 지내면서 서로 상대방의 조상에게도 잔을 올리고 참배하고 있다.

이집(李集, 1314~1387) 본관은 광주(廣州). 초명은 원령(元齡), 자는 성노(成老), 호는 묵암자(墨巖子) 또는 남천(南川). 광주 향리 이당(李唐)의 아들이다. 1347년 문과에 급제하여 합포종사(合浦從事)를 거쳐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에 이르렀다. 1371년 신돈이 죽자 개성으로 돌아와 도은(陶隱) 이승인(李崇仁)에게 이르기 “지금 나는 마치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것 같은데 어찌 이름만 옛것을 쓸 수 있겠는가?” 하고는 이름을 집(集), 자는 호연(浩然), 호는 둔촌(遁村)이라 하였다. 호연한 기운(浩然之氣)은 의가 모여야만 생긴다(集義所生)는 뜻으로 이름과 자를 정한 것이고 숨음(遁)으로써 난을 피할 수 있었기에 이를 잊지않기 위하여 호를 지은 것이다. 벼슬에 뜻을 잃은 이집은 여주로 내려와 이포강가에서 살면서 시를 지으며 일생을 마쳤다. 많은 사람들과 교류하였는데 특히 이색, 정몽주, 이승인, 김구용등과 친분이 두터웠다. 이집이 여강(驪江)에서 읊었던 시다.

일대장강요곽사(一帶長江繞郭斜) 한줄기 긴 강물 성곽을 돌아 흐르는데
 누대여화시인가(樓臺如畫是人家) 그림같은 누대들 인가가 분명하네
 여하재주춘풍리(如何載酒春風裏) 어찌하면 봄바람에 술가득 싣고
 간진선두양안화(看盡船頭兩岸花) 배를 저어 양 기슭 꽃들을 모조리 구경할까

나옹화상(懶翁和尚)

신록사가 그 이름에 품격을 더 할 수 있는 까닭은 공민왕때 왕사(王師)를 지낸 나옹화상과의 인연 때문일 것이다. 나옹(懶翁, 1320~1376) 법명은 혜근(惠勤, 慧勤)으로 성은 아(牙)씨, 속명은 원혜(元惠), 호는 나옹 또는 강월헌(江月軒). 시호는 선각(禪覺)이다. 아버지는 선관서령(膳官署令 : 궁중의 음식을 관리하는 직책)을 지낸 서구(瑞具)이며 어머니는 정(鄭)씨였다. 영해부(寧海府 : 지금의 경북 영덕) 사람으로 어머니가 꿈에 금빛 새매가 날아와 머리를 꼬다가 떨어뜨린 알이 품안으로 드는 것을 본 후에 그를 낳았다. 태어날 때부터 상서로운 기운이 있었는데 출생지인 영덕에 전해내려오는 설화에 의하면 나옹스님의 집은 아주 가난해서 나라에 세금을 제때에 바치지 못할 정도였는데 그 죄로 어머니가 관가에 잡혀가는 도중에 스님을 낳았다는 것이다. 무도한 관원들이 막무가내로 어머니를 끌고가자 핏덩이인 채로 버림받았던 스님은 날짐승이 날개로 덮어주어 살아나게 되었다고 한다.

자라면서 근기(根機)가 매우 뛰어나 출가를 청하였으나 부모가 허락하지 않아 뜻을 이루지 못하고 있다가 20세가 되던 해에 다정했던 친구의 죽음을 본 후 공덕산 묘적암의 요연(了然)스님에게서 머리를 깎았다. 4년 뒤 양주 회암사에서 깨달음을 얻은 후 원나라 연경에 가서 지공(指空)화상의 법을 이어받아 109대 조사가 되고 평산처림(平山處林)스님에게서 인가를 받아 일가를 이루게 되었다. 고려로 돌아온 나옹스님은 회암사 터가 인도의 나란다사와 비슷하니 그에 필적하는 대가람을 건립하고 싶었던 스승 지공스님의 소원대로 회암사 중창 불사를 일으켰다. 1376년(우왕 2)에 260여칸의 대규모 사원이 완성되자 4월 초파일에 낙성회를 가졌는데 서울과 지방의 선비와 아낙네들이 밤낮으로 왕래하여 생업을 폐지하기에 이르자 시기하는 무리들이 이를 금지시키려고 왕명을 빌어 스님을 경상도 밀양 영원사(靈源寺)로 추방하였다. 스님은 영원사로 가기위해 한강을 거슬러 오르다가 그의 제자들이 살고있는 신록사에서 5월 15일 열반하게 된다. 세수(歲首)가 56세, 법랍(法臘)이 37하(夏 : 스님이 된 뒤로 나이를 셀 때 쓰는 말)였다.

열반에 드는 순간에 오색의 채색구름이 봉미산 마루를 뒤덮었으며 화장하고 나서 유골을 씻으려 하자 구름한점 없던 하늘에서 비가 쏟아져 사방 수백보를 적셨다. 사리를 수습해보니 155알이었고 기도하자 다시 558알로 분신하였다고 한다. 장례의식이 끝난 뒤로 8일동안이나 신령스런 광채가 주변을 비추었으며 회

암사로 유골을 옮길 때에도 갑자기 강물이 불어나 배를 쉽게 띄울 수 있게 하는 등 이적(異蹟)이 끊이지 않았다.

그러나 나옹스님이 존경받는 진짜 이유는 현실과 유리된 고려 말의 불교를 대중속으로 불러들이기 위해 일반백성 누구나 쉽게 알아들을 수 있게 우리말 가사로 불교의 이치를 담은 서왕가(西往歌), 낙도가(樂道歌), 승원가(僧元歌) 등을 지은 때문이라 하겠다. 그러기에 최완수선생의 말대로 글자를 모르는 백성들을 위해 노력했던 나옹스님과 세종대왕이 함께 여주에 묻혀있음은 결코 우연한 일이 아닌 듯 싶은 것이다.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부도 밑에는 나옹스님의 정골사리 한조각이 모셔져 있다.



▲ 신륵사 보제존자 석종부도

이색(李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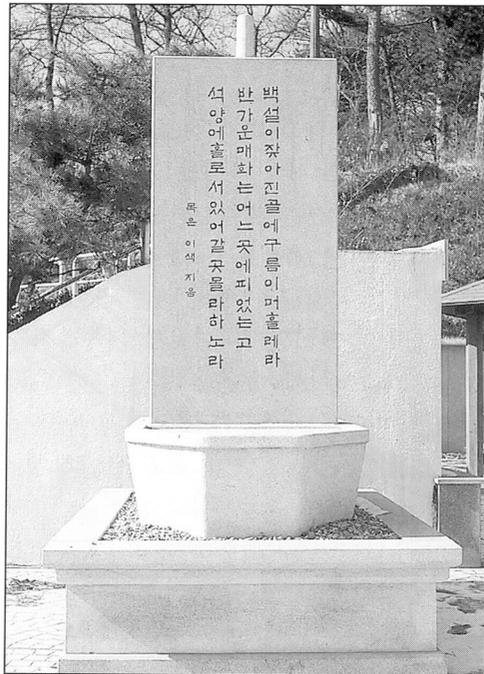
목은 이색처럼 여주를 사랑했던 사람도 드물다. 여주는 이색 자신의 유배지이자 부친 이곡의 유배지였으며 왕으로부터 하사받은 장원이 있던 곳이며 생을 마감한 곳이기도 하다. 이런 인연으로 이색은 평소에 여주로의 ‘귀거래’를 입에 달고 살았다. 그 애착의 결과가 목은집에 50여편의 시로 승화되어 전해지고 있다.

이색(李穡, 1328년~1396) 고려말의 문신으로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영숙(穎叔), 호는 목은(牧隱)이며 고려 삼은(三隱)중에 한사람이다. 가정 이곡의 외동아들로 영해 호지촌(豪池村)에서 태어났다. 1341년(충혜왕 복위2)에 성균시에 합격하여 진사가 되고 1348년(충목왕 4) 원나라에 가서 국자감의 생원이 되었으며 1351년(충정왕3) 아버지의 상을 당하자 귀국하였다. 1353년 (공민왕2) 고려문과에 을과 1인으로 장원급제, 숙옹부승(肅雍府丞)이 되고 이듬해 3월 원나라 제과의 회시(會試)에 1등, 전시(殿試)에 2등으로 합격하여 응봉한림문자(應奉翰林文字), 승사랑(承仕郎), 한림원경력(翰林院經歷)등을 역임하였다. 1357년에는 다시 고려에서 우간의대부(右諫議大夫)로서 유학에 의거한 삼년상 제도를 건의하여 시행토록 하였다. 이처럼 고려와 원나라를 오가면서 벼슬을 했던 목은은 공민왕의 배원정책에 호응하여 부원파(附元派)들을 제거하는데 앞장서 민족적 주권을 확립하므로써 왕의 총애를 독차지 하였다. 1388년(우왕14)은 목은이 회갑을 맞이하던 해였는데 이 해에 이성계가 위화도에서 회군하여 우왕을 폐하고 창왕을 옹립하였다. 그 후 이성계는 창왕을 폐하고 공양왕을 세우면서 이에 반대하는 목은과 그 차자인 이종학(李種學, 1361~1392)을 역모로 몰아 귀양을 보낸 다음 1392년(공양왕3) 포은 정몽주(圃隱 鄭夢周, 1337~1392)를 격살하고는 마침내 7월 17일 왕위에 올라 조선을 개국하게 되었던 것이다. 조선 개국후 유배에서 풀려나 부인과 함께 한산으로 내려갔던 목은은 두아들을 잃은 시름에 오대산, 여주등지로 방랑길에 오르게 된다. 이무렵에 태조 이성계는 옛친구의 예로 목은을 한산백(韓山伯)에 봉하고 토지등을 내려주었으나 목은은 끝내 응하지 않았다. 목은을 대하는 이성계의 태도에는 각별한 바가 있었는데 종종 목은을 왕궁으로 초빙하여 융숭하게 대접하고 헤어질 때는 중문까지 나가 읊(搦)하며 배웅하였다 한다. 항상 목은을 못마땅히 여긴 정도전 일파는 1396년 (태조5)에 목은이 여주 신흥사에서 피서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태조가 술과 안주를 내려보내 위로하려 하자 이를 기회로 술에 독을 넣어 목은을 죽게하니 이때가 5월 7일. 목은이

69세 되던 해였다. 목은 이색은 고려 말의 대정치가인 동시에 선비로 알려져 있지만 여말선초(麗末鮮初) 최고의 문장가이기도 했다. 이에 서거정은 그를 시성(詩聖)이라고 격찬하면서 이제현과 동렬의 대학자로 손꼽기도 했으며 이규보와 쌍주(雙柱)를 삼기도 하였다.

목은이 남긴 '여강(驪江)'이란 제목의 칠언절구중 한부분을 음미하며 그의 여주사랑에 대한 깊이를 가늠해 보자.

天地無涯生有涯(천지무애생유애)
 浩然歸志欲何之(호연귀지욕하지)
 驪江一曲山如畫(여강일곡산여화)
 半似丹青半似詩(반사단청반사시)
 하늘과 땅은 끝이 없고 인생은 끝이 있어
 호연히 돌아가려하니 어디로 갈 것인가
 여강 한굽이에 산은 그림인 듯
 반은 단청이요 반은 시와 같네



▲ 목은 이색 시비

문익점(文益漸)

중국 원나라에서 처음으로 목화씨를 들여와 우리나라 의생활 문화에 일대 변혁을 가져온 이가 문익점이다. 이 문익점이 능서면 번도리 매산서원에 배향되어 봄, 가을로 후손들에 의해 제향을 받고 있다. 매산서원은 세조때 경상남도 거창과 산청지방 유림들의 공의로 문익점의 학문과 덕행을 추모하기 위해 창건되었다. 그 뒤 목은 이색을 추가 배향하고 ‘매산(梅山)’이라는 사액을 받았다. 병자호란때 문익점의 후손인 문겸(文謙)이 현재의 소재지로 이견하였으며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으로 1868년(고종5)에 훼철되었다가 1952년 여주 경찰서장으로 취임한 후손 문상규(文尙奎)가 중수했고 1978년에 다시 보수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다.

문익점이 목화씨를 들여오게 된 경위를 대강 살펴보면

1363년(공민왕12) 시간원 좌정언(左正言)이었던 문익점은 계품사(啓稟使) 이공수(李公遂)의 서장관이 되어 원나라에 갔다. 이때 원나라는 원에 반대하여 개혁정책을 펴고 있던 공민왕을 폐하고 충선왕의 셋째 아들인 덕흥군(德興君)을 고려 왕으로 옹립하려하고 있었다. 원나라에 머물면서 이를 반대하던 문익점은 원나라 순제의 노여움을 사서 중국 남쪽 운남(雲南)으로 유배되었다. 운남에는 목화가 많이 재배되고 있었는데 당시 중국에서는 목화가 국외로 반출되는 것을 철저히 막고 있었다. 3년 뒤 유배가 풀려 고려로 돌아올 때 문익점은 그의 하인 김용(金龍)을 시켜 받을 지키던 노파의 제지를 무릅쓰고 목화를 따서 붓두껍 속에 목화씨 10여알을 숨겨들여 오게 되었다. 목화씨는 문익점의 고향인 경남 산청에서 처음 재배되었는데 10여알 중에 받은 문익점이 심었고 받은 전객령(典客令)으로 치사(致仕)한 문익점의 장인인 정천익(鄭天益)이 나누어 심었다. 정천익이 심은 것중에 단 한알만이 살아남아 100여개의 목화씨를 얻게 되었고 이것이 전국으로 퍼져 마침내 온 백성이 솜옷과 목면의 혜택을 보게 되었다. 뒷날 이 목화는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전래되어 일본의 의복혁명을 촉발케 한다.

문익점(文益漸, 1329~1398) 고려말의 학자. 본관은 남평(南平), 초명은 익점(益瞻), 자는 일신(日新), 숙선(淑宣)의 둘째아들로 태어났다. 1360년(공민왕9)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1388년(우왕14)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우문관제학(右文館提學)을 겸하여 춘추관사(春秋館事)를 끝으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이성계에 반대하여 조선에서는 벼슬을 하지않았으나 그가 죽은 뒤 정종이 강성군(江城君)에 봉하고 태종은 서원을 세우라 명하였고 세조는 문익점을 영의정에 추증하면서

부민후(富民候)로 봉하고 충선(忠宣)이라는 시호를 내렸다. 정조 9년 9월 9일에는 문익점의 서원에 사액하고 치제(致祭)를 명하였다.

문익점은 효자이면서 뛰어난 학자이기도 하였다. 문익점이 모친상을 당해 시묘살이하던 중 왜구가 침입해 왔어도 보통때와 다름없이 묘막에서 곡을 하였는데 이런 그를 보고 왜구들도 감복하여 해를 끼치지 않았다고 한다. 뒤에 조정에서 이 사실을 알고 문익점이 살던 동네를 효자리(孝子里)로 정표(旌表)하게 되었다. 또한 정주학(程朱學)에도 조예가 깊어서 우암 송시열은 '정(程顥), 주(朱熹)이후 동방에는 오직 안향과 문익점 두 현객(賢客)만이 그 학문을 전하여 빛을 보게 되었다.'고 할 정도였다. 문익점은 고향 초야에 묻혀 스스로 삼우거사(三憂居士)라 칭하며 말년을 보냈다. 고려 왕국의 부진함과 성학(聖學: 程朱學)이 널리 인식되지 못함을 근심하고 또한 스스로의 학문의 길이 제대로 서있지 못함을 근심하여 '삼우(三憂)'라 했다. 문익점의 손자중에 문래(文萊)와 문영(文英)이 있었는데 좌찬성을 지낸 문래가 목화에서 실을 자아내는 틀을 발명하여 그 이름이 '문래→물레'라 불려지게 되었고 홍문관 교리를 지낸 문영이 면포짜는 방법을 창안하여 그 천을 '문영→무명'이라 했다는 이야기가 전한다.



▲ 매산서원

김구용(金九容)

고려말의 천령현(지금의 금사면 일대)은 여주와 양평을 관할하는 중심지였다. 경치 또한 아름다워 자연스레 인물들이 모여 살았는데 그 중의 한 사람이 척약재 김구용이다.

김구용(金九容, 1338~384) 본관은 안동(安東). 초명은 제민(齊閔), 자는 경지(敬之), 호는 척약재(惕若齋) 또는 육우당(六友堂). 첨의중찬 김방경의 현손이며 상락군 김묘의 아들이다. 공민왕때 16세로 진사시험에 합격하고 2년 뒤에 과거에 합격하여 덕녕부 주부가 되었으며 1367년(공민왕16) 성균관이 중건된 후 민부의랑(民部議郎)겸 성균직강(成均直講)이 되어 정몽주, 박상충, 이숭인등과 함께 후학을 가르치며 성리학을 일으키는데 일익을 담당하였다. 후진들을 힘써 추천하고 교육하는데 싫증을 느끼지 않았기에 비록 쉬는 날이라 하더라도 지식을 배우러 오는 여러 학생들의 발길이 그치지 않았다고 한다. 김구용이 활동하던 시기는 원(元)·명(明) 교체기였는데 이때 고려는 원나라와 명나라에 양면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1375년(우왕1)에 김구용이 삼사좌윤이 되었을 때 당시 북원(北元)에서 사신을 보내오자 이들을 맞으려는 이인임등 권신들에 맞서 친명파인 이숭인, 정도전 등과 함께 반대하다 죽주로 귀양을 갔다. 얼마 후에 여흥으로 옮겨졌는데 산수경치가 좋은 곳에서 시와 술로 낙을 삼으며 자기거처에 편안을 달아 육우당(六友堂)이라 하였다.

육우당은 천령에 있었다고 하나 지금은 그 위치를 알 수 없다. 육우(六友)란 설월풍화(雪月風花)에 강산(江山)을 더한 것인데 묵은 이색이 지은 육우당기에 보면 [산은 인자(仁者)가 즐기는 것이니 산을 보면 인(仁)이 있고 물은 지자(智者)가 즐기는 것으로 강을 보면 지(智)가 있다. 눈이 겨울의 따뜻함을 누르는 것은 나의 기운을 가운데 보전시킴이요 달이 밤에 밝은 빛을 내는 것은 내 몸의 편안함을 보존함이다. 바람은 팔방에 있어 각각 철따라 나의 움직임이 망령되지 않게 하는 것이요 꽃은 사시가 있어 각각 끼리끼리 모이니 나의 차례를 잃음이 없는 것이다.]라고 하였다.

천령은 김구용의 외가가 있던 곳으로 비록 귀양살이이긴 하지만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김구용을 부러워하며 이색은 다음과 같은 글을 남겼다. [경지(김구용의 자)씨는 어머니를 모시는 틈틈이 강에서 배타고 짚신신고 산에 올라 낙화를 세고 청풍에 눈을 밝고 중을 찾고 달을 마주하고 손님을 청하니 사시의 즐거움이 또한 극치에 달했다. 경지씨는 일세에 독보(獨步)하는 분이다.]

김구용은 1381년 (우왕7)에 좌사의대부가 되자 8비 3옹주를 거느리고 있던 우왕의 절제없는 행동을 경계하는 글을 올려 직간하는 기개있는 선비였는데 이듬해 성균관대사성이 되었다가 얼마 후 판전교시사(判典校寺事)가 되었다. 1384년 (우왕10) 행례사로 명나라에 가면서 국서와 백금 100냥, 세모시와 삼베 각 50필을 가지고 가다가 요동에서 밀무역 혐의로 체포되어 명나라 서울 남경으로 압송되었다. 이는 다분히 명과 원의 알력으로 인한 결과였다. 김구용은 명나라 태조의 명령으로 대리위(大理衛 - 지금의 운남)로 귀양가던 중 노주(瀘州) 영녕현(永寧縣)에서 병을 얻어 47세의 나이로 죽었다.

김구용은 시를 잘 지었는데 이색은 그의 시를 가리켜 '붓을 대면 구름이나 연기처럼 뭉게뭉게 시가 피어나온다.'라고 극찬하고 있다.

김구용이 천령에 머물러 있을 때 지은 시 한수를 감상해 보자.

동풍취유양강류 (東風吹柳樣江流) 동풍이 버드나무에 불어 강물이 흔들리는데
 불수장가가소주 (拂袖長歌駕小舟) 소매를 내리고 조그만 배를 타고가네
 지근황려산수호 (地近黃驪山水好) 땅이 황려에 가까우니 산과 물이 좋은데
 약위휴주공등루 (若爲携酒共登樓) 그대 위해 술가지고 함께 다락에 오르네

민제(閔霽)

세종대왕의 어머니 원경왕후가 여흥 민씨였다는 사실에 자부심을 느끼는 여주사람은 많지 않은 듯하다. 이는 여흥이 여주의 옛이름이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소치이기도 하고 우리 민족 반만년의 역사를 일으켜 세우고 빛나게 하신 이가 여주의 정기를 이어받은 세종대왕이라는 역사적 진실을 간과한 때문이 아닌가도 싶다.

알려진대로 태종과 원경왕후는 모두 불같은 성격의 소유자였다. 목적을 위해 서라면 혈육과 지친을 도려낼 수 있었던 이가 태종이고 지아비를 위해서라면 병장기를 쥐고 말을 몰아 전장에 뛰어들 수 있었던 이가 원경왕후였다. 현대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세종대왕이 어떻게 것처럼 온후하고 관대할 수 있었는지 의문을 가지지 않을 수 없었다. 세종대왕의 눈에는 모든 백성이 다 소중하고 귀한 존재였다. 그러기에 신하를 억박지르지 않았으며 백성을 강제하지 않았다. 자신을 반대하는 신하에게 눈물로 호소할 줄도 알았고 죄인들에게 조차 갈증을 풀어 줄 한사발의 물을 잊지않았다. 이 성인과 다를 바 없는 성품의 연원을 외할아버지인 민제에게서 발견하고는 비로소 의문의 실마리를 풀 수 있었다.

민제(閔霽, 1339~1408) 본관은 여흥, 자는 중회(仲晦). 호는 어은(漁隱). 1357년(공민왕7)에 문과에 급제한 후 창왕때 개성윤(開城尹), 공양왕때 예조판서를 지냈으며 조선이 개국되자 여흥백에 봉해졌으며 태종 즉위후 여흥부원군으로 개봉되었다. 타고난 자질은 어질고 검소했으며 경사에 밝았는데 특히 사학을 잘하였다. 시호는 문도(文度)이다. 여흥부원군 민제의 성품을 단적으로 설명하는 일화가 성현(成俔)이 지은 용재총화(慵齋叢話)에 실려 전해지고 있다.

[여흥부원군 민제가 조회에서 물러나오면 매양 이웃집에가서 바둑을 두었다. 하루는 공이 미복(微服)하고 이웃집에 갔더니 주인이 나오지 않으므로 홀로 누각 위에 올라앉았다. 어떤 녹사가 공을 모시러 공의 집에 왔다가 공의 간 곳을 물으니 문지기 아이가 “공께서 외출하셨는데 가신 곳을 모르겠습니다.”하였다. 녹사도 새로 온 사람이라 역시 공의 얼굴을 몰랐다. 그는 이웃집에 가서 누각에 올라가 신을 벗고 다리를 문에다 걸치고 공에게 말하기를 “노인은 뉘십니까?” 하니 공이 “이웃집에 사는 사람이오”하였다. 녹사가 “노인의 얼굴에 주름살이 많은데 어찌 된 일입니까? 실로 가족을 깨매어 쪼그린 것이 아닌가요?” 하니, 공이 “타고난 바탕이 그런 걸 어찌 하겠소” 하였다. 녹사가 또 “노인을 글을 아십니까?” 하니 공이 “다만 성명을 기록할 정도요” 하였다. 또 옆에 바둑판이 있기

에 녹사가 “노인은 바둑을 둘 줄 아십니까?” 하니, 공이 “다만 행마할 정도요” 하였다. 녹사가 “그러면 한판 두어보는 것이 어떻습니까” 하고 드디어 바둑을 시작하여 상대하자 공이 바둑을 두며 말하기를 “어디서 온 손님이요?” 하니, 녹사는 “부원군을 뵈러 왔습니다”하였다. 공이 “나는 부원군이 되지 못하였소”하니, 녹사가 “암탉은 아직 울지 못합니다”하였다. 이러한 중에 조금 있다가 주인 영감이 꿰어앉아 “제가 영공께서 여기 오래 계신 줄 몰랐습니다” 하고 대죄하여 마지 않으므로 녹사가 놀라 신을 쥐고 도망치니, 공이 “저 사람은 비록 새로 들어온 시골사람이지만 의기가 뛰어나서 보통인물이 아니다” 하고 이로부터 극히 후히 대접하였다.]

이존오(李存吾)

고려 공민왕 9년(1360) 정몽주, 문익점등과 함께 문과에 급제한 이가 이존오다.

이존오(李存吾, 1341~1371)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순경(順卿), 호는 석탄(石灘)·고산(孤山). 수원서기(水原書記)를 거쳐 사관에 발탁되었다. 1366년 4월 이존오가 우정언(右正言)으로 있었는데 신돈(辛旽)이 국권을 잡아 참람한 짓을 하여도 감히 말하는 자가 없었다. 25세의 청년 이존오가 격분하여 “요망한 물건이 나라를 그르치게하니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며 친척인 좌사의대부(左司議大夫) 정추(鄭樞)와 함께 상소를 올렸다. “신등이 삼가 3월 18일 전내(殿內)에서 배푼 문수회에 참석하였는데 영도첨의(領都僉議) 신돈이 재신의 반열에 앉지 않고 감히 전하와 나란히 앉아 사이가 몇 자 떨어지지 아니하니 나라사람이 놀래어 물끓듯 하였습니다. 대개 예는 상하를 분변하고 백성의 뜻을 안정케하는 것이니 만약 예가 없으면 어찌 이로서 군신이 되며 어찌 이로서 부자가 되며 어찌 이로서 국가가 되리요. 성인이 예를 제정하여 상하의 분변을 엄하게 하심은 모책이 깊고 생각이 먼 것입니다. 그윽히 보건대 신돈이 지나치게 임금의 은총을 입어 나라 정사를 전단하여 임금을 무시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당초 영도첨의 관감찰(判監察)의 명이 내리는 날에는 법으로 마땅히 조복을 입고 나와서 사례할 것인데 반달이 되도록 나오지 않고 꺾정에 나아감에 미처서는 무릎을 조금도 굽히지 않고 항상 말을 타고 홍문(紅門)에 출입하며 전하와 나란히 하여 호상(胡床)에 기대어 앉고 그 집에 있어서는 재상이 뜰 아래 절하여도 다 앉아서 대우하니 비록 최항(崔沆), 김인준(金仁俊), 임연(林衍)도 이렇게 하지는 않았습니 다. 전일 승(僧)으로 있었을 때에는 마땅히 법도 밖에 들 것이라 그 무례함을 반드시 꾸짖지 않았으며 이제 재상이 되었으며 명위가 이미 정하여졌는데 예를 잃고 강상을 무너뜨림이 이와 같습니다. …” 하니 임금이 반도 못 읽어보고 크게 노하여 불태워버리라 명령하고 정추와 이존오를 불러 꾸짖었다. 이때 신돈이 임금과 더불어 평상을 마주하고 있었는데 이존오가 “늙은 중이 어찌 이와같이 무례한가”하고 소리쳐 신돈으로 하여금 황망히 평상에서 내리게 하였다. 임금도 이존오의 성난 눈이 두려웠다고 고백할 정도의 서술이었다. 그러나 공민왕의 노여움이 가라앉지 않았음을 아는 신돈의 무리들은 이존오를 죽이려고 계획하였다. 이에 이색(李穡)이 극형을 만류하여 정추는 동래현령(東萊縣令), 이존오는 장사감무(長沙監務)로 좌천시키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곧 벼슬에서 물러난 이

존오는 공주 석탄(石灘)으로 은둔하여 울분 속에서 지내다가 신돈의 세력이 치성함을 원통해 하며 31세의 나이로 병을 얻어 죽었다. 이존오가 죽고 난 3개월 뒤에 신돈이 역모에 연루되어 죽었다. 임금이 이존오의 충성을 아쉬워하면서 성균관 대사성을 추증하고 열살 난 이존오의 아들에게는 손수 '간관(諫官) 이존오의 아들 안국(安國)'이라 글을 써 주면서 장차직장(掌車直長)에 제수하였다. 1708년(숙종26) 여주의 유학(幼學) 신각(申愨)등이 상소하기를 "전조의 정언 이존오는 10세 때에 강창시(江漲詩)를 지어 읊기를 '넓은 들은 모두 물에 잠겼는데 고산(孤山)만이 홀로 항복하지 않았도다. [大野皆爲沒 孤山獨不降]'라고 한 고산은 곧 본주(本州)의 땅입니다. 많은 선비들이 이존오의 사당을 이곳에 지어서 숭봉하니 청컨대 은액(恩額)을 내려 주소서." 하니 특별히 허락하는 비답을 내렸다. 또 1826년(순조 26) 좌의정 이상황(李相瓚)이 고산서원에 배향된 이존오는 여주사람이고 조한영(曹漢英) 역시 여주사람이니 조한영을 고산서원에 추가 배향할 것을 청하여 허락을 받았다. 대신면 후포리에 있던 고산서원은 대원군의 서원철폐령에 의해 1871년 훼철되었다.



▲ 고산서원 하마비

권근(權近)

목은(牧隱) 이색(李穡)의 별서(別墅; 농장이 딸린 집)가 여주에 있었다. 1391년(고려 공양왕3) 겨울 임금의 부름을 받고 개성으로 가던 이색이 여주에 머물게 되자 도관찰사와 여흥군수, 이색의 문인(門人)등이 여강에 배를 띄우고 눈을 맞으며 한밤중까지 술잔치를 벌였다. 이때 스승 이색을 모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이가 권근이다.

권근(權近, 1352~1409) 본관은 안동(安東). 초명은 진(晉), 자는 가원(可遠), 호는 양촌(陽村). 1368년 성균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문과에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대사성, 지신사등을 거쳐 첨서밀직사사(簽書密直司事)로서 명나라에 다녀온 뒤 명나라 문서를 도당에 올리기 전에 미리 뜯어 본 죄로 유배당하였다. 이후 충주 소태면 양촌에 우거하다 조선왕조의 개국을 맞았다. 태조 이성계의 부름을 받고 새 왕조에 출사하여 길창군(吉昌君)에 봉군되고 찬성사(贊成事)가 되었다. 권근이 죽자 조선조 선비들은 그가 절의를 굽혔다고 하여 서원(書院)을 짓지 않았고 향사(享祀)에도 모시지 않았다. 그러나 권근은 성리학 연구에 정진하여 고려말의 학풍을 일신하고 이를 새 왕조의 유학계에 계승시키는데 크게 공헌하였다. 권근의 학문적 업적은 <입학도설(入學圖說)>과 <오경천견록(五經淺見錄)>으로 대표되는데 <입학도설>은 뒷날 퇴계 이황등 여러학자에게 크게 영향을 미치게 된다. 변혁기에는 누구에게나 판단이 쉽지 않은 법이다. 고려가 멸망하고 조선이 건국되었을 때 권근도 처세의 어려움을 겪고 있었다. 이무렵 그가 쓴 수필하나가 이를 극명하게 보여주고 있다.

주옹설(舟翁說; 늙은 뱃사공의 이야기)

[손(客)이 주옹(舟翁)에게 물기를 ‘그대가 배에서 사는데 고기를 잡는다 하자니 낚시가 없고 장사를 한다 하자니 돈이 없고 진리(津吏) 노릇을 한다 하자니 물 가운데만 있어 왕래가 없구려. 변화불측한 물에 조각배 하나를 띄워 가없는 만경(萬頃)을 헤매다가 바람 미치고 물결 놀라 돛대는 기울고 노까지 부러지면 정신과 혼백이 흩어지고 두려움에 싸여 명(命)이 지척에 있게 될 것이로다. 이는 지극히 험한데서 위태로움을 무릅쓰는 일이거늘 그대는 도리어 이를 즐겨 오래오래 물에 떠가기만 하고 돌아오지 않으니 무슨 재미인가?’ 하니 주옹이 말하기를 ‘아아, 손은 생각하지 못하는가? 대개 사람의 마음이란 다잡기와 느슨해짐이 무상하니 평탄한 땅을 디디면 태연하여 느긋해지고 험한 지경에 처하면 두

려워 서두르는 법이다. 두려워 서두르면 조심하여 든든하게 살지만 태연하여 느긋하면 반드시 흐트러져 위태로이 죽나니 내 차라리 위험을 딛고서 항상 조심할 지언정 편안한 데 살아 스스로 쓸모없게 되지 않으려 한다. 하물며 내 배는 정해진 꼴이 없이 떠도는 것이니 혹시 무게가 한 쪽에 치우치면 그 모습이 반드시 기울어지게 된다. 왼쪽으로도 오른쪽으로도 기울지 않고 무겁지도 가볍지도 않게끔 내가 배 한가운데서 평형을 잡아야만 기울어지지도 뒤집히지도 않아 내 배의 평온을 지키게 되나니 비록 풍량이 거세게 인다 한들 편안한 내 마음을 어찌 흔들 수 있겠는가? 또 무릇 인간세상이란 하나의 거대한 물결이요 인심이란 한 바탕 큰바람이니 하잘 것 없는 내 한몸이 아득한 그 가운데 떴다 잠겼다 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한잎 조각배로 만리의 부슬비 속에 떠있는 것이 낫지 않은가? 내가 배에서 사는 것으로 한세상 사는 것을 보건대 안전할 때는 후환을 생각지 못하고 욕심을 부리느라 나중을 돌보지 못하다가 마침내는 빠지고 뒤집혀 죽는 자가 많다. 손은 어찌 이로써 두려움을 삼지 않고 도리어 나를 위태하다 하는가?]

따뜻한 온돌에서 화로를 끼고 앉아 미인 곁에서 책을 읽는 것을 최고의 즐거움으로 꼽았던 권근이 스승을 모시고 놀던 배위에서 시 한수를 지었다.

황려산수자청기(黃驪山水自淸奇) 황려의 산수 절로 맑고 기이한데
 관개상봉약유기(冠蓋相逢若有期) 유람객이 줄이으니 약속이나 한 것 같네
 별원현가정질질(別院絃歌筵秩秩) 별원의 음악소리 아름다우니
 장강운월야지지(長江雲月夜遲遲) 긴강 구름 달에 밤이 더디구나
 부사표묘통소한(浮查縹渺通霄漢) 뜬 배는 아득히 은하로 통하는데
 비설비미낙주치(飛雪霏微落酒卮) 흩날리는 눈은 술잔에 떨어지네
 행여제공배성집(幸與諸公陪盛集) 다행히 제공과 함께 성한 모임에 참여하니
 풍류문채승당시(風流文彩勝當時) 풍류와 문채가 당시에 으뜸일세

이직(李稷)

세종대왕의 능침을 여주에 모시면서 부득이 왕릉주변의 여러 분묘들을 이장할 수 밖에 없었는데 그 중의 하나가 이직의 묘다. 이직(李稷 1362~1431) 본관은 성주(星州). 자는 우정(虞庭), 호는 형재(亨齋). 정당문학 이조년의 증손자이며 문하평리 이인민의 아들이다. 1377년 16세로 문과에 급제하여 고려 공양왕때 예문제학을 지냈다. 1392년 이성계를 추대하여 개국공신 3등이 되고 성산군에 봉해졌다. 1405년 조선 최초로 이조판서가 되었으며 1412년 성산부원군(星山府院君), 1414년 우의정, 세종 6년인 1424년에 영의정이 되었다.

이직의 신도비에 ‘함흥차사’와 관련된 글이 있어 소개한다.

“이때 태조가 영흥부(함흥)에 나가 거처하고 계셨는데 태종이 지성을 다해 모셔오려고 하였지만 끝내 돌아오려 하지 않았다. 문안사들이 갔다가 한 사람도 살아오지 못하자 사람들은 사지에 나아가는 것처럼 생각하고 교묘한 방법을 써 가려하지 않았다. 하지만 공은 이를 개탄하며 문안사로 갈 것을 자청하였다. 태조가 공을 인접하고 친절히 맞아 들이며 글을 하사하니 공은 그것을 품에 간직하였다. 태조가 이상하여 까닭을 물으니 공이 대답하기를 ‘돌아가서 자손들에게 나누어 주려 합니다.’ 하면서 눈물을 흘렸는데 정성스럽고 간절하여 감동시킬만 하였다. 태조는 그 말에 깊이 감동되어 ‘나에게만 이같은 즐거움이 없구료.’ 하였다. 공은 이에 태종이 성심성의로 효도하는 사실을 갖추어 아뢰었다. 태조는 그 날로 어가를 명하여 풍양궁으로 돌아왔다. 태종은 매우 기뻐하여 특별히 병조판서에 임명하였다.”

이직은 1415년 태종이 세자 양녕대군을 폐하고 충녕대군을 세우려 할 때 장남을 폐하고 지차로 세자를 삼는 것이 불가하다고 황희와 함께 반대하다가 양친으로 귀양을 가기도 했다. 이직은 1431년 향년 70세로 죽었다. 처음에 여주 북성산에 장례했다가 예종 원년(1469)에 광주에 있던 영릉이 천장하게 되자 양주 신혈리로 이장했다.

실록에 실려있는 그의 즐기에 보면

“직은 천성이 후중하고 근신하며 국초에 어울려 불게 된 인연으로 공신의 반열에 참여함을 얻어 지위가 극품에 이르렀으나 세상과 더불어 돌아가는 데로 쫓아 따라가며 일을 당하여서는 가부의 결단이 없으므로 시대 사람들이 이로써 부족하였다고 하였다.”고 되어있다. 이는 그의 모나지 않은 성품과 원만한 일처리에 대한 짧은 사관들의 불만표출일 수 있다. 그러나 조선초기의 혼란 속에서 네

명의 임금을 무리없이 보좌하였고 세종대왕 시절에 영의정까지 지낸 것으로 보아 기량과 덕망과 경륜이 뛰어났음을 짐작케한다. 이적이 후손들을 훈계하기 위해 지은 계자손시(戒子孫詩)는 그의 성품의 일단을 보여준다.

높은 벼슬 나의 바램이 아니어서
위로나 아래로나 항상 움추려 행동했고
복이 지나치면 어찌 재앙을 면할까
중년에 곤경에 빠져 들었어도 오직 순리대로 받아들였다.

이적은 고려신하로서 조선을 섬기는데 대한 고려 절의파들의 공격으로 갈등을 겪었던 듯 싶다. 당시 그의 소회가 시조로 남아 전한다.

가마귀 검다하고 백로야 웃지마라
겉이 검은 들 속조차 검을소냐
겉회고 속 검은 이는 너 뿐인가 하노라

우왕(禡王)

노국대장공주(魯國大長公主)를 잃고 실의에 찬 나날을 보내고 있던 공민왕에게 죽은 공주를 방불케하는 구원의 여인이 나타났다. 그녀가 신돈(辛旽)의 시비(侍婢)인 반야(般若)였다. 이들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모니노(牟尼奴)로서 고려 제32대 임금자리에 오른 우왕(禡王)이다. 우왕(禡王, 1365~1389 재위 1375~1388) 개혁승 신돈이 처형되고 난 뒤 궁중에 들어가 1373년 우(禡)라는 이름을 받고 강녕부원대군(江寧府院大君)에 봉해졌다. 1374년 공민왕이 시해되자 수시중(守侍中) 이인임(李仁任)과王安덕(王安德)등의 도움을 받아 10세의 어린 나이로 즉위하였다. 즉위 초에는 경연을 열어 학문을 닦기에 힘썼고 할머니인 명덕태후(明德太后) 홍씨의 가르침으로 기대를 모았으나 명덕태후가 죽자 사냥, 음주가무, 엽색 등 방탕생활에 빠져 백성들의 신망을 잃었다. 우왕 재위시절은 북원(北元)이나 명나라와의 복잡한 외교문제가 계속 발생하였고 더욱이 왜구의 침탈이 극심하였다. 1388년 중국에서 세력을 팽창해가던 명나라가 철령(鐵嶺) 이북의 땅을 자기나라에 귀속시키기 위해 일방적으로 철령위(鐵嶺衛) 설치를 통보하면서 양국의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이에 우왕과 최영장군은 곧 명나라를 응징하기로 결정하고 요동정벌을 감행하기 위해 군사를 일으키는데 5월 20일 ①소(小)로써 대(大)를 거역하는 것 ②여름철에 군대를 움직이는 것 ③왜구 창궐 ④활이 녹고 군사들이 질병에 시달릴 것이라는 이른바 4불가론을 내세운 이성계의 위화도회군(威化島回軍)으로 최영은 죽고 우왕은 폐위되어 강화도로 내쫓기게 된다. 이해 9월 강화도에 있던 우왕이 여주로 옮겨왔다. 이때부터 이성계를 향한 우왕의 반격이 구체화 되었다는 기록이 고려사에 실려있다. [1389년 11월 을해(乙亥) 전 대호군 김저(金佇)와 전 부령 정득후(鄭得厚)가 몰래 황려부에 가서 우를 찾아보았다. 김저는 최영의 생질인바 최영을 오랫동안 따라 다니면서 대단한 권세를 부렸으며 정득후 또한 최영의 족당이였다. 우가 울면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울적해서 견디지 못하겠다. 이곳에 거하면서 손을 거두고 죽기를 기다릴 수야 있느냐. 다만 장사 한 명만 얻어 이시중(이성계)을 죽이면 일이 뜻대로 되겠다. 내가 평소부터 예의관서 꼭충보와 친하니 내가 가서 그를 만나 의논하라.”고 하였다. 이어 검 한 자루를 충보에게 보내면서 말하기를 “이번 팔관회 날에 거사하라. 성사하면 왕비의 동생을 처로 주게 할 터이요 부귀를 같이 나누겠다.”라고 하였다. 그래서 김저가 꼭충보에게 와서 그 말을 고하였다. 꼭충보가 그 자리에서는 거짓으로 승낙을 하고 곧 태조에게 가서 고발하였다.

1389년 11월 무인(戊寅) 팔관소회에 태조는 참가하지 않고 집에 있었다. 김저와 정득후가 밤에 태조의 집으로 왔으나 문객들에게 붙잡히자 정득후는 제 목을 찢러 자살하였다. 김저를 순군옥에 가두고 대관들이 함께 취조하였는데 전 판서 조방홍이 연루자이므로 모두 옥에 가두었다. 김저가 “변안열, 이립, 우현보, 우인렬, 왕한덕, 우홍수가 공모하고 여흥에서 상왕을 영접하는데 내응하는 임무를 분담하였다”라고 고백하였다.] 이 사건으로 우왕은 강릉으로 옮겨졌다가 다음달에 그곳에서 죽음을 당하였다. 당시 이성계 등은 우왕이 공민왕의 아들이 아니라고 주장하면서 폐가입진(廢假立眞)이라 하여 우왕과 그의 아들 창왕을 폐위하고 공양왕을 옹립하는 명분으로 삼았다. 그러나 이러한 우창비왕설(禡昌非王說)은 그 진위가 가려지지 않은 채 공양왕옹립이나 조선건국을 합리와 시키려는 입장을 반영하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다. 우왕이 머물렀던 곳은 왕터라는 지명으로 남았는데 지금의 능서면 왕대 1리를 말한다.

경안공주(慶安公主)와 권규(權珪)

옛말에 셋째딸은 얼굴도 보지않고 데려간다고 했다. 서동왕자(백제 무왕)와 결혼한 신라 진평왕의 딸 선화공주가 셋째 딸이요, 사랑의 신 큐피드(에로스)의 아내 프시케(사이키)도 셋째 딸이며 연전에 사망한 영국 다이애나 왕세자비도 셋째 딸이었다. 셋째 딸은 아름다움의 상징이다. 태종과 원경왕후 사이에 딸이 넷 있었는데 그중에 셋째 딸이 경안공주다.

경안공주(慶安公主, 1393~1415) 1404년(태종3) 에 권근(權近)의 아들인 권규(權珪)와 결혼했다. 경안공주는 나면서부터 정숙하고 예뻐으며 총명과 지혜도 보통사람과 달라서 부모인 임금과 중전의 사랑을 한데 모았었다. 부덕이 출중하여 시부모를 섬기는데 예절을 극진히 하였고 가정을 다스림에 법도가 있었다. 특히 동생인 충녕대군(세종)과는 천성과 기품이 서로 닮아서 궁중에서 그 현명함을 함께 일컬었다. 공주는 매양 충녕대군의 덕기(德器)가 날로 이루어짐을 감탄하였으니 보통사람이 아니었다고 하였다. 권규와의 사이에 2남 1녀를 두었다.

권규(權珪, 1393~1421) 본관 안동(安東), 아버지는 찬성(贊成) 권근(權近). 1404년 경안공주와 결혼하여 길천군(吉川君)에 봉해졌다가 1416년 길창군(吉昌君)으로 개봉되었다. 권규는 성격이 온후하고 겸손하며 생활은 매우 검소하였고 사랑과 공경으로 어머니를 섬겼다. 하루는 권규의 집에 자주 드나들던 사람이 쌀을 훔치다가 발각되었다. 청지기가 그 사람을 붙잡아서 아뢰니 권규는 '그가 가난한 선비니 용서하라.' 면서 훔친 쌀을 그대로 그 선비에게 주었다고 한다. 이런 권규가 죽었다는 말을 듣고 조정의 사대부들이 모두 애석히 여겼음은 당연한 일이다.

딸을 잃은 지 불과 몇 년 만에 29세의 젊은 사위를 잃게 된 상왕 태종의 슬픔은 컸다. 그를 위한 제문에 이르기를 [살았을 적에 나를 장인이라 하여 지성으로 순종하였고 죽어서는 아들처럼 생각하여 예법에 따라 조문하고 구조하니 이것은 고금의 항구적 규례요 천리와 인정의 당연한 일이다. 생각하건대 경은 아홉 사람이 봉군(封君)한 집의 후손이요, 육예(六藝)를 공부한 유학자의 자제라 성격이 조용하고 아름다우며 국량이 맑고 넓어, 깊고 담박하면서 지키는 것이 있고 화려함이 없었는지라 나는 그대의 사람됨을 깊이 알아서 마침내 이실(二室)에 올려서 나의 부마를 삼은 것이다. 행여 금슬이 화합하여 가정의 낙을 모으고 자손이 번성하여 더욱 나라의 빛이 되며 길이 내외 해로하여 훌륭한 이름을 보존하기를 바랐더니 불행히도 일찍이 짝을 잃고 아이들이 의탁할 곳이 없었

으며 홀아비로 오랫동안 가정을 이루지 못하여 매우 딱하게 여겨 왔었다. 그러나 다행히 나이가 아직 젊었으므로 장차 심복처럼 의지하고 오래도록 부귀를 누리게 하려 했는데 별안간 부음을 받으니 무엇으로 마음을 잡으리요. 이제 약소한 제물로 사람을 보내어 빈소에 제사를 지낸다. 아아, 자식의 향렬이 되었기에 극진히 사랑하였더니 갑자기 세상을 떠났으니 마땅히 사후의 영광을 다해 주리라.] 하였다. 권규의 아들 권충(權聰)이 부모를 함께 장사지냈는데 물기가 있는 것을 알고 장지를 고쳐 길지를 가렸더니 구덩이(穿壙: 천광)에서 오색 흙이 나왔다. 세종대왕이 이를 듣고 가상하게 여겨 말하기를 “이것은 너의 진실한 효도에 하늘이 감응한 것이다.” 하였다. 여기서 말한 오색 흙이 나온 길지가 지금 이들이 묻혀있는 점동면 덕평리를 말하는 듯 싶다. 권규의 시호는 제간(齊簡). 마음 가지기를 매우 씩씩하게 한다는 뜻이 제(齊)이고 한결같은 덕을 게을리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간(簡)이다.



▲ 경안공주묘



▲ 권규묘

이인손(李仁孫)

세종대왕의 능이 여주로 천장됨으로 해서 묘를 옮겨야 했던 이가 또 있다. 그가 충희공(忠僖公) 이인손이다. 이인손의 묘는 영릉의 좌청룡 북쪽에 자리잡고 있었다. 이인손(李仁孫, 1395~1463)의 본관은 광주(廣州) 자는 중윤(仲胤), 호는 풍애(楓厓). 둔촌 이집(李集)의 손자이며 참의를 지낸 지직(之直)의 아들이다. 총명하고 지혜롭고 학문을 좋아하였던 이인손은 1411년(태종11) 생원시에 합격하고 1417년(태종17) 식년문과에 급제, 예문관 검열이 되었다. 경상도 관찰사, 대사헌, 한성부윤 등을 거쳐 수양대군이 정권을 잡자 호조판서가 되었고 1455년 세조 즉위시에 원종공신(原從功臣) 2등에 봉해졌으며 우의정을 끝으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시호는 충희(忠僖).

실록에 기록하기를 이인손은 성질이 침착하고 굳세며 강하고 과감하여 관가에 있을 때나 집에 있을 때나 한결같이 경계하고 삼갔으며 담백한 것을 좋아하고 화려한 것은 좋아하지 않았으며 한가할 때 전고(典故)를 익히고 일에 임하면 결단력이 있었다 한다. 슬하에 다섯명의 아들을 두었는데 모두 과거에 올랐다.

- 이극배(李克倍, 1422~1495)우의정 광릉부원군(廣陵府院君) 시호는 익평(翼平)
- 이극감(李克堪, 1427년~1465) 형조판서 광성군(廣城君) 시호는 문경(文景)
- 이극증(李克增, 1431년~1494) 한성판윤 광천군(廣川君) 시호는 공장(恭長)
- 이극돈(李克墩, 1435년~1503) 좌찬성 광원군(廣原君) 시호는 익평(翼平) 이극돈은 무오사화때 무고한 사람들을 죽게한 죄로 관직과 시호를 추탈당했다.
- 이극균(李克均, 1437년~1504) 좌의정이 그들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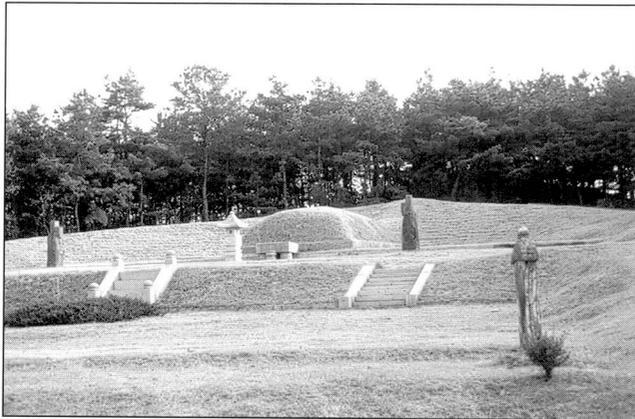
우리 여주에는 영릉과 이인손의 묘에 얽힌 오랜 전설 하나가 전해내려오고 있다.

이인손이 죽자 좋은 자리를 골라 묘를 쓰게 되었다. 이때 산소자리를 잡아준 지관이 여기에 묘를 쓰되 어떠한 일이 있어도 봉분을 만들지 말것이며 비석도 세우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했다고 한다. 그러나 재산이 불어나고 자손들이 번창하자 이인손의 후손들은 지관의 경고를 잊어버리고 성분(成墳)을 하고 비석을 세웠다. 당시 조정에서는 영릉 천장론이 대두되어 각처에 지관을 풀어 명당자리를 찾고 있었는데 한 지관이 명당을 찾아 능서면 왕대리에 오게 되었다. 때는 삼복 더위중이라 갑자기 천둥이 치고 사방이 어둑해지면서 소나기가 퍼붓기 시작했다. 지관은 샷사죽에서 젖은 옷 걱정을 하며 비가 멎기를 기다렸다. 이윽고 소나기는 지나가고 주위가 밝아지자 건너편에 1기의 분묘가 바라다 보였다. 무

심결에 분묘를 바라보는 순간 지관은 자기의 눈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었다. 아무리 보아도 자기가 몇 달을 두고 찾아 헤매던 명당자리였던 것이다. 주변산세와 지맥 등을 다시 한번 꼼꼼히 따져보니 앞에는 북성산이 신하부복형(臣下俯伏形)의 모습으로 엮디어 있고 작은 산들이 겹겹이 둘러있는 것이 모란반개형(牡丹半開形)이요 회룡고조형(回龍顧祖形)의 대명당자리였던 것이다.

이에 지관은 지도에다 명당의 위치와 방위를 표시한 다음 쏜살같이 대궐로 돌아와서 이 사실을 보고하였다. 이렇게 해서 경기도 광주 대모산(大母山:지금의 서울 서초구 내곡동)에 있던 세종대왕릉이 옮겨지게 되었다. 한편 이인손의 후손들은 예상외의 자리가 아니니 성분입비(成墳立碑)하지 말라던 지관의 말을 뒤늦게 생각해 내고 후회하며 이인손의 산소를 헤택하니 다음과 같은 글귀가 있는 비기(秘記)가 나왔는데 “이 자리에서 연(鳶)을 날리어 연이 떨어진 자리에 이장하라”고 적혀있었다고 한다. 비기에 적혀있는 대로 연을 높이 날리어 연줄을 끊으니 연은 바람을 타고 너울너울 날아가 연주리에 떨어졌다. 연주리란 지명도 연줄이 떨어졌던 곳이라는 데서 유래했다. 후손들은 연이 떨어진 북성산 기슭 아늑한 곳에 이인손의 묘를 이장했다.

연주리(延住里)는 지금의 능서면 신지1리에 있었던 마을 이름이다.



▲ 이인손묘

세종대왕(世宗大王) 1

세종대왕(1397~1450)은 조선 제4대 임금으로서 태종의 3째 아들이다. 이름은 도(禔), 자는 원정(元正). 어머니는 원경왕후(元敬王后) 민씨이며 비(妃)는 심온(沈溫)의 딸 소헌왕후(昭憲王后)이다. 1408년(태종8) 충녕군(忠寧君)에 봉해지고 1412년 충녕대군에 진봉(進封)되었으며 1418년 6월 왕세자에 책봉되었다가 같은 해 8월에 태종의 양위를 받아 즉위하였다. 최정호 교수의 표현대로 세종대왕은 한반도의 '르네상스인(uomo universale, 보편인)'이었으며 세종시대는 15세기 한국의 '르네상스 시대'라 할 수 있다.

그 위대한 분의 탄생을 알리는 태몽은 이러했다. [화창한 봄이 지나고 무더운 여름철로 접어든 어느 새벽 어머니인 정녕옹주 민씨는 남편 정안군에게 “지난 밤 신기한 꿈을 꾸었습니다.”하고 말하였다. 정안군이 궁금해 하면서 “어떤 꿈이요? 말해보시오.” 하고 묻자 “꿈에 붉은 해와 검은 황소를 보았습니다. 앉아서 경북궁을 바라보고 있으려니깐 난데없이 큰 황소 한 마리가 구름을 타고 북악산 위에 나타났는데, 그 소의 뿔사이에 붉은 해가 빛을 발하며 끼어 있질 않겠어요?” 하였다. 정안군은 흥미로워서 “그래서요?” 하며 재촉한다. “그런데 그 소가 그만 봉우리를 헛딛는 바람에 붉은 해가 활활 타면서 산 밑으로 떨어지는데 궁궐이며 마을을 다 태워버릴 것만 같았어요. 그때 어디선가 붉은 옷을 입은 동자가 나타나서 그 해를 삼키더니 놀라 떨고 있는 제 품으로 들어와 안기는 것이었어요.” 라고 말하면서 옹주는 정안군을 쳐다 보았다. 정안군은 “거 심상치 않은 꿈 같소. 혹시 태몽(胎夢)이 아니겠소?” “아이 나오리도 별 말씀을 다...” 이렇게 꿈이야기를 주고 받은 두사람의 마음속에는 기쁨과 반가움이 넘치고 있었다. 옛날 사람들은 아이가 잉태될 때 미리 꿈으로 나타난다고 믿고 있었다. 그 꿈이 영특할수록 빼어난 아기가 태어나서 훌륭한 인물이 된다고들 생각하였다. 과연 정녕옹주는 그달부터 태기가 있었고 10달 뒤에 아이가 태어나니 그가 바로 후일 세종임금이 된 충녕군이다.] - 세종대왕의 어린 시절에서

이런 태몽이 있는 다음해인 1397년 4월 10일(양력 5월 15일) 경북궁 서쪽 준수방(俊秀坊)에서 세종대왕이 탄생하시니 아버지 정안군이 31세, 어머니 정녕옹주가 33세, 할아버지 태조임금이 63세때의 일이다.

재위 32년 동안 세종대왕은 약 400만명의 백성들을 다스리면서 그들로 하여금 그 어떠한 삶의 고통으로부터도 해방된 경지, 즉 아주 평화로운 상태에서 '살아가는 즐거움(生生之樂)'을 영위하도록 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신 분이다. 그

런 까닭에 그분은 지금껏 '해동요순(海東堯舜)'이라 칭송받고 있지 아니한가?
이번 5월 15일은 위대한 임금 세종대왕께서 탄생하신 지 602돌을 맞는 날이다.
이 분으로 인해 오늘의 우리가 우리답게 존재하므로 봉분 위에 칼과 쇠말뚝이
박히는 참담한 현실을 사과도 드릴 겸 모두 다 경건히 참배길에 나서야 할것이
다.



▲ 영릉 참배객

세종대왕(世宗大王) 2

광복 50주년을 맞아 중앙 일간지에서 대대적인 여론조사를 벌인 적이 있었다. 조사결과를 보면 조사에 참여한 대부분의 사람들이 우리 민족사에서 가장 위대한 분이 세종대왕이며 가장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한글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았다. 사실 민족의 긍지요 자랑스러운 유산으로 세종대왕이 우리들 가슴속에 자리잡고 있음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더구나 1469년(예종1), 대왕의 능이 여주로 옮겨지면서 여흥에서 여주로 이름이 바뀐 내력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대왕과의 인연에 각별한 바가 있는 것이다.

세종대왕의 덕화는 넓고 깊어서 두루 미치지 않은 곳이 없었다. 그러기에 세종시대의 한단면만으로도 능히 성군의 면모를 짐작 할 수가 있다. 지금 가남면에서는 '교도소' 신축공사가 한창이다. 이제 곧 21세기 새로운 형태의 교도소가 탄생될 터인데 세종시대에는 죄인에 대한 어떤 흡혈정책이 있었는지 살펴봄으로서 타산지석의 교훈으로 삼았으면 한다.

- 1) 죄수들을 오랫동안 가두어 둠으로 굶주림과 추위에 죽기도 하니 가벼운 죄인은 즉시 처리하고 중한 죄인은 구휼하여 굶주리고 얼지 않도록 하였다. (세종 4년 11월 26일)
- 2) 수감되어있는 죄수중 병이 있다고 고하는 자는 죄의 경중을 물론하고 모두 동서활인원에 보내어 빨리 치료하게 하였다. (세종 5년 3월 4일)
- 3) 옥의 관리들은 수시로 옥안을 고치고 청소를 정결하게 하고 병든 죄수는 약으로 치료 해 주고 돌볼 사람이 없는 자는 관에서 옷과 식량을 주도록 하였다. (세종 7년 5월 1일)
- 4) 서울에서는 사헌부, 지방에서는 관찰사가 직접 살펴 죄수들이 옥안에서 질병에 걸려 죽는 일이 없도록 하였다. (세종 11년 2월 8일, 12년 4월 28일)
- 5) 옥에 갇혀있는 홀아비, 과부나 형벌을 받은 자의 어린 자식을 돌보아 기르지 아니하면 굶주리고 추워서 죽음에 이를 것이니, 어린아이는 그의 친족에게 주고 젖먹이는 젖있는 사람에게 주고 친족이 없으면 관가에서 거두어 보호하고 기르게 하였다. (세종13년 7월 28일)
- 6) 옥이라는 것은 본래 악한 것을 징계하자는 것이지 사람을 죽게 하는 것이 아닌데 옥을 맡은 관리가 마음을 써서 규찰하지 아니하여 옥수들이 병에 걸리거나 얼고 굶주리거나 혹은 옥졸의毆박과 고문으로 인하여 원통하게 생명을

있는 자가 없지 않으므로 옥수로서 죽은 자는 서울과 지방, 죄의 경중을 불문 하고 죄명, 처음에 가둔 월일, 병을 얻은 일시, 치료한 약과 병의 증세, 신장을 때린 횟수, 사망 일시를 기록하여 형조에 아 되도록 하고 이를 영구적인 법식으로 삼도록 형조에 전지하였다. (세종 19년 1월 23일)

7) 고문이나 추위, 굶주림등으로 옥수가 죽었을 때 당해 수령을 즉시 처벌하여 파직하고 판단이 애매한 경우에도 1년에 2인을 죽게한 수령은 근무실적을 평정할 때 참고하게 하였다. (세종 20년 11월 28일)

8) 전옥서의 녹관으로 하여금 주야로 숙직하면서 옥수의 일상생활을 자세히 살피고 옥수끼리 침범하고 학대하는 자는 엄히 금지하게 하며 위반하는 경우에는 논죄하게 하였다. (세종 21년 3월 9일)

이처럼 세종대왕의 죄인들에 대한 배려는 재위기간 내내 지속되었으며 지극히기가 이를 데 없었는데 대왕은 이에서 그치지 않고 다음과 같은 옥중 위생관리 규칙을 각도 감사들에게 유시하였다. (세종 30년 8월 25일)

- 매년 4월부터 8월까지의 새로 냉수를 길어다가 자주 자주 옥 가운데에 바꾸어 놓을 것.
- 5월에서 7월 10일까지는 한차례 자원에 따라 몸을 씻게 할 것.
- 매월 한차례 자원에 따라 두발을 감게 할 것.
- 10월부터 정월까지의 옥안에 짚을 두텁게 깔 것.
- 목욕할 때에는 관리와 옥졸이 친히 스스로 검찰하여 도망하는 것을 막을 것.

눈물겹도록 고마우신 세종대왕!

이 분이 탄생하신 지가 올해로 603년이요,

돌아가신 지 550년이며,

우리 곁에 누워 영면하고 계신 지가 531년 쯤다.

세종대왕(世宗大王) 3

으 해는 세종대왕께서 승하하신지 550주년이 되는 해다. 우리 민족이 낳은 가장 위대한 임금인 세종대왕을 곁에 모시고 사는 까닭에 그분의 은덕을 밝히 드러내는 일은 우리 여주인들에게 주어진 피할 수 없는 숙명이랄 수 있다. 알아야 드러내 밝힐 수 있겠기에 다시 세종대왕의 면목의 일부를 살펴보고자 한다.

대왕께서 이루고자 하셨던 이상세계는 용평(隆平)과 풍평(豊平)의 세계였다.

‘내가 부덕한데도 신민의 위에 있으니 밤낮으로 다스림을 피하여 용평에 이르기를 기약한 지 무릇 8년이 되었다.’

‘아아! 천심을 받들어 왕도를 행하고 두루 넓고 큰 어짐을 베풀고 제왕의 가르침을 펴 민생을 애홀히 여김으로써 영구히 풍평의 정치에 이르려 한다.’

- 세종대왕실록에서 -

여기서 용평이란 정치의 당면과제가 무난히 해결되어 내외외환이 없고 국태민안이 영속되는 ‘드높은 평화의 경지’를 말한다. 풍평이란 용평의 세계에 경제적인 풍요로움까지 포함한 의미다.

대왕의 이상세계는 그의 민생론에서 좀더 구체성을 띤다.

‘전답에서 힘써 농사지으며 우러러 섬기고 굶어 양육케 하여서 우리 백성의 생명을 길게하고 우리나라의 바탕을 견고히 하며, 가정과 사람마다 넉넉하며 예양의 풍속을 크게 일으켜 때로 화평하고 해마다 풍년되어 다함께 「화락하는 즐거움」을 누리갈 것이다.’

대왕의 이상세계가 백성과 유리된 또 다른 어떤 세계가 아니므로 자연, 민본 중심의 정치를 지향하게 되는데 이는 대왕께서 전국 각도에 내린 교서에 잘 나타나 있다.

‘백성은 나라의 근본이니 정치는 백성을 보양하는데 있다. 민생을 돈독히하여 나라의 근본을 견고히 하는 것이 국정에서 우선 힘쓸바이다.’

대왕께서 추구했던 민본의 이념은 곧 애민정신(愛民精神)으로 심화되는데 각 고을에 수령을 파견하면서 모든 수령들을 친견하고 당부하신 말씀이 이것이다.

‘당연히 백성을 사랑하는 것으로 마음을 먹어야 할 것이니 백성의 부모가 되어서 백성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누가 감히 자네를 사랑하겠는가.’ 한걸음 더 나아가 대왕은 ‘하늘이 만물을 화육함에는 크고 작음을 가리지 않고, 임금이 백성을 사랑함에도 이것과 저것의 간격이 없다.’ 라면서 ‘노비가 비록 천하지만 천민

(天民)아님이 없다.’라고 확인하고 있다. 이처럼 대왕은 백성에 대한 절대사랑, 즉 자식에 대한 부모의 마음처럼 백성을 어여뻐 대함으로서 이상세계에 도달코자 노력했던 것이다.

대왕의 애민정신은 [훈민정음]의 창제라는 인류사에 유례가 없는 결실로 나타난다. ‘어리석은 백성들이 말하고자 하는 바가 있어도 마침내 그 뜻을 펴지 못함이 많으니 내가 이를 불쌍히 여겨 새로 28자를 만들어 사람마다 쉽게 익혀서 날로 씬에 편리하게 하고자 한다.’는 훈민정음 서문처럼 문자생활을 제대로 하지 못하는 백성들을 민망히 여겨 밤잠을 설치며 글자를 만들었을 대왕의 모습이 눈에 보일 듯 선하다.

새천년의 새해가 밝았다. 어제의 태양이 오늘과 크게 다를 바 없지만 세상은 새로운 기대로 가득하다. 그러나 막연한 기대는 허망한 끝을 예고하기 마련이다. 새해 벽두부터 세종대왕을 들먹임은 민족사에 선연히 아로새겨진 대왕의 정신을 이끌어내서 우리의 미래를 밝힐 희망의 준거로 삼고자 함이다.



▲ 세종대왕 어진

세종대왕(世宗大王) 4

감고계금(鑑古戒今)이라는 말이 있다. 과거를 거울삼아 그 교훈을 오늘에 되살리자는 뜻이다. 지방자치시대 2기를 맞고 있는 지금, 우리 여주에서는 서로 상반된 관점들이 합일을 이루지 못하고 난마처럼 얽힌 채 끝없는 표류를 계속하고 있다. 고금을 통하여 사람이 사는 방식이란 비슷하기 마련이었다. 그러므로 태평성대라 일컬어지는 세종시대에는 정치적 어려움을 어떻게 헤쳐나갔는지 한번 살펴 보면서 교훈을 얻어내는 일이야말로 감고계금의 정신을 살리는 올바른 방편이 아닐까 한다.

세종 30년 7월 17일

임금이 창덕궁 문소전 서북쪽에 불당을 설치하고 일곱명의 중을 두겠다고 하자 즉시 조야가 들끓기 시작했는데 먼저 명령을 직접 받은 승정원의 도승지 이사철, 우승지 이의흠, 좌부승지 안완경, 우부승지 이사순, 동부승지 이계전 등이 불가함을 아뢰었다. 이어 18일에는 의정부와 6조 판서들이, 19일에 좌의정 하연과 정인지 등이, 20일에 대간들이, 21일에 직제학 신석조 등이, 22일에 영의정 황희가 모든 신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불당설립의 불가함을 상소하였으나 듣지 않았다. 23일에도 사부학당과 성균관 생도들이 불가함을 이유로 모두 파하고 돌아가는 등 7월 내내 상소와 사직이 이어졌다. 그러나 “알았다.” “더 이상 할 말이 없다.”며 뜻을 굽히지 않던 세종대왕은 집현전 학사들이 모두 집으로 돌아가자 눈물을 지으며 황희를 불러 이르기를 “집현전의 여러 선비들이 나를 버리고 가버렸으니 장차 이 일을 어찌하면 좋겠는가.” 하였다. 황희가 대답하기를 “신이 가서 달래겠습니다.”하고 곧 두루 모든 학사의 집을 찾아 돌아오기를 간청했다는 사실이 정암의 연주와 증봉의 상소에 나타나 있다.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신하앞에서도 눈물을 흘리셨던 분이 세종대왕이시다.

세종 30년 12월 5일

마침내 불당이 이룩되고 불당경찬회(佛堂慶讚會)가 열렸다. 어선(御膳, 임금에게 올리는 음식)과 다름없는 음식이 장만되고 갑승과 사장(社長, 사창의 곡식을 관리하는 사람)들을 불러 하루 7, 8백명씩 먹이니 소비한 쌀만도 2천 5백 70여석이었다. 곡을 짓고 악기를 새로 만들어서 부처에게 음성공양(音聲供養)을 하고 종(鍾), 경(磬), 범패(梵唄) 소리는 대내(大內)에 까지 들릴만큼 흥겨움이 넘쳤

다. 이때 불당설치에 반대했던 정분, 민신, 이사철, 박연, 김수온 등이 “여러 중들과 섞이어 뛰고 돌면서 밤낮을 쉬지 아니하니 땀이나서 몸이 젖어도 피곤한 빛이 조금도 없었다.”는 기록은 눈여겨 볼 대목이다. 한 때 반대했을 지라도 일이 매듭지어지고 나면 다시 하나가 되는 이 대동의 몸짓들과 이것을 이끌어낸 대왕의 지도력이 아름답고 부럽게만 느껴진다. 우리도 당면하고 있는 현안들의 결말이 나면 다시금 예전처럼 하나된 모습으로 되돌아 갈 수 있으려는지.



▲ 집현전 학사도

세종대왕(世宗大王) 5

옛날 임금들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을 알기 위해 많은 고민을 했다. 그래서 그들은 백성의 이상과 패기를 인도하는데 예(禮)를 썼고 그 음성을 화평하게 하는데 음악을 썼으며 행실을 제한하는데 정치를 썼고 악(惡)을 막는데 형벌을 썼다. 이중에 상위의 덕목이라 할 수 있는 것이 예(禮)와 악(樂)인데 세종대왕은 예와 악을 함께 지니면 덕이 있다고 하는 예기(禮記)의 가르침에 따라 “임금은 나라를 평정한 뒤에는 음악을 제정하고 백성을 편히 살게 한 뒤에는 예를 마련한다. 그러므로 나라를 평안하게 하는 공적이 커지면 악(樂)을 갖추게 되고 군왕의 다스림이 백성들을 골고루 편하게 하면 예를 갖추게 된다.”는 예악론(禮樂論)을 펴게 되었던 것이다.

세종대왕이 음악에 조예가 깊었다는 것은 익히 알려진 사실이다. <박연이 고심하고 애써서 새로 만든 경(磬)을 궁중에 들여와 그 소리를 세종대왕에게 직접 들려 드렸는데 조용히 귀 담아 듣고 있던 임금이 “중국의 편경은 조율이 정확치 않은데 박연은 참 잘 만들었다. 경돌을 얻은 일도 다행이려니와 이 돌로 만든 편경의 소리는 맑고 고우며 그뿐만 아니라 조율도 썩 잘되었다. 그런데 이척(夷則)의 경돌이 소리가 조금 높으니 어찌 된 일인가?” 하고 물었다. 박연이 놀라 경돌을 살펴보니 칫수대로 돌을 갈지 않아서 먹줄이 그대로 남아있는 부분이 있었다.는 일화가 그것을 증명한다. 또한 “아악은 본래 우리나라 음악이 아니고 실은 중국의 음악이다. 우리나라 사람은 살아 생전에는 향악을 듣고 죽으면 아악을 연주하니 어찌된 일이나?” 라고 반문하는 세종대왕의 면모를 보면서 우리 음악으로서의 향악을 민족적 주체 의식속에서 받아들이고 있다는 사실을 또한 엿볼 수 있다.

1449년(세종 31년) 세종대왕은 봉래의(鳳來儀), 보태평(保太平), 정대업(定大業), 발상(發祥)등의 대곡을 작곡하였다. 현재 국립 국악원에서 연주되는 여민락(與民樂)도 봉래의 일곱 곡중 한곡이며 정대업과 보태평은 무형문화재 제 1호로 지정되어있다. 이무렵의 세종실록은 매우 감동적인 사실을 기록하고 있다. 세종 31년 12월 “세종대왕은 음률에 밝아 신악절주(新樂節奏)는 모두 친히 지은 바로서, 막대로 박자를 짚어 장단을 삼고 하루 저녁 사이에 정한 것이다.”

다시 봄이다.

대지가 부드러워지고 생명이 움트고 새 기운이 약동한다. 만상이 그대로 음악이다. 이런 날에 막대로 장단을 맞추면서 세파에 찌든 우리네 가슴에 신명과 신

바람을 불러 일으킬 사람은 과연 누구인가?



▲ 지음도

세종대왕(世宗大王) 6

세종대왕은 22세에 왕위에 올라 54세를 일기로 승하하였다. 세종시대가 문화의 중흥기요 태평성대였으므로 대왕의 일생이 행복으로만 점철되었으리라 생각되지만 세종대왕은 끊임없이 병마에 시달리며 살았다. 그런 고통 중에도 정무를 게을리하지 않고 꼬박 경연에 참석하는가 하면 끝없이 백성들의 안위를 돌보면서 누구도 이룩하지 못한 찬란한 업적을 이룩하였다. 여기에 세종대왕의 위대성이 있다 할 것이다. 실록에 실린 세종대왕의 병력을 찾아보자.

사신을 따라 조선에 왔던 요동의원이 말하기를

“전하의 병환이 상부는 성하고 하부는 허한 것은 정신적으로 과도한 때문입니다. 그래서 한번 호흡하는 동안에 맥이 4번씩 뛰어 평화한 맥과 같은 듯하나 오른쪽 맥은 침하면서 활하고 왼쪽 맥은 침하면서 허합니다. 답이 흉격사이에 기가 유통하지 못하고 수화가 오르내리지 못하니 먼저 소담할 약을 복용하고 다음에 비위를 온화하게 할 약을 복용한 다음에 조리할 약을 진어하여야 할 것입니다.” - 세종 7년 7월 25일

좌대언 김종서에게 말하기를

“내가 풍질을 얻은 까닭을 경은 알지 못할 것이다. 저번에 경복궁에 있을 적에 그때가 한창 더운 여름철이었는데 한낮이 되어 잠시 이층에 올라가서 창문 앞에 누워 잠깐 잠이 들었더니 갑자기 두 어깨 사이가 찌르듯이 아팠는데 이튿날에 다시 회복되었더니 4, 5일이 지나서 또 찌르듯이 아프고 밤을 지남에 약간 부었는데 이 뒤로부터는 때없이 발작하여 혹 2, 3일이 지나고 혹 6, 7일을 거르기도 하면서 지금까지 끊이지 아니하여 드디어 목은 병이 되었다.”- 세종 13년 8월 18일

김돈에게 이르기를

“내가 젊어서부터 한쪽 다리가 치우치게 아파서 10여년에 이르러 조금 나았는데 또 등에 부종으로 아픈 지 오래다. 아플 때를 당하면 마음대로 돌아눕지도 못하여 그 고통을 참을 수가 없다. 내가 두 세 사람의 청하는 바로 인하여 온정에서 목욕을 하였더니 과연 효험이 있었다. 그 뒤에 간혹 다시 발병하는 때가 있으나 그 아픔은 전보다 덜하다. 또 소갈증이 있어 열 서너 해가 되었다. 그러나 이제는 역시 조금 나았다. 지난해 여름에 또 임질을 앓아 오래 정사를 보지

못하다가 가을 겨울에 이르러 좀 나왔다. 지난봄 강무한 뒤에는 왼쪽 눈이 아파 안막을 가리는데 이르고 오른쪽 눈도 이로인해 어두워서 한 걸음사이에서도 사람이 있는 것만 알겠으나 누가 누구인지를 알지 못하겠으니 지난봄에 강무한 것을 후회한다. 한가지 병이 나오면 한가지 병이 또 생기매 나의 쇠로함이 심하다.” - 세종 21년 6월 21일

영의정 황희, 우의정 신개 등을 불러 이르기를

“나의 눈병이 날로 심하여 친히 기무를 결단할 수 없으므로 세자로 하여금 서무를 처결하고자 한다. 내가 눈병을 앓은 지는 벌써 10년이나 되었으나 근래 5년 동안은 더욱 심하니 처음 병이 났을 때에 이와같이 극도에 이르게 될 줄은 알지 못하고 잘 휴양하지 않았던 것을 내가 지금에 와서 후회한다.”- 세종 31년 11월 15일

하연, 황보인등에게 이르기를

“나의 안질은 이미 나았고 말이 잘 나오지 않던 것도 조금 가벼워졌으며 오른쪽 다리의 병도 차도가 있음은 경들이 아는 바이지만 근자에는 왼쪽 다리마저 아파져서 기거할 때면 반드시 사람이 곁에서 부축하여야 하고 마음에 생각하는 것이 있어도 반드시 놀라고 두려워서 마음이 몹시 두근거리노라.”- 세종 31년 12월 3일



▲ 영릉전경

소헌왕후(昭憲王后)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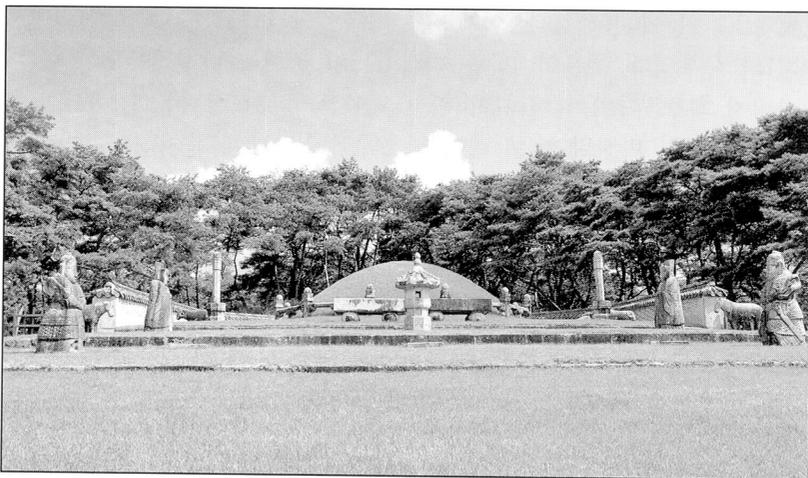
한 민족 역사상 가장 위대한 임금으로 세종대왕이 자리매김 되기까지 그 결에서 조용히 내조의 덕을 쌓은 이가 있었다. 세종대왕과 함께 영릉에 묻혀 있는 소헌왕후 심씨가 바로 그이다.

소헌왕후(昭憲王后, 1395~1446) 세종대왕의 비. 청송 심씨. 경복궁 공사를 감독하느라 손발이 다 터진 좌의정 덕부(德符)의 손녀이며 영의정 온(溫)의 딸이다. 어머니는 영돈녕부사 안천보(安天保)의 딸이다. 소헌왕후의 가문은 동생 심회(沈澮)가 세조때 영의정을 지냄으로서 3대 정승을 배출한 명문가였다. 소헌왕후는 1408년 두 살 아래인 세종대왕과 가례를 올렸다. 세종대왕이 왕세자로 봉해졌을 때 경빈이 되었고 임금이 즉위하자 공비(恭妃)라 불리웠다가 1432년 중궁에게 아름다운 칭호를 올리는 일은 예전의 법이 아니라 하여 왕비로 개봉되었다. 세종대왕이 즉위하자 장인인 심온은 사은사가 되어 명나라로 떠나게 되었다. 영의정이자 왕비의 친정 아버지였으므로 많은 벼슬아치들이 나와 인사를 했는데 전송하는 가마가 거리를 뒤덮을 정도로 위세가 당당했다고 한다. 이 일이 왕권강화를 위해 노심초사하던 상왕 태종의 비위를 거스르게 되었다. 때마침 심온의 아우 심정이 병조판서 박습에게 군사와 인사를 상왕이 처리하는데 대해 ‘명령이 두 곳에서 나온다.’며 평소의 불만을 말했다가 박습이 이를 밀고하는 사건이 일어났다. 이에 심정은 역모의 죄로 참형을 당하고 심온은 그 수괴로 지목되어 귀국 도중 의주에서 체포되어 한양으로 압송된 뒤 수원에서 사사되었다. 일설에 의하면 이때 소헌왕후가 압록강까지 몰래 사람을 보내어 아버지의 귀국을 만류하였으나 심온은 ‘나는 일편단심 나라와 임금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였을 뿐 조금도 사사로운 마음을 가진 적이 없다.’며 압록강을 건넜다고 한다. 사약을 가져 간 금부도사가 마지막 남길 말이 없느냐고 심온에게 묻자 그 자리에서 받아 쓰게 한 것이 ‘오자손세세홀여박씨상혼야(吾子孫世世忽與朴氏相婚也).’였다. 이 말은 내 자손들은 흑시라도 박씨와는 서로 혼인하지 말라는 뜻이다. 이 유언은 불문율로 후손들에게 전해져 왔고 설사 박씨와 결혼한다 할지라도 아들을 못 낳아 대가 끊기거나 융성하지 못했다고 한다. 이 사건으로 왕비의 친정 어머니와 식구들은 관비로 내쳐졌는데 조정에서는 죄인의 자식이므로 왕비를 폐위시키는 것이 마땅하다고 상주하였으나 태종이 이것만은 허락하지 아니하였다. 왕비의 친정식구들을 세종 8년 5월 19일 세종대왕의 결단으로 천역에서 풀려나 복직되었다.

이런 모진 일을 당하면서도 소헌왕후는 왕비로서의 역할을 훌륭히 해내고 있었다. 워낙 천성이 인자하고 착한 터라 질투나 욕심이 없었는데 왕비가 된 후로는 더욱 스스로 겸손하고 조심하여 후궁들을 예로써 대접하고 궁인들 상하를 은혜로 어루만지며 사랑하였다. 세종대왕이 총애한 여인들을 특별히 융숭하게 대하는가 하면 자기가 낳은 왕자들을 그들에게 맡겨 기르게 하니 후궁들이 감복하여 오히려 자신의 소생보다도 더 정성을 기울여 키웠다. 왕비 또한 후궁의 자식들을 자신의 왕자들 처럼 대하니 궁중의 모든 여인들이 왕비를 부모처럼 대접하였다. 소헌왕후는 29년동안 왕비의 자리에 있으면서 한번도 사사로이 친척을 위하여 부탁하지 않았으며 절대로 바깥일에 참여하지 않았고 사소한 일이라도 임금과 의논하여 처리하였다. 이런 아내였기에 왕비가 나오고 물러갈 때 세종대왕은 반드시 일어서서 공경하고 극진한 예로 대하였다고 한다.

정인지가 지은 영릉 지문에 보면 [대개 하늘이 성인을 내내 반드시 어진 배필을 지어서 지극한 다스림을 이루나니 주나라의 태사(太似; 문왕의 비)는 풍아(風雅)에 파영(播詠)되어 천고에 빛났다. 지금 우리 전하께서 이미 지극한 덕과 지극한 다스림으로 문왕의 뒤를 따랐는데 왕후께서 또 이와같은 덕과 행실이 있으니 참으로 하늘이 지은 배합이다. 문왕의 후비가 예전에 아름다움을 독차지하지 못할 것이다.]라고 기록되어 있다.

소헌왕후는 1446년 3월 24일 수양대군의 집에서 52세로 승하하였다. 세종대왕과의 사이에 8남 2녀를 두었는데 문종, 세조, 안평대군, 임영대군, 광평대군, 금성대군, 평원대군, 영응대군, 정소공주, 정의공주다.



▲ 세종대왕과 소헌왕후 합장묘

이계전(李季甸)

살아서는 물론이요 죽어서까지 임금에게 헌신한 이가 있었으니 그가 문열공(文烈公) 이계전이다. 이계전(李季甸, 1404~1459) 본관은 한산(韓山), 자는 병보(屏甫), 호는 존양재(存養齋). 목은 이색의 손자로 종선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권근의 딸이다. 시호는 문열(文烈). 1427년(세종9) 천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집현전 학사가 되었는데 매월당 김시습의 스승이기도 했던 그는 매우 염치를 아는 선비였던 것 같다. 세종대왕이 그를 그의 선배인 김문(金汶)보다 위의 직급인 직집현전에 임명하자 곧바로 상서를 올려 아뢰기를 ‘높은 관질(官秩)에 뛰어 승진되는 것은 고금의 사람이 영광스럽게 여기오나 분수에 지나친 자리에 외람히 있는 것은 사자(士子)들이 부끄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응교(應敎) 김문은 봉렬대부(奉列大夫)로 직위가 조산대부(朝散大夫)인 신의 위에 있었으며 나이도 신보다 5세 위일뿐 아니라 과거에 오른 것도 신보다 7년이 앞섰습니다. 경학에 밝고 행실을 닦은 것도 신과는 비교가 안됩니다. 그런데 김문은 행집현전응교(行集賢殿應敎)가 되고 신은 수직전(守直殿)이 되어 신의 지위가 도리어 그 위에 있게되니 이것은 신이 마음으로 매우 부끄럽게 여기는 바입니다. 삼가 바라옵건대 신의 관직을 김문에게 이수하시면 관직이 상칭(相稱)되고 선후가 차례가 있게되어 소신의 부끄러움도 또한 풀어질 수가 있겠습니다.’ 하였다.

이계전은 1453년 계유정난(癸酉靖難)에 참여하여 정난공신(靖難功臣) 1등에 녹훈되었고 단종복위를 위한 거사를 계획했던 사육신을 제거한 공로로 좌익공신(佐翼功臣) 2등에 봉해졌다. 이계전은 사육신의 한사람인 백옥현(白玉軒) 이개(李塏)의 숙부였다. 목은의 4남중 막내아들인 종선이 다섯아들을 두었는데 이개의 아버지 계주(季疇)가 맏아들이었고 계전은 셋째아들이었다. 이들의 운명이 이렇게 갈린 것은 권람(權擘)의 영향 때문이었다. 권근의 손자로 수양대군의 수족이었던 권람은 이계전의 외사촌 동생이다. 권람은 그 부친인 권제(權躋)가 왕명을 받들어 [고려사]를 편찬하던 중에 사사로운 정리로 곡필(曲筆)한 것이 발각되어 세종 31년(1449) 3월 22일에 고신(告身)과 시호를 추탈당하자 그 환수의 방편으로 수양에게 빌붙어 반역을 도모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외사촌형인 이계전을 포섭하여 수양의 측근으로 만들었던 것이다. 형의 가족이 멸문의 화를 입게되자 이계전의 마음도 편할 리 없었다. 결국 이계전은 술로써 생을 마감하게 된다.

세조 8년 3월 27일. “신숙주에게 이르기를 ‘공신(功臣)등으로 과음하여 죽은

자가 자못 많으니 이계전, 윤암 같은 이가 그러하였다. 이것은 크게 옳지 못한 것이다. 내가 금하여 술을 마시지 못하게 하고자 하는데 어떠한가?’ 하니 신숙주가 대답하기를 ‘한결같이 금지하는 것은 어려우니 과음하지 말게함이 편하겠습니까.’ 하였다. 이에 충훈부(忠勳府)의 유사당상에게 명하여 공신으로 과음하는 자는 모두 핵실(覈實:일의 실상을 조사함)하게 하였다.”

세조가 죽은 후 부인인 정희왕후 윤씨가 계속되는 왕실의 불행이 시아버지인 세종대왕의 능을 잘못 쓴 탓이라 여겨 천릉을 계획하는데 그 천장지(遷葬地)가 바로 지금의 영릉자리에 있던 이계전의 분묘였다. 살아서 충성을 다하였던 임금에게 죽어서 유택까지 바친 이계전은 지금 점동면 사곡리에 누워있다.

세조 5년 9월 16일. “영중추원사(領中樞院事) 이계전이 졸하니, 조회와 저자를 2일 정지하고 관청에서 장사를 맡아 처리하고 쌀, 콩 70석과 종이 1백권을 부의(賻儀)로 내렸다. 이계전은 한산군 이색의 손자인데 성품이 관후하고 기개와 도량이 넓고 컸다. 젊어서 과거에 올라 집현전에 뽑혀 들어갔으며 여러번 승진하여 승정원 도승지가 되었고 정난공신과 좌익공신에 참여하였다. 아들이 셋이 있으니 이우(李瑀), 이파(李坡), 이봉(李封)이었다. 시호가 문열(文烈)이니 사물을 널리 듣고 아는 것이 많은 것이 문(文)이고 덕을 지키고 업(業)을 높인 것이 열(烈)이다.”



▲ 이계전묘

김수온(金守溫)

조선 세조때 정2품이하의 문관들에게 보이는 시험인 발영시가 있었다. 이 시험 이전에는 중국을 의식해 한단계를 낮추어서 문과 1등을 을과(乙科), 2등을 병과(丙科), 3등을 정과(丁科)라고 하였으나 이때부터 중국과 동일하게 문과 1등을 갑과(甲科)라 하게 되었다. 갑과 1등으로 3명을 뽑았는데 그 중에 1등을 장원(壯元), 2등을 방안(榜眼), 3등을 탐화(探花)라고 불렀다. 조선 최초의 갑과 1등 즉 장원이 바로 김수온이다.

김수온(金守溫, 1410~1481) 본관은 영동(永同). 자는 문량(文良), 호는 괴애(乖崖) 또는 식우(拭疣). 아버지는 영의정에 증직된 김훈(金訓)이다. 김수온은 나면 서부터 영리하고 뛰어나 1438년(세종23) 진사시험에 합격하였고 3년 뒤 문과에 급제하여 집현전에서 근무하였다. 세종대왕시절 집현전의 여러 유신들에게 가끔 시문을 짓게 했는데 김수온이 여러번 으뜸을 차지했고 세조때는 으뜸을 놓지 않았다. 그의 줄기에 [김수온은 중 신미(信眉)의 아우로서 선학(禪學)에 몹시 빠져 부처를 무턱대고 신봉하는 것이 매우 심하였다. 전에 회암사에 들어가 머리를 깎고 중이 되려다 그만 두었는데 그의 궤행(詭行)이 이러하였다. 자신을 단속하는 규율이 없어 책을 깔고 그 위에서 자기도 하고 포의를 입고 금대를 띠고 나막신을 신고서 손님을 만나기도 하였다.]라는 비난의 글이 실려있지만 줄기의 또 다른 기술대로 그는 그 시대의 거벽(巨擘:학식등이 남달리 뛰어난 사람)이었음에 틀림이 없다. 이를 증명하듯 여러 학자들의 문집 속에서 그는 경외의 대상으로 살아있었다.

[김괴애의 시는 역시 호방하나니 자못 한가하고 멀리 보이는 이치가 있도다.]

-허균의 성수시화

[괴애의 문장은 응혼범가하여 오로지 자장(子長:사마천) 궤범을 모방하여 세상에서 거스를 사람이 없었다. 중국 사신 진감(陣鑑)이 동으로 와서 희청부(喜晴賦)를 지었는데 괴애가 화답하였다. 진감이 탄복하여 향을 사르고 손을 씻은 뒤에 읽었다.]

-어숙권의 패관잡기

[괴애가 중시의 상시관으로 있을 때 강희안이 성현과 싸우고 자기 조카 강귀손의 대책을 대신 지어주었다. 내막을 모르는 시관들이 모두 탄복하고 장원으로 뽑으려 하자 괴애가 차상정도가 옳다고 했다. 이유를 물으니 '내가 강희안과 더불어 공부하였고 성현은 나에게서 배운 사람이니 내가 그 글을 보건데 허두(虛

頭)에서 축(軸)은 강희안이 지은 것이요 당금설폐(當今說弊)부터 종편(終篇)은 성현이 지은 것이다.' 하니 봉한 것을 뜯어 보고는 여러사람이 다 승복하였다.]- 허균의 기충문화

이 김수온이 여주에 들러 몇편의 시를 남겼다. 그 중의 하나가 차여주동헌운(次驪州東軒韻)이다.

격안소종임하사(隔岸疏鍾林下寺) 언덕을 사이에 두고 먼 종소리가 숲속 절에서 들리고
요헌기진우중산(繞軒奇盡雨中山) 동헌을 두른 빗속의 산은 기이함을 다하였네
고범은영사양외(孤帆隱映斜陽外) 외로운 돛단배 석양 밖에서 은은히 비치니
원수총룡대야간(遠樹蔥籠大野間) 멀리있는 나무는 큰 들 사이를 푸르게 뒤덮었네

김수온의 시호는 문평(文平)이다.

권총(權聰)

태종임금의 셋째 딸인 경안공주가 11세에 시집을 가서 2남 1녀를 낳았으나 막내아들을 낳은 지 2년만인 1415년(태종15) 23세의 젊은 나이로 죽었다. 딸의 죽음을 애통히 여기던 태종이 그녀의 막내를 거두어 궁궐에서 기르니 그가 권총이다.

권총(權聰, 1413~1480) 본관은 안동(安東). 길천군 권규(權跬)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경안공주다. 1453년 40세에 오위(五衛)의 부사정(副司正)에 제수되었고 이어 세조때 세자익위사(世子翊衛司)로 시직, 위술, 익찬등을 거쳐 인순부윤(仁順府尹), 성종때에 지중추부사가 되었다.

태종에 이어 세종대왕도 누이의 아들인 권총을 끄찍이 아꼈다. 세종 18년 중국에 갔다가 돌아온 창가비(唱歌婢:노래를 부르던 노비)를 권총이 첩으로 삼은 사건이 발생했다. 이는 교지(教旨)를 어긴 죄이므로 의금부에서 장(杖) 1백대에 처하고 함께 살지 못하게 하라는 상소를 올렸다. 이에 세종대왕은 권총의 직첩만을 거두고 외방으로 귀양보내는 선에서 마무리하려 하였다. 그러자 의금부에서는 권총의 지난 죄까지 들춰내면서 “권총이 일찍이 내시녀(內侍女)로 들어와 있던 선금(善今)을 첩으로 삼았아오니 죄가 장 1백대에 도(徒) 3년에 해당한다.”고 다시 아뢰었고 사헌부에서도 엄히 다스리자고 청하였다. 이에 세종대왕은 좋은 말로 신하들을 타이른다. “권총은 매우 어리석고 미혹한 자이며 또 선금은 나이가 젊을 때에 시집가도록 허락하여 내보냈으니 권총의 죄는 이만하면 족한 것이니 다시 청하지 말라.”

얼마후 권총을 가만히 서울로 불러들인 세종대왕은 신하들의 반대를 무릅쓰고 그가 다시 벼슬길에 나올 수 있도록 장치를 마련해 놓는다.

여하튼 권총은 여자문제로 조금은 복잡한 인물이었다. 세종실록 21년 5월 13일 기록에 [... 순성군(順城君)이 일타련(一朶蓮)을 취하여 딸 둘을 낳았고 낙안군(樂安君)은 금규월(金閨月)을 취하여 아들 하나를 낳았는데 두 여인은 권총의 첩이었다...]고 되어있고, 단종실록 원년 6월 23일 기록에 [권총이 불당을 짓고 신미(信眉)에 버금가는 중 학열(學悅)이란 자를 머물게 하였는데 학열이 권총의 비첩 세사람을 몰래 간통하였다. 하루는 권총이 의심이 나서 가보니 학열이 한 비첩과 함께 누웠다가 학열은 곧 도망하고 비첩은 스스로 목매어 죽었다.]고 되어있다.

성종 7년의 일이다. 포도장(捕盜將) 이양생(李陽生)이 복명하기를 [여주의 강

금산(剛金山)은 권총의 친묘(親墓)가 있는 곳으로서 권총의 종으로 그 곁에 사는 자가 무려 수백명인데 산에 의지하여 장막을 치고는 경작도 하지않고 길쌈도 하지 않으면서 낮에는 사냥하고 밤에는 떼도독이 되어 함부로 날뛰는 바람에 백성들이 마음놓고 살아 갈 수 없습니다.]하고 도승지(都承旨) 현석규(玄碩圭)가 거들기를 [신이 들으니 권총은 늘 포육(脯肉)과 포화(布貨)를 종들에게서 가혹하게 거두므로 이에 응할 수가 없어 항상 폭력으로 남의 것을 빼앗아 그 요구하는 것을 채운다고 하는데 권총이 책임을 회피할 수 없다고 여겨집니다.]하니 임금 [종이 도둑질하도록 놓아둔 것은 권총의 잘못이다. 다만 척리(戚里: 임금의 외척)의 사람이기 때문에 우선 용서하지만 뒤에 만약 이와같다면 죄가 실로 용서받기 어려울 것이다.] 하였다.

권총이 68세로 죽자 줄기에 [권총은 부귀하게 성장하였으나 성품이 남에게 교만을 부리지 아니하였다. 늘 시와 술 그리고 매와 개로써 스스로 즐겼다. 비록 시첩(侍妾)이 앞에 나열해 있더라도 큰 호사나 사치를 부리지 않았다.]라고 기록하였다. 시호는 영정(靈靖). 부지런하지 않고도 이름을 낸 것이 영(靈)이고 관대하고 화락하게 고종명한 것이 정(靖)이다.

안평대군(安平大君)

흔히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 한다. 그러므로 패자가 좋게 그려질 리가 없다. 왕건에게 왕위를 빼앗긴 궁예의 기록이 그러하듯 그로부터 530여년 뒤에 벌어진 수양대군과 안평대군의 갈등에서도 패자인 안평대군에 관한 기록은 처참하기 이를 데 없다. 안평대군은 1453년(단종1) 9월 죽은 아내를 장사지내기 위해 여주를 찾았다.

안평대군(安平大君, 1418~1453) 이름은 용(瑢), 자는 청지(淸之), 호는 비해당(匪懈堂), 낭간거사(琅玕居士), 매죽헌(梅竹軒). 세종대왕의 셋째 아들이다. 세종대왕 즉위년(1418) 9월 19일에 태어나 1428년 대군에 봉해졌고 이듬해 좌대부언정연(鄭淵)의 딸과 혼인했다. 1430년 수양, 임영대군과 함께 성균관에 입학하였고 함경도에 6진이 설치되자 1438년 다른 왕자들과 함께 야인을 토벌하였으며 황보인, 김종서 등과 제휴하여 수양대군과 맞섰다. 안평대군은 어려서부터 학문을 좋아하고 시, 글씨, 그림 모두를 잘해 삼절(三絶)이라 불렸으며 식견과 도량이 넓어 많은 이들이 교류하고자 모여들었다. 그런데 안평대군의 평가는 그가 죽은 뒤인 세조때에 이르러 부정적인 경향을 보이기 시작한다.

당시에 쓰여진 [용재총화]에 보면 <안평대군은 왕자로서 학문을 좋아하고 시문을 잘하였으며 서법이 매우 뛰어나 천하제일이었다. 또 그림그리기와 거문고타는 재주도 훌륭하였다. 성격이 경솔하고 허황하여 옛것을 좋아하고 좋은 경치를 즐겨 북문밖에다 무이정사(武夷精舍; 武夷精舍의 오기인 듯)를 지었으며 또 남호 가까이에도 담담정(淡淡亭)을 지어 많은 책을 모아두고 문사를 불러모아 십이경시(十二景詩)를 지었다. 또 사십팔영을 지어 혹은 등불밑에서 이야기하고 혹은 달밤에 배를 띄웠으며 혹은 연구(聯句)를 짓고 혹은 바둑 장기를 두고 풍류가 끊이지 않았다. 항상 술마시고 놀았으니 당시의 이름있는 선비로서 교분을 맺지않은 이가 없었고 무리하고 잡스러운 일을 하는 이도 많이 모여들었다. 바둑판과 바둑알은 모두 옥으로 만들었고 또 금물을 글자에 입히고 사람에게 명주와 생김을 짜게하여 붓가는대로 글씨를 쓰다가 초서와 행서를 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모두 내어주는 일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다.

안평대군이 아내 정씨를 여주에 장사지낼 때의 기록에 이르러서는 정도가 조금 심해진다. <용(瑢;안평대군)이 여흥 공관에 있으면서 장사는 근심하지 않고 이현로, 이의산, 박하 등 여러 소인배와 더불어 혹은 활을 쏘기도 하고 혹은 바둑을 두기고 하며 종일토록 술을 마시고 잔치하며 혹은 기생을 끌고 방주를 강

에 띄워 오르내리면서 뱃놀이하고 희롱하여 법도가 없었다. 이미 국상을 당하고 또 집에 상사가 있는데 함부로 놀기를 예사로 하며 ... > - 단종 1년 9월 9일

같은 해 10월 25일의 단종실록에서는 안평대군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이 도를 넘어서고 있다. <용(瑢)이 성녕대군의 후사가 되어 성녕의 부인 성씨를 간통하였고 또 세종때에 궁의 담을 넘어 출입하여 두어 계집종을 간음하였고, 세종 2년 안에 여러 소인들과 더불어 미복차림으로 마을에 나가 간음하여 남의 아내와 첩을 빼앗은 것이 그 수를 알 수 없고 상피(相避)도 가리지 않아서 꺼리는 바가 없었다.>

그러나 1447년 4월 안평대군의 꿈이야기를 듣고 안견이 그린 <몽유도원도>에 신숙주, 이개, 정인지, 박연, 김종서, 박팽년, 이현로, 서거정, 성삼문, 김수온 등 21명의 찬문이 실려있는데 이들의 면면에서 안평대군의 교유범위가 천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고 더구나 사육신중의 한사람인 성삼문과는 <매죽헌>이란 호를 같이 사용할 정도로 의기가 투합했던 것으로 보아 안평대군의 인품이 녹록치 않았음을 알 수 있다.

1453년 계유정난때 아들과 간통했다는 치욕적인 누명을 쓴 성녕대군 부인은 아들로 삼았던 안평대군이 수양대군에게 죽자 분한 마음에 굶어죽고 말았다. 비록 양아들이지만 아들을 위하는 마음은 생모나 다름없었던 것이다. 안평대군은 1747년(영조 23) 영의정 김재로의 상소로 복관되었다. 시호는 장소(章昭)이다.

어세겸(漁世兼)

바야흐로 선거철이다. 며칠 전 두 정당에서 경기도지사 후보를 확정 발표했다. 그러나 도지사 자리가 그리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역사는 보여주고 있다. 500년전 지금의 도지사 격인 경기관찰사를 지낸 이의 행적을 더듬으면서 도지사를 꿈꾸는 사람들은 물론 도지사를 선출하려는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바로 했으면 한다.

1485년(성종16) 4월 27일 경기관찰사로 임명된 이가 있었으니 그가 어세겸이다.

어세겸(漁世兼, 1430~1500) 본관은 함중(咸從). 자는 자익(子益), 호는 서천(西川). 판중추부사 어효첨(漁孝瞻)의 아들이며 좌의정 박은(朴崧)의 외손이다. 1456(세조2) 동생 세공(世恭)과 동방(同榜)으로 식년 문관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대사헌, 형조·호조·병조판서, 좌참찬, 우찬성, 좌찬성을 거쳐 우의정이 되었고 1496년 좌의정이 되었다가 1498년 무오사화 때 벼슬에서 물러났다. [무오사화]는 성종실록을 편찬하면서 사관으로 있던 사림파 김일손이 훈구파의 비행과 스승인 김종직의 조의제문(弔義帝文)을 사초에 올렸는데 이전부터 갈등을 느껴오던 훈구파의 유자광과 이극돈등이 이는 세조의 왕위찬탈을 비방한 것이라고 연산군에게 고해 바침으로서 일어났다. 이때 어세겸은 수사관(修史官)으로서 문제의 사초를 보고하지 않았던 죄로 파면되었다. 김종직의 시문에 매료되어 [나로 하여금 말고삐를 잡고 따라 다니라 해도 달게 받겠다.]고 까지 했던 어세겸으로서 는 어쩔 수 없는 일이었는지도 모른다.

어세겸이 경기관찰사 재직중 초도순시차 여주에 왔다가 청심루에서 시를 여러 편 지었다.

[높은 루의 손님들은 경치를 자랑하지만 넓은 집 백성들을 누가 돌보겠는가]라며 지역유지들의 환대에 한눈 팔지 않았던 그의 자세가 오늘의 우리에게도 교훈이 될 듯 싶어 그의 시를 한 수 소개한다.

세사분분개일단(世事紛紛豈一端) 분분한 세상일 어찌 하나 뿐이라
우찬미제괴부안(憂贊眉際愧浮顏) 이마살 찌푸린 내 얼굴이 부끄럽네
민다반복주행수(民多反覆舟行水) 변덕스러운 백성은 물위를 지나는 배같고
이유현우목재산(吏有賢愚木在山) 피많은 관리들은 산속의 나무같네
야록세난회장상(野鹿世難回掌上) 야록의 세상사 손바닥 위에서 돌아가니

사룡재숙탁운간(士龍才孰托雲間) 사룡의 재주를 뉘 운간에 맡길꼬
 사화정절여강로(使華旌節驪江路) 왕명을 받고 정절의 사도로 가는 여강길
 지박분망불박한(只博奔忙不博閒) 바쁜 데는 익숙해도 한가한 데는 어둡네
 ※사룡운간(士龍雲間) : 훌륭한 인재의 발굴을 어떻게 할까 하는 뜻.

1500년 11월 28일 함중부원군 어세겸이 죽었다. 줄기에 이렇게 적혀있다.
 [천품이 확실하고 기개와 도량이 크고 넓어 침을 두지 않았고 용모를 가식하
 지 않았으며 청탁하는 일이 없었고 소소한 은혜를 베풀지도 않았다. 천성이 또
 한 청렴하고 검소하여 거처하는 집의 벽은 흙만 바를 뿐 붉은 칠을 하지않았다.
 경사읽기를 즐기고 평생동안 사악한 것을 멀리하고 터무니없는 말에 미혹되지
 아니하여 그 마음을 움직이지 않았다. 비록 활쏘기와 말타기 하는 재주가 있었
 으나 자기자랑을 하지 않았으며 일찍이 편지를 보내 자제들을 위한 은택을 구한
 는 일을 하지 않았다. 즐하게 되자 집안에 남은 곡식이 없었는데 세상평판이 추
 앙하고 존중하여 재상감이라고 하였었다.] 어세겸의 묘는 서울 강동구 고덕동에
 있었으나 1982년 가남면 금당리로 옮겼다. 시호는 문정(文貞).



▲ 함중어씨 분산표석

최숙정(崔淑精)

1469년(예종1) 경기도 광주 대모산에 있던 세종대왕의 영릉이 여주로 옮겨졌다. 그해 8월 8일 천령현(川寧縣)을 여흥부(驪興府)에 합하여 목(牧)으로 승격된 뒤 8월 18일 여흥에서 여주로 이름이 바뀌었으니 비로소 여주가 역사 속에 등장하게 되는 것이다. 조선왕조실록을 기준으로 제 7대 여주목사를 지낸 이가 최숙정이다.

최숙정(崔淑精, 1433~1480) 본관은 양천(陽川). 자는 국화(國華), 호는 소요재(逍遙齋) 또는 사숙재(私淑齋). 오위사정(五衛司正) 최중생(崔仲生)의 아들로 이천 대월에서 출생했다. 1461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이듬해 식년문과에 급제한 뒤 사관으로 발탁되었다. 1466년 문과중시에 3등, 발영시에 2등으로 급제하여 사가독서의 혜택을 입었다. <삼국사 절요> <동문선> 편찬에 참여하였으며 그 공로로 통정대부에 오르면서 1478년 3월 5일 여주목사가 되었다. 최숙정에 대한 역사의 평가는 조금 냉소적이다. 그가 여주목사로 임명되자 사관이 논평하기를 [최숙정은 옛사람의 시문을 잘 표절하여 일찍이 상서하여 일을 논하는데 모두 <대학연의>의 칠월편론을 전사하였고 당시에 원시체요(元詩體要)가 아직 세상에 널리 전파되지 않았는데 홍문관 월과(月課)에서 최숙정이 전부 원시(元詩)의 표절을 범하여 수석을 차지하였다. 한 동료가 그에게 말하기를 '시를 지을 때 옛사람의 시를 보는가?' 하니 최숙정이 보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 동료가 원시체요를 가져다가 최숙정이 표절한 편을 가리키면서 웃으며 보이니 최숙정이 다른 것을 말하면서 보지 아니하였다.] 하였다.

1479년 여주목사 최숙정의 실정(失政)이 임금에게 보고되었다. 조사관으로 여주에 파견되었던 집의(執義) 김여석(金礪石)이 아뢰기를 '신이 일찍이 명을 받고 여주에 가서 창고에 있는 곡(斛; 곡식을 되는 그릇) 4개를 보았는데 14두(斗)들이가 1개, 15두들이가 1개, 14두 5승(升)들이가 2개 었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나누어 줄 때는 소곡(小斛)을 쓰고 거둬들일 때는 대곡(大斛)을 쓴 것이 확실합니다.' 하였다. 즉 백성들에게 곡식을 적게 내려주고 많이 거두어 들여 착복했다는 것이다. 이 죄는 장(杖) 1백대와 고신(告身)의 추탈에 해당한다고 사헌부가 아뢰자 성종임금이 '최숙정은 일찍이 경연관이 되어 그 사람됨이 쓸만하였고 또 여러 대신이 모두 최숙정이 치민(治民)의 공효가 있다고 말하니 하나의 작은 일을 가지고 갑자기 파직할 수 없다.'고 두둔하고 나섰다. 그러나 대간들이 계속 벌주기를 청하자 3월 1일 최숙정의 파직을 명했다. 이듬해 4월 최숙정은 다

시 임금의 부름을 받아 홍문관 부제학이 되었는데 9월 2일 갑자기 죽었다. 이날 사관이 논평하기를 [최숙정은 글재주가 조금 있었으나 재주있는 사람을 투기하여 동료들에 끼지 못하는 바가 되었다. 일찍이 여주목사로서 파직되어 뜻을 얻지 못하다가 이때에 이르러 홍문관에 다시 들어와 매우 기뻐하였는데 마침 술과 안주를 하사하시어 최숙정이 실컷 마시고 이것으로 인해 병을 얻어서 죽은 것이다.] 하였다.

하지만 세간의 평이란 것이 원래 무상한 것이어서 길게 의지할 바가 못된다. 최숙정이 여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보며 마음 한 구석을 실었으니 함께 감상해보시라.

그림같은 누각 곱고도 단정한데
다시 풍월로 수심에 찬 얼굴을 씻네
동쪽 언덕의 절은 물에 닿아있고
서쪽 기슭 만가는 고요히 산을 지고 있네
굽어보고 쳐다보니 건곤이 모두 세속밖이요
누에 오르니 신체가 인간사를 떠났네
몇 년 후 욕심부리던 벼슬버리고
티끌 옷깃 털어 죽기까지 한가하리라.

단종(端宗)

곡우(穀雨)가 지나갔다. 소한(小寒)부터 불던 이십사번화신풍(二十四番花信風)의 마지막 자락이 이 땅을 스치고 갔다는 이야기다. 이제 철쭉이 피고 두견새가 처연한 울음을 쏟을 것이다. 이무렵이면 생각나는 이가 있으니 그가 단종이다.

단종(端宗, 1441~1457 재위 1452~1455) 조선 제 6대 임금. 이름은 홍위(弘暉). 아버지는 문종(文宗)이며 어머니는 현덕왕후(顯德王后) 권씨, 비는 정순왕후(定順王后) 송씨이다. 1452년 5월 문종이 재위 2년만에 승하하자 근정전에서 12세의 어린나인으로 즉위하였다. 그러나 3년 뒤인 1455년 6월 11일 숙부인 수양대군에게 왕위를 빼앗기고 상왕(上王)이 되어 수강궁(壽康宮)으로 옮겨가 살았다. 이듬해 6월 상왕을 복위시키려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이 사건의 주동인물들이 사육신(死六臣)이다. 이들은 세종대왕과 문종에게 특별한 은혜를 입었으며 특히 세종대왕으로부터 원손(元孫: 단종)을 보호해 달라는 간곡한 부탁을 받은 터였다. 마침 명나라 사신을 창덕궁에 초대하여 연회하는 날, 그 자리에서 세조와 그의 아들을 죽이고 측근 세력도 제거한 뒤 단종을 복위시키려 하였으나 그 계획이 실행되기도 전에 모의에 가담했던 김질(金礪)의 고발로 실패하고 말았다. 이 사건의 여파로 1457년 6월 단종은 노산군(魯山君)으로 강봉되어 강원도 영월에 유배되었다.

단종은 유배길에 여주를 거쳐갔다. 광나루에서 뱃길로 금사면 이포에 도착한 단종은 대신면 상구리 어수정(御水井)에서 한 여름의 갈증을 달랠다. 유배길에 오른 이 불쌍하나 임금을 위로하였다하여 대신면 보통리엔 위안동이란 지명이 지금껏 남아있기도 한데 사실 여부를 떠나서 순박한 우리 선조들의 고운 마음씨를 보는 듯하여 흐뭇하다.

한양을 출발한 지 7일 만에 유배지인 영월 청령포에 도착한 단종은 경상도 순흥에 유배되어 있던 작은아버지 금성대군의 단종복위계획이 탄로 남으로써 노산군에서 서인으로 강봉을 당하게 된다. 이로부터 한달 뒤인 10월 24일 세조의 명을 받고 내려온 금부도사에 의해 단종은 죽음을 맞았다.

영월에 있는 동안 단종은 관풍헌 매죽루에 올라 울적한 심사를 시귀에 실어 풀곤 했는데 자규사(子規詞)란 이름으로 오늘에 전한다.

일자원금출제궁(一自冤禽出帝宮) 원통한 새가 되어 제궁에서 나오니

고신척영벽산중(孤身隻影碧山中) 깊은 산중에 짝 잃은 그림자로구나
 가면야야면무가(暇眠夜夜眠無假) 눈을 감아도 밤마다 뜬 눈이요
 궁한년년한불궁(窮限年年恨不窮) 끝없는 한은 갈수록 끝이 없네
 성단호잠잔월백(聲斷曉峯殘月白) 자규새 소리땀고 조각달 밝은데
 혈루춘곡낙화홍(血淚春谷落花紅) 봄 골짜기에 피눈물 흐르고 꽃송이 떨어져
 붉었구나

천룡상미문애소(天龍尙未聞哀訴) 하늘도 귀가 먹어 애소를 못 듣는데
 하내수인이독충(何奈愁人耳獨聰) 어찌하여 수심 많은 내 귀에만 들리는가

단종은 1681년(숙종7)에 가서야 노산대군을 추봉되고 1698년 전 현감 신규(申奎)의 상소로 복위가 결정되었다. 시호를 공의온문순정안장경순돈효대왕(恭懿溫文純定安蔣景順敦孝大王)으로 하고 묘호를 단종으로 추증하였다. 능호는 장릉(莊陵)이다.



▲ 단종어수정

임사홍(任士洪)

T V사극 ‘왕과 비’에선 요즘 연산군이 등장하고 있다. 연산군하면 으레 떠오르는 것이 사화(士禍)이다. 연산군 시절 조선시대 최초로 2번에 걸쳐 사화가 일어나는데 무오사화[戊午士禍 1498년(연산군4)]와 갑자사화[甲子士禍 1504년(연산군10)]가 그것이다. 그 중에 갑자사화는 연산군의 생모 윤씨의 복위문제로 촉발된 사화이다. 성종비(成宗妃) 윤씨는 질투가 심하여 왕비의 체모에 어긋난 행동을 많이 하였다는 이유로 1479년(성종10)에 폐출되었다가 다음해 사사(賜死)되었다. 성종의 엄명으로 감추어졌던 이 사건은 연산군 등극후 폐비 윤씨의 생모 신(申)씨가 저 유명한 ‘금삼(錦衫)의 피’의 전말을 임사홍에게 전하마로서 드러난다. 임사홍이 이 사실을 연산군에게 고하니 마침내 연산군의 분노는 폭발하고 관련자들에 대한 대살육의 참극이 벌어졌던 것이다. 이때의 일을 실록에서 살펴보면 [어느날 상이 미복으로 그의 집에 가서 사홍을 불러 술잔을 올리게 하였는데 사홍은 임금을 뵈자 절하며 울기를 목이 메이도록 하였다. 임금이 깜짝 놀라 물으니 사홍은 말하기를 ‘대궐 문이 겹겹이라 스스로 들어가 아뢴 수 없었는데 오늘 저의 집에서 성주를 뵈 줄 어찌 뜻하였겠습니까?’ 하고, 이어 ‘엄숙의(嚴淑儀)와 정소용(鄭昭容)이 모후를 참소하여 폐비하였다.’고 무소(誣訴)하니 임금도 또한 울었다. 밤이 들어 환궁하자 곧 엄, 정 두 원(媛)을 불러 손수 죽였다.] 연산 12년 4월 17일

임사홍(任士洪, 1445~1506) 본관은 풍천(豊川), 초명은 사의(士毅), 자는 이의(而毅), 좌찬성 원준(元濬)의 아들이며 효령대군의 아들인 보성군(寶城君)의 사위다. 그의 아들들도 왕실의 사위가 되는데 광재(光載)는 예종의 딸 현숙공주(顯肅公主)와 결혼하여 풍천위(豊川尉)가 되고 승재(崇載)는 성종의 딸 휘숙옹주(徽淑翁主)에게 장가들어 풍원위(豊原尉)가 되었다. 임사홍은 1466년(세조12)에 사재감사정(司宰監司正)으로서 춘시문과에 3등으로 급제하였다. 그 뒤 홍문관 교리, 도승지, 병조판서, 이조판서등을 역임하였다. 중국말에 능통하여 관압사(管押使), 선위사(宣慰使)로 명나라에 다녀왔으며 승문원에서 중국말을 가르치기도 하였다. 글씨는 촉체(蜀體)를 잘 썼고 특히 해서(楷書)에 뛰어나서 노사신, 한확, 서거정등의 신도비 및 묘비명을 쓰기도 했다.

임금과의 척분을 이용해 권력 깊숙히 개입하였던 임사홍은 중종반정이 일어나던 날 연산군의 처남인 신수근 등과 함께 살해된다. 추살(椎殺)되었다는 기록으로 보아 방망이에 맞아 죽은 듯 싶다. 임사홍이 죽은 뒤 20여일 후에 새 임금 중

중에게 의금부가 아뢰기를 ‘임사홍은 선왕조에서 봉당과 결탁하여 조정을 문란케 하였으며 오히려 관전(寬典)을 입어 처단을 모면하더니 폐왕조에 이르러는 그 아들 임승재를 연줄로 하여 나인 장녹수(張綠水)에게 빌붙어 온갖 피를 다 부리며 악한 일을 하도록 부추겼고 충직한 사람들을 해치고 백성을 도탄에 빠뜨리며 임금을 불의에 빠뜨려 중사를 위태롭게 하였으니 그 죄는 부관참시(剖棺斬屍)하고 적몰가산(籍沒家産)해야 합니다.’라고 하였다. 중중이 박원종등 공신들에게 묻고나서 전교하기를 ‘금부가 아뢴대로 단죄하고 묘소의 석물(石物)도 철거하는 것이 좋겠다.’ 하였다.

임사홍의 묘는 아버지 임원준의 묘(여주읍 능현리)에서 좌측으로 100여 m 떨어진 곳에 있다. 임사홍의 묘 양옆에는 후대에 남의 눈을 피해 세웠음직한 크기와 모습이 다른 자그마한 문인석이 서있다. 임금의 명령으로 사후 500년 동안 임사홍의 묘에는 대석만 남은 채 비신(碑身)이 서질 못했는데 지난 1997년 후손들이 용기를 내어 비신을 세웠다. 500년의 세월을 지낸 후에야 비로소 제 모습을 갖추게 된 임사홍의 묘비를 보면서 불의에 대한 정의의 심판이 이토록 준엄한 것임을 새삼 깨닫는다.



▲ 임사홍묘

임송재(任崇載)

연산군처럼 시(詩)를 많이 남긴 임금도 드물다. 실록에 전해지는 것만도 120여편에 이른다. 이 시적 감수성이 생모의 비극적 죽음으로 인해 왜곡되면서 연산군 시대를 난정(亂政)과 광풍으로 몰아갔다는 시각이 있다. 그렇다고 해도 연산군의 미치광이 짓은 도가 지나쳤다. 사회를 일으켜 아버지 성종이 길러낸 수많은 신진사류들을 죽이고 자신을 비방한 투서가 언문으로 쓰여지자 한글 교습을 중단시키는가 하면 언문구결을 모조리 거두어 불태웠다. 성균관 유생들을 몰아내고 놀이터를 만들었으며 경연을 폐지하고 사간원을 없애 언로를 차단했다. 그의 궁중생활은 더 더욱 어지러웠다. 아버지의 후궁들을 자기 손으로 죽였다는 것은 지난번에도 이야기 했거니와 야사(野史)에는 할머니 인수대비를 머리로 들이받았다고도 하고 면전에다 술상을 던졌다고도 하여 병상에서 할머니를 죽게 만들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온다. 채홍사, 채청사를 두어 전국에서 미녀와 양마를 구해와 즐기는 것도 모자라 큰어머니인 월산대군 부인 박씨를 범하고 배다른 동생 휘숙옹주(徽淑翁主)와도 간통했다. 이처럼 연산군을 폭정과 황음으로 빠져들게 하는데 일조를 한 사람이 바로 임송재다.

임송재(任崇載 ?~1505) 임사홍의 4남 2녀중 넷째 아들이며 성종의 사위다. 성종의 딸 휘숙옹주와 결혼해서 풍원위(豊原尉)에 봉해졌다. 세간에서 임사홍 부자를 보는 눈이 곱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일화가 있다. 휘숙옹주가 임송재와 혼인하던 날 밤, 임사홍의 집에 불이나 옹주가 이웃집으로 피신하는 소동이 벌어졌는데 당시 사신(史臣)이 논평하기를 '임사홍은 소인이다. 불의로써 부귀를 누렸는데 그 아들 임광재가 이미 공주에게 장가를 가고 지금 임송재가 또 옹주에게 장가를 갔으니 복이 지나쳐 도리어 재앙이 발생하여 불이 그 집을 태워버렸던 것이다. 착한 사람에게는 복을 주고 악한 사람에게는 재앙을 주니 천도(天道)는 속이지 않는 것이다.' 하였다.

임송재는 연산군이 중종반정으로 쫓겨나기 1년전에 병들어 죽었는데 실록에 그의 인품을 가늠해 볼수 있는 줄기(卒記)가 남아있어 소개한다. [풍원위 임송재가 죽었다. 송재는 임사홍의 아들로서 성종의 딸에게 장가들었는데 간흉하고 교활하기가 그 아버보다 심하여 극진히 위를 섬기어 사랑을 받으려고 왕의 행동을 엿보아 상이 마음먹고 있는 것을 다 알았다. 그리하여 여러번 미녀를 바치니 왕이 이로부터 매우 총애하고 신임하여 송재의 집 사면에 있는 인가 40여채를 헐어내고 담을 쌓아 창덕궁과 맞닿게 하였다. 그리고 매양 거기에 가서 마시고

노래하면서 밤을 새웠는데 승재는 그 누이동생을 시침(侍寢)하게 하였으며 왕은 응주까지 아울러 간통하였다. 승재는 노래와 춤이 능하여 춤출 때에 간혹 몸을 움추리면 아이들 처럼 온몸의 지절(肢節)이 재롱을 떨어 기변(機變)의 교(巧)와 같았으며 더욱 처용무에 능하고 또 활쏘기와 말타기도 약간 알았으므로 왕이 기뻐하여 노래도 하고 춤도 추고 활도 쏘고 말도 달리는데 날마다 승재와 짝이 되었다. 승재도 스스로 은총만을 믿고 그 아버와 더불어 날마다 흥모를 꾸며 평일에 혐의 있는 자는 보복하지 않은 적이 없었으며 자기에게 붙는 자는 비록 비천한 무리라도 반드시 천거하여 쓰게 하였으므로 조정을 흐리게 하고 왕의 악을 점점 더 자라게 하는 데에 못하는 일이 없었다. 왕이 그가 병들어 괴로워 한다는 말을 듣고 중사(中使)를 보내서 할 말이 무엇인가를 물으니 대답하기를 ‘죽어도 여한이 없으나 다만 미인을 바치지 못한 것이 유한입니다.’ 하였다. 그가 죽자 왕은 몹시 슬퍼하여 승지 윤순(尹璠)을 보내 조문하게 하고 부의를 특별히 후하게 주었다. 빈소를 차린 후에 왕은 그 처를 간통한 일이 빌미가 될까 염려하여 중사를 보내어 관(棺)을 열고 무쇠조각으로 시체의 입에 물려 진압시켰다.]

중종의 배려로 부관참시를 면한 임승재는 그의 부인 휘숙옹주와 함께 아버지 임사홍의 묘에서 오른쪽으로 1km 떨어진 여주읍 능현리 야산에 묻혀있다.



▲ 임승재묘

이장곤(李長坤)

거칠 것 없던 연산군에게도 두려운 존재가 있었다. 그가 이장곤이다. 이장곤(李長坤 1474~?) 본관은 벽진(碧珍), 자는 희강(希剛), 호는 학고(鶴臯), 금현(琴軒), 금재(琴齋), 우만(禹灣)이며 아버지는 한성참군(漢城參軍) 증(贈) 의정부좌찬성(議政府左贊成) 승언(承彦)이고 어머니는 이조참판(吏曹參判) 춘양군(春陽君) 내(來)의 딸인 완산(完山) 이씨이다. 이장곤은 김굉필(金宏弼)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495년(연산1) 생원시에 장원으로 급제하고 1502년 알성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문무를 겸전했던 그는 1492년(성종23) 유자광(柳子光)에 의해 유장(儒將: 문반의 관원으로 무재(武才)가 있는 사람을 택하여 임명한 장수)으로 천거된 바 있다. 이장곤은 1504년 교리로서 갑자사화에 연루되어 이듬해 거제도도로 유배되었는데 무예와 용맹이 출중했던 그가 변을 일으킬까 두려워 한 연산군이 그를 서울로 잡아올려 처형하려하자 이를 눈치채고 함흥으로 달아났다. 이때의 일이 연산군 일기에 남아있다. [남해근리사(南海謹理使) 유방(柳房)이 치계하기를 ‘죄인 이장곤이 도망갔습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장곤의 집을 즉시 폐쇄하고 그 부모, 동생과 족친을 수금(囚禁)하며 의금부 낭원중 순직 근신한 자를 보내어 그 형 이장길(李長吉)과 함께 조치하여 잡되 손바닥을 꿰어 수갑을 채우고 칼을 씌워 오라.’ 하였다. 이어 전교하기를 ‘의금부 낭원중 활을 잘 쏘는 무신 2명을 보내어 잡아오라. 장곤은 활 잘쏘는 용사이니 그를 잡아 고하는 자는 익명서(匿名書)때 잡아 고한자와 같이 논상하라. 그리고 남해현감 유성(柳星)은 이 실정을 모를리 없으니 잡아다 국문하라.’ 하였다.] -연산군 12년 8월 17일

함흥으로 도망간 이장곤은 고기잡이를 직업으로 하는 수척(水尺)의 집에 몸을 의지한다. 수척중에 양(楊)씨 성을 가진 사람이 있었는데 그 아우가 이장곤의 비범함을 보고 그의 형으로 하여금 사위로 삼게 하였다. 그러나 장곤이 천한 일을 할 줄 모르므로 장인은 항상 게으른 사위라 부르고 같은 마을사람들도 모두 비웃었다. 다만 부인이 된 어부의 딸만이 온갖 궂은 일을 다 돕고 함께 고생하였는데 이로 말미암아 중종반정후 이장곤이 다시 벼슬길에 올랐을 때 함께 살 수 있게 됨을 물론 임금으로부터 치하를 받게 된다. 강효석(姜敷錫)이 지은 대동기문(大東奇聞)에는 이장곤이 몸을 의탁한 곳이 유기장(柳器匠: 고리버들의 가지나 대오리를 엮어 물건을 만드는 사람)의 집이었으며 그 딸을 정부인으로 삼았다고 되어있다. 그러나 여기서는 판중추부사(判中樞府事) 채계공(蔡濟恭)이

쓴 금헌선생실기서문(琴軒先生實紀序文)과 예조참의(禮曹參議) 이상정(李象靖)이 쓴 이장곤의 행장(行狀)의 내용을 따랐다.

1508년(중종3) 박원종(朴元宗)의 추천으로 다시 기용된 이장곤은 사헌부 장령, 동부승지, 이조참판, 대사헌, 이조판서를 거쳐 우찬성겸 병조판서가 되었다. 병조판서시절 심정(沈貞), 홍경주(洪景舟)등에게 속아 기묘사화를 일으키는데 가담하였으나 이들의 목적이 조광조(趙光祖)를 비롯한 신진사류들을 죽여 없애려는 것임을 알고는 심정등의 계획에 적극 반대하였다. 더욱이 죄인으로 몰린 사람들을 신문할 때 서로 자(字)와 명(名)을 부르며 신문하였다 하여 결국 관직을 삭탈당하고 여주에 은거하게 된다.

여강으로 물러난 이장곤은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 기재(企齋) 신광한(申光漢)등과 더불어 신록사에서 술과 시로서 세월을 보내다가 조정의 정사를 비난한다는 모함을 받고 경남 창녕 옛집으로 돌아가 생을 마쳤다. 여기서 한가지 관심을 끄는 대목은 이장곤의 호가 ‘우만(寓灣)’이었다는 점이다. 여주문화원이 1996년에 발간한 ‘여주고을 땅 이름의 유래’에 보면 여주읍 우만리(又晩里)는 마을 앞으로 흐르는 강물이 고여 소(沼)가 졌으므로 소만이 또는 우만, 우만이, 우강이라 하였는데 1914년 일제의 행정구역 변경조치에 따라 우만리라 하였다 한다. 또 조선시대 판서와 찬성을 지낸 이장곤이 이곳에 머물러 살면서 동네 이름을 따서 호를 우만(又晩)이라 했다고 기록하고 있다. 이를 간추리면 이장곤은 우만리에서 살았던 것으로 보이며 그의 호에서 보듯 동네이름이 원래 우만(寓灣: 한국민족문화백과사전 참조)이었으나 변천과정에서 우만(又晩)으로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 1512년(중종 7년 7월 13일) 평안도 병마절도사로 있을 때 2천여명의 야인이 쳐들어오자 정병 3백여명을 이끌고 한사람의 전사자없이 적을 섬멸했던 용병의 달인 이장곤이 5백여년전 이땅에서 살다갔다.

김안국(金安國)

모재 김안국이 기묘사화때 파직되어 점동면 원부리에 우거하고 있었다. 허전한 심사를 달래기 위해 경치좋은 이포 강가에 정자를 세우니 그것이 범사정(泛槎亭)이다. 지금은 훼손되어 전하지 않고 있으나 이 인연으로 김안국은 금사면 기천서원에 배향되었다. 김안국(金安國, 1478~1543) 본관은 의성(義城), 자는 국경(國卿), 호는 모재(慕齋)다. 참봉 김연의 아들이며 정국(正國)의 형이다. 조광조, 기준등과 함께 김굉필의 문인으로 1501년(연산군7) 생진과에 합격하였고 1503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며 1507년(중종2) 문과 증시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조판서, 대사헌, 병조판서, 대제학, 판중추부사, 세자이사(世子貳師)등을 역임하였다. 실록에 보면 [나이 20세가 못되어 부모를 연이어 여의었던 까닭에 호를 모재(慕齋)로 자호하고 정성을 다하여 죽은 부모를 섬겼다. 출입할 때는 반드시 고하였으며 초하루와 보름에는 반드시 제(祭)를 올렸다. 조금이라도 의례(儀禮)에 어긋나면 온 종일 즐거워하지 않았으며 정성스럽게 친족을 대우하여 모두에게 환심을 얻었다. 젊어서부터 벼슬에 올라서는 밤낮으로 수고로움을 잊고 국사에 힘을 다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김안국의 성품을 짐작케하는 일화들이 있다. 김안국이 벼슬에서 물러나 있을 때 마을 사람들이 풋콩을 삶아 오기도하고 혹은 오이를 따가지고 와서 바쳤는데 김안국은 그것을 모두 토박토박 책에 기록하였다. 동생 정국이 이를 보고 편찬을 두자 ‘사람들이 성의로 보내오는데 내가 어찌 남의 은혜로운 뜻을 버리겠는가’ 하였다. 정국은 간소하고 담박하여 나물과 잡곡밥도 이어가지 못하였으나 김안국은 전원을 장만하여 양곡을 쌓아두고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가 또 거두어 들이며 고을의 모임에는 꼭 참석하였다고 한다. 한번은 김안국이 전라감사가 되었을 적에 마침 전주에 있는 경기전(慶基殿:태조 이성계의 어진을 모신 곳)을 중창하는 날을 당하여 경기전 대문밖 조금 가까운 곳에 별도로 별당 두세 칸을 건축하였다. 1623년 (인조1) 계해반정 뒤에 정승 원두표가 정사공신(靖社功臣)으로 방백이 되어 경기전을 방문, 태조의 영정을 배알하였다. 이때 경기전 참봉이 기생을 불러 이 별당에서 같이 자고 있었다. 원두표는 그 별당을 철거해 버렸다. 그 뒤 나이 젊은 경기전 참봉들이 집을 떠나 객지생활을 하는 동안 무료함을 견디지 못하였다. 그러나 기생을 묵게할 곳이 없어서 무엄하게도 재실(齋室)에 몰래 끌어들여 같이 자기도 하였다. 이런 일로 김안국의 일 처리에 대해 수궁하는 자가 많았다고 한다.

모재집(慕齋集)에 그가 남긴 가훈이 전하는데 여기서 그의 삶의 모습을 가늠해 볼 수 있다.

1) 나라에 충성하라 (忠君)

나라가 평화로울 때 맡은 일에 매진하고 위태로울 때 죽을 힘을 다하여 어려움을 이기되 변심하지 말라.

2) 어버이에게 효도하라 (孝親)

힘을 다하여 아버지를 봉양하고 학업을 부지런히 닦아 세상에 이름을 빛내도록 하라.

3) 친척들과 화목하게 지내라 (睦宗族)

평상시에는 서로 화목하게 지내고 우환과 재난이 있을 때는 구원하며 있고 없는 것을 서로 도와라.

4) 말을 삼가라 (慎言語)

자기의 장점을 자랑하거나 남의 단점을 말하지 말고 남의 과오나 은밀한 일을 들어내어 말하지 말라.

5) 행동을 삼가라 (慎行)

항상 분한 마음, 노여운 마음이 일어나는 것을 참고 평정한 기분으로 처리하되 다투지 말라.

6) 성실하고 청렴하라 (居官)

맡은 일을 성실하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도면밀하고 정확하게 처리하라.



▲ 기천서원 전경

윤사익(尹思翼)

칭림결백한 관리를 이르는 말이 청백리(淸白吏)다. 조선시대 청백리는 태조부터 순조까지 모두 217명이 선발되었다. 청백리로 뽑히면 품계가 오르며 그 자손에게는 과거를 보지않고 벼슬을 할 수 있는 특전이 내려졌기에 청백리는 모든 이들의 선망의 대상이 되었다. 종종때 34명의 청백리가 있었는데 그중 한 사람이 윤사익이다. 윤사익(尹思翼, 1478~1563) 본관은 무송(茂松). 자는 언례(彦禮). 증 의정부좌찬성 윤징(尹澂)의 아들이다.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해 학업에 전념하지 못하다가 부모님 사후, 형들의 도움으로 산방에 들어가 10년 공부 끝에 1507년 생원시험에 합격하였으며 1514년 별시에서 을과로 합격하였다. 성균관전적, 사헌부감찰, 예 호조좌랑, 춘추관기주관을 역임하고 잠시 평양교수로 나갔다가 벼슬을 버리고 고향 대신면으로 돌아와 은거하였다. 1520년 다시 벼슬길에 나와 예조좌랑, 지평, 헌납, 직강이 되었다. 1528년 경성(鏡城)판관으로 있으면서 좋은 평판을 얻은 뒤로 의정부와 이조·예조가 함께 의논하여 사유(師儒)에 적합한 사람으로 뽑혔으며 1538년 이언적(李彦迪)등과 함께 청백리로 선발되었다. 1539년 천추사(千秋使)로 명나라에 가서 종계변무(宗系辨誣)에 관한 임금의 관심을 전하였고 다녀와서 한성부우윤, 공조참판, 한성부판윤이 되었다. 이무렵 윤사익은 성품이 염정(恬靜)하고 지조가 깨끗하여 의롭지 않은 일은 하지 않는다는 평을 받고 있었다. 그러나 일찍이 당(黨)을 이루어 대립하고 있던 윤임(尹任)과 윤원형(尹元衡)을 꾸짖고는 파직되었다가 대사헌이 되어 다시 권신(李崐)을 탄핵하였다는 이유로 삭직, 유배되어있던 구수담(具壽聃)을 율(律)에 의해 다스리라고 청함으로써 사림(士林)의 지탄을 받게 된다. 1550년(명종5) 7월 14일 조강(朝講)에 나온 임금에게 특진관 윤사익이 아될 때에 구수담이 임금행차시에 소홀하게 행동한 유관(柳灌)을 두둔했으니 함께 임금을 무시한 것이고 이는 역적과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은근하게 내비추었다. 윤사익의 주청을 시작으로 연일 대간들이 임금과 면대하여 구수담에게 죄줄 것을 청하니 마침내 사약을 내리라는 명이 떨어졌다. 이 일이 있는 후 윤사익을 평하는 사관들의 논조가 신랄해지기 시작하였다.

1550년 “윤사익은 주관이 없는 사람으로 사림들이 화를 당하게 했으니 이를 통분히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1553년 공조판서 윤사익이 아뢰기를 ‘소신의 나이 거의 80이 되어 날로 정신이 흐리고 기운이 쇠약해지니 만약 오래도록 판서의 직에 있으면 끝내 국사를

그르칠까 두렵습니다. 체직하소서.’ 하니 사관은 ‘이미 국사를 그르친 것이 많은데 어찌 끝내 그르칠 것이라고 말하는가’ 하고 빈정대었다. 같은 해 8월 윤사익이 벼슬에서 물러나자 ‘윤사익은 윤옥(尹玉)의 아버지로써 이기에게 아첨하고 따라붙어 사류(士類)를 모해하였는데 물의(物議)에 용납되지 못함을 알고 사직을 청한 것이다.’ 하였다.

1555년 “윤사익은 사람됨이 간사했다. 을사년 무렵에 최보한(崔輔漢)에게 말하기를 ‘조광조는 비록 부관참시하더라도 괜찮다.’ 고 했었다. 이때 조정의논이 모두 기묘년 사람들을 허물하였는데 윤사익 역시 조광조때에 시론(時論)에 인정받지 못했었기 때문에 원한을 품었다가 이런 말을 한 것이니 그의 어리석음과 망령되고 무식함이 이와 같았다.”

윤사익은 1557년 승정대부(崇政大夫)에 올랐다가 1563년에 죽었다. 비록 말년에 세간의 비난을 면치 못하였으나 50년간 조정에 참여하면서 청백하며 검소하게 살았고 효도와 우애가 유달리 특출하였다고 기록되어있다. 묘는 대신면 보통리에 있다. 시호는 공호(恭胡).



▲ 윤사익묘

신광한(申光漢)

신광한을 아는 사람은 드물다. 그가 신숙주의 손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도 드물다. 그가 여주 사람임을 아는 사람은 더욱 드물다.

신광한(申光漢, 1484~1555) 본관은 고령(高靈). 여주 원형리(지금의 점동면 원부리)에서 태어났다. 할아버지는 영의정 숙주(叔舟)요 아버지는 내자시정을 지낸 형(炯)이다. 자는 한지(漢之) 또는 시회(時晦), 호는 낙봉(駱峰), 기재(企齋), 석선재(石仙齋), 청성동주(靑城洞主) 등이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1507년(중종2) 사마시에 합격하고 1510년(중종5) 식년 문과에 을과로 급제하면서 벼슬이 좌찬성에 이르렀으며 뒤에 영성부원군으로 추봉되었다.

3남 5녀중 막내로 태어난 기재는 일찍 아버지를 여의었지만 홀로된 어머니에 대한 사랑이 지극했었다. 그것은 단순히 유학자로서의 효도차원을 넘어서는 수준으로 보인다. <문간공 행장>을 보면 「가정 원년(중종17년) 임오에 어머니의 상을 당하자 상을 치름에 한결같이 예를 따랐다. 공은 막내아들이었으나 어머니를 봉양하는데 있어서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리기 위해 극진하였다. 어머니께 녹봉의 전부를 가져다 드렸고 돈과 베도 사사로이 가지는 법이 없었다. 어머니의 안색을 살피고 문의하여 행하되 힘써 그 뜻을 받들었다. 가정 2년(중종18년) 계미에 고양에 여막을 차리고 묘소를 지켰다. 어머니에 대한 공의 사모의 정이 깊어 마치 생전에 모습대로 계신 듯 모셨으며 마치 그 소리가 들리는 듯 대하였다.」라고 적혀있다. 기재는 두 아들을 두었는데 자식들에게 '경의'와 '근독'을 항상 강조하면서 수신제가 하고 치국평천하 하기를 게을리하지 않았다. 그런 그도 자식의 벼슬을 청탁했던 일로 임금께 대죄하고 있음을 조선왕조실록이 전한다. 1551년(명종6) 7월 26일 「좌찬성 신광한이 아뢰기를 '근래에 함경도 향시에 응시하고자 하는 자는 다 그 도의 참봉이나 훈도를 한 뒤에 빈공의 금지를 면할 수 있습니다. 신의 아들이 글공부를 하는데 나이 30이 넘었습니다. 신이 죽기 전에 과명의 성취를 보기 위하여, 토착인이 아니면 임명하지 못한다는 전례를 알지 못하고 감사에게 청탁해서 참봉이 되었습니다. 요즘 헌부에서, 감사가 군부를 기망하였다고 하는데 죄는 신에게 있는 것이기에 대죄합니다.' 하니 전교하기를 '요즘 풍습이 바르지 못하여 법이 시행되지 않는다. 그 도의 감사는 토착인으로 참봉을 삼는 법을 모르지 않았을 것인데 법을 어겼으니 어찌 책임이 없겠는가? 경은 부자의 정이 절실하여 한 일이니 대죄하지 말라.' 하였다.」

정암 조광조와 기재는 매우 친분이 두터웠다. 특히 정암의 과오가 있을 때마

다 정색을 하고 바로 잡아 주었다는 문간공 행장의 기술은 두 사람사이의 신뢰 관계를 단적으로 말해주고 있다. 기재는 정암이 옥에 들어 갈 때에 달려가서 함께 이야기하였고 귀양을 떠날 때에도 멀리 교외까지 따라나가 송별하였으며 사사되자 부의를 전했다고 행장에 기술되어있다. 평소 친구를 사귄데 있어서 비록 상황이 절박하더라도 세정에 따라 변하지 않는 기재의 굳은 의지를 엿볼수 있는 대목이다.

1519년(중종14) 11월 기묘사화가 일어나자 조광조 일파로 몰린 기재는 벼슬에서 쫓겨나 18년 동안이나 고향인 여주 원형리에서 살게 된다. 사실상의 유배생활인 이 시기는 독서와 저술창작에 몰두할 수 있었던 호시절이기도 했다. 이 기간 동안 24권 10책의 방대한 「기재집」의 기틀을 마련했으며 이 문집속에 그의 천부적인 문필력을 증명하는 1500여수의 한시를 담았다.

1555년(명종10) 윤 11월 2일

「영성부원군 신광한이 졸하였다. 광한의 자는 한지이며, 고령인으로 신숙주의 손이다. 대대로 문장으로써 드러났는데 일찍 부모를 여의고 배우지 못하다가 열다섯 살에야 글을 읽을 줄 알았으며 겨우 두어해가 되어 드디어 이름난 선비로 성취하여 당시의 추앙하는 바가 되었다. 벼슬살이함에 미쳐서는 오래도록 경연에 있으면서 흥금을 털어놓고 성의껏 인도한 바가 많았다. 일찍이 조광조와는 사이가 좋았으며 조광조도 그를 아끼고 공경하였다. 조광조가 죽을 때 신광한도 연좌되어 폐기되었으며 물러나 여주 원형리에 우거하였다. 15년동안 한가하게 생활하였는데 온 집안에 도서를 쌓아놓고 두문불출하였으며 일찍이 구하려고 힘쓰는 일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시골에서 홀롭게 생활하였다고 칭하였었다. 조정으로 돌아옴에 미쳐서는 사람들이 경하하였으며 노성숙유로 오래도록 문형을 말았지만 당시의 논의가 만족히 여겼다. 나이 72세에 세상을 마쳤다. 그는 성품이 순후하였으며 풍도는 고상하고 옛 풍취가 있으며 학문은 해박하고 문장은 정려하였다. 중국 사신을 접대할 때에는 늘 칭찬을 받았다. 그러나 일을 처리할 때에는 간혹 치우치거나 막히는 실수가 있었으므로 사람들이 이것을 단점으로 여겼다.

사신은 논한다. 신광한은 풍치가 있고 아담한 사람이다. 모습은 수척하였지만 신색은 범류를 벗어났으며 집안에서는 생업을 경영하지 않았고 조정에 처하여서는 몸가지기를 청렴하고 신중히 하였다. 아침하는 태도가 없었고 장자의 기풍이 있었으며 문장은 바르고 고상하였다. 당시에 직언한 것이 있었는데 채택되지 않고 오활하다고 지목하여 산직에 두었으니 이는 그의 숭상하는 바가 세태와 부합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윤개(尹漑)

1536년(중종31) 5월 15일. 윤개의 딸이 양제(良娣; 세자궁에 속한 궁녀들에게 주는 종2품 벼슬)에 간택되었다. 그러자 영의정 김근사(金謹思), 좌의정 김안로(金安老), 우의정 윤은보(尹殷輔) 등 3정승과 여러신하들이 이의를 제기하였다. 윤개가 이른바 '작서(灼鼠)의 변(變)'에 연루되었으므로 그 딸의 간택에 문제가 있다는 주장이었다. 이로 인해 5월 20일 간택을 취소한다는 전교가 내려졌다. 윤개(尹漑, 1496~1566) 본관은 파평(坡平). 자는 여옥(汝沃). 호는 회재(晦齋), 서파(西坡). 현감을 지낸 윤계손(尹季孫)의 아들이다. 감안국(金安國)에게서 글을 배워 1516년 식년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정원주서, 사간원정언, 이조좌랑이 되었다. 기묘사화(己卯士禍)와 관련되어 외직으로 좌천되었다가 한어(漢語)에 능통하여 곧 내직으로 옮겨와 승문원부제조로 있으면서 명나라와의 외교 활동에 공을 세웠다. 윤개는 성절사(聖節使), 사은사(謝恩使)의 서장관(書狀官)으로서 명나라 관리들과 친교를 맺어 1534년 역청(癘靑), 백철(白鐵), 이두석(泥豆錫)의 제조법을 배워왔으며 명나라의 조복(朝服)을 얻어와 우리나라의 의복제도를 개정하게 하였다. 이는 “...문신들이 한어(漢語)를 강(講)할 때에 윤개만큼 발음에 능한 사람이 없었습니다.” 할 정도로 윤개의 뛰어난 외국어 실력때문이었다. 앞서 말한 '작서의 변'이란 1527년 2월 26일에 발생한 동궁(東宮; 뒤에 인종)을 저주한 사건을 가리킨다. 누군가가 사지와 꼬리를 자르고 입, 귀, 눈을 불로 지진 쥐 한 마리를 방서(榜書)와 함께 동궁이 거쳐하는 궁궐정원 은행나무에 걸어놓았다. 곧 경빈(敬嬪) 박씨와 주변인물들이 범인을 사주한 것으로 드러나 경빈 박씨와 그의 아들 복성군(福城君)이 사사되기에 이르렀다. 이때 주변인물로 종척중에 남천군(南川君)과 영춘군(永春君)의 부인들이 거론되었는데 윤개는 영춘군의 사위였고 윤개의 누이는 남천군의 며느리였다. 이런 관계로 윤개가 이 사건에 관계되었다는 의심을 샀다. 윤개는 1543년 형조참판에 임명되고 인종이 즉위하자 예조판서가 되었다. 명종즉위 초 윤원형(尹元衡)이 을사사화(乙巳士禍)를 일으켜 윤임(尹任)일파를 제거할 때 윤원형 쪽에 가담하여 2등공신에 책록되고 영평군(鈴平君)에 봉해졌다. 이일로 권귀(權貴)에 아부하며 너무 사치스럽고 절제가 없다는 비난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의 사관 안명세(安名世)가 “...임금(명종)은 끝내 한 말씀도 하지않았다. 대왕대비(문정왕후)가 윤임등을 사사하라는 전교를 내리자 정순봉, 이기, 홍언필등은 의기양양해서 큰 소리로 웃고 떠들었으며 이언적, 윤개, 정옥형, 민재인등은 몹시 비통한 표정이었다. 돌아가신

선왕(인종)이 아직 빈소에 계신데 같은날 세 대신을 죽이니 이 어찌 불행한 일이 아니겠는가”하고 기록한 것을 보면 윤개가 그리 후안무치한 사람은 아니었던 듯 싶다.

1549년 풍기군수였던 퇴계(退溪) 이황(李滉)이 “송나라 백록동의 고사에 의거하여 나라에서 편액과 서적을 내리도록하여 선생(안향)의 덕을 높이고 공에 보답하며 가르침을 천명하고 선비를 양성하는 교화를 밝히소서.”라는 글을 관찰사를 통해 조정에 바쳤다. 1550년 2월 11일 예조판서 윤개의 간청에 따라 임금이 명하니 여주사람 대제학 신광한(申光漢)이 ‘이미 무너진 유학을 다시 이어 닦게 한다.’는 뜻으로 ‘소수(紹修)’라는 이름을 지었다. 이에 임금은 친필로 ‘소수서원’이라는 네글자를 써서 내리니 이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사액서원이 탄생하게 되었던 것이다. 윤개는 1551년부터 7년동안 우의정으로 있다가 1558년 좌의정이 되었으나 그가 천거한 현납 김계(金啓)를 옹호하다 탄핵되어 삭직되었다. 그후 벼슬을 버리고 고향으로 돌아와 은거하면서 여생을 마쳤다. 묘소는 금사면 하호리에 있다.



▲ 윤개묘

윤옥(尹玉)

조선증기에 또 한명의 여주출신 왕비가 등장할 뻔 했다. 조선 13대 임금 명종은 인순왕후(仁順王后) 심씨와의 사이에 단 한명의 아들을 두었었는데 그가 순회세자(順懷世子)였다. 순회세자는 1516년 7월 21일 1살 위인 호군(護軍) 윤옥의 둘째딸과 결혼했으나 1563년 13세에 죽었다. 혼자 남은 세자빈인 공회빈(恭懷嬪) 윤씨는 시어머니 인순왕후의 유명(遺命)으로 동궁(東宮)에서 거처하다가 임진왜란이 일어나던 해인 1592년에 41세를 일기로 죽었다. 공회빈은 성품이 정결하였고 종신토록 상(喪)중에 있는 것처럼 하였으며 친척들의 궁궐출입을 허용하지 않았다고 한다. 평생 불행한 삶을 살았던 공회빈은 죽어서도 편안치 못했다. 궁중상례에 따라 공회빈의 시신을 순회세자가 묻혀있는 순창원(順昌園)에 부장(附葬)하려던 중 왜군들이 한양 가까이 쳐들어오게 되자 선조임금은 급히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다. 그 와중에 몇몇 관원들과 공회빈의 친족들이 빈소 후원에 임시로 시신을 묻었으나 왜적들이 파내어 불태웠다고 한다. 이후 공회빈의 영혼은 안주할 곳을 잃고 떠돌 수 밖에 없었는데 1601년 4월 25일 선조의 명으로 공회빈과 순회세자의 신주(神主)가 세워지고 제사를 거행하게 되었다. 이 비운의 딸을 둔 아버지가 윤옥이다. 윤옥(尹玉, 1511~1584) 본관은 무송(茂松). 자는 자온(子溫). 호는 동리(東里). 판서 사익(思翼)의 아들이며 택당(澤堂) 이식(李植)의 외할아버지다. 모재(慕齋) 김안국(金安國)에게서 배워 1531년 진사시험에 합격하고 1540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예조·병조·형조의 좌랑, 정언, 전적, 수찬과 사헌부의 지평, 헌납, 장령 그리고 직제학, 동부승지를 지냈다. 1553년 이후 남양·수원·인천부사, 양주·해주목사, 한성부좌윤을 거쳐 동지돈녕부사, 동지중추오위도총부 부총관으로 재직하다 죽었다. 1547년 3월 17일 명종이 경회루에서 문신들에게 경서(經書)를 시험하였는데 윤옥이 춘추(春秋)에 통(通)을 받았다. 통이라 함은 조선시대 5단계 성적평가방법으로서 대통, 통, 약, 조, 불 중 두 번째에 해당하는 좋은 성적을 말한다. 윤옥은 1566년 명나라에 표류했던 제주백성들이 돌아오자 사은사로 북경에 다녀왔다. 그러나 그는 5번에 걸쳐 탄핵을 받을 만큼 처세가 매끄럽지 못했다. 실록의 기록을 따라 그의 면모를 살펴보자.

명종 7년 좌부승지로 있을 때 “윤옥은 본래 간사하고 경망한 사람이다. 그가 비밀히 아될 때를 당하여 동료들이 저지하자 발끈 성을 내어 억지로 옹지못한 자신의 뜻을 이루려고 문을 박차고 뛰어나갈 것 같은 태도를 취했는데 동료들을

그가 꼴불견인 줄 알면서도 그의 마음을 거스를까 두려워 온갖 방법으로 위로하고 화해하여 간신히 노기를 풀게했다. 심하다, 소인을 대하기 어려움이여!”하는 기록이 보이고 명종 8년 남양도호부사가 되자 “윤옥은 성품이 사납고 괴팍하였다. 이기(李芑)의 주구가 되어 사류를 모함하여 일망타진하였다. 그는 마음씨와 행동이 지극히 형편없는 자로서 갑자기 당상관에 오르자 더욱 교만하였다. 그런 사람을 도호로 맞은 남양(南陽)의 백성들이 유독 무슨 죄인가.” 라는 말들이 돌았다.

윤옥이 사은사로 북경에 갈 때 동서분당의 빌미를 제공했던 김효원(金孝元)이 서장관으로 따라갔다. 두사람은 한동네에 살았기에 윤옥으로서는 은근히 믿는 바가 있었는데 기대와는 달리 김효원은 출발한 날부터 윤옥의 남행(濫行)을 옆에서 하나도 따라주지 않았다. 이를 분하게 여긴 윤옥은 김효원의 벼슬길에 사사건건 제동을 걸었다. 윤옥은 딸의 가례가 있을 무렵 양남(兩南)에서 납곡(納穀)한 7백여명의 성명을 알아내어 사들인다고 칭탁하였다가 길례(吉禮)때 쓸것이라고 사칭하여 호조에 바치고는 면포 6백여동(同)을 받아 가로첸 일로 1581년 탄핵을 받고 한때 삭직되었다. 죽은후 좌의정에 증직되었고 조선명신록에 기록되었다. 묘는 대신면 보통리에 있다.



▲ 윤옥 묘

김주(金澍)

중 계변무(宗系辨誣)란 명나라 <태조실록>과 <대명회전>에 이성계가 이인임의 후사라고 잘못기록되어 있는 것을 고쳐달라고 주청하였던 일을 말한다. 이는 고려말 명나라로 도망간 윤이(尹彝), 이초(李初)가 이성계를 모함하면서부터 비롯하였다. 조선 태조에 관한 중계오기는 명나라와는 무관한 일이었지만 건국직후의 조선으로서는 왕통의 합법성이나 왕권확립에 매우 중요한 문제였다. 이를 바로잡기 위하여 조선은 10여차례에 걸쳐 주청사(奏請使)를 파견한 끝에 1589년(선조22) 성절사(聖節使) 윤근수(尹根壽)가 수정된 <대명회전>을 받아오으로써 그 해결을 보았다. 그러나 이에 앞서 여주사람 김주가 주청사로 명나라에 가서 지지부진하던 중계변무 문제에 관한 중요한 진전을 이루어 낸바 있었다. 김주(金澍, 1512~1563)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응림(應霖). 호는 우암(寓菴). 안원군(安原君) 김공량(金公亮)의 아들이다. 1531년 진사가 되고 1539년 별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1544년 사가독서(賜暇讀書)이후 이조정랑, 대사성, 대사간, 한성부우윤, 대사헌, 전라도·황해도 관찰사, 개성유수, 예조참판등을 지냈다. 김주에 대한 역사적 평가는 그리 아름답지 못하다.

1545년 기묘사림(己卯士林)의 억울함을 아뢰는 상소를 윤희성(尹希聖)과 함께 올리기로 하고는 혼자 뒤로 빠졌다.

1551년 윤원형을 감싸 은총을 얻으려 하면서 조금도 부끄러움을 몰랐다.

1552년 거가(居家)에 법도가 없어 사나운 처(妻)와 드센 여종이 거리낌없이 제멋대로 하였다. 노복(奴僕)들이 남의 물건을 다투어 빼앗아 가져도 전혀 금하지 않았다. 여주에서 산업을 경영하면서 백성들을 괴롭혔다는 비난이 많았다.

1554년 명나라 예부에서 동지사(冬至使)가 가져온 예물을 보고 상을 내리려 하자 사은사(謝恩使)로 간 김주가 비굴하게 자기이름을 끼워넣어 상을 받았다.

1557년 방탕하기 짝이 없었으며 구차하고 비루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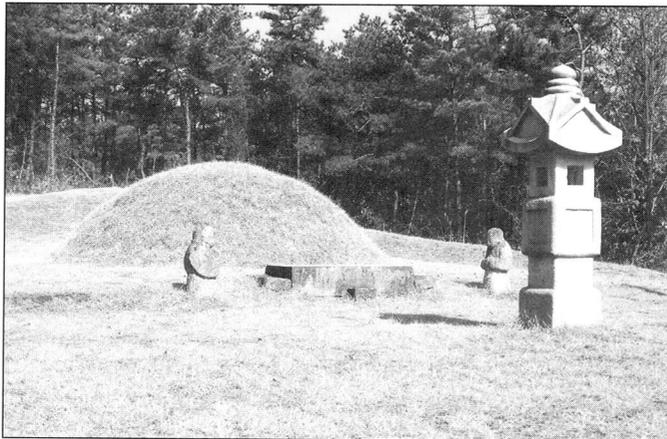
1560년 행실을 검속하지 않아 추잡한 일이 많았으므로 사람들이 모두 욕하였다.

1561년 나약하고 어두우며 욕심이 많고 절조가 없었다. 남방의 관찰사로 있을 때에는 갑자기 왜구를 만나 속수무책이었고 개성유수로 있을 때에는 공공연히 뇌물을 받아 집으로 수송하였으며 국자감(國子監)을 맡았을 때에는 사림을 능

멸하고 명기(名器)를 더럽혔다.

1562년 부랑방탕하여 행동이 좋지 못하고 일처리하는 것이 분명치 못하였다. 을묘년 왜변 때 전라감사로 순행차 강진에 갔다가 병사 원적(元績)이 패전하여 죽었다는 말을 듣고 영암으로 도망했다가 이어 나주로 달아나서 여러 성이 차례로 함몰되게 하였다.

1563년 9월 종계변무에 대한 주청사로 북경에 갔던 김주가 “종계에 대한 주청은 이미 성지를 받들어 국조(國祖)의 부(父)의 성휘(姓諱)를 분명히 기록하였습니다.’라고 장계를 올렸다. 마침내 김주의 주청으로 잘못된 명나라 역사책을 수정하는 작업이 시작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김주는 살아돌아오지 못했다. 북경에 들어서면서부터 이질(痢疾)에 걸렸던 그는 어지러움증과 발열증세로 9월 17일 북경 옥하관(玉河館)에서 죽고 말았다. 김주가 죽자 임금은 예조판서를 증직하고 전(田) 30결과 외거노비 5명을 하사하였다. 선조대에 이르러 종계변무 문제가 완전타결되자 1590년(선조23) 김주는 광국공신(光國功臣) 3등에 책록되었고 화산군(花山君)에 추봉되었다. 문장이 뛰어났고 초서를 잘 써 따르는 이들이 많았다. 시호는 문단(文端). 묘는 홍천면 상백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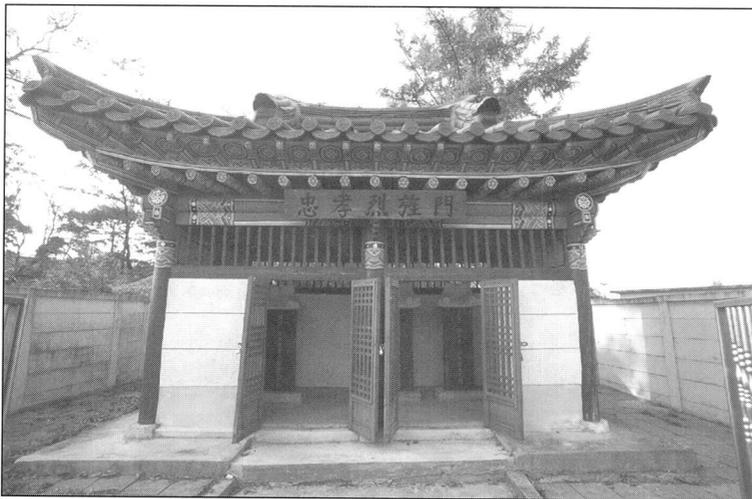


▲ 김주 묘

충(忠) · 효(孝) · 열(烈)의 정씨 일가

삼강행실도(三綱行實圖)는 1434년에 세종대왕의 명에 따라 직제학 설순(僊循)등이 우리나라와 중국의 서적에서 군신·부자·부부의 삼강에 모범이 될 만한 충신·효자·열녀의 행실을 모아 만든 책으로서 백성들의 교화를 위한 윤리 도덕 교과서였다. 이 책이 목표로 하는 바 그대로를 삶속에서 재현해 낸 여주사람들이 500여년 전에 흥천면에서 살았다. 정응린(鄭應麟, 1531~1592) 본관은 하동(河東). 자는 백인(伯仁). 고려의 충신 묵은공(默隱公) 희(熙)의 장자인 군사공(郡事公) 포(抱)의 5대손이다. 어려서부터 용모와 재주가 출중하여 글을 잘 읽고 글씨를 잘 썼다. 그러나 여러번 과거에 낙방하자 무예(武藝)로서 국난을 극복하는 것도 선비의 도리라 여겨 활 쏘는 법과 말 타는 재주를 익혀 1573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선전관, 사복시 내승, 함평 현감을 지냈다. 백성을 다스림에 공적이 커서 지금도 함평에 유허비(遺墟碑)가 남아있다. 1587년 종계변무(宗系辨誣) 문제로 종사관이 되어 유흥(兪泓)을 따라 명나라에 다녀왔다. 이듬해 아버지 상을 당하여 옥은동(玉隱洞; 흥천면 신근리)에서 시묘살이를 하던 중 임진왜란을 맞았다. 선조임금이 한양을 버리고 의주로 몽진하게 되자 정응린은 어가(御駕)를 호종하지 못함을 통탄해 하면서 상복을 벗어버리고 손가락을 잘라 피로써 격문을 썼다. “우리는 이 땅에서 살며 조상의 혈통을 면면히 이어온 한 겨레인데 누구하나 아름다운 백성이 아니겠는가. 저 바다 건너 왜구는 우리와는 민족이 다르고 혈통도 다를 뿐 아니라 아름다운 우리 강토를 침범하여 우리 백성을 죽이고 재산을 약탈하며 왕실을 괴롭히며 구능을 파헤치니 참으로 우리의 원수가 아닐까 보냐. 살아서는 의인이 되고 죽어서는 의혼(義魂)이 될 지니 국난을 당하여 충성을 다하고 죽음으로써 몸을 던질 것이다.”하니 정응린을 따르는 자가 500여명을 넘어서게 되었다. 정응린을 사기충천한 이들과 함께 지평(砥平) 고라산(古羅山; 평장리 고래산)에 진을 치고 관동에서 되돌아 나오는 왜군과 일전을 겨루었으나 중과부적으로 패하여 5월 8일 전사하였다. 이날 첫째 며느리 청풍(淸風) 김씨, 셋째 아들 괘(适), 넷째 아들 일(逸)도 함께 죽었다. 한편 큰아들 적(迪)은 강원도에 군량을 가지러 갔다가 화를 모면하였다. 급보를 전해 들은 정적은 죽음을 무릅쓰고 적진 속에 뛰어들어 아버지와 동생들 그리고 아내의 시신을 거둔 뒤 양화도(楊花渡; 능서면 내양리)로 운반하여 선영에 장사를 지냈다. 장례후 3년동안 정적은 묘막에서 지내며 곡(哭)을 그치지 않았는데 왜적들도 정적의 효성에 감복하여 그가 머물러 있던 곳을 효자촌이라 부르며 그

근처에서는 약탈을 삼갔다고 한다. 삼년상을 마친 정적은 김류(金瑬), 심대부(沈大孚)등과 복수청을 설치하는데 참여하여 여주·이천·용인지방에서 막대한 양의 군량을 모아 진중에 조달하였다. 이 소식을 전해들은 선조는 이를 장하게 여겨 정적에게 의금부도사, 한성판관의 벼슬을 내렸으나 나아가지 않았으며 다시 품계를 높여 한성부윤으로 임명한다는 어명에도 15차례나 상소를 올리며 응하지 않았다. 정적은 정묘호란 때 인조임금을 강화도까지 호종한 공으로 호성원종공신에 책록되었고 이후 고향으로 돌아와 82세를 일기로 죽었다. 호는 안분당(安分堂)이다. 1725년 기호(畿湖)의 유생 이양대(李養大)등이 상소하여 정응린 부자를 포장(褒獎)하도록 청하자 영조임금이 허락하였다. 이에 정응린은 충(忠)으로 병조참판에 증직되고 정적은 효(孝)로서 형조판서에 증직되었으며 청풍 김씨는 열(烈)을 실천한 정부인으로서 정려문이 세워지는 영광을 안았다. 아버지는 임금을 위하여 죽었고 며느리는 시아버지를 위하여 죽었으며 아들 또한 아버지의 복수를 위해 참고 견디며 효를 다하였으니 동서고금을 통하여 예를 찾기 힘든 일이다. 이들의 충과 효와 열을 기리는 비(碑)가 흥천면 신근2리에 세워져 있다.



▲ 정응린 효자 정려비각

원호(元豪)

1592년 4월 14일 20만 왜군의 선봉으로 소서행장(小西行長)이 이끄는 18,700명의 병력이 부산에 상륙하르로서 임진왜란이 발발하였다. 탄금대에서 신립(申 唼)의 군대를 격파한 왜군은 파죽지세로 한양을 향해 올라오다 여주 남한강 신 특사에서 제동이 걸리는데 이는 원두포의 할아버지인 강원도 조방장(助防將) 원 호가 버티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원호(元豪, 1533~1592)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중영(仲英). 첩지중추부사 원 송수(元松壽)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순흥안씨(順興安氏)로 생원 안순(安詢)의 딸 이다. 김덕수(金德秀)에게 글을 배워 어려서부터 경사(經史)에 통달하였다. 그러나 윤투수, 윤근수, 이해수등 교유하던 친구들과는 달리 과거에 계속 낙방하자 탄식하고는 문(文)을 버리고 무(武)를 택하여 1567년 무과에 급제하였다. 선전관 으로 임명된 뒤 경주통판으로 옮겨갔다가 운산, 단천군수를 지내고 경흥부사를 거쳐 경원부사가 되었다. 경원부사로 있을 때 북쪽의 여진족 니탕개(尼湯介)가 침입하자 부하를 거느리고 적진 깊숙히 쳐들어가 적병을 모두 격퇴하였다. 1587년 전라우도 수군절도사로 재직중 전라좌도에 왜구가 침입하였는데 이 사실을 통고받지 못해 정상을 모르고 있다가 인책되어 고향 여주에 머물렀다. 향병(鄉兵)을 이끌며 한때나마 왜군의 한양진격을 저지시키는데 성공했던 원호는 당시 원주에 주둔하고 있던 왜군의 일단이 구미포(龜尾浦)에 들어가 약탈을 일삼자 새벽에 적의 감시병을 포로로 잡아 이들을 앞세워 적을 습격하여 대파하였다. 이는 왜란초기 한강에서 거둔 조선군 최초의 승리였다. 구미포에서 적을 섬멸한 원호는 마탄(馬灘)으로 가서 이천부사 변응성(邊應星)과 협공하여 왜군에게 커 다란 타격을 주었다. 의주로 몽진(蒙塵)길에 올라있던 선조임금은 이 승전보를 듣고 기뻐하며 원호에게 경기·강원 방어사겸 여주목사의 벼슬을 내렸다. 유성 룡은 징비록(懲毖錄)에 “ 당시 적의 대진(大陣)은 충주와 원주에 있었는데 연영(連營)으로 한성에 이르렀다. 충주에 있는 왜적들은 죽산·양지·용인길에 통하 여 왕래했으며 원주에 있는 자들은 지평·양근·양주·광주를 거쳐 서울에 이르려고 했다. 원호는 여주 구미포에서 적을 섬멸하고 이천부사 변응성 또한 사 수를 배에 실어 안개를 틈타 갑자기 여주 마탄을 들이치니 살적(殺賊)함이 매우 많았다. 그래서 이천·여주·양근·지평등의 읍민들은 적봉(賊鋒)을 피할 수 있었으니 사람들은 원호와 변응성의 공이라 생각했다.”라고 썼다.

이후 원호는 북쪽에 있는 왜군 토벌의 임무를 맡고 김화(金化)로 진군하던 도

중 적의 복병을 만나 포위되자 깊은 산 낭떨어지에서 투신하고 말았다. 왜군은 원호의 머리를 잘라 김화고을 성문에 매어달고 “조선군사와 백성이 모두 귀순했는데 원호만이 우리에게 항거하였기로 이같이 벌을 준다.”라는 글귀를 써붙여 놓았다. 김화의 고을사람들이 이를 애통히 여기고 시신에 표를 해 두었다가 밤에 몰래 시신을 거두어 여주까지 운구하여 북내면 장암리 선영아래 장사를 지냈다.

원호는 청백하기로도 이름이 높았다. 은(銀)의 고장인 단천군수로 있을 때 그의 아내가 은반지 하나를 사 긴 일이 있었다. 이를 본 원호는 “은고지(銀庫地) 원으로서 은물건을 우리집에 두다니 …”하며 아내와 같이 물건을 사온 종을 매질하고는 은가락지를 빼앗아 버렸다. 은가락지가 혹여 뇌물로 오인될 수 있다는 염려에서였다. 이 일화는 대동기문(大東奇聞)에 전한다. 선조임금은 원호의 전사 소식을 접하고 애통히 여기어 병조판서로 증직시켰다. 뒤에 좌의정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충장(忠壯)이다.



▲ 원호묘

이충원(李忠元)

여주군 산북면 백자리에 보물 제874호인 완양부원군 이충원 교서와 경기도 유형문화재 제167호로 지정된 이충원 영정이 있다.

이충원(李忠元, 1537~1605) 본관은 전주. 자는 원보(元甫), 또는 원포(圓圃). 호는 송암(松菴), 여수(驢叟). 정종임금의 열째 아들 덕천군의 현손이며 간(簡)의 아들이다. 1566년(명종 21)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여 홍문관수찬을 지냈다. 임진왜란 뒤에 형조참판에 특진되었고 첨지중추부사, 한성부판윤을 역임하였으며 임진왜란중에 걸어서 선조임금을 의주까지 호종한 공으로 1604년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 완양부원군(完陽府院君)에 봉해졌고 공조판서에 제수되었다. 2등공신에게는 모습을 그려 후세에 전하며 본인과 부모 처자도 관작과 품계를 두 자급 초천하라 했으므로 지금 전해지고 있는 이충원의 영정은 이때 그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충원은 중종 32년에 태어나서 선조 38년에 죽었으므로 그와 얽힌 이야기들은 주로 선조연간에서 찾아볼 수 있다.

임진왜란이 막바지에 접어든 선조 29년 이충원은 국가의 위기를 보고만 있을 수 없어 문신임에도 불구하고 병법중에 제33계인 반간계(反間計)를 임금께 건의하였다.

[예로부터 강포하기로는 항우와 같은 자가 없었으되 끝내 패망하게 된 것은 장량, 진평 같은 이가 지모를 써서 간첩을 보내 기미를 엿보아 능히 그 군신의 일을 이간한 때문입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가등청정은 본래 소서행장과 공로를 다투어 사이가 좋지 않은데 지금이 바로 이 계책을 쓸 때입니다. 대개 행장은 평양에서 패전하여 뜻이 막히자 황조에 봉공을 청하여 임금을 높이는 일로 허물을 엄폐할 생각으로 청정과 의논하지 않았는데 청정은 깊이 복도로 들어가 두 왕자 및 신하들을 사로잡고서 평양의 패전을 비웃었습니다. 이 때문에 서로 알력이 생겨 두 호랑이가 함께 싸우는 형국이니 전하께서는 신의 말이 오활하다고 하지 말고 비변사 대신들에게 문의하여 시행하시면 오늘날 국가의 적을 방어하는 계책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있을 것입니다.]

이충원의 반간계가 직접 사용되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으나 이 당시 선조임금은 그의 계획에 매우 긍정적이어서 도체찰사로 하여금 조처하라고 지시하고 있다.

선조 37년 공신의 반열에 오른 이충원은 임진왜란을 승전으로 이끈 임금과 중국황제를 칭송하는 대동중흥송(大東中興頌)을 지어 바쳤는데 그 내용은 이러하

다.

[일본의 소추들이 중국을 원수로 삼아 흉악한 계책으로 우리에게 길을 빌었으나 왕께서는 안된다고 하여 천하에 대의를 드높였네 왜적이 군대를 모두 동원하여 창졸간에 왕경을 핍박하니 왕께서는 서쪽으로 파천하여 필마로 의주로 나아갔고 연산에 호소하였네 상제께서 개탄하시고 동쪽을 돌아보게 되어 군공들과 모의한 바 신하들의 의견이 일치되었네

황제가 이르기를,

여송아, 네가 가서 동쪽을 평정하고 큰 공을 세우도록 힘쓰라

여송이 대궐에 절하고 머리 조아려 하직한 뒤 십만의 날랜 군사를 거느리고

임진년 12월에 대군이 압록강을 건너니 무기가 태양에 번뜩거렸네

대동강 가에는 많은 왜적이 주둔하고 있었는데 중국군이 우뢰와 번개처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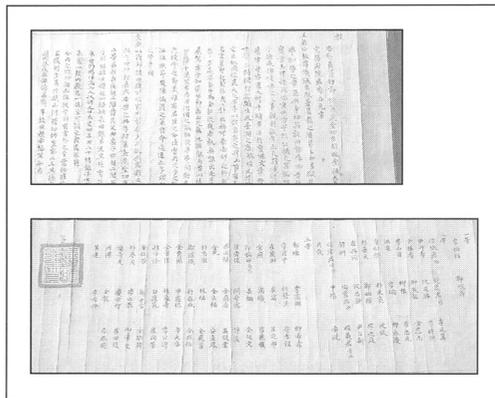
달려가 공격하니 왜적들이 크게 놀라 한성으로 패주하였네

중국장수가 마구 휘몰아쳐 달아나는 돼지 쫓듯이 하여 삼도를 수복하였네 (중략)]

실록에 사관이 기록하기를 [이충원은 정성을 다해 어머니를 섬겼으며 몸가짐이 지나칠 정도로 검소하였다. 벼슬이 재상에까지 이르렀으나 담백하기가 가난한 선비와 같았고 서법(書法) 역시 묘하여 세상에 이름이 알려졌다.] 고 하였다. 시호는 충헌(忠憲)이다.



▲ 이충원영정



▲ 원양부원군 이충원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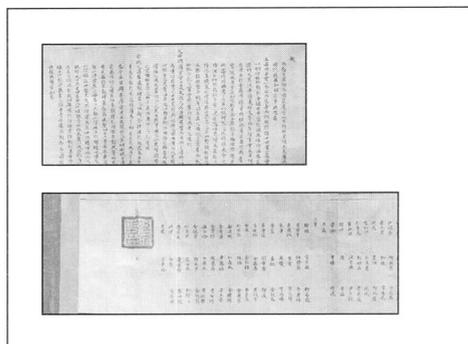
홍진(洪進)

임진왜란이 끝나고 한양으로 돌아온 선조임금은 전쟁의 상흔으로 인해 마음이 편치않았다. 이 속상함이 지나쳐서 이명증(耳鳴症), 편허증(偏虛症), 기류주증(氣流注症), 인음증(引飲症)등의 병통이 발생하게 된다. 이때 약방제조로서 어의(御醫) 양예수(楊禮壽), 허준(許浚)을 데리고 임금의 벗은 몸을 구석구석 살피면서 진료를 했던 사람이 홍진이다. 홍진(洪進, 1541~1616)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희고(希古). 호는 인재(詔齋), 퇴촌(退村). 기천서원에 배향된 명유(名儒) 홍인우(洪仁祐)의 아들이다. 1564년 사마시에 합격하고 1570년 식년문과 병과로 급제하였다. 정자, 검열, 정언, 헌납, 응교를 거쳐 1592년 임진왜란때에는 호군(護軍)으로 어가를 호종하였고 좌부승지, 우부승지, 좌승지로 임금을 측근에서 모셨다. 이후 한성판윤, 대사헌, 이조·예조판서, 우참찬, 지중추부사, 좌참찬, 형조판서, 판의금부사가 되었다. 임진왜란당시 임금이 갈팡질팡하던 끝에 평양에서 의주로 행선지를 정하고 이항복(李恒福)으로 하여금 함께 갈 신하들을 모으게 하였다. 이항복이 넌즈시 물으니 홍진은 울면서 '우졸한 서생이 설사 동쪽으로 돌아간들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군부(君父)옆에서 죽는 것만 못하다. 마땅히 어가를 따르겠다.'고 하였다. 이때의 공으로 홍진은 호성공신(扈聖功臣) 2등에 책록되고 당흥부원군(唐興府院君)에 봉해졌다. 홍진은 키가 다섯자가 채 못되는 단신에다 코주부였다. 지금 전하고 있는 그의 영정에도 코가 특징있게 그려져있다. 그가 임금께 올린 차자(笥子)에 "당흥부원군 신 홍진은 아뢰니다. 천신은 나이가 이제 66세이고 병이 몸에서 떠나지 않는데다가 코에 흑이 생겨 모양이 보기 흉한데 세월이 갈수록 더하니 고치지 못할 것을 스스로도 압니다. ...코 끝에 구멍이 나서 굼지도 않고 아물지도 않으며 한열이 왕래하여 머리가 아프고 먹는 것이 역하며 여러 가지 나쁜 증세가 한꺼번에 발생하여 원기도 나른합니다. 병세가 이러하니 직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없습니다. 신이 생각하건대 늙어도 죽지않고 외람되게 후한 녹을 받고 평생동안 벼슬했어도 조금도 도운 것이 없는데 위에서 침을 맞으실 때를 당해서도 문안하는 반열에 끼지 못하게 되었으니 대궐을 바라봄에 몸둘 곳이 없습니다. 신하가 이러하면 장차 어디에 쓰겠습니까. 바라건대 성자께서는 특별히 가엾게 여겨 신의 직명을 삭제하여 자리만 차지하고 직분을 다하지 못하는 변변치 못한 신하의 경계로 삼게 하시고 또 신으로 하여금 거적에서 병을 앓으며 어리석은 분수를 지키게 하소서." 하였다. 홍진은 한때 임금의 눈밖에 났던 율곡 이이(李珣)를 칭찬한 일로 두소(斗筲: 도

량이 좁음)의 무리라고 비난을 받았으며 서애 유성룡(柳成龍)의 형인 유운룡(柳雲龍)을 벼슬자리에 추천하여 권세에 아첨하는 이로 치부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유명한 학자 홍인우의 아들로 몸가짐이 매우 근신하였으니 이것이 아버지를 욕되지 않게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기록으로 보아 그가 녹록치 않은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1616년 12월 7일 홍진이 죽었다. 그의 졸기에 이르기를 “당홍부원군 홍진이 죽었다. 방정하고 강개(剛介)하였으며 효성과 우애가 독실하였다. 과거에 급제하여서는 즉시 홍문관에 뽑혀 들어가 정자가 되었고 청현직을 두루 거쳐 사림의 추증을 받았다. 임진년 변란 때에 어려운 길을 임금을 수행하여 충성과 노고가 가장 현저하였다. 이조판서를 네 번이나 거쳤다. 선을 좋아하고 악을 미워하는 성품을 하늘로부터 타고났다. 광해군 때에 정치가 어지럽자 겸대한 직책을 모두 버리고 문을 닫아걸고 들어앉아 손님도 받지 않고 지내면서 오직 서사(書史)로 스스로 즐겼다.” 그의 상훈교서와 영정이 대신면 계림리에 있다. 시호는 단민(端敏)이다.



▲ 홍진영정



▲ 홍진교서

이원익(李元翼)

이원익(李元翼, 1547~1634(인조12)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공려(公勵), 호는 오리(梧里). 태종의 아들 익녕군(益寧君) 치(치)의 4세손으로 수천군(秀泉君) 정은(貞恩)의 증손이며, 함천부수(咸川副守)를 지낸 억재(億載)의 아들이다. 1564년(명종19)에 사마시에 합격하고 1569년(선조2) 별시문과에 급제하였다. 선조, 광해군, 인조를 임금을 모시면서 다섯차례나 영의정을 지냈으나 그의 집은 두어칸짜리 오막살이 초가였으며 퇴관 후에는 조석거리조차 없을 정도로 청빈하였다.

1615년 광해군이 선조의 계비인 인목왕후(仁穆王后)를 폐위하여 서궁에 유폐시키려 하자 이를 반대하던 이원익은 홍천으로 귀양갔다가 여주에 이배(移配)되어 있었다. 마침내 인목대비가 쫓겨나자 여기서 반정(反政)의 명분을 찾은 이귀, 김류, 이괄 등이 당시 백성들의 존경을 받던 이원익의 동의를 구하기위해 원두표를 여주로 보냈다. 신분을 감추고 이원익이 머물던 집에서 하루밤을 보내던 원두표가 짐짓 잠꼬대를 핑계삼아 이원익의 의중을 떠본다. [계모를 내쫓아야 하겠는데 명색이 사대부집이니... 남의 눈이 무서워서...] 광해군의 계모인 인목대비의 폐모론(廢母論)에 반대해 귀양까지 온 이원익이 가만있을리 없다. 당장 원두표를 깨워 호통을 친다. [계모도 어머니인데 내쫓겠다니... 자네같은 사람을 재워줄 수 없으니 어서 일어나 나가게.] 이에 원두표가 정색을 하고 자기가 찾아온 이유를 말한다. 그러자 이원익이 고개를 끄덕여 묵시적 동의를 표시한다. 반정이 성공해 인조가 등극하자 이원익은 다시 영의정이 되어 한양으로 올라갔음은 물론이다.

이원익이 여주에 적거(謫居: 귀양살이)할 때의 이야기가 하나 더 있다. 그는 호장(戶長: 조선시대 향리직의 우두머리)의 집에서 기식하면서 자리 짜는 것으로 일을 삼았는데 어느날 갑자기 호장의 아내가 죽었다. 청렴하게 호장의 일을 맡고 있는 사람의 집이고 보니 미천하기 그지없었으나 이원익은 귀천을 가리지 않고 장례치르는 것을 몸소 말아서 하였다. 뒷날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 일생 학문과 교육에 종사, 효종때 영의정에 추증, 시호 문강(文康))이 말하기를 “영의정이 호장의 아내 치상을 하니 호장의 아내가 영광이라.” 하고는 한바탕 웃었다고 한다.

원균의 참소를 받은 충무공 이순신을 변호하고 농민들의 병역의무를 경감시켰으며 양잠을 권장해 백성들을 부유하게 하였다. 호조판서로 있을 때에는 국가재

정을 관장하는 자리에 있으므로 자기집 짓는 일을 단념했고 임금의 하사품도 사양하기 일쑤였다. 당파를 가리지않고 사람됨에 따라 사람을 평가하였고 상민 또는 종들과 더불어 담소하기를 즐겼다. 정유재란을 대비해 8도의 군사를 모았고 반정후 광해군의 목숨을 부지시킨 이도 그였다. 이런 그였기에 선조는 유언으로 그의 중용을 당부했고 인조는 그가 연로하다하여 옥좌 앞에까지 가마를 타고 들어오게 하였던 것이다.

“키가 한치만 작았더라면 일인지하(一人之下) 만인지상(萬人之上)의 인물이 될 상(相)입니다만...”하고 점장이 말하자 한치썸되는 나막신을 벗었던 오리정승 이원익이 400여년 전 이 땅에서 살다갔다. 그의 삶이 빚어내는 향기가 지금도 이처럼 은은한데 세상에서의 작은 성공과 보잘 것 없는 지위를 자랑하며 거들먹거리는 오늘의 우리가 부끄러울 따름이다.

한백겸(韓百謙)

여주에는 국가지정문화재 26점, 도지정문화재 28점, 군지정문화재 16점 등 총 70점의 지정문화재가 있다. 이중 경기도로부터 최근에 지정받은 문화재가 강천면 부평리에 있는 한백겸 신도비다.

한백겸(韓百謙, 1552~1615년)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명길(鳴吉), 호는 구암(久庵). 아버지는 경성판관 효운(孝胤)이며 어머니는 예빈시정 신건의 딸이다. 1579년 생원시에 합격하고 1585년 교정청이 신설되자 정구(鄭述)등과 함께 교정 낭청에 임명되어 경서훈해(經書訓解)의 교정을 보았다. 1589년 정여립의 모반사건때 모반에 실패하여 자살한 정여립을 위해 곡을 하며 시신을 정성스레 얹힌 사실이 발각되고 또한 정여립의 생질인 이진길과 친분이 두터웠다는 이유로 연좌되어 장형을 받고 귀양갔다가 임진왜란때 석방되었다. 1595년 호조좌랑, 1601년 형조좌랑과 청주목사를 지냈다.

청주목사시절 안문어사(按問御史) 성진선(成晉善)이 순찰하고 탐문한 결과를 임금께 올렸는데 그 내용이 실록에 전한다. '신이 주군을 안행하면서 수령들의 현부(賢否) 및 불법에 대한 일을 탐문하였습니다. 청주목사 한백겸은 자상하여 백성을 사랑하고 강명하게 다스려 속리(俗吏)의 부화스런 작태를 물리쳐버리고 힘써 돈실한 정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문교가 퇴폐된 때를 당하여 홀로 능히 학교를 흥기시키는 것으로 자기의 책임을 삼아 공무에서 물러나온 여가에는 언제나 제생의 선비들과 경의를 강론하고 공용의 남은 재물을 털어내 경적을 널리 구입하여 선비들로 하여금 분발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후 한백겸은 호조참의, 강원도 안무사 등에 기용되었다가 1611년 파주목사를 끝으로 벼슬에서 물러났다. 벼슬을 사임하고 양주 물이촌(勿移村)에 퇴거해 있는 동안 역학에 해박하다하여 선조때부터 편찬하기 시작하였던 주역전의(周易傳義)의 교정을 보기도 했다. 그는 유몽인, 이수광, 허균등과 함께 조선 실학의 선구자로서 실증적이며 고증학적인 방법으로 조선의 역사, 지리를 연구하고 종래 역사가들의 학설을 비판, 수정하여 이 방면에 새로운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1614년에 시작하여 다음해 6월에 그가 완성한 역사지리서가 동국지리지(東國地理誌)이다. 이 책은 중국사서의 열전에 기록된 한반도 부족국가에 대한 서술을 인용한 부분, 삼국에 대한 서술부분, 고려에 관한 서술부분등 3부분으로 이루어졌다. 부족국가편에서는 각 부족의 위치, 강역, 종족, 사실의 신빙성문제를 언급했고 삼국편에서는 고구려, 백제, 신라의 순서로 국도, 봉강, 형세, 관방에 중점을

두어 밝히고 있다. 고려편에서는 개성부, 서경, 남경등 주요도시들에 대한 설명과 형승등이 기재되어 있다. 이 동국지리지는 우리나라 역사지리학의 창시라는 점에서 중요한 가치가 있으며 이후의 역사지리 연구에 지대한 영향을 끼쳤다.

한백겸의 줄기를 보며 그의 됃됨이를 더 알아보자

광해군 7년 7월 3일. 전 참의 한백겸이 졸하였다. 사람됨이 단아하였고 마음가짐이 관대하였다. 어려서 행촌(杏村) 민순(閔純)에게 사사받았으며 역학에 정미하였고 예서에 더욱 힘을 기울였다. 천거로 벼슬길에 나왔으며 집에 있으면서는 지극한 효우의 행실이 있었고 여러차례 주군을 맡았는데 순리(循吏)라고 칭해졌다. 신해년 파주목사에 제수되었으나 폐조(廢朝 : 광해군 시절)의 정치가 어지러움을 보고는 즉시 관직을 버리고 서호의 작은 농장으로 돌아가 경전을 깊이 탐구하다가 이 때에 이르러 졸한 것이다.

한백겸의 동생은 인조의 장인으로 서원부원군(西原府院君)에 봉해진 한준겸이고 아들은 효종때 우의정을 지낸 한홍일이다. 한백겸은 뒤에 영의정으로 추증되었으며 원주의 칠봉서원(七峰書院)에 제향되었다.



▲ 한백겸묘

경심(慶暹)

영의정 홍치중보다 100년 앞서서 일본에 통신사로 다녀온 여주사람이 있었다. 이름은 경심. 1607년 정사(正使) 여우길(呂祐吉)과 함께 부사(副使)로서 임진왜란후 첫 번째 사절로 일본에 건너가 국교를 다시 열고 임진왜란때의 조선인 포로 1,340명을 데리고 돌아온 인물이다.

경심(慶暹, 1562~1620) 본관은 청주(淸州). 자는 퇴부(退夫), 호는 삼휴자(三休子), 석촌(石村), 칠송(七松). 아버지는 헌납(獻納)을 지낸 경시성(慶時成)이다. 1590년 생원이 되었고 그해 증광시에서 병과로 급제하였다. 학문이 뛰어나 삼사의 요직을 두루 거치고 벼슬은 부제학과 호조참판에 이르렀다.

1597년 정유재란(丁酉再亂)이 일어나 일본이 20만명의 병력으로 조선을 침략했을 때 명나라가 다시 구원병을 보냈다. 이때 명나라 장수 양호(楊鏞)가 경략(經略) 조선군무사(經略朝鮮軍務使)로서 참전하였는데 일본의 가등청정(加藤清正)과 소서행장(小西行長)의 이간책에 휘말린 명나라가 양호를 탄핵하려 하였다. 전후 사정을 간파한 조선은 이를 무마하기위해 진주사(陳奏使)를 긴급히 명나라로 파견하였고 이 사절단에 경심이 서장관으로 동행하였다.

경심은 1601년 영광군수로 임명을 받았다. 그 무렵 암행어사 이정협이 전라도 일대를 두루살펴본 뒤 임금에게 복명하기를 [영광군수 경심은 정사를 분명하게 하며 부역을 공평하게 하므로 아전들은 두려워하고 백성들은 흠모하여 칭송이 자자하니 호남에서 치적이 가장 뛰어납니다.]하였다. 이해 7월 홍길동의 작가 허균(許筠)이 전운판관(轉運判官)에 제수되어 조운(漕運)을 감독하는 임무를 띠고 영광 법성창에 왔다가 경심과 만났다. 경심과 허균은 막역한 사이였다. 그때 광주(光州)에는 허균이 젊은 시절 서울에서 정을 주었던 기녀(妓女) 광산월(光山月)이 살고 있었다. 경심과 허균의 우정어린 장난이 허균의 글에 남아있어 소개한다. [8월 5일(갑자) 새벽녘에 내기(策妓)가 먼저 일어났다. 이상하게 생각했더니 과연 경퇴부(慶退夫)와 함께 나를 속일 계책을 세우고는 먼저 마두(馬頭; 역마를 맡아보는 사람)를 속여 '광산월이 사기원에서 묵고 아침에 군에 들어설 것이다.'고 하였다. 마두는 광산월에게 말을 남겨둔 것을 보았으므로 그 말을 믿고 내게와서 고하였다. 나는 마음 속에 깨닫는 바가 있어 '광주는 여기서 하루 걸리는 거리인데 그가 왜 중도에서 묵겠는가.' 하고 생각하였다. 세 사람은 늙고 추한 기생을 꾸며 가지고는 내가 정청에 나가는 틈을 이용하여 방에다 숨겨 놓았다. 얼마 뒤에 반인(伴人; 시종드는 사람)이 내 귀에 대고 '광인이 벌써 와서

방에 들었다.'고 속삭이게 하고는 거짓으로 방안에서 절절하게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나는 경퇴부의 얼굴에 웃음을 참는 모습이 있는 것을 보고는 이미 짐작하였다. 퇴부는 '방에 들어가면 즐거운 일이 있을 것이니 다녀오지.' 한다. 아마도 내가 방에 들어가면 노기로 하여금 나를 끌어당겨 곤란하게 하여 웃음거리로 만들려는 모양이었다. 나는 굳이 사양하고 일어나지 않았다. 퇴부도 방에 들어가 문안하는 말을 극진히 늘어놓았다. 얼마 안되어 점심 때가 되니 상을 차려 식사까지 대접하였다. 나는 반인을 불러 귓속말로 광산월이 오는 길목에 가서 광산월에게 길을 재촉하라고 일렀다. 해가 어스름해지자 과연 당도하였는데 고운 화장과 아름다운 옷을 입고 들어오니 함께있던 사람이 모두 명하니 쳐다보았다. 경퇴부는 그의 계책이 성공하지 못한 것을 분해하고 내기도 불만스러워하는 모양이어서 웃음이 나왔다. 이어 술과 풍악으로 즐거움을 다하고 사고(四鼓)에야 겨우 잠자리에 들었다. 두 기녀도 모두 머물렀다.] - 허균의 <조관기행(漕官紀行)>에서

경섬의 묘는 흥천면 대당리에 있다.



▲ 경섬묘

정업(鄭曄)

그 사면에 있는 기천서원(沂川書院)에는 조선시대 유현(儒賢) 8명의 위패가 봉안되어있다. 그 중의 한사람이 정업이다. 정업(鄭曄, 1563~1625) 본관은 초계(草溪). 자는 시회(時晦). 호는 수몽(守夢), 설촌(雪村). 진사를 지낸 유성(惟誠)의 아들로 영의정 이산보(李山甫)의 사위다. 3세때 글을 배워 4세때 시를 지음으로서 이이(李珥)와 정유길(鄭惟吉)로부터 신동이라는 칭찬을 받았다. 이지함(李之菡)의 주선으로 송익필(宋翼弼)에게서 수학하고 성혼(成渾), 이이에게서도 가르침을 받았다. 송익필은 기묘사화(己卯士禍)때 고변한 송사련(宋祀連)의 아들로 이산해, 최경창등과 함께 8문장(八文章)으로 불리웠으나 정여립 모반 사건을 다룬 기축옥사(己丑獄事)에 개입함으로써 비난을 받은 사람이다. 이일로 제자인 정업도 구설수에 올랐다. 정업은 1583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에서 벼슬을 시작하였고 형조좌랑, 황주판관, 중화부사, 서천군수, 여주목사, 성균관사성, 수원부사, 응교, 집의, 대사간등을 지냈다. 1602년 정인홍이 권력을 잡자 성혼의 문인이라는 혐의를 받고 종성부사로 좌천되었다. 이때 북병사 이용순이 장계를 올리기를 “종성부사 정업은 중풍에 걸린 지 반년이 되었는데 지금은 여름철인데도 문을 열고 낮을 드러내지 못하고 모든 문서에도 손을 들어 서압(署押)하지 못하므로 직무를 전폐하여 공무를 살피지 않습니다. …”하였다. 사헌부도 “정업이 도입한 뒤로 병을 핑계삼아 관아의 일을 폐가하여 방비하는 모든 일을 돌보지않고 자리가 바뀌기만을 바라 근심을 끼쳤습니다. 또한 육진에서 가족을 거느리는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인데 정업의 아내가 법을 어기고 내려간 뒤에 올라오지 않고 있으니 파직하소서.” 하고 아뢰었다. 그러나 정업은 종성(鐘城)에서 학교교육을 크게 일으켰는가 하면 병든 몸을 수레에 싣고 성에 올라가 수많은 오랑캐의 침입을 효과적으로 막아내기까지 하였다. 하지만 척을 지고살던 기자헌(奇自獻)의 농간으로 동래(東萊)로 유배되었다가 1605년에 풀려나 성주목사, 홍주목사가 되었다. 1608년 광해군이 즉위하면서 예조참의, 대사성, 충청감사, 도승지를 역임하였다. 1617년 폐모론이 제기되자 양양(襄陽)부사를 자원하였고 인목대비가 폐위되자 관직을 버리고 사저가 있는 여주로 돌아와 지냈다. 이후 광해군이 여러차례 불렀으나 나아가지 않다가 인조가 즉위하자 특별으로 대사성과 대사간을 겸하였다. 성균관 대사성으로서 타직을 겸하는 예가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1625년 유순익, 김장생 등과 함께 사노(私奴)로 환천되어 떠돌아다니다 죽은 스승 송익필의 신원(伸冤)을 청하였으나 윤희를 받지 못한 채 2달

여 만에 죽었다. 즐기에 그의 사람됨이 잘 드러나 있다. “ 전 대사헌 정업이 즐하였다. 용모가 준수하고 기국이 웅결했다. 일찍이 위기지학(爲己之學)에 뜻을 두고 율곡(栗谷)과 우계(牛溪)의 문하에 종유하여 조예가 더욱 깊었다. 가정에 있어서는 효우가 돈독하였고 부모를 섬기는 일이나 장제등은 일체 가례(家禮)를 따랐다. 선조 때 과거에 급제하여 안팎의 관직을 두루 거치고 명망이 높이 드러났으나 성품이 본래 남과 타협하는 일이 적었다. 그래서 기자헌에게 미움을 사서 폄출(貶黜)되기도 하고 범망에 걸리기도 하였지만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광해군도 그의 명망과 행실을 중히 여겨 상당히 등용하였다. 인조반정후 광해가 스스로 천명을 단절하였으니 못신하들은 곡읍(哭泣)하며 전송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하니 모두가 놀랐다. 상은 그가 크게 쓸 만한 인재임을 알고 누차 발탁하였는데 항상 대사헌겸 대사성으로 학제를 제정하고 과업을 권장하는 일을 게을리 하지 않았다. 원자의 보양관을 겸하였고 원자가 동궁이 된 뒤에는 우부빈객을 겸하였다. 승정대부의 품계에 차서를 뛰어 제수되었는데 얼마 안가서 작고하였으므로 상이 매우 애도한 나머지 세자와 소선(素膳)을 들었다...” 우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숙(文肅)



▲ 기천서원

이식(李植)

월 상계택(月象谿澤)이란 이른바 조선중기의 4대 문장가를 일컫는 말이니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 상촌(象村) 신흠(申欽), 계곡(谿谷) 장유(張維), 택당(澤堂) 이식(李植)이 그들이다. 대사간 이식이 인조임금의 아버지 정원대원군(定遠大院君; 뒤에 원종)에 대한 추숭(追崇)에 반대하다가 임금의 노여움을 사 강원도 간성현감으로 좌천되었을 때 자신의 처지를 빗대어 쓴 시가 바로 우리에게 친숙한 도루묵 시(詩)다.

이식(李植, 1584~1647) 본관은 덕수(德水), 자는 여고(汝固), 호는 택당(澤堂), 남궁외사(南宮外士), 택구거사(澤癯居士), 일표거사(一瓢居士). 좌찬성에 증직된 이안성(李安性)의 아들이고 어머니는 공조참판 윤옥(尹玉)의 딸이다. 어릴 때부터 병약하여 13세에 외가댁이 있는 여주로 내려와 요양과 함께 글공부를 병행하였다. 외삼촌인 윤백순(尹百順)의 지도를 받던 그는 1610년 생원시에서 3등을 하였고 그해 별시 문과에 급제하였다. 1626년 대사간, 대사성, 좌부승지를 지내고 1638년 대제학 1643년 대사헌, 형조·이조·예조판서를 역임하였다.

실록에 그의 줄기가 전한다. [인조 25년 6월 13일 전 이조판서 이식이 죽었다. 소탈하고 빼어나며 통명하였고 전아하고 고상하며 검소하였다. 어려서부터 박람강기(博覽強記)하였고 문장이 절묘하여 한 시대에 우뚝하였다. 혼조(昏朝; 광해군시대)에는 여강(驪江)에 물러나 살면서 임숙영(任叔英), 여이징(呂爾徵), 정백창(鄭百昌), 조문수(曹文秀)와 더불어 글짓고 술마시는 모임을 만들어 강호사에서 노니, 많은 사람들이 흠모하였다. 반정하게되자 청현(淸顯)의 직을 두루 거쳤고 세 번이나 문형을 맡았다. 병술년에 시제(試題)의 일로 죄를 얻으니 모두 원통하게 여겼다. ...] 이식의 시호는 문정(文靖).

그가 남긴 여러 편의 시 가운데 두편을 골랐다.

신록사(神勒寺) 동대만조(東臺晚眺)

초초권행매(草草倦行邁) 급히도 피곤하게 달려온 먼 길
등대송락휘(登臺送落暉) 누대에 올라 지는 해 전송하네
풍강춘불온(風江春不穩) 바람부는 강물결 봄날씨 아직 썰렁한데
연수명상의(煙樹暝相依) 내 낀 나무숲 사이로 어둠이 먼저 짙어드네
조청제종집(鳥聽齊鍾集) 저녁 쇠종소리 듣고 새들 모여들고
승탱야정귀(僧撐野艇歸) 나룻배 저으면서 스님 돌아오누나

광가우형승(狂歌遇形勝) 기막힌 경치 만나서 마음껏 노래 뽑노라니
미각소심비(未覺素心非) 평소의 마음 잘못된 걸 깨닫지 못하겠네

환목어(還目魚 : 도루목)

유어명왈목 有魚名曰目 목어라 부르는 물고기가 있었는데
해족제품비 海族題品卑 해산물 가운데서 품질이 낮은 거라
고유부자윤 膏腴不自潤 번지르르 기름진 고기도 아닌데다
형질본비기 形質本非奇 그 모양새도 볼 만한 게 없었だね.
종연풍미담 終然風味淡 그래도 씹어보면 그 맛이 담박하여
역족좌동시 亦足佐冬醢 겨울철 술안주론 그런데로 괜찮았지.

국군석파월 國君昔播越 전에 임금님이 난리 피해 오시어서
간황차해수 艱荒此海陲 이 해변에서 고초를 겪으실 때
목야적등반 目也適登盤 목어가 마침 수라 상에 올라와서
돈돈요만기 頓頓療晚飢 허기진 배를 든든하게 해 드렸지.
칙사은어호 勅賜銀魚號 그러자 은어라 이름을 하사하고
영충양존의 永充壤奠儀 길이 특산물로 바치게 하셨다네.

금여기선반 金輿既旋反 난리 끝나 임금님이 서울로 돌아온 뒤
옥찬경진지 玉饌競珍脂 수라상에 진수성찬 서로들 뽐낼 적에
차여측기간 嗟汝廁其間 불쌍한 이 고기도 그 사이에 끼었는데
거감당일시 詎敢當一匙 맛보시는 은총을 한 번도 못받았네.
삭호환위목 削號還爲目 이름이 삭탈되어 도로 목어로 떨어져서
사수홀여귀 斯須忽如遺 순식간에 버린물건 푸대접을 당했다네.

현우부재기 賢愚不在己 잘나고 못난 것이 자기와는 상관 없고
귀천각승시 貴賤各乘時 귀하고 천한 것은 때에 따라 달라지지.
명칭시외식 名稱是外飾 이름은 그저 겉치레에 불과한 것
위기비여자 委棄非汝疵 버림을 받은 것이 그대 탓이 아니라네.
양양벽해저 洋洋碧海底 넓고 넓은 저 푸른 바다 깊은 곳에
자적내기의 自適乃其宜 유유자적하는 것이 그대 모습 아니겠나,

이괄(李适)

흔히 역사를 승자(勝者)의 기록이라한다. 이괄(李适)은 패자(敗者)다. 그러므로 제대로 된 기록이 남아있을 리 없다. 그러나 그에 관한 몇몇 편린들의 행간(行間)을 통해 그의 일생을 들여다 보기로 하자. 이괄(李适, 1587~1624). 본관은 고성(固城), 자는 백규(白圭), 병조참판을 지낸 육(陸)의 후손이다. 김시양(金時讓)이 쓴 하담파적록(荷潭破寂錄)에 보면 [선조때 무과에 급제한 이괄은 무술뿐 아니라 문장과 글씨에도 뛰어나 이름이 알려졌다. 반정(反正)하는 날의 규약과 기획등이 모두 이괄에 의해서 짜여졌다. 반정에 성공한 뒤 논공행상을 할 때 중간에 가담하였다하여 2등공신으로 삼자 이괄이 크게 불평하였다. 이때의 공론(公論)은 ‘일찍이 박원종등이 병인반정(중종반정)을 일으켰을 때 유자광이 처음부터 모의에 가담한 것이 아니고 때에 임박하여 그의 계책을 세웠어도 1등공신으로 삼았는데 이괄에게는 억울한 일’이라는 것이었다.]라고 적혀있다.

[의병은 이날 밤 2경에 홍제원에 모이기로 약속하였다. 김류(金瑬)가 대장이 되었는데 고변이 있었다는 말을 듣고 지체하며 출발하지 않고 있었다. 홍제원에 모인 군중이 동요하자 이귀(李貴)가 이괄을 추대하여 대장으로 삼은 다음 편대를 나누고 호령하니 군중이 곧 안정되었다.] - 조선왕조실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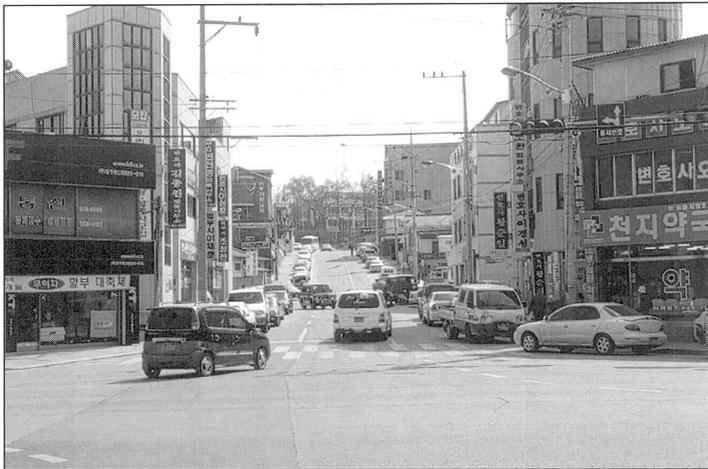
대오가 정비되어 출발할 즈음에 김류가 나타났다. 모의가 탄로되었다는 뜬 소문을 듣고 집에서 잡혀갈 셈으로 누워있다가 심기원, 원두표 등의 질책을 받고 나타난 것이다. 김류가 총대장을 자처하고 나서자 이괄이 크게 노하여 따르려하지 않았으나 이귀가 화해시켰다. 반정 후 평안병사겸 부원수로 영변에 도착한 이괄은 전략에 밝고 통솔력이 있었던 까닭에 군사조련, 정책보수, 진의 경비강화 등의 임무를 충실히 하였다. 이때 느닷없이 이괄과 그의 아들이 모반을 꾀하였다는 무고가 날아들었다. 인조반정 직후인 이무렵엔 정권을 장악한 공신들이 반대세력에 대한 경계를 심히하여 반역음모의 혐의로 잡히는 자가 적지 않았는데 이괄도 그 피해자였다고 할 수 있다.

임금이 이괄의 외아들 전(旃)과 한명련을 잡아들이기 위해 선전관과 의금부 도사를 파견하자 아들이 모반죄로 죽게되면 자신도 온전할 수 없다고 판단한 이괄이 인조 2년 1월 22일 군사를 일으켜 서울로 향하니 이것이 이괄의 난 또는 갑자난이라고 하는 것의 시작이다.

2월 10일 서울에 입성한 이괄은 흥안군(興安君) 제(瑅)를 임금으로 옹립하고 성안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모아 벼슬을 내렸다.

2월 11일 도원수 장만(張晩)의 군대와 무악재에서 전투를 벌이다 패배하였다.
 2월 12일 대궐을 빠져나온 이괄은 삼전도 - 광주 - 경안을 거쳐 이천 묵방리
 (현 백사면 현방리)에 이르러 민가에 몸을 숨기고 잠을 자던 중 기억현과 이수
 백등에 의해 목이 잘렸다. 이괄의 나이 38세였다.

여주군이 1982년에 발간한 [문화유적]에 따르면 이괄의 가족은 여러대를 걸쳐
 여주에서 살았으며 구 역전부지와 범원아래 홍문리 일대가 이괄의 저택지였다
 고 한다. 이괄의 집은 오래전에 없어져 버렸으나 경찰서 맞은 편 법원으로 올라
 가는 입구에 얼마전까지 우물이 남아있었는데 도로를 확포장하면서 사라져버렸
 다. 마치 청년장군 이괄이 역사의 양지쪽에서 사라져버렸듯이...



▲ 이괄의 우물이 있던 자리

원두표 (元斗杓)

북벌은 우리 여주가 문화입군(文化立郡)을 위해 소중히 갖고 닦아야 할 화두(話頭)의 하나다. 영릉(寧陵)과 대로사, 이완 대장묘를 잇는 절묘한 삼각코스는 대륙으로 향한 북벌의 의지를 일깨우기에 충분하다. 더욱이 이십여년 전만 하더라도 육사생도들이 정기적으로 이완 대장묘를 참배하면서 호연지기를 키웠다고 하는 사실은 여주가 갖고 있는 문화유산의 중요성을 입증하고도 남음이 있는 것이다. 효종대왕이 재위 10년 동안 일구월심으로 주창한 북벌의 핵심 인물들 중에서 빠질 수 없는 사람이 원두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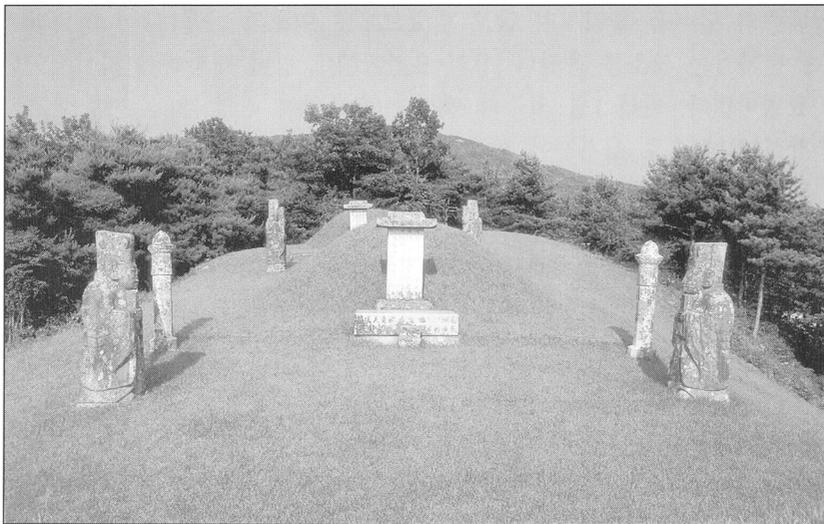
원두표(元斗杓, 1593~1664) 본관은 원주(原州), 호는 탄수(灘叟), 탄옹(灘翁). 원계군 유남(裕男)의 아들이며 인조반정의 공으로 원평부원군에 봉하여졌다. 시호는 충익(忠翼)이다.

원두표가 본격적으로 북벌계획에 가담하게 되는 것은 효종 4년 7월 21일 병조판서에 임명되고 부터다. 원두표는 김자점의 낙당(洛黨)과 대립되는 원당(原黨)의 영수였으므로 모반사건에 연루되어 김자점이 죽고난 뒤 정국을 이끌 책임자이기도 했다. 이때 효종대왕은 이완을 어영대장에 임명하는데 이는 문무를 조화시키기 위한 조치로서 원두표에게는 국방정책을, 이완에게는 그 실행을 맡긴 인사였다.

효종 5년 2월 11일. 원두표의 건의로 인조때 없어졌던 영장(營將)제도가 부활되었다. 각도의 지방군대를 관할하기 위하여 설치한 진영(鎭營)의 장관을 영장 또는 진장(鎭將)이라고 하는 바, 이들은 정3품 당상직으로 8도에 46인, 강화부에 5인등 51명으로 구성되었고 지방의 군비확장 사업을 담당하였다. 이런 노력의 결과로 효종 6년 9월 29일 장릉을 참배하고 돌아오는 길에 노량진에서 효종대왕은 1만 3천여명의 조선 군사들이 펼치는 열무식(閱武式)을 가질 수 있었던 것이다.

효종대왕과 원두표의 밀접한 관계는 충익공 원두표 신도비에 잘 나타나있다. 「... 상께서 모든 유생들이 항상 답답하여 정사를 논할 사람이 없어 하시더니 여러 대신들을 살피던 중 오직 공만이 큰일을 책임질 만하다 하시고 마침내 군사의 일을 공에게 맡기고 도성의 보루마저 겸하여 관장토록 하시고는 때때로 혼자서 밀실에 불러들여서 더러는 술을 권하시며 후원에서 조용히 일을 의논하시며 사관에게 명하사 이를 기록하지 말도록 하셨으며 표범가죽으로 만든 갑옷과 패도를 하사하시니...」

또한 효종 6년 1월 17일 조선왕조실록의 기록을 보면 「... 이때 상이 중원(中原)이 오래도록 어지러운데 피폐(皮幣)만을 일삼고 눈앞의 편안한 것을 피하며 세월을 보낼 수 없다하여 성지를 수리하고 군사를 단련하여 스스로 강해지는 방책으로 삼으려했다. ... 번번히 연석(筵席)에 임하면 원두표등과 강론하고 계획하되 해가 기울어도 피곤해 하지 않았다。」고 적혀 있다. 충익공 원두표는 북내면 장암리 산 1-4에 잠들어 있다.



▲ 원두표묘

홍명구(洪命耇)

국가의 위난을 당해 빛나는 무공을 세운 여주인으로 임진왜란 때 원호가 있었다면 병자호란 때에는 홍명구가 있었다. 이들은 45년의 시차를 두고 강원도 김화에서 각각 전사하였다.

홍명구(洪命耇, 1596~1637)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원로(元老). 호는 나재(懶齋). 병조참의를 지낸 홍서익(洪瑞翼)의 아들로 영의정 홍명하(洪命夏)의 형이다. 어려서부터 영민하였던 홍명구는 8살 때 이웃에 살던 정승 이항복(李恒福)의 집에 놀러갔다가 이항복의 권유로 시 한수를 지었는데 ‘相國間無事惟知鍾花柳(상국간무사유지종화류) 정승이 한가로이 일이 없으니 다만 꽃나무만 심을 줄 아누나.’ 하니 이항복이 깜짝 놀라며 “네가 나로 하여금 마음을 부끄럽게 하는구나. 너는 후일 재상이되면 이 쓸모없는 늙은이가 같이 되지 말라.”하였다고 한다. 홍명구는 1619년 알성문과에 장원급제하였으나 시골에서 은거하다가 1623년 12월 25일 평안도 관찰사가 되었다. 1636년 4월 홍명구는 춘신사(春信使) 나덕헌(羅德憲)과 회답사(回答使) 이곽(李廓)이 스스로 ‘대청황제(大清皇帝)’라 칭하는 청태종의 답서를 물리치지 않고 받았으므로 이들의 목을 베어 청나라 궁궐 문앞에 던지자는 상소를 올렸다. 청의 오만함에 당당히 대항하겠다는 결연한 의지의 표명이었다. 이해 7월 의주의 옛성을 수축하여 관방(關防)으로 삼고 부원수를 창성(昌城)으로 옮겨두어 청의 침입에 대비코자 하였으나 김류(金瑬)의 반대로 안타깝게 채택되지 않았다. 12월. 마침내 청태종이 10만의 정예병력을 이끌고 쳐들어왔다. 이른바 병자호란(丙子胡亂)이었다. 당시 동북아 최강의 기병을 자랑하던 청나라는 10년전 정묘호란때 경험한 조선군의 산성방어전략을 역이용하여 빠른 기동력으로 국경을 넘은 지 5일만에 한양에 도달했다. 이들의 신속한 움직임에 인조임금은 미처 강화도로 피난하지 못하고 남한산성에 고립되게 되었다. 자모산성(慈母山城)을 지키던 홍명구는 적이 곧바로 한양으로 향했다는 소식을 듣고 별장 장훈(張勳)에게 2000기(騎)를 주어 구원하게 하는 한편 자신은 날랜 포병 3000명을 선발하여 병사(兵使) 유림(柳琳)에게 동행할 것을 재촉하였다. 그런데 유림이 뒤따라 오다가 강동에 이르러 조정의 명령이 없다는 핑계를 대고 군대의 행진을 저지시키려하자 홍명구가 꾸짖기를 “군부가 화란을 당했으나 직분상 목숨을 바쳐야 마땅하다. 더구나 적으로 하여금 군사를 나누어서 전투하게 함으로써 남한산성 공격에 전력을 기울이지 못하게 하는 것도 한가지 계책이다.”하고 진격을 독려했다. 급히 남하하던 홍명구는 김화에서 적의 대병

과 부딪쳐 적 수백명을 사살하고 몸에 3대의 화살을 맞아가며 분전하던 끝에 전사하였다. 이에 자극을 받아 휘하 장병들이 힘껏 싸워 적을 물리치니 병자호란 중에 적을 이긴 싸움은 이 전투와 김준룡(金俊龍)의 광교(光敎)싸움 뿐이다. 홍명구의 전사소식이 전해지자 눈물을 흘리지 않는 이가 없었는데 임금도 울면서 “내가 평소에 그의 사람됨을 알았다. 이렇게 나라가 결단 날 때에 단 지 이 한사람이 있을 뿐이다.”하고 이조판서에 추증하도록 명하였다. 인조가 홍명구를 가상히 여기는 것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1638년 홍명구의 노모가 죽자 관곽과 역군을 보내주도록 하였으며 1639년 홍명구의 처자를 공신의 집안으로 대우하게 하고 1641년 아들 홍중보(洪重普)를 효종의 둘째 딸인 숙안공주의 남편으로 삼았다. 홍명구는 뒤에 영의정으로 추증되었고 동생 홍명하와 함께 기천서원에 배향되었다. 묘는 금사면 이포리에 있고 시호는 충렬(忠烈)이다.



▲ 홍명구 신도비

조수익(趙壽益)

양시(兩試)는 생원시험과 진사시험에서 동시에 합격한 사람을 지칭하는 말로서 쌍중(雙中) 또는 구중(俱中)이라고도 했다. 조선시대 생원·진사시험은 문과(文科; 大科)에 비겨 소과(小科) 또는 사마시(司馬試)라 했으며 한번에 1등 5인, 2등 25인, 3등 70인등 대개 100명을 선발하였다. 1624년(인조2) 식년시에서 양시자가 나왔는데 그것도 진사 1등 제 1인으로 합격한 이가 있었으니 그가 여주사람 조수익이다.

조수익(趙壽益, 1596~1674) 본관은 순창(淳昌). 자는 사정(士靜), 호는 만한(晩閑). 아버지는 조직(趙直)이며 어머니는 서애(西厓) 유성룡(柳成龍)의 딸이다. 1633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합격하여 사간원 정언이 되었고 1635년에는 평안도 암행어사로 활동하였다. 1636년 병자호란이 일어나자 인조를 남한산성으로 호종하였으며 최명길등의 주화론(主和論)에 반대하여 끝까지 싸울 것을 주장하였다. 1645년 사은겸 주청사의 서장관이 되어 청나라 연경에 다녀온 뒤 동부승지를 거쳐 경상도 관찰사가 되었다. 경상도 관찰사시절 외할아버지인 서애 유성룡의 징비록(懲慙錄)을 간행하였다. 징비(懲慙)란 시경(詩經) 소비편(小毖篇)의 '미리 징계하여 후환을 경계한다.(豫其懲而慙後患)'는 구절에서 따온 말이다. 징비록은 임진왜란 7년간의 기록으로 전란의 원인, 전황등을 알려주는 소중한 사료이다.

조수익은 사리가 분명한 사람이었다. 인조 15년 묘당(廟堂)이 대간(臺諫; 사헌부, 사간원의 벼슬)의 피험(避嫌)을 제도화하면서 “삼사(三司; 홍문관, 사간원, 사헌부)는 이치상 일체가 되어야 하므로 옥당(玉堂; 홍문관)의 예에 따라 다수 쪽을 위주로 해야한다.”고 하자 헌납으로 있던 조수익이 상소하기를 “사람은 강유와 용겁의 기품이 같지 않으므로 대단히 난처한 일로 이해에 관계가 되는 것을 당하면 반드시 관례에 따라 참여하지 않는 자가 많고 항변하여 굳이 다투는 자도 드물 것입니다. 그렇게 된다면 임금의 구중(九重)에 깊이 있으면서 어떻게 그 사이에 이의가 있는 줄 알겠습니까. 성명(聖明)이 굽어보시는 이때에는 다른 염려가 없겠으나 시험삼아 지난 일을 예를 들어 말하자면 바야흐로 권세있고 간사한 자가 나라의 일을 맡아 위복을 마음대로 휘두르고 심복과 우익을 삼사에 벌여두어 눈짓하여 지시해서 간사한 논의가 별때처럼 일어났을 때, 한두 사람의 이의가 그 사이에 끼어서 간사한 논의가 행해지지 못했던 것이니 이것 역시 거울삼아야 합니다.”하여 임금의 마음을 돌리고 있다. 1660년 4월 대사헌으로 있던 조수익이 여주에 있으면서 어머니의 병으로 상소하여 사직을 청하였으나 임금

이 허락하지 않았다. 1661년 5월 4일 효종임금이 승하한 지 2년째 되던 날인 대상일(大祥日)에 다시 조수익이 “어미의 병이 매우 위중해 국상(國祥)에 달려오지 못했다.”며 파직을 청하고는 덧붙여 전 판중추 조경(趙綱)을 죄주지 말라고 두둔하는 상소를 올렸다. 이 상소가 빌미가 되어 조수익이 1663년 병조참판직에서 물러나게 되자 그의 사직을 아쉬워한 사관이 몇자 기록을 남겼다. “삼가 살피건대 조수익은 진신(摺紳; 높은 벼슬아치)들 사이에 유아(儒雅)한 인물로 일컬어졌으며 청현직을 두루 역임하는 동안 여망을 만족시켰다. 그런데 하나의 소를 올려 조경을 구한 일이 있으면서부터 송시열(宋時烈)의 패거리가 크게 미워하고 무척 힘을 들여 배척하면서 다시 청로에 발을 들여놓지 못하게 하였으니 너무도 공의(公議)를 무시한 처사라 하겠다.” 조수익은 이듬해 한성부우윤으로 재기용되었고 형조·예조참판을 역임한 뒤 1674년 79세로 기로소(耆老所)에 들어갔다. 뒤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숙종때 문간(文簡)이란 시호를 받았다.

여강칠우(驪江七友)

요즘 KBS 2TV 수목드라마 ‘천둥소리’를 보면 여주에서 패를 이루고 살았던 서자들이 등장한다. 신분제도가 엄격히 살아 있었던 조선시대에는 양첩의 자손은 서(庶), 천첩의 자손은 열(孽)이라 구분하고 그들의 할아버지, 아버지의 관품에 따라 관직에 서용될 수 있는 벼슬의 한계를 정해놓고 있었다. 그러나 이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태종때 만들어진 서열금고법(庶孽禁錮法)에 의해 양반의 첩자손은 영원히 문과에 응시할 수 없었다. 그러다가 1553년(명종8)에 양첩의 자손에 한하여 손자때부터 문과와 무과 응시자격을 주었고 1625년(인조3)부터는 천첩의 자손도 증손자때부터 문무과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주었다. 이런 연유로 뛰어난 재능을 가진 서자들의 불만이 고조될 수 밖에 없었던 것이다.

시류를 개탄하며 스스로를 강변칠우(江邊七友) 또는 죽림칠현(竹林七賢)이라 일컬으며 시를 짓거나 술을 마시는 일로 소일하던 이들이 있었는데 영의정 박순의 서자 박응서(朴應犀), 목사 서익의 서자 서양갑(徐羊甲), 관찰사 심전의 서자 심우영(沈友英), 병사 이제신의 서자 이경준(李耕俊), 상산군 박충간의 서자 박치인(朴致仁), 허홍인(許弘仁), 김평손(金平孫) 등이 그들이다. 이들은 광해군 즉위 초인 1608년 서자도 관리에 등용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상소하였다. 아마도 선조임금의 서자인 광해군에게서 동병상련의 정을 기대했던 듯 싶다. 그러나 허락되지 않자 세상을 포기하고 여주 강가에 은둔하게 된다. 조선왕조실록에 의하면 서양갑, 박응서, 심우영, 허홍인, 유효선 등이 공동생활을 하며 어울려 살아던 곳이 지금의 능서 양화천과 강이 만나는 주변이라고 한다. 처음엔 그저 세상일 잊고 농사를 지으며 살아갈 계획이었으나 글만 읽던 서생들이라 농사가 잘 될리 없었다. 차츰 이들은 나무꾼, 소금장수, 노비추쇄인(奴婢推刷人)등을 가장하여 화적질을 하게 된다. 그러다 1613년 3월 문경 새재에서 상인을 죽이고 은 수백냥을 강탈하는데 피살자의 노복 춘상(春祥)이라는 자가 이들의 뒤를 밟아 여주까지 추적한 끝에 포도청에 고발함으로서 일망타진 되었다. 이 일은 광해군 즉위에 공헌한 대북파(大北派)가 영창대군 및 반대파를 제거하기 위해 일으킨 계축옥사(癸丑獄事) 또는 칠서지옥(七庶之獄)이라 부르는 사건으로 발전하게 된다. 이들이 체포될 무렵 광해군을 등에 업고 세도를 부리던 이이첨은 먼저 임해군을 죽이고 선조의 적자인 영창대군마저 제거하기 위해 혈안이 되어있던 터였다. 강변칠우에 대한 소식을 전해듣자 부제학으로 있던 이이첨은 포도대장 한희길 등과 짜고 ‘시키는 대로만 하면 죽음을 면할 뿐아니라 큰 공을 세울 수 있으니

모름지기 깊이 생각해서 진술하라'면서 박응서를 회유하였다. 이 말에 귀가 솔깃해진 박응서가 그들의 각본대로 허위자백을 하니 그 내용은 이렇다. '우리들은 단순한 도적들이 아닙니다. 장차 큰일을 일으킬 생각으로 양식과 무기를 준비하려 한 것입니다. 영창대군의 외조부 김제남과 몰래 통하여 영창대군을 받들어 임금을 삼으려 한 것입니다.'

마침내 강변칠우와 그 가족들의 처참한 죽음뒤에 김제남이 사약을 받았고 1613년 8월 영창대군은 강화도로 유배되었다가 이듬해 봄에 강화부사 정항에 의해 골방에서 질식사 했으며 인목대비는 경운궁에 유폐되고 말았다. 이는 결국 인조반정을 부르는 빌미가 되었다. 반정으로 새 정부가 들어서자 계축옥사때 동료들을 무고함으로서 목숨을 부지했던 박응서, 광해군의 신임을 기화로 전횡을 일삼던 이이첨등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고 말았다.

한편 드라마 속에서 공주목사 허균이 강변칠우들과 어울리는 장면이 나오는데 강변칠우중 심우영이 허균의 처 외삼촌이었으므로 개연성이 있다 할 수 있다. 불운한 출생이었던 까닭에 세상을 원망하고 울분을 토로하며 암울한 젊은 시절을 보냈을 강변칠우, 여강가에서 살았기에 여강칠우(驪江七友)라고도 불리우는 이들의 한을 아는지 모르는지 오늘도 여강은 묵묵히 흐르고 있다.



▲ 여강 : 능서 양화천과 강이 만나는 곳

송시열(宋時烈)

북벌의 큰뜻을 품은 효종대왕이 우암을 선생이라 부르고 독대(獨對)하며 성의(聖意)가 담긴 어찰을 전하자 ‘송시열이 감격하고 분발하여 스스로 춘추의 대의를 세웠는데 효종이 승하하자 애통하고 사모하여 살고자 아니하는 것처럼 하였고 효종의 재궁(梓宮)에 부판(付板)을 썼으므로 유명(遺命)으로 자기의 상(喪)에도 부판을 쓰게 하고 휘일(諱日)마다 어찰을 가지고 종일 통곡하였다.’ - 숙종 15년 6월 3일 송시열 즐기

북벌에 있어서 효종과 송시열의 관계는 이처럼 남달랐다. 송시열(宋時烈, 1606~1686)은 은진사람으로 아명은 성퇴(聖賚), 자는 영보(英甫), 호는 우암(尤庵) 또는 우재(尤齋), 시호는 문정(文正)이었다. 아버지는 사옹원 봉사 갑조이며 어머니는 선산 팍씨로 봉사 자방의 딸이다.

숙종 8년 11월 20일. 우암이 벼슬에서 물러날 것을 청하고 여주에 왔다. 효종대왕이 계신 영릉(寧陵)을 우러러 보며 머물러 있기 위함이었다. 임금이 깜짝 놀라 승지를 보내 돌아올 것을 청하였으나 사양하고 이듬해 까지 여주에 머무르면서 조정의 신하가 월급으로 받는 쌀조차 사양했다고 한다. 이렇게 여주와 인연을 맺은 우암은 청심루의 현판을 쓰기도 하고 효종대왕을 그리며 여러편의 시를 지어 남겼는데 이 때 지은 시 구절이 100년 뒤 정조대왕의 심금을 울리게 된다.

정조 3년 8월 5일. 정조대왕이 영릉(英陵)과 영릉(寧陵)을 전알하고 청심루에서 신하들에게 이르기를 “오늘 두 능에 전배할 때 못건디게 슬픔을 느꼈는데, 이제 강 건너 서쪽을 바라보니 선침의 송백(松柏)이 무성하게 보인다. 내가 송선정(송시열)이 청심루에 앉아 영릉(寧陵)을 바라보며 지은 두 수의 시 가운데 「오래 앉아 달지고 능의 송백 어두우니 어느 곳에 뿔어앉아 말 아릴지 몰라라.」 라는 구를 월 때마다 아닌게 아니라 무릎을 치며 슬퍼하였는데 오늘 마침 이 누각에 올라 선릉을 지적에 바라보며 선정의 유제(遺題)를 보니 내 감회가 한층 더하다.”고 했다.

8월 6일. 경기 유생 정운기의 청을 받아들여 우암의 사우를 짓도록 명한 정조대왕은 6년 뒤 사우가 완성되자 직접 대로사(大老祠)란 편액을 내려 걸게 하였다. 대로(大老)라는 두 글자는 옛부터 천하대로(天下大老)라는 글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일찍이 선정의 문집가운데 뛰어난 구절을 모아 편집하면서 그 책의 제명을 대로일고(大老逸稿)라 하였으니 대체로 이에서 따온 것이다.

대로사에 들어서면 우암이 효종을 그리는 사모의 정이 가득함을 쉽게 느낄 수

있다. 강당의 이름이 첨백당(瞻柏堂)으로 효종의 능침을 바라본다는 뜻이고 사당으로 통하는 문의 이름을 장린문(長隣門)이라 하여 효종과 우암이 오래도록 가까이 있기를 염원하고 있다. 더욱이 사당안에 걸려있던 우암의 초상은 임금이 계신 곳을 향해 애절하게 서있는 모습이어서 보는 이의 가슴을 저미게 한다.

대원군 시절 600여개가 넘는 사원들이 철폐될 때에도 우암의 높은 학식과 덕망으로 인해 존립할 수 있었던 대로사는 고종연간에 강한사(江漢祠)로 개칭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 대로사



▲ 첨백당 : 대로사 강당

홍명하(洪命夏)

효종(孝宗)은 머리에 난 종기를 제대로 치유하지 못해 승하하였다. 이 일로 어의 신가귀(申可貴)를 사형에 처하고 다른 의원들도 죄의 경중에 따라 처벌하였다. 이대 궁궐내의 의료를 관할하는 약방(藥房 ; 내의원)의 책임자가 元斗杓(원두표)요 부책임자가 홍명하로 둘다 여주사람이었다. 홍명하(洪命夏, 1608~1667)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대이(大而), 호는 기천(沂川). 병조참의 홍서익(洪瑞翼)의 아들이다. 1630년 생원이 되었고 1644년 별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다. 1649년 이조좌랑, 경기암행어사 1652년 동부승지 1659년 약방제조로 있던 중 효종이 승하하자 삭직되었다가 1663년 우의정 1665년 좌의정 1667년 영의정이 되었다. 홍명하는 생원이 된 후 14년 동안이나 문과에 급제하지 못하고 처가 살이를 하고 있었는데 한 살 위인 처남 신면(申冕)과 손아래 동서 김좌명(金左明)의 구박이 자심했었다. 어느날 일찍 퇴근한 홍명하가 홀로 저녁상을 받은 일이 있었다. 이때 뒤늦게 퇴청한 처남 신면이 방안에 들어서더니 앉지도 않고 홍명하의 밥상을 내려다 보고 서 있었다. 수저를 막 들러던 홍명하가 처남과 같이 식사를 하려고 수저를 내려놓고 주저하면서 기다리고 있는데 처남이 “밖에 누가 없느냐”며 벽력같이 소리를 질렀다. 청지기과 하인들이 모여들자 밥상을 가리키면서 “저게 뭐냐, 꿩의 발이 아니야? 천인의 입에 꿩의 발이 닿으면 입이 부르트는 법인데 냉큼 집어다 버려라.”라고 하니 이행키 어려운 명령인지라 하인들이 어쩔 줄 모르고 있자 신면이 직접 꿩고기를 집어서 밖으로 내버렸다. 처남 매부 사이가 매양 이리했으므로 이를 걱정한 동양위(東陽尉) 신익성(申翊聖)이 아들 신면에게 누차 타일렀으나 조금도 나아지지 않았다. 세월이 흘러 홍명하가 문과에 급제하여 탄탄대로의 벼슬길에 올랐을 때 처남 신면이 김좌점의 옥사에 연루되어 국문을 받게 되었다. 효종임금이 특별히 홍명하를 불러 신면의 참형에 대하여 자문을 구하였는데 홍명하가 대답하기를 “신면은 신의 처남이긴 하나 자주 면대하여 깊은 심저의 대화를 나눈 일이 없으므로 사람의 인품을 헤아려보지 못하였아오니 어의에 따르겠습니다.”하였다. 적극적인 구명 의지가 없었던 것이다. 마침내 신면은 국문 도중 장형(杖刑)끝에 죽게 되는데 효종실록에는 “신면이 형신을 받다가 얼마 후 지레 자살하였다.”고 기록되어 있다. 여주사람들이 늘 그러했듯이 홍명하도 충성스럽고 청백한 인물이었다고 전한다. 그가 승지시절 효종임금께 올렸던 상소문 일부다. [전하께서는 천품이 뛰어나고 국량이 빼어나시어 참으로 세상에 드문 자질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나 기질의 병통이 이따금 있어서

말씀하시는 사이에 회로가 알맞지 않고 거조할 즈음에 호령이 전도되어 대각의 신하가 조금 뜻을 어기거나 조정 신하가 약간의 잘못이라도 저지르면 문득 엄중한 분부를 내리고 뜻밖의 죄목을 붙이기까지 하십니다. 태산처럼 위압하고 천둥처럼 진노하시니 누가 감히 죽음을 무릅쓰고 임금의 뜻을 거스르겠습니까. 지난 번 탐전에서는 죽인다는 말씀까지 하셨는데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전 하께서 하신 이 말씀은 반드시 참으로 죽이려 하신 것은 아니겠습니까마는 성인은 농담을 하지 않는 법인데 어찌하여 분노할 때에 경솔히 말하여서 사방에서 놀라게 하십니까...]

1667년 12월 27일 홍명하가 죽었다. 이듬해 7월, 도승지 이은상(李殷相)이 아뢰기를 [“고상신 홍명하는 일생을 청렴하고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죽은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가난하여 제사를 지낼 수 없습니다.”] 하니 임금이 제사 때 쓸 물품을 내려주게 하고 녹봉은 3년동안 더 내려주라 하였다. 묘는 홍천면 문장리에 있고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 홍명하묘

조한영(曹漢英)

효종8년(1657). 모름지기 임금은 날마다 자신을 새롭게 향상하고 또 새롭게 향상해서 시종일관 정성껏 천명을 따르고 민정을 살피 치국해야 한다는 도리를 감고신성잠(鑑古愼成箴)이라는 이름으로 임금께 올린 이가 있었다. 임금이 답하기를 “대사성 조한영이 올린 잠(箴) 한편은 그 의미가 깊고도 원대하며 표현이 좋아 부지런히 싫증내지 않고 두세 번 읽어보았다. 어찌 유념하여 좌우명을 삼지 않겠는가. 그의 충성심이 이러하니 특별히 표범가죽을 하사하여 나의 뜻을 표시하라.”하였다.

조한영(曹漢英, 1608~1670) 본관은 창녕(昌寧). 자는 수이(守而). 호는 회곡(晦谷). 공조참판 조문수(曹文秀)의 아들로 대신면 보통리에서 출생했다. 5살 때 시경(詩經)을 읽어 신동이라 불리웠으며 이식(李植)에게서 한문을 익혔고 김장생(金長生) 문하에서 예학을 배웠다. 1627년 생원시험에 1등으로 합격하고 1637년 정시문과에서 장원급제하였다. 1640년 청나라가 명나라를 공격하기 위해 조선 수륙군(水陸軍)의 원병을 청하는 동시에 원손을 볼모로 심양(瀋陽)에 보내라고 요구하자 이를 극력반대하는 만언소(萬言疏)를 올렸다. 이 사실이 청나라에 알려져 척화파인 김상헌(金尙憲), 채이항(蔡以恒)등과 함께 심양으로 끌려가 심한 고문을 받고 투옥되었으나 굶하지 않았다. 이들이 잡혀가게 된 연유는 도승지 신득연(申得淵)이 청나라 장수 용골대의 위세에 놀려 지레 겁을 먹고 실토한 때문이었다. 조한영이 임금께 올린 상소의 대강은 이렇다. “고금천하에 오랑캐를 섬기는 신하가 되어 화를 면한 적이 없었습니다. 저들의 요구에 따르다보면 백성의 힘은 고갈되고 국가의 형세는 기울어져 반드시 망하게 되니 그러기 전에 새로운 일을 도모해야합니다. 먼저 군신(君臣)이 강화도에 들어가고 바닷가 백성들은 섬으로 옮기고 산성 백성들은 산성으로 대피시키며 각 도의 방백으로 하여금 요해처를 굳게 지키게 하소서. 또한 별도로 대장을 선발하여 남한산성과 강도에 주둔케하고 삼남과 영동, 영북에 장수들을 파견하여 형편대로 대처케 하소서. 그러면 적이 적은 군사로 쳐들어 온다면 우리를 해치지 못할 것이고 많은 군사를 일으키면 명나라가 배후를 도모하지나 않을까 두려워 한 나머지 저들이 필시 진퇴유곡이 될 것입니다. 이것이 저들에게 설욕하여 원수를 갚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나 이에 임금은 답하지 않았다.

조한영은 1642년 심양에서 의주감옥으로 옮겨졌다가 풀려났다. 효종이 즉위하면서 헌납, 암행어사, 승지, 대사간, 대사성, 이조참의 등을 지냈고 현종때 호조

참의, 예조참의, 한서부좌윤, 형조참판으로 있다가 1669년 경기도관찰사가 되었다. 이듬해 정언 이옥(李沃)이 조한영을 탄핵하였다. “신이 들으니 우윤 조한영이 경기감사로 있을 때 신씨(申氏)의 산(山)에 관한 송사를 결단해 주고는 바로 상중에 있던 계집을 첩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집의 신명규(申命圭)등이 반박하기를 “조한영이 첩으로 삼은 상중의 여인은 역적의 후예로 두 번이나 시집을 간 사람인데다 그 어미의 소상(小祥)을 지난 뒤였고 서얼로서 사족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하였다. 이일로 사관은 “조한영이 단정치 못해 청의가 천하게 여겼다.”고 적고 있다. 조한영은 한성부우윤겸 하흥군(夏興君)에 봉해졌고 1670년 8월 26일에 죽어 고향에 묻혔다. 1709년(숙종35) 문충(文忠)이라는 시호를 받았다. 1785년(정조9) 여주유생 이성익(李聖翊)이 호란당시의 3학사와 김상헌은 향사(享祀)를 받고 있으니 조한영도 그의 고향집 부근에 있는 고산서원에 추배(追配)하기를 상소하였으나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1826년(순조26)에 이르러서 고산서원에 이준오와 함께 배향되었다. 묘는 대신면 장풍리에 있다.



▲ 조한영묘



▲ 조한영 신도비

윤휴(尹鑄)

예(禮)는 유교문화의 전통에서 인간의 도덕성에 근거하는 사회적 질서의 규범과 행동의 표준적 절차를 제공하며 동시에 유교적 제사의례의 구성과 절차를 의미한다. 실제로 유교국가인 조선시대의 예는 관혼상제와 같은 인간의 삶의 중대한 일에서부터 이웃과의 교제에 이르기까지 생활전반에 걸쳐 핵심적인 기능을 했다. 특히 이것이 왕실과 관련될 때에는 치열한 논쟁을 통해 정권의 이동을 가져오는 중대한 문제로 발전되었다. 이처럼 ‘고전에 수록된 예의 현실적인 적용을 둘러싸고 정파간의 논쟁’을 벌인 것이 이른바 예송(禮訟)이다.

1660년 효종대왕이 승하하자 대왕의 계모이자 인조임금의 후취인 장렬왕후 조씨(후에 자의대비)의 복제를 두고 논란이 일어났다. 송시열은 ‘예법으로 볼 때 장자가 죽으면 그 부모는 3년복을 입는 것이지만 자의대비는 전날에 장자인 소현세자가 죽었을 때 3년복을 입은 바 있으니 장자가 둘이 있을 수 없으므로 3년복은 안될말이다. 또 예설(禮說)에 체이부정(體而不正; 적자이면서 장자가 아닌 경우)이면 3년복을 입지 않는다고 했다. 돌아가신 효종은 장자가 아닌 만큼 마땅히 대비는 기년복(養年服; 1년상)을 입어야 한다.’라고 했다. 이에 윤휴는 ‘돌아가신 효종은 인조의 적자로서 막중한 왕통을 계승하였는데 어찌하여 자의대비가 기년복을 입는단 말인가. 예법에 장자를 위하여 3년복을 입는 것은 그 장자가 종통을 이었기 때문이다. 하물며 왕통을 이은 효종의 상례에 기년복을 입는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송시열은 체이부정이란 이유로 기년복을 주장하는데 그것은 지난날 소현세자가 장자였음에도 소현세자의 아들이 조부인 인조의 종통을 계승하지 않고 둘째 아들인 효종이 종통을 계승한 것을 못마땅하게 여긴데서 나온 주장이다.’라고 반박하였다. 여기에 송시열쪽에는 송준길이, 윤휴쪽에는 허목이 동조하면서 논쟁이 확대되었고 이 논쟁에 윤선도가 가세하면서 정치논쟁으로 비화되었다. 그 결과 서인과 남인이 교대로 상대방에게 보복적 숙청을 가하는 1차, 2차 예송을 불러오게 되었던 것이다.

윤휴는 아버지의 고향인 여주에서 오래 살았다. 윤휴(尹鑄, 1617~1680년) 본관은 남원(南原), 초명은 정(鎭), 자는 희중(希仲). 25세때 휴(鑄)로 이름을 고쳤다. 호는 백호(白湖), 하헌(夏軒). 대사헌 효전(孝全)의 아들이며 어머니는 침지중추부사 김덕민(金德民)의 딸이다. 윤휴는 3살 때 경주부윤으로 있던 아버지가 별세하자 여주 선산에다 장례를 치루고 잠시 서울에 올라와 살았으나 이괄의 난이 일어난 8세때 다시 여주로 피난왔다. 정묘, 병자호란때는 외가가 있는 보은

삼산에 머무르면서 외조부 간서재(澗西齋) 김덕민으로부터 글을 배웠다. 총기가 있어서 한자를 가르치면 열자를 깨우쳤고 불과 2년만에 경서를 외워 간서재를 놀라게 하였다고 한다. 28세때 다시 여주로 옮겨와 백호(白湖 : 금사면 금사리 덕촌골에 있던 호수)에 자리를 잡으니 그의 호는 이에서 연유한다. 이로부터 10여년간 그는 오로지 학문에만 열중하여 유교의 경전인 중용, 대학, 효경등에 독자적인 해석을 가할 수 있게 되었고 장구(章句)와 주(註)를 수정하는 작업에 몰두하였다. 그의 학문적 명성이 널리 알려지자 조정에서는 여러차례 벼슬을 내렸으나 사양하고 나가지 않았다. 남인들이 정권을 잡고있던 숙종 2년에 비로소 윤희는 정4품인 성균관사업(成均館司業)의 직을 받고 출사하였다. 그러나 우찬성으로 있던 1680년(숙종6) 경신대출척이 일어나 허적의 서자 허견의 모반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죄목으로 4월에 갑산에 유배되었다가 5월에 사사되었다. 이후 숙종 15년에 아들 하계(夏濟)의 신원이 받아들여져 영의정에 추증되었다.

학문과 인품이 고매하였던 까닭에 당시의 일류 명인들이 윤희와 교분을 가졌다. 여양부원군 민유중은 ‘윤희의 기모를 보면 좌상춘풍(左上春風)이요 그 언론을 들으면 경전에 출입하고 금고(今古)를 관천(貫穿)하여 사람으로 하여금 감동하여 귀 기울이게 하니 어찌 경도치 않으리요.’ 하면서 상찬해 마지않았고 라이벌인 우암 송시열도 ‘위로는 대신으로부터 아래로는 위포(韋布)에 이르기까지 윤희의 학문이 풍미하여 주자(朱子)를 능가할 정도다.’라고 탄복하였다. 기해예송이 일어나기 전까지 윤희와 송시열은 친한 사이였다. 우암이 자주 윤희의 집에 드나들던 어느 날 우암의 관상을 본 윤희의 어머니는 ‘그사람은 높은 곳을 바라볼 때 눈가에 질투심이 나타나니 뜻이 순조롭지 않을 것이며 마음 속에 심술이 있어 어질지 못할 것이니 깊이 사귀지말아라.’고 경계하였으나 윤희는 ‘우암은 큰 선비인데 그럴 리가 없습니다.’ 하면서 계속 교우하다 훗날 큰 화를 초했다는 일화가 전한다. 윤희의 묘는 금사면 장흥리에 있었는데 1971년 봄 대전으로 옮겼다.

인선왕후(仁宣王后)

6월 23일은 영릉(寧陵)에서 효종대왕과 인선왕후 장씨의 제사가 있는 날이다. 340여년 전 15년 간격을 두고 효종과 인선왕후가 승하했는데 이때 계모인 자의대비 조씨가 어떤 상복을 입어야 하는가를 놓고 정계에 일대 파란이 일어났다. 이른바 기해예송과 갑인예송이 그것이다.

인선왕후(仁宣王后, 1618~1674) 본관은 덕수(德水), 아버지는 우의정이었던 신평부원군 장유(張維)이며 어머니는 역시 우의정을 지낸 문충공 김상용(金尙容)의 딸이다. 어려서부터 단정하고 정숙하여 몸놀림을 함부로 하지않았다. 1631년 봉림대군이던 효종과 혼인하여 풍안부부인으로 봉해졌고 4년동안 궁궐에서 살다가 대군과 함께 사저로 나와 지냈다. 병자호란으로 시아버지인 인조가 삼전도에서 굴욕을 당한 뒤 세자내외와 봉림대군을 따라 청나라에 볼모로 끌려가 8년 동안 있었다. 이때 첫째딸인 숙신공주가 심양으로 가던 중 객사하는 불행을 당하고 한다. 그후 효종과 인선왕후는 5명의 딸과 아들하나를 두는데 이 아들이 심양에서 낳은 현종이다. 효종대왕은 북벌을 위해 조정과 모든 백성들이 단결하여 검약하고 소박한 생활을 해야한다고 강조하였다. 부인인 인선왕후가 이에 적극 호응했음은 당연한 일이다. 국모로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던 왕후는 우선 금주령을 내려 종묘에 쓸 제주 이외에는 일체 술을 만드는 것을 금지시켰다. 그러나 노인들의 반대가 극심해지자 이런 사소한 일로 민심을 잃게되면 나라 일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고 여긴 인선왕후는 효종의 재가를 얻어 궁궐에서 경로잔치를 여는 등 민심을 다시 조정으로 돌리는데 큰 역할을 했다. 또한 한가지 색으로만 만들던 이불을 빨간색과 파란색 두가지를 섞어 만들도록 하였다. 당시 군복 색상이 빨간색과 파란색이었기 때문에 유사시에 군복을 만들어 쓸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그리고 먼저 왕실에서부터 모범을 보이면 사대부집도 따라하게 될 것이고 그러면 온 나라가 이불색을 두가지 색상으로 바꿀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이때부터 이불을 두가지 색상을 섞어 만들기 시작했으며 한가지 색으로만 만들면 예에 어긋났다고 한다.

김수항(金壽恒)이 쓴 인선왕후 지문에 보면 [인선왕후는 타고난 성품이 원래 정숙한데다 범도 있는 가문의 교훈을 받았기에 몸가짐이나 말 한마디도 모두 타의 모범이 될 만하였고 그리하여 비록 병을 앓거나 혼자 사석에 있을 때라도 반드시 예에 의하여 행동을 취하였으며 심지어 자녀를 대할 때라도 나태하거나 오만한 빛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었다. 그리고 사친에 대하여는 비록 돌보아주기

도 하고 화목도 유지하였으나 옳지 못한 일로 은총을 요구하는 일 따위는 절대 허락하지 않아 안과 밖이 절연하였다.]고 기록되어있으며 [기해년에 효종의 병이 위독하자 왕비는 하늘을 향하여 자기를 대신 데려가 달라고 호소하였고 급기야 불휘(不諱)에 이르자 예에 지나치도록 통곡과 몸부림을 하였다. 그러나 송종(送終) 절차에 있어서는 시신 목욕시키는 일, 손톱자르는 일에서부터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반드시 친히 하고 아랫사람들에게 맡기지 않았으며 되도록 성신을 다하였고 그후 기미일 졸곡때까지 미음만 마셨다. 그리하여 우리 전하(현종)가 울면서 음식을 드시도록 청하자 왕비가 이르기를 '자기 목숨을 스스로 끊는다는 것이 사실은 과한 일이지만 살기 위하여 억지로 밥을 먹는 일도 나로서는 차마 못할 일이다.' 하였다.]고 적혀있어 인선왕후의 인간 됬됨이를 짐작케하고 있다.

효종대왕의 영릉은 원래 경기도 양주 건원릉 서쪽에 있었는데 1673년 10월 7일 봉분 병풍석에 금이가서 빗물이 새어들 염려가 있자 지금의 능서면 왕대리로 옮겼다. 천장하던 날 효종의 유해를 모신 수레가 너무 무거워 운반하던 군사들이 깔려 죽지나 않을까하여 왕후가 얼굴빛이 달라질 정도로 크게 걱정하였으나 다행이 다친 사람이 많지 않다는 보고를 듣고서야 비로소 안도하였다. 인선왕후가 승하하자 한양에서 뱃길로 여주까지 운구한 것은 인선왕후의 이때 심정을 받들기 위해서였다고 한다.

인선왕후는 딸들에게는 자상한 어머니이기도 하였는데 특히 셋째인 숙명공주와 넷째인 숙희공주에게 보낸 언문편지들이 숙명신한첩(淑明宸翰帖)과 숙희신한첩(淑徽宸翰帖)으로 남아있어 궁중풍속과 문체, 어휘, 정치, 역사등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가 되고 있다.



▲ 인선왕후묘

효종대왕(孝宗大王) 1

12월 24일 날씨가 매우 나빠져서 종일토록 진눈개비가 내렸다. 비에 젖은 군사들이 극심한 추위에 시달렸다. 그러자 국왕(인조)이 세자를 거느리고 날씨가 개이기를 빌었다. 향을 사르고 절하며 이렇게 기원하고는 그대로 땅에 엎드려 통곡했다. ‘이 외로운 성(남한산성)에 들어와서 믿는 것은 하늘 뿐입니다. 그런데 찬비가 갑자기 내려 흠뻑 젖었으니 끝내 얼어죽고 말것입니다. 제 한몸이야 죽어도 애석하지 않지만 이나라 만 백성이 하늘에 무슨 죄가 있겠습니까. 우리러 빌건대 조금이라도 날을 개게 하여 우리 백성을 살려주소서.’ (조선 왕조실록 인조 14년 12월 24일)

그로부터 한달 뒤인 1637년(인조15) 1월 30일. 인조는 삼전도에 나아가 청나라 태종에게 삼배구고두(三拜九叩頭)의 예를 올리며 항복했다. 삼배구고두란 여진족이 천자를 배알할 때 행하는 의식이었는데 한번 절 할 때마다 머리를 세 번 땅에 부딪치는 것을 세 번 반복하는 것을 말한다. 이때 머리 부딪는 소리가 크게 나아하는데 청태종은 소리가 나지 않는다고 다시 할 것을 계속 요구해 인조는 퐁퐁 언 땅바닥에 수십번 머리를 부딪쳤고 이로인해 이마는 피투성이가 되었다고 한다.

이 치욕적인 광경을 목격하고 청나라에 8년간 볼모로 잡혀있다가 귀국한 뒤 형인 소현세자를 대신해서 왕위에 오른이가 조선 17대 임금 효종이다. 효종대왕(1619~1659 재위 1649~1659)의 이름은 호(溍), 자는 정연(靜淵), 호는 죽오(竹梧)였다. 인조의 둘째 아들이자 어머니는 서평부원군 한준겸의 딸인 인열왕후 한씨이며 비는 신흥부원군 장유의 딸인 인선왕후 장씨이다.

효종은 즉위하자마자 북벌계획은 강력히 추진하였다. 청나라와 연결된 김자점 등을 파직시키고 김상헌, 김집, 송시열, 송준길 등 대청 강경파를 중용하는 한편 이완, 유혁연, 원두표 등에게 군비확장을 지시하였다. 1652년(효종3) 북벌의 선봉부대인 어영청을 대폭 개편 강화하고 금군을 기병화하였으며 사포부대를 조직하고 대국을 정벌할 양마를 기르게 하였다. 이밖에도 군사들이 입는 용복의 소매를 짧고 좁게 줄여 간편하게 하고 군례 또한 국궁대신에 공수, 장계로 바꾸게 하였다. 군비확충을 위해 군역의 의무가 없던 공경등의 상류층에게서 배 1필, 승려에게서 쌀 3석씩을 거두기도 했다.

이 당시 효종의 마음속에 담긴 북벌계획은 이러했다.

‘저 오랑캐들은 이미 망할 형세에 있다. 10년을 기한으로 군사훈련과 군장비,

군량을 비축하여 조신과 국민들이 일치단결하고 군사 10만을 양성하여 틈을 타서 명과 내통하여 기습하고자 한다.’ (『송자대전』송서습유, 권7, 악대설화)

효종대왕은 재위 10년 동안 좋아하던 술도 끊어버리고 심기일전, 복수설치의 의지를 다졌지만 중국의 형세는 명나라의 잔존세력에게 불리하였고 조선에서는 왜란, 호란 등의 전란으로 인한 경제적인 피해가 좀처럼 회복되지 않아 북벌의 기회를 잡을 수 없었다. 이런 와중에 군비보다는 현실적인 경제제건을 주장하는 신하들과 갈등을 겪던 효종이 1659년 5월 4일 41세를 일기로 돌연 승하하니 북벌의 꿈은 허무하게 스러지고 말았던 것이다.

한때 북벌의 응지를 품고 대륙 공략의 기세를 드높이던 중심인물들이 우리 여주에 터를 잡고 있다. 효종을 모신 영릉(寧陵)과 효종대왕을 바라보며 애뜻한 모습으로 서있는 대로사의 송시열 초상, 북좌에 앉아 남면하고 있는 임금을 뵈옵듯 영릉의 정남쪽에 있는 이완 대장묘가 그것이다. 이 비상한 인연의 의미를 깨달아 못다 이룬 선조들의 꿈을 실현하는 일은 지금 이 땅에 남아있는 우리들 후손의 몫이 아니겠는가.



▲ 녑릉 : 효종대왕릉 전경

효종대왕(孝宗大王) 2

효종대왕은 인조의 둘째 아들이었다. 정상적인 상황이라면 왕위를 계승할 수 없는 경우였다. 소현세자가 이미 세자로 책봉되어 있었고 원손(元孫)인 석철을 포함해 소현세자의 아들이 셋이나 있었기 때문이다. 치욕적인 삼전도 항복 이후 아버지 인조를 대신해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시절의 효종대왕은 청나라로 끌려간다. 소현세자가 26세 효종대왕이 19세때였다. 8년뒤 세자일행이 귀국하게 되는데 이것이 소현세자에게는 비극의 출발이었다. 불모로 잡혀있는 동안 소현세자가 접한 새로운 국제정세와 사상 그리고 문물들은 부왕 인조에게 있어 한낱 오락개의 생각과 물건일 뿐이었다. 청나라가 세자에게 쏟는 호의만큼 이들 부자간의 갈등은 심화되고 있었다. 행여 돌아오는 아들대신 인조자신이 불모로 청나라에 끌려가거나 앓을까 하는 기우가 바탕에 깔린 까닭이었다. 귀국한지 두달만인 인조 23년 4월 23일 세자가 병을 얻어 누웠다. 여의 박군(朴顥)이 학질이라 진맥했고 이형익이 열을 내리게 한다며 발병 다음날부터 침을 놓았는데 3일만에 세자가 죽었다. 갑작스런 세자의 죽음은 당연히 여러 가지 의혹을 불러일으켰다. 그 하나가 독살설이다.

[소현세자의 졸곡제를 행하였다. 세자는 본국에 돌아온 지 얼마 안되어 병을 얻었고 병이 난 지 수일만에 죽었는데 온몸이 전부 검은 빛이었고 이목구비의 일곱 구멍에서는 모두 선혈이 흘러나오므로 검은 천으로 그 얼굴 반쪽만 덮어놓았으나 곁에 있는 사람도 그 얼굴빛을 분별할 수 없어서 마치 악물에 중독되어 죽은사람 같았다. 그런데 이 사실을 외인(外人)들은 아는 자가 없었고 상(上)도 알지 못하였다. 당시 종실 진원군(珍原君) 이세완(李世完)의 아내는 곧 인열왕후(仁烈王后)의 서제(庶弟)였기 때문에 세완이 내척(內戚)으로서 세자의 염습(斂襲)에 참여했다가 그 이상한 것은 보고 나와서 사람들에게 말한 것이다.] - 인조실록 23년 6월 27일

세자가 죽은 뒤 40일 만에 후사를 바꾸자는 논의가 일었다. 인조의 의중대로 원손 대신 봉림대군을 세자로 정했다. 이어 인조 24년 1월 3일, 임금의 수라상에 독이 든 전복구이가 오른 사건으로 세자빈이었던 민희빈(愍懷嬪) 강씨마저 죽음을 당했다. 소현세자와 강빈사이의 세아들도 제주도 유배되었고 거기서 두 아들이 죽었다. 이런 비극적 희생을 바탕으로 왕위에 오른 이가 바로 효종대왕이다. 그러기에 죽은 형의 가족에 관한 일에 민감하지 않을 수 없었다.

효종 5년 6월 전국에서 가뭄과 홍수로 인한 피해가 잇따르자 임금이 국정 전

반에 대한 솔직한 비판과 건의를 널리 구하게 되었다. 이때 황해감사 김홍욱(金弘郁, 1602~1654)이 왕이 금기하는 민회빈 강씨의 일을 거론하여 노여움을 샀다. [한 지어미가 품은 원한에도 3년간 가뭄이 들었고 의로운 신하의 통곡에도 5월 달에 서리가 내렸습니다. 지금 강(姜)의 일문(一門)이 죽음을 당한 것은 단지 한 지어미의 원한이 맺힌 정도일 뿐만이 아니고 의로운 신하가 통곡한 것보다도 더 하니 화기(和氣)를 손상시켜 재앙을 불러 온 것이 괴이할 것도 없습니다.] 이에 임금의 진노하여 친국(親鞠)하였다. 홍욱이 곤장을 견디지 못하여 부르짖기를 [옛적에 훌륭한 임금들이 바른말 하는 신하를 벌주지 않은 것은 임금이 선비를 죽였다는 후세의 비판을 두려워한 때문입니다. 예부터 바른 말하는 자를 죽이고도 망하지 않은 나라가 있었습니까? 신의 소망은 지하에 가서 옛 충신 용방(龍逢)과 비간(比干)을 만나는 일입니다.] 하였다. 마침내 김홍욱은 곤장을 맞고 죽었다.

소현세자 내외에 대한 인조의 불신과 증오가 빚은 결과는 효종대왕 즉위 직후부터 강빈의 신원논의와 강빈옥사 자체에 대한 의문으로 과문을 일으켰다. 이는 왕권의 정통성과 관련된 일이었기에 효종대왕은 강빈문제를 재론하는 자는 역률(逆律)로 다스리겠다는 특별하교까지 내리게 되었던 것이다. 민회빈 강씨는 1717년(숙종43)에 신원(伸冤)되었고 김홍욱은 효종 10년 3월 27일 삭탈되었던 관작이 회복된 뒤 1718년(숙종44)에 이조판서에 추증되었다



▲ 효종대왕릉 전경

효종대왕(孝宗大王) 3

오즘 TV사극 허준이 인기다. 극중에서 얼마전 공빈(恭嬪)김씨(金氏)가 죽었
요다. 공빈은 임해군과 광해군의 어머니였다. 공빈과 사이가 나뉘던 인빈(仁
嬪)도 등장하고 있는데 경국대전에 나와있는 내명부직제에 따르면 왕비이하 빈
(嬪: 정1품)부터 숙원(淑媛:종4품)까지 각 1인을 두고 있으므로 공빈이 살아있
을 당시 인빈은 존재할 수 없었다. 당시 인빈은 소용(昭容:정3품) 김씨로 불리고
있었다. 인빈은 공빈이 죽은 지 27년 뒤인 선조 37년에야 비로소 빈의 자리에 올
랐다. 인빈은 선조임금과의 사이에 4명의 아들과 5명의 딸을 두었는데 인빈의
셋째 아들인 정원군(定遠君, 뒤에 원종으로 추증)의 아들 즉 인빈의 손자가 바
로 광해군의 뒤를 이어 임금이 되는 인조이며 인조는 효종대왕의 아버지인 것이
다.

효종대왕의 어릴적 이야기는 그의 행장(行狀)에 소상히 기록되어있다. 행장이란
사람이 죽은 뒤 평생에 지낸 일을 적은 글을 말한다.

「향교동(鄉校洞) 잠저(潛邸)에서 기미년 5월 22일 해시(亥時)에 왕이 태어났
다. 이날 저녁 흰 운기(雲氣) 세가닥이 침실로 날아들어와 서쪽 편 창사이에 엉
겨 있었는데 연기같으면서도 연기가 아니었다. 한참 있다가 흩어졌는데 이를 본
사람들은 이상하게 여겼다. 왕은 태어난 지 4, 5세에 성품과 도량이 활달하여 우
뚝하게 거인(巨人)의 뜻을 지녔다. 놀이를 할 때에도 범상하지 않은 일이 많았
고 걸음걸이도 반드시 법도가 있었다. 철따라 나는 과일을 보면 반드시 먼저 양
전(兩殿)께 바친 뒤에야 맛보았으므로 양전이 항상 “우리 집의 효자이다.”하였
다. 매일 새벽이면 먼저 일어나 양전에 문안하고 이어 좌우에서 모셨다. 양전이
복용하는 모든 물품을 시어(侍御)하는 사람이 정리함에 있어 정제(整齊)되지 않
은 경우가 있으면 왕이 반드시 직접 정제하였다. 아무리 미세한 일일지라도 바
르지 않은것을 싫어함이 이와 같았기 때문에 양전과 인헌왕후(仁獻王后, 인조의
어머니)가 함께 기특하게 여기고 사랑하여 중하게 여기는 것이 특별히 융숭하였
다. 5세가 되자 글을 배웠는데 권면하지 않아도 부지런히 하였으며 다른 아이들
이 글 읽기를 싫어하는 것을 보면 반드시 권면하여 부지런히 배우게 하였다. 항
상 전사(前史)를 읽다가 인륜상 잔인한 부분에 이르면 책을 덮고 깊이 탄식하지
않은 적이 없었다. 이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천성이 그러했기 때문이다. 8세 되던
병인년에 봉림대군(鳳林大君)에 봉해졌고 신미년에 가례(家禮)를 행하였는데 왕
비(王妃)는 고 우의정 신평부원군(新豐府院君) 장유(張維)의 딸이었다.」

이런 그였기에 죽은 형 소현세자(昭顯世子)를 대신해서 왕세자에 봉해지자 다음과 같은 상소문을 올리고는 몸들 바를 물라했다.

「엎드려 아뢰옵건데 신이 어리석고 노둔하며 불초한 것이 헤아려 비할 바가 없사온지라 집에 거처하여 녹봉을 먹으면서도 항상 흠과 누가 위로 성명(聖明)께 근심을 끼치게 될까 두려워하던 터에 저사(儲嗣: 세자)의 자리에 오르라는 말씀이 갑자기 계실 것은 천만 몽매간의 일로서도 헤아린 바 없습니다. 신이 가슴에 손을 얹고 망극하여 몸을 어디에 둘 곳이 없어하며 놀라 부르짖고 흐느껴 울기를 밤에서 낮이 될 때까지 하다가 정세가 심히 궁박하여 호소를 올릴 길이 없는지라 부득이 한번 죽을 것을 무릅쓰고 위를 어지럽히옵니다.

(중략)

엎드려 바라옵건데 하늘을 덮은 성인의 자비로우심으로 불쌍히 여기심을 간곡히 가하사 명으로 내리신 바를 속히 거두시어 불초한 몸으로 하여금 크게 어그러지는 함정에 빠짐으로써 귀신과 사람의 여망을 실추시키지 않게 하옵소서. 지극한 소원을 이기지 못하여 말씀이 간과 횡격에서 나오는 것은 스스로 그만두지 못하오니 제왕의 위엄을 간범(干犯)한 것이 더욱 두려워 떨리고 두근거리는 것을 어찌할 바 모르겠습니다.」



▲녕릉 : 효종대왕릉 전경

효종대왕(孝宗大王) 4

세종대왕이 너무 크신 분이어서 상대적으로 효종대왕에 대한 관심도는 낮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효종임금이 이제까지 그래왔듯이 허술히 취급해도 좋을 그런 평범한 임금이 아니었다는 사실을 어렵지 않게 발견할 수 있다. ‘아는 만큼 보인다.’ 고들 한다. 몇 안되는 이야기들이지만 이를 통해 효종대왕에 대한 인식의 지형이 넓어지기를 희망한다.

정재륜(鄭載崙, 1648~1723) 효종의 다섯째 부마(駙馬), 자는 수원(秀遠), 호는 죽헌(竹軒), 본관은 동래(東萊)이다. 영의정 태화(太和)의 5남으로 좌의정 치화(致和)에게 입양했다. 어머니는 의령 남씨로 첨지(僉知) 정(滸)의 딸이며 재륜은 우의정 재송(載嵩)의 동생이다. 효종 7년(1656)에 효종의 다섯째 딸 숙정공주(淑靜公主)와 결혼해 동평위가 되었다. 공주가 23세로 일찍 죽고 외아들 효선(孝先)도 숙종 6년(1680) 18세로 요절하자 하성위(河城尉) 정현조(鄭顯祖), 반성위(班城尉) 강자순(姜子順)의 예를 들어 다시 장가갈 수 있도록 상소하여 당시 임금인 숙종의 허락을 받았으나 대간들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했다.(숙종 7년 7월 26일). 이후부터 부마들은 재취를 할 수 없다는 법규가 정해졌다.

「정재륜은 부마였지만 평범한 선비같이 허름한 옷을 입고 담백한 음식을 먹으며 좁은 집에서 검소하게 살아 일반 선비들의 모범이 되었다. 하지만 궁궐에서 곱게만 자란 공주는 일반 사가(私家)인 정씨 집안의 시집살이가 너무 고되고 힘들었다. 하루는 정재륜이 밖에 나갔다 돌아오니 노모는 텃밭에서 김을 매는데 머느리인 공주는 여종을 시켜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이에 화가난 정재륜은 다짜고짜로 공주의 뺨을 때리고 말았다. 세상에 태어나서 처음으로 뺨을 얻어맞은 공주는 너무도 원통하고 분해서 단숨에 대궐로 달려가 왕에게 일러바쳤다. 공주의 말을 듣고 난 효종은 불같이 화를 내면서 즉시 정재륜을 붙잡아 들여서는 이렇게 말했다. “네놈이 공주를 그렇게 학대하니 귀양을 가야겠다. “ 이에 정재륜은 배웃으로 갈아입고 췌신을 신은 채 장인에게 인사를 하려고 다시 대궐로 들어갔다. 그런데 효종이 자세히 보니 췌신이 두 췌례여서 사위에게 물었다. “웬 췌신이 두 췌례나 되느냐? 한 췌례면 족하지 않느냐?” 그러자 정재륜이 머리를 조아리며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닌가. “ 예, 옛 말씀에 여필종부(女必從夫)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아내는 반드시 남편을 따라야 하므로 이번 귀양길에 공주를 데려가려고 두 췌례를 준비했습니다.” 라고 말했다. 그후 효종은 정재륜을 더욱 사랑하였다 한다.」 <한국의 묘지기행, 고제희 지음>

정재륜은 76세의 나이로 죽었는데 경종임금이 그의 죽음을 가없이 여기는 교지를 내리고 관판(棺板)을 하사하였다. 사람됨이 준걸스럽고 계려(計慮)가 있어 몸가짐을 검약하게 하였으며 일이 있어 출타할 적에는 반드시 추종(追從)을 간략하게 하고 벽제(僻除)를 금지하였으니, 사람들이 그가 부마인줄을 알지 못했다. 분수 밖의 분화(紛華)한 풍습을 피하고 초옥(草屋)에 거처하면서 의복이 한결같이 검소하여 모든 부마에게 존경받고 본받는 바 되었다.

1658년(효종9), 효종대왕은 북벌계획이 뜻대로 진척을 보이지 않아 심사가 괴로울 때 어린사위 정재륜에게 한편의 시를 내려 스스로를 위로하고 있다.

무술년 미령할 때에 동평위 정재륜에게 써서 내림

무술년미령시서사동평위정재륜 (戊戌年未寧時書賜東平尉鄭載崙)

심사미성사불휴 (心事未成死不休) 마음먹었던 일 이루지 못하면 죽어도 쉴 수가 없는데

거연첨득일신우 (居然添得一身憂)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더해 진 것은 일신의 우환이로다.

벽천무제운요요 (碧天無際雲擾擾) 푸른 하늘은 끝이 없고 구름은 어지러이 오락가락하는데

독의위난만목수 (獨倚危欄滿目愁) 홀로 높은 난간에 의지하니 시름만 가득하구나

효종대왕(孝宗大王) 5

효종대왕이 봉림대군 시절 심양에 볼모로 있을 때 시중을 들던 논학(論鶴)이라는 종이 있었다. 심양에서 아들을 낳은 봉림대군은 논학을 시켜 점쟁이에게 아기의 사주를 보게했다. 그런데 어찌 된 일인지 점을 보고 돌아온 논학이 평소와 달리 아무런 말을 하지 않았다. 궁금해진 봉림대군이 점의 내용을 다 그쳐 묻자 논학은 봉림의 귀를 빌려 귓속말로 보고하였다. “아기가 앞으로 임금이 된답니다.” 이 말에 깜짝 놀란 대군이 점이야기를 아무에게도 발설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했음은 물론이다. 명나라를 완벽하게 제압한 청나라는 자신감에 차서 소현세자와 봉림대군등 조선의 인질들을 돌려보내게 되었다. 귀국 직후 소현세자가 죽자 봉림대군이 세자가 되었고 왕위를 이었다. 결국 점괘대로 그때의 아기는 효종의 뒤를 이어 현종이 된다. 임금이 된 효종대왕은 지난 날의 정을 잊지 않고 논학을 불러 무슨 벼슬을 하고 싶으냐고 물었다. 그러나 논학은 아무 벼슬도 원치 않는다고 대답했다. 그러자 효종대왕은 그에게 담비가죽을 하사하였다. 논학은 술먹는 일로 낙을 삼았는데 돈이 떨어지면 하사받은 담비가죽을 잡히고 술을 마셨다. 그리고 술마신 후엔 그것이 왕의 하사품임을 밝혀서 도로 찾곤 하였다한다.

논학은 원래 세자빈객(世子賓客)으로 심양에 온 박노(朴魯, 1584~1463)의 종이었다. 아주 영리하고 꾀가 많았던 논학이 민족반역자 정명수(鄭命壽)를 때려 통쾌함을 선사한 일이 있었다. 정명수는 평안도 은산의 천민으로 광해군때 강홍립을 따라 출정하였다가 청나라에 포로가 된 후 석방될 때 귀국하지 아니하고 청나라에서 역관이 된 자이다. 병자호란 때 청나라 장수 용골대와 마부대를 따라 통역으로 입국한 그는 조선의 사정을 자세히 밀고한 앞잡이 노릇을 하였다. 병자호란 이후로 청나라의 세력을 믿고 조정에 압력을 가하여 영종추부사라는 막중한 자리에 올라 마구 권력을 휘둘렀으나 감히 맞서는 이가 없었다. 효종 2년(1651)에 청나라의 강요에 못이긴 조선은 금안군(錦安君)의 딸을 공주로 속여 청나라 왕실로 시집을 보내게 되었다. 이때 논학이 배행(陪行)하게 되었는데 도중에 통역 정명수의 횡포가 무척 심하였다. 이를 참지 못한 논학은 공주의 가마 앞에서 공주의 명을 받아 정명수를 치니 정명수는 꼼짝 못하고 고개를 떨군 채 매를 맞을 수 밖에 없었다고 한다.

6월 23일, 영릉(寧陵)에선 효종대왕의 341주기 기신제가 있었다. 세월은 유수와 같은 지라 대왕이 북벌의 꿈을 접은 지도 벌써 3백년이 훌쩍 넘어버린 것이다.

청나라에 대한 복수의 일념을 불태우던 대왕이 전국에서 기인과 인재를 구하고 있을 때의 이야기다.

경기도 광주땅에 송(宋)장군이라는 사람이 살고 있었다. 기골이 장대하고 힘이 장사여서 광주유수의 추천으로 임금을 뵈게 되었다. 큰 바위를 공기돌 굴리듯 하는 장사였기에 단번에 임금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임금은 그에게 의관을 내려주고 금화문 밖에 거처를 마련해 주었다. 또 특별배려로 궁녀와 결혼도 시켰다. 그러나 북벌의 그 날에 쓰기위해 송장군을 변방의 진장(鎭將)에 임명하고 이따금씩 잊지않고 물품을 하사하던 임금이 1659년 5월에 들연 승하하게 된다. 임금의 부음을 전해들은 송장군은 정신없이 서울로 달려와서 대궐 문 밖에 엎드려 피눈물이 나오도록 울고 또 울었다. 대왕의 특별한 은혜를 입어 혼인한 것을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며 살아온 송장군의 아내도 국상이 끝나자 그만 스스로 목숨을 끊고 말았다. 한편 송장군의 상관인 북병사(北兵使)는 임지를 마음대로 이탈한 죄를 물어 송장군을 군법으로 다스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부왕 효종대왕께 대한 충심을 참작한 현종의 특별배려로 석방되었다. 겨우 죽음을 면한 송장군은 다시는 의지할 곳을 찾지않고 이곳 저곳을 떠돌아 다녔는데 해마다 효종대왕의 제삿날이 되면 산중으로 들어가 온종일 목이 쉬도록 통곡한 후에 돌아오곤 했다고 한다. 지난 기일에도 구천의 송장군은 잊지않고 효종대왕을 위해 통곡했음직 하다.

이완(李浣) 1

선조 40년 이수일(李守一)이 수원부사로 있을 때 어느 왕자가 관아의 곡식 100포를 꾸어달라고 하자 이수일이 '지방을 맡아 다스리는 신하가 어떻게 왕자와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겠으며 또 국고의 곡식을 어떻게 마음대로 내줄 수 있겠습니까?' 하니 그 왕자가 감히 꾸짖지 못하였다.

이수일의 아들 이완(李浣)이 어느날 '무관 아무개가 창녀를 위하여 일을 거들어 주면서 직접 올라리까지 박아서 세워 주었습니다. 저는 그 사람과 같은 대오에서 복무하고 싶지 않습니다.' 하자 이수일이 '자신이 그런 행동을 하지 않은 뒤라야 남을 나무랄 수 있다. 네 아버도 젊었을 때 그런 일이 있었다.' 하니 다시는 그런 말을 못하였다.

이런 아버지 밑에서 자란 이완이었기에 여주가 자랑하는 조선의 대표적인 명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수 있었다. 사실 이완대장처럼 우리에게 친숙한 장군도 드물다. 할머니들의 옛이야기 속에서도 이완대장은 자주 등장하는데 '이완대장은 머리에 뿔이 있었다.'거나 '날 때부터 송곳니가 있어서 사람들이 기이하게 여겼다.'라든가 '아기가 울면 이완대장 온다고 하여 울음을 그치게 했다.'는 이야기들이 그것이다. 그러나 뭐니뭐니 해도 안성택과 만나는 이야기야말로 단연 압권이다.

〈이완이 무과에 급제하기 전인 어느 춘삼월이었다. 사슴을 사냥하러 깊은 산중에 들어갔다가 계집종에게 고삐를 잡힌채 나귀를 타고가는 여인을 만났다. 선녀를 방불케하는 미인이어서 녀를 빼앗기고 만 이완이 얼결에 붙여본 수작이 다 음과 같은 시 한수였다.

혼수홍장거(魂隨紅裝去) 혼은 붉은 옷 입은 그대를 따라가고
신독의산립(身獨倚山立) 빈 몸만 산에 서 있도다

그러자 다소곳이 고개를 숙이며 가던 여인이 다음과 같은 답시를 읊조리는데 아닌가?

여파의아중(驢跛疑我重) 나귀가 절뚝이는 것이 내가 무거워선 줄 알았더니
침기일인혼(添騎一人魂) 사람의 혼 하나가 더 타서 그랬구려

이에 이완은 또 한번 아연실색을 하였다. 그 여인은 원래 경기도 안성의 양가 집 규수였으나 산적 두목에게 붙잡혀 지내는 처지였는데 이완이 산적 두목을 굴복시키고 여인을 구해냈다고 한다.

이야기는 계속된다. 그로부터 20여년의 세월이 흐른 뒤 어영대장이 된 이완은 산적 두목에게서 구출해낸 여인 ‘안성댁’과 함께 한양에서 살고 있었다. 한 밤중에 청지기가 달려와서 입궐하라는 어명이 당도했음을 알렸다. 황급히 궁궐에 들어서니 사방에서 화살이 빗발치듯 날아왔으나 관복속에 미리 갑옷을 입었기에 화살이 몸에 맞아도 그냥 떨어지기만 하였다. 북벌에 골몰하고 있던 효종임금이 신하들의 정신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한밤중에 문무백관을 비상소집한 뒤 화살촉이 박히지 않은 화살을 쏘았던 까닭이다. 이완의 준비성에 감탄한 임금이 그날 밤부터 이완을 편전으로 불러들여 북벌의 밀의를 나누었다고 한다. 이날 급박한 임금의 부름에 ‘대감, 야반에 어명이 내리었으니 심상치 않소이다. 무관이시니 언제나 군복을 입으시오.’하고 갑옷을 준비해 주던 사람이 바로 ‘안성댁’이었다.)

여주읍 상거리에 있는 이완대장의 신도비에 ‘...여러 의붓누이와 누이동생들이 가난하여 그들을 위로하고 그 친구들에게도 은혜와 의리를 더하며 아들과 조카들에게도 널리 은혜를 베풀었으나 감히 공사에 관여하지 못하게 하였다. 사랑하는 소실도 사랑채에는 나오지 못하게 하였다.’는 기록이 보인다.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는 소실을 ‘안성댁’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 같다.

이완대장은 평생 칼날같이 강직하고 유비무환의 태도를 견지한 인물로 잘 알려져 있다. 그가 수어사로 있을 때 휘하의 문관이 죄를 지어 죽게 된 일이 있었다. 그 문관의 누이가 왕비를 모시는 궁녀였던 터라 인선황후가 목숨만은 살려주라고 부탁하였으나 거절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이완대장의 집이 낙산말에 인평대군(효종대왕의 동생)의 집과 인접해 있었는데 훈련대장으로 임명받자 바로 집을 옮겨버렸다. 왜냐하면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왕족의 이웃에 산다는 것은 법도가 아니라는 그의 강직한 성품때문이었다. 그가 어영대장으로 천거되자 병영에서는 거부반응이 물끓듯 일어났다. 당시 어영청은 군기가 문란할대로 문란해 이완대장의 강직함을 두려워 한 부패 군관들이 반대한 탓이었다. 오죽했으면 어영은 영도 아니다 하여 ‘어영비영(御營非營)’이라는 말이 유행했으며 오늘날까지 ‘어영부영’ 한다는 말로 남아 있겠는가. 이완대장이 어영청을 맡은 이후 어영청이 강군으로 변했음은 불문가지이다.

이완(李浣, 1602~1674)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징지(澄之) 호는 매죽헌(梅竹軒). 인조때 공신인 계림부원군으로 수일(守一)의 아들이다.

이완(李浣) 2

이완 장군은 백성들에게 꽤나 알려진 인물이었던 것 같다. 정사와 야사는 물론 이려니와 문학작품속에서도 이완 장군이 심심치 않게 등장한다. 연암 박지원이 쓴 열하일기 중에서 옥감야화(玉匣夜話)에 수록되어있는 한문단편소설 〈허생전〉을 잠시 들여다 보자.

허생은 남산아래 목적골의 다 쓰러져가는 오막살이에서 살고 있었다. 마누라 성화에 못이겨 7년 공부하던 책장을 덮고 장안 갑부 변부자에게 만냥을 빌어 매점매석으로 백만금을 벌었다는 이야기는 이미 세상이 다 아는 상식이다. 허생전 말미에 보면 허생과 이완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요약하면 이렇다.

「북벌을 위해 전국의 숨은 인재를 구하던 이완이 변부자의 소개로 허생을 만났다. 이때 허생이 북벌에 관한 3가지 정책을 제시하는데 이것이 이른바 시사삼난(時事三難)이라 하는 것이다. 첫째는 와룡선생(臥龍先生, 제갈공명) 같은 사람을 천거할 터이니 왕이 삼고초려를 할 것, 둘째는 청나라에 쫓겨 우리나라에 들어와 사는 명나라 유민들에게 종실의 딸을 시집보내고 훈척, 권귀의 집을 빼앗아 나누어 줄 것, 셋째는 우리나라 자제들의 머리를 깎게하고 되놈의 옷을 입혀서 선비는 청나라의 빈공과에 응시케하고 서민은 강남에 가서 장사케하며 그 나라의 실정을 정탐케하고 그 땅의 호걸들과 결탁한다면 한번 천하를 뒤집고 국치를 씻을 수 있을 것이라는 제안이었다. 이완이 궁리 끝에 난색을 표명하자 허생은 이완을 준엄히 꾸짖은 뒤 사라졌다.」는 내용이다.

허생전은 허구를 바탕으로 한 소설이므로 작가의 실학사상이 이완이라는 인물을 통해 표출되었다고 이해하면 그만이다. 그러나 북벌에 관한 일은 우리에게 예사로울 수가 없다. 지난 22일 경기도 광주에서 남한산성 복원에 관한 학술세미나가 있었다. 자그만치 53억원의 도비를 투입하여 남한산성 및 행궁을 복원하고 주변을 정리하겠다는 계획도 발표되었다. 하지만 남한산성이 갖고있는 정신사의 복원에 대해서는 별 말이 없었다. 남한산성이 어떤 곳인가. 그곳은 우리 민족 최대의 치욕의 장소다. 임금이 항복의 머리를 조아리고 세자와 왕자들이 볼모로 끌려가고...

어디 그 뿐인가. 50만에 가까운 죄없는 백성들이 붙들려 갔다가 갇은 수모 끝에 돌아와서는 '환향녀(還鄕女)→화양년'이라 냉대받고 사랑하는 가족들로부터 또다시 버림받아야 했던 비극의 진원지 아니던가. 그런 까닭에 굴욕의 역사복원은 물론 그를 극복하기 위한 북벌의 의지가 함께 복원되어야 함에도 그날은 아

무 말이 없었기에 안타까운 심정으로 뒤늦게나마 사족을 달아보는 것이다.

1999년, 이제 한 세기를 마감하고 새로운 천년을 눈 앞에 두고 있다. 여주문화의 새로운 시대를 위하여 더 많은 관심을 부탁드립니다. 독자 여러분 가정에 건강과 행운을 기원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 이원대장 신도비

이완(李浣) 3

지 난해 12월 말일경 이완대장묘 앞에 세워져있던 장명등(長明燈)과 동자석(童子石) 2기가 도난 당했다. 도로확장공사가 벌어지는 혼란을 틈탄 전문 도굴범들의 소행인 듯 싶다.

장명등이란 묘 정면에 불을 밝힐 수 있게 만들어 세운 석등을 말한다. 이 장명등은 분묘뿐만 아니라 사찰이나 관가등의 공공건축물의 마당에도 세웠었다. 장명등은 대개 받침대와 등을 넣을 수있도록 사면에 구멍을 낸 몸체, 삿갓형태의 지붕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번에 없어진 장명등도 이와 유사한 형태였다. 분묘 앞에 장명등을 세우기 시작한 시기는 확실치 않다. 다만 1품재상(一品宰相)에 한하여 세울 수 있도록 한정된 것으로 미루어 묘제가 확립된 시기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짐작된다. 장명등의 기능은 본래 묘역이나 건물의 외부공간을 밝히는 데 있으나 분묘의 장명등은 피장자의 신분을 나타내는 척도가 되기도 하며 그의 공덕을 길이 그리고 밝게 드러내기 위한 상징이기도 했다. 특히 장명등은 나라에서 예장(禮葬)을 내려야만 세울 수 있는 것이어서 사대부가에서는 가장 큰 명예로 여겨왔다. 예장이란 임금의 명의로 장사에 부조가 나오는 것을 말한다. 어쨌거나 여주인들에게 유별나게 친숙했던 이완 장군 묘역의 장명등 도난은 안타깝기 그지 없는 일이다.

역사는 이완대장을 칼날같이 강직하고 유비무환의 태도를 견지한 조선후기의 대표적 명장으로 기록하고 있다.

그가 수어사(守禦使)로 있을 때 휘하의 문관이 죄를 지어 죽게된 일이 있었는데 인선왕후를 통해 구명을 사청했으나 거절했다는 일화는 유명하다.

그의 집이 낙산말에 인평대군의 집과 이웃해 있었는데 훈련대장으로 임명받자 바로 집을 옮겨 버렸다. 왜냐하면 높은 관직에 있으면서 왕족의 이웃에 산다는 것은 법도가 아니라는 그의 강직한 성품때문이었다.

그가 훈련대장으로 천거되자 병영에서는 거부반응이 물끓듯 일어났다. 이는 그동안 군기가 문란할대로 문란해져있어 그의 강직함을 두려워 한 부패 군관들이 작당하여 이완 장군 축출공작을 벌여서였다.

그는 부하들이 자신에게 품의 할 일이 있거나 놀러오는 일이 있더라도 혼자서 오지 못하도록하는 것을 철칙으로 삼았다. 당시 풍토가 남을 헐뜯는 일로 얽혀있었기 때문에 사전에 이를 차단하기 위함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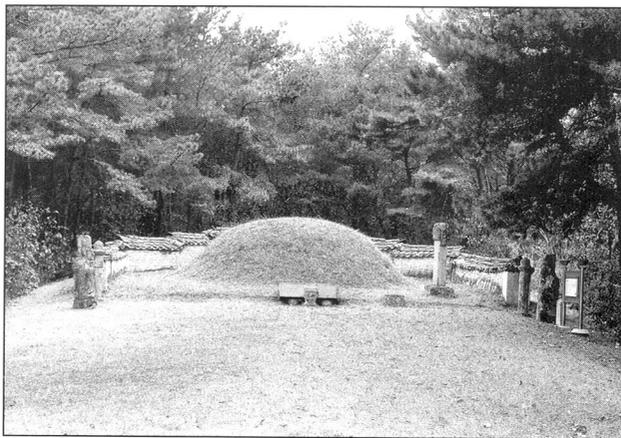
그가 죽자 그를 흠모하던 부하들이 햇불을 잡고 장례에 따라갔는데 수십리를

끊이지 않았고 심복인 유병연, 이시형과 같은 이는 모두 심상(心喪) 3년을 하였다 한다.

이런 장군의 묘 앞에 있던 장명등이었기에 더구나 그 분의 높은 덕을 제대로 기리지 못하고 살던 우리들이기에 도난의 소식을 접하고는 그저 송구스러워 할 따름이다.



▲ 이완묘 : 예전



▲ 이완묘 : 현재

유형원 (柳馨遠)

지금 백성을 구하기 위하여 가장 시급히 개혁해야 할 문제는 첫째 일족의 부역을 이웃집에 물리는 것이요, 둘째 임금과 관청에 바치는 진상이 번거롭고 무거운 폐단이며, 셋째 공물과 방납의 폐단이며, 넷째 부역이 균등하지 못한 폐단이고, 다섯째 아전과 서리들의 가렴주구하는 폐단이다 ... 지금의 백성의 기력은 거의 죽어가고 있어 숨만 겨우 유지할 뿐이니 만약 남쪽과 북쪽의 변방에서 변란이 일어나면 질풍에 낙엽처럼 쓰러질 것이니 생각이 이에 미침에 통곡하지 않을 수 없다. - 반계수록에서

실학의 비조(鼻祖)로서 고통받는 백성들을 근본적으로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을 찾기위해 고민하다가 결국 백성들의 삶속으로 뛰어든 지행합일(知行合一)의 지성인이 있었다. 그가 유형원이다.

유형원(柳馨遠, 1622~1673) 본관은 문화(文化). 자는 덕부(德夫), 아명은 덕창(德彰). 호는 반계(磻溪) 또는 둔옹(遁翁). 세종때 우의정을 지낸 유관(柳寬)의 9세손으로 아버지는 예문관검열 유흠(柳欽)이고 어머니는 의정부참찬 이지완(李志完)의 딸이다. 유형원의 아버지는 유몽인(柳夢寅)의 옥에 연루되어 유형원이 2살나던 해에 28세라는 젊은 나이로 옥사했다. 유형원은 키가 6척이나 되었고 기골이 장대하였다. 얼굴은 희고 눈에는 광채가 났으며 수염은 길어서 손아래까지 닿았고 태어날 때 등에 북두칠성 모양의 점이 박혀있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진다. 유형원은 문학, 병법, 천문, 지리, 음양, 점술, 음악, 의학, 산학, 한어 등 다방면에 걸쳐 두루 통달한 인물이었다. 이런 그의 성장배경에는 5살때부터 글을 가르친 외삼촌 이원진(李元鎭)과 고모부 김세렴(金世濂)이 있었다. 이원진은 성호(星湖) 이익(李瀾)의 당숙으로 하멜표류사건 당시 제주목사로 있었던 사람이고 김세렴은 함경도와 평안도 감사를 역임하고 대사헌을 지낸 당대의 이름높은 선비였다. 유형원이 15세 되던 1636년(인조14) 병자호란이 일어났다. 가족들과 함께 원주로 피난갔다가 지평을 거쳐 여주 백양동(현재의 능서면 백석리와 내양리 부근)에 정착하니 이때가 22세 때다. 유형원은 이후 10년간 여주에서 살게되는데 23세에 할머니 상을 당하고 25세에 고모부 김세렴, 27세에 어머니 여주 이씨, 30세에 할아버지 상을 당하였다. 탈상하면서 2차례에 걸쳐 성균관시험에 응시하였으나 낙방하였다. 어전시험에서 써낸 답안지가 격식에 어긋났다는 것이 낙방이유였다. 실력에 비해 시험문이 없었던 그가 뒤에 할아버지의 유언으로 인해 진사시험에 응시하여 8등으로 합격하지만 벼슬길에서 뜻이 멀어진지 오래였다. 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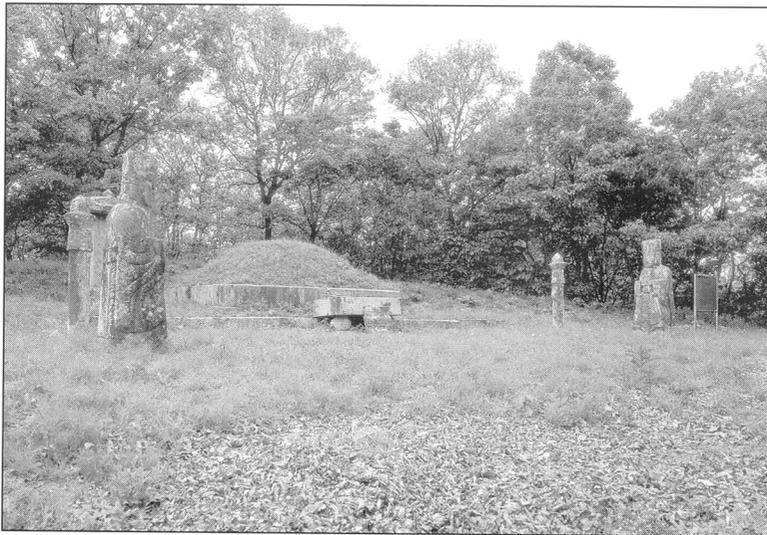
주의 아름다운 풍광에 동화되어 순수해진 심성 위에 참된 지식을 쌓아 인격의 수양이 고매한 경지에 이르는 그였기 때문이다.

유형원은 임진왜란과 병자호란이 발생한 상황과 그 이후 국민생활이 도탄에 빠진 원인을 경국대전체제에서 찾았다. 그는 양반중심의 경국대전체제를 벗어나 양반만이 아닌 모든 신분의 사람이 타고난 재능을 충분히 발휘하여 자기의 몫을 차지할 수 있는 사회를 건설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균전제로의 토지 개혁, 병농일치의 부병제 실시, 조세 및 녹봉제의 정비, 과거제 폐지와 공거제 실시, 신분제 및 직업세습제의 개혁, 학제와 관료제의 개선 등을 주장하였다. 이같은 유형원의 사상은 그가 여주에서 처음 쓰기 시작한 이래 18년의 각고 끝에 완성한 <반계수록 磻溪隧錄>에 실려져 이 땅에 실학의 시대를 여는 계기가 되었다. 왕조시대의 노비는 사람도 아니었다. 그런 노비에게 조차 의관을 갖추고 공손히 대하면서 노비도 자기와 꼭 같은 사람임을 알았던 유형원. 그가 350년 전에 여주에서 살았다.

민정중(閔鼎重)

인조(仁祖)의 묘호를 정할 때 부수찬 유계(兪槩)가 이미 인종(仁宗; 조선12대 임금)의 호칭이 있으므로 인(仁)자를 쓸 수 없다고 주장하다 효종의 노여움을 사서 함경도 온성(穩城)으로 유배를 갔다. 이듬해 귀양에서 풀려난 유계가 돌아오는 길에 한 젊은 선비를 만났다. 마침 같은 방향이었으므로 말동무를 하며 동행하게 되었는데 해질 무렵, 다리를 건너던 선비가 냇물에 빠지고 말았다. 부실했던 다리가 무너져 내린 탓이었다. 다행히도 크게 다치지 않은 선비는 젖은 옷을 말리고 갈테니 유계에게 먼저 주막에 가 있으라 했다. 한참을 기다려도 선비가 오지않자 걱정이 된 유계는 선비를 찾아나섰고 얼마 후 땀을 뻘뻘 흘리며 다리를 헐어내고 있는 선비를 발견했다. ‘아니, 여보게 선비! 자네 지금 여기서 무엇을 하는가?’ 하니, 젊은 선비는 “예, 다리를 부수고 있습니다. 저는 비록 다치지 않았지만 날이 어두워 뒤따라 오는 과객들이 이 다리로 인해 다칠 것이 분명하니 이것을 헐어버려야 마땅하지 않겠습니까?” 하였다. 이 사려깊은 젊은 선비가 민정중이다. 민정중(閔鼎重, 1628~1692)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대수(大受), 호는 노봉(老峯). 관찰사 광훈(光勳)의 아들이다. 1649년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여 성균관전직, 예조좌랑을 지냈다. 그가 부사과(副司果)로 있을 때 올린 상소문이 효종임금의 마음을 크게 감동시켰으니 내용을 요약하면 이렇다. ‘... 첫째:수령과 감사를 잘 뽑아 백성을 사랑하는 근본으로 삼으십시오. 둘째:인재를 잘 헤아려서 책임을 맡기십시오. 셋째:신하들을 자주 접견하여 아랫사람의 뜻을 소통시키십시오. 넷째:인륜을 밝히고 교화를 열어주십시오. 다섯째:명분을 엄하게 하여 예모를 높이십시오. 여섯째:기강을 일으켜 엄치를 권장하십시오. 일곱째:인정을 베풀어 억울함을 풀어주십시오. 여덟째:전례를 중시하십시오.’ 이에 임금이 답하기를 ‘그대의 소장을 보고 가상이 여겨 마지 않았다. 그대는 나이 어린 학사로서 사무를 통달하고 세태를 알고 있는 것이 어찌 이렇게도 해박한가. 사안에 따라 할 말을 다하고는 숨기는 것이 없으니 내 마음에 더욱 가상하게 여겨진다. 어찌 깊이 유념하지 않겠는가. 그대도 또한 나쁜 세속에 물들지 말고 이 충직한 기개를 잘 길러나가 원대한 성취를 기약하도록 하라.’ 하고는 특별히 호피(虎皮)를 하사하였다. 민정중은 1659년 현종이 즉위하자 병조참의, 동부승지, 대사성, 함경도관찰사, 대사헌, 이조·호조·공조판서, 한성부윤, 의정부참찬등을 지냈다. 1675년 숙종때에 다시 이조판서가 되었으나 남인의 배척으로 장흥(長興)으로 귀양갔다가 이듬해 풀려나와 우의정, 좌의정에 올랐다.

1689년 기사환국으로 다시 남인이 집권하게 되자 관직을 삭탈당하고 벽동(碧潼)에 유배되어 그곳에서 죽었다. 그의 졸기를 보면 “전 좌의정 민정중이 벽동의 적소(謫所)에서 졸하였는데 65세였다. 사람됨이 영특하고 강직하여 굴하지 않았으며 예법으로 자신을 신칙하였다. 일찍이 괴과(魁科)에 올랐고 극력 청의(淸議)를 붙들었으며 송시열(宋時烈), 송준길(宋浚吉)등 제현이 가장 중시하는 바가 되었다. 국자감의 장관이 되어 선비들을 조성해 내는데에 매우 공효가 있게 되므로 당시에 정엽(鄭曄) 이후의 제일인 사람이라고 했다. 다른 관직에 뽑혀서도 겸임하고 체직되지 않았으며 게을리하지 않고 교도하므로 선비들의 풍습이 크게 바뀌게 되었다. 뒤에 윤휴(尹鑄)와 허적(許積)이 나라의 일을 맡게되자 남쪽 변방으로 귀양갔었는데 비록 배척받는 가운데 있었지만 여망은 더욱 높아져 오늘날의 진요옹(陳了翁)이나 유원성(劉元城)같은 사람이라고 하게 되었다. ... 기사년의 변(變) 뒤에는 못 간신들이 기필코 죽이려고 하면서도 오히려 돌아보며 두렵게 여기는 바가 있어 실행하지 못했었다. 이때에 이르러 졸하였는데 뒤에 관작을 복구하고 시호를 문충(文忠)이라고 하였다.”고 되어있다. 묘는 여주읍 상거리에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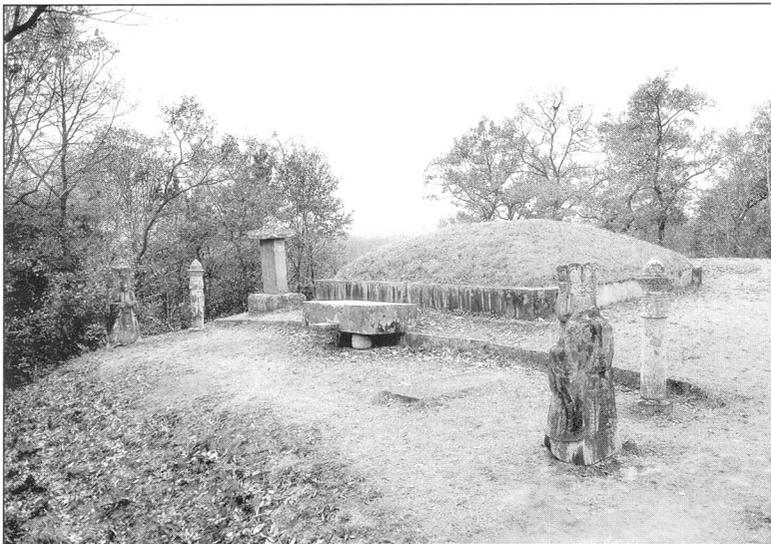


▲ 민정중묘

민유중(閔維重)

대 동기문(大東奇聞)에 나오는 옛이야기 한토막이다. [병자호란 때의 일이다. 전국은 아수라장이 되었고 집집마다 피난길을 떠나기에 정신이 없었다. 조정이 수도를 강화로 옮기려 하자 대부분의 백성들도 ‘강화는 천연의 요새라 믿을 만한 곳이니 피난을 강화로 가자’고 하였다. 그러나 아직 나이 어린 민유중은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임금님이 가시는 곳에는 으레 적군이 따르기 마련이라고 들었습니다. 강화로 가는 것은 반대입니다.” 결국 민유중의 가족은 영남으로 피난을 갔고 일가가 모두 안전할 수 있었다. 이때 민유중의 나이 겨우 일곱살이었다고 한다.] 민유중(閔維重, 1630~1687)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지숙(持叔). 호는 둔촌(屯村). 아버지는 강원도 관찰사 광훈(光勳)이고 어머니는 이조판서 이광정(李光庭)의 딸이다. 1649년 진사가 되고 1651년 증광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예문관검열, 병조좌랑, 사헌부 지평, 경성판관을 거쳐 전라도관찰사, 이조참의, 충청도관찰사를 지냈다. 이후 형조판서, 한성부판윤, 호조·공조·병조판서가 되었으며 1681년 3월 딸이 왕비에 책봉되자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에 봉해지고 이어 돈녕부영사(敦寧府領事)가 되었다. 이듬해에 금위영(禁衛營)의 창설을 주도하여 병권과 재정권을 모두 관장하였는데 외척이 벼슬을 하여 국가의 번란을 초래하였다는 교리 이징명(李徵明)의 상소가 있자 관직에서 물러나 두문불출하다 죽었다. 1657년 민유중이 사헌부 지평으로 있다가 함경도 경성판관으로 체직될 당시 사건 하나가 연루되어 있었다. 종친인 낭선군(朗善君) 이우(李侯)가 “동생 이간(李侃)이 저의 종을 빌려 임금의 거동에 참여하려 가던 중 이간의 말이 민유중의 말과 대궐 문밖에서 서로 싸우자 양쪽의 종들이 싸움을 벌이게 되었는데 이때 민유중의 종이 저희 형제의 이름을 들먹이며 방자하게 욕을 하였습니다.”라는 단자를 중부시(宗簿寺)에 올렸다. 이 사건은 민유중이 이우의 종을 잡아가두고 형신(刑訊) 끝에 죽게 한 일로 발전되었고 이것이 종실을 엽신여긴 패썹죄로 확대되어 장령 오두인(吳斗寅)은 북청판관으로, 민유중은 경성판관으로 쫓겨가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 사건의 실상은 이러했다. 1657년 2월 말경에 무뢰인들이 칼을 빼들고 서로 싸운다는 말을 듣고 오두인이 그들을 붙잡아 들었는데 이들은 낭선군의 하인으로 홍귀종(洪貴宗)과 강시망(姜時望)이었다. 원한을 품은 이들은 3월 4일 민유중의 종을 오두인의 종으로 착각하고 피를 토하도록 마구 때리며 사헌부 관리들을 욕했다. 당시 주변사람들의 증언을 들은 오두인과 민유중은 이들을 잡아다가 형신을 가하고 옥에 가두었는데 며칠 뒤 한

사람이 죽었던 것이다. 이일로 3정승까지 나섰으나 왕손(王孫)이 사노(私奴)에게 치욕을 당했다고 느끼고 있던 효종임금의 마음을 돌이킬 수는 없었다. 민유중은 억울하게 경성으로 쫓겨갔지만 백성들을 잘 다스렸기에 그가 떠나올 때 어린아이로부터 노인에게 이르기까지 모두 수레를 가로막고 눈물을 흘리며 이별을 슬퍼하였고 비석을 7개나 세워 그의 덕을 칭송하였다. 민유중은 셋째딸 인현왕후(仁顯王后)가 폐위되기 2년 전인 1687년 6월에 죽었다. [여양부원군 민유중이 졸했는데 나이가 58세였다. 민유중은 성격이 강직하며 방정하고 총명하여 통달했었는데 형 민정중(閔鼎重)과 함께 경술(經術)을 가지고 진출하여 사림들의 두터운 인망을 받았다. 조정에 벼슬을 함에 언론이 준엄하고 단정하여 업적이 융성하게 나타났고 집에 있을 때에는 행의(行誼)가 독실하여 예법으로 자신을 제어하였으니 임금이 왕비를 그의 가문에서 정하였음은 대개 그의 가법(家法)이 올바름을 살폈기 때문이다. 이때 민유중이 서전(西銓)의 장관으로 있으면서 위계가 보국(輔國)에 올랐으므로 아침저녁 사이에 대배(大拜)하게 되었었는데 국가의 제도에 얽매어 기밀한 요직을 모두 내놓고 마침내 등용하지 못하게 되므로 여론이 애석하게 여겼다. …] 시호는 문정(文貞). 묘는 여주읍 능현리에 있다.



▲ 민유중묘

김창집(金昌集)

여주는 서인(西人)에서 갈라져나온 노론(老論)의 고장이었다. 1694년 갑술환국(甲戌換局)을 통해 노론은 남인(南人)을 몰아내고 정권을 장악했다. 곧 남인의 지지를 받던 장희빈(張禧嬪)이 쫓겨나고 노론 가문의 인현왕후(仁顯王后)가 복위되었다. 이해 9월 영조가 태어났는데 뒷날 장희빈이 낳은 경종과 이복동생 연잉군(延祜君; 뒤에 영조)를 사이에 두고 같은 서인의 분파인 노론과 소론(少論)이 분쟁을 일으키게 된다. 병약한 경종이 34살이 되도록 자식을 두지 못하자 노론은 연잉군을 왕세제(王世弟)로 만든 다음 두달 뒤에 세제의 대리청정을 주청하였으나 우여곡절 끝에 무산되었다. 이를 틈타 소론의 반격이 시작되었고 마침내 노론의 핵심인 김창집, 이건명(李建命), 이이명(李爾命), 조태채(趙泰采) 등 이른바 노론 사대신(四大臣)이 유배, 처형되는 임인옥사(壬寅獄事)가 벌어졌던 것이다. 김창집(金昌集, 1648~1722)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여성(汝成), 호는 몽와(夢窩). 좌의정 상헌(尙憲)의 증손이며 영의정 수항(壽恒)의 아들이다. 1672년 진사시에 합격하였으나 1675년 아버지가 원주(原州)에 유배되자 이후 6년동안 과거에 응시하지 않았다. 1684년 공조좌랑으로 있으면서 정시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여 지평, 교리, 헌납등을 역임하였다. 1712년 사은사로 청나라에 다녀온 뒤 영의정이 되었다. 왕세제의 대리청정 문제로 소론의 김일경(金一鏡), 목호룡(睦虎龍) 등의 탄핵을 받아 거제도(巨濟島)에 위리안치되었다가 성주(星州)에서 사사되었다. 1722년 4월 김창집이 사약을 받던 날 마침 민진원(閔鎭遠)이 그곳에 귀양와 있다가 김창집을 영결하게 되었다. 이날 김창집은 “내 평생 사업이 오직 정책(定策; 동궁책봉을 정함)한 일인데 지하에 들어가 선왕을 뵈어도 부끄러움이 없을까? 동궁이 편안하다면 죽은 들 또 무엇이 한이리요.”하면서 죽음을 앞에 두고도 웃고 말하는 것이 평상시와 같았고 조금도 언짢은 기색이 없었다고 한다. 김창집이 죽기 전에 시 6수를 지었는데 다음이 그중 한수다.

등화청형문기경(燈火靑燐問幾更) 자연임명의난평(自然臨命意難平)
 인계악야하단(隣鷄喔喔夜何短) 성각명명천기명(城角鳴鳴天已明)
 길어사전나복희(吉語乍傳那復喜) 흉음계지불수경(凶音繼至不須驚)
 천대차거중군계(泉臺此去從群季) 전승인간독구생(全勝人間獨 生)
 등잔불 깜빡깜빡 몇 경이 지났느냐 명이 다하니 생각이 화평하기 어렵구나
 이웃집 닭 울어대니 밤은 어이 이리 짧은고 성의 나팔소리 울리니 날이 이미 밝았도다

좋은 소식 잠시 전하는 것 어찌 다시 기뻐하라 흉한 소식 잇따라 와도 놀랄 것이 없도다
이번에 저승으로 떠나 여러 아우 상중하니 이승에서 홀로 구차히 사는 것보다 낫도다

김창집의 사약을 가지고 온 의금부도사는 조문보(趙文普)로서 정암(靜庵) 조광조(趙光祖)의 후손이었다. 경종임금이 마음을 정하지 못하고 아침에는 사약을 거두라 했다가 저녁에는 다시 시행하라 했다. 명령이 도달하자 조문보가 빨리 마시라고 독촉하니 웃으며 또 시를 읊었다. 조광조가 능주(綾州)에 유배되어 사약을 받고 죽을 때 지은 절명시를 인용한 시였다.

애군여애부(愛君如愛父) 임금 사랑하기를 아버지처럼 사랑했으니
천일조단충(天日照丹忠) 하늘의 해가 이 중심을 알아주리
선현차구어(先賢此句語) 선현(조광조를 지칭)의 이섯구를
비절고금동(悲絶古今同) 더없이 슬프기가 예나 지금이나 같도다

민진원이 기억하는 김창집은 “키가 크고 빛나고 돋보이고 총명이 넘치며 평탄하고 깨끗하고 곧고 편안하고 검소하고 과감하고 민첩하고 표리가 명백한 군자”였다. 그는 사람을 고르는 안목이 있어 약관의 겸재(謙齋) 정선(鄭勣)을 도화서 화원으로 추천하여 이 땅에 진경산수 시대를 여는데 일조 하기도 했다. 1724년 영조 즉위 후 관작이 복구되었으며 시호는 충헌(忠獻)이다. 묘는 대신면 초현리에 있다.



▲ 김창집묘

민진장(閔鎭長)

옛부터 우리 조상들은 하늘의 도리요, 땅의 의리로서 사람이 마땅히 행해야 할 기본원리가 바로 효(孝)라 여기고 있었다. 그래서 자식된 사람들은 부모를 섬기는 일에 지극정성으로 임했다. 그 중에서도 효행이 뛰어난 이를 가려 조정에서는 정표(旌表)를 베풀어 주었는데 1706년 2월 27일 숙종임금이 여주군 점동면 부구리에 정문(旌門)을 세울 것을 명하니 민진장이 이 마을에 살았기 때문이다. 민진장(閔鎭長, 1649~1700)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치구(稚久), 좌의정 정중(鼎重)의 외아들로 송시열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1669년 진사가 되었고 곧 벼슬길에 나가 지방현령을 지내던 중 1686년 별시문과에 장원급제하였다. 할아버지 광훈(光勳)과 아버지에 이어 3대가 연이어 장원을 하였으므로 세상에서는 삼세문장(三世文壯)이라 일컬었다. 조선시대를 통틀어 두집안만이 삼세문장을 배출하였으니 대단한 영광이 아닐 수 없는 일이었다. 민진장은 예조참판, 도승지, 병조판서, 대사헌, 호조판서, 우참찬, 우의정등을 역임했다. 1696년 5월 왕세자(뒤에 경종)의 가례가 있었다. 임금이 말하기를 “전부터 가례때의 정사, 부사(민진장)는 참으로 이 직업에 맞으나 정사의 실차(남구만), 예차(신익상)는 독자(獨子)또는 막 아들을 잃은 대신으로 들였으니 이조(吏曹)의 당해 당상과 승지는 모두 파직하라.”하였다. 임금이 민진장을 흠족해 한 이유는 그가 아들을 다섯이나 두었기 때문이었다. 박양한(朴亮漢)이 지은 매옹한록(梅翁閑錄)에서는 민진장을 충효대절(忠孝大節)로 표현하고 있다. “우상까지 지낸 민진장은 노봉(老峯) 정중의 아들로 천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웠다. 그는 부친을 모시고 적소(謫所; 귀양살이 하는 곳)에 따라가 시중을 들고 음식을 봉양함에 정성을 다하지 않음이 없었다. 적소에서 부친의 상을 당하여 반장(返葬)할 때에 몸이 상할 정도로 슬피 우니 길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던 자들은 차탄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는 자가 없었다. 그래서 평안도 사람들은 지금까지도 그를 ‘민효자’라 칭한다. 그 어머니는 평생토록 병을 앓아 때로는 인사불성이 되기도 하였다. 그는 밤낮없이 어머니의 곁에서 머리를 빗겨드리고 음식을 떠넣어 드리는 일을 직접하였고 감히 조금도 게을리 하지 않았다. …그는 또한 병조판서와 호조판서로서 국가기무를 전담하고 밤낮으로 몸을 다해 국사에 이바지하다가 제대로 수(壽)를 누리지 못하고 끝내는 그 어머니의 슬하에서 작고하였다. 그러므로 그에게는 충효대절이 있었다고 할 만하다…” 민진장이 격무에 시달렸음을 증명하는 기록이 실록에 남아있

다. 1699년 10월 4일 숙종임금이 “신료들 가운데 오랫동안 극무(劇務)를 관장하던 사람은 정력이 쉽게 무너졌는데 호관 민진장이 병판으로 있을 적에 안색이 바뀐 것을 본 적이 있었으니 이 또한 노고에 몸을 상한 소치인 것이다.”라고 말한 것으로 미루어 이때 이미 민진장의 병이 깊었음을 알 수 있다. 1700년 3월 16일 민진장이 죽었다. “우의정 민진장이 즐하니 나이 52세였다. 민진장은 가정의 행실이 매우 지극하여 아버지를 섬김에 뜻을 잘 받들어 어짐이 없었고 그 어머니가 중병을 앓았는데 밤낮으로 간호하면서 수십년을 하루같이 하여 효성이 천성에서 타고나와 사람들이 모두 감탄하였다. 조정에서 벼슬을 할 적에는 일을 공평히 처리하고 법을 지켜서 한결같이 깨끗한 마음으로 임하고 오랜동안 군국의 중요한 임무를 통괄하여 마음과 힘을 다한 후에야 그만두었다. 사람을 도와 권장하는데는 다룰 것이 없었다. 한때 사람들이 모두 민정중의 착한 아들이라고 칭송하였고 정승에 임명되자 여론이 만족해 하며 앞으로 큰 일을 할 것이라고 기대하였는데 숙배(肅拜)도 하기전에 갑자기 죽으니 조야에서 매우 애석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다. 뒤에 문효(文孝)라는 시호가 내려졌다.” 묘는 점동면 부구리에 있다.



▲ 민진장묘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언니

어머니는 우리 모두에게 언제나 영원한 구원의 여인상으로 남아있다. 조선시대 선비들에 있어서도 어머니는 아버지 이상가는 거룩한 존재였다. 자애로운 마음씨와 훌륭한 행실로써 모범을 보여 자식들을 길러온 우리네 어머니들 모습은 그 아들의 가슴속에서 살아 행장(行狀)이나 묘지(墓誌)로 기록되어 전한다. 행장은 사람이 죽은 뒤에 평생에 지낸 온 일을 적은 글이고 묘지는 이를 들이나 도판에 새겨 무덤앞에 묻은 것을 이른다.

오늘은 도암(陶菴) 이재(李緯, 1680~1746)가 어머니 여흥 민씨를 그리며 쓴 묘지를 소개한다. 도암의 어머니 여흥 민씨(1656~1728)는 여양부원군 민유중의 딸이며 인현왕후의 언니가 된다. 15살에 진사 만창(晩昌)에게 시집을 갔다. 덕이 있고 용모도 아름다워 시댁에서는 경사가 났다고 칭찬이 대단했었다. 1680년에 도암을 낳고 1684년에 남편이 죽었다. 시어머니를 모실 때에는 병이 크고 작고 간에 반드시 몸소 정성을 다하되 간절하고 지극하게 하였다. 시어머니가 돌아가신 뒤에 계(繼)시어머니를 모실 때에는 어미를 잃은 그분의 손녀 2명을 집안에서 길렀는데 어른이 될 때까지도 그 손녀들이 자기 어머니가 없는 것을 모를 지경이었다 한다.

도암은 어머니를 이렇게 회상하고 있다. “어머님은 제사를 받들면서 제찬을 정성들여 차리셨고 제기 그릇을 더욱 깨끗하게 하고자 끊임없이 애쓰셨으며 제사를 지내는 중이나 지내고 난 뒤에도 제대로 다하지 못했나 마음 아파 하셨다. 아침마다 닭이 울면 일어나셔서 세수하고 머리 빗고 일을 처리하셨는데 일마다 바르게 처리하셨고 안팎의 비복들도 각자가 자기의 일을 맡아서 하였다. 혹시 잘못하는 경우라도 은혜로운 뜻으로 대하였고 배고프고 추운 때에는 먹게 하되 한 차례도 밥을 먹다 일어나게 불러대지를 앓으셨다. 그들이 더러 병이 났다고 핑계대면 ‘사람에게 강요하기 어려운 것은 질병이니 내가 차라리 속임을 당해야지.’ 라고 하셨다.”

또 도암은 “집안에 사용할 재력이 부족하여 늘 근심이었으나 평생토록 남에게서 일전(一錢)의 이자돈을 취한 적이 없으셨으며 동생이 왕후로 있을 때에도 털끝하나라도 요구한 적이 없으셨다. 중년에 풍병을 앓으시게 되자 왕후께서 궁중의 여의(女醫)를 보내어 진찰케하시고 중풍약인 방풍통성산(防風通聖散) 몇십첩을 보내주시면서 “우리 언니 마음에 행여 불안한 마음이 없으실는지?” 오히려 걱정하셨으며 늘 “우리 언니는 높은 선비님이다.”라고 하셨다.”고 기록하고 있

다.

1719년(숙종45)에 도암이 가선대부(嘉善大夫)에 승진되자 도암의 아버지에게 이조참판이 증직되고 어머니에게는 정부인(貞夫人)의 위계가 수여되었다. 정숙하고 어질었으며 자애로웠던 정부인 민씨는 벼슬에서 물러난 아들과 대거리(大居里 - 지금의 여주읍 상거리 부근)에서 살다가 1728년 (영조 4) 9월 19일에 죽었다. 묘소는 용인군 한천(寒泉)에 있다.

민진후(閔鎭厚)

민진후(閔鎭厚, 1659~1720) 본관은 여흥이고 자는 정순(靜純) 호는 지재(趾齋)다. 아버지는 여양부원군(驪陽府院君) 유중(維重)이며 어머니는 좌참찬 송준길(宋浚吉)의 딸이다. 숙종의 비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오빠이며 고종의 비 명성황후(明成皇后)의 5대 조부이기도 하다.

민진후 선생의 신도비문에 ‘지재의 키는 보통사람을 넘지 않았으나 정신은 넘쳤고 얼굴빛은 썩썩하나 기개는 온순하였다. 음성은 쇠소리가 폐부를 찔렀다. 또한 홀로 된 누이와 외로운 조카들을 사랑하기가 지극하였다.’ 라고 기록되어 있다.

홀로 된 누이에 관한 이야기 한 토막이다.

‘지재가 형조판서로 있을 때 어렵게 사는 누이동생 집에 들른 적이 있었다. 누이는 오라버니가 평소에 술을 즐기는 것을 알고 술상을 차려 냈는데 안주라곤 김치 한가지 뿐이었다. 실은 며칠 전에 시아버지인 참봉 홍우조(洪禹肇)의 생신이 있었기에 법으로 금하고 있는 송아지 한 마리를 몰래 잡아 쇠고기가 조금 남아 있었다. 하지만 지재의 법 지키는 것이 엄하다는 것을 알고있는 누이가 감히 고기 안주를 내놓지 못했던 것이다. 이에 지재가 “술맛은 좋은데 유주무효(有酒無肴)로구나.”라고 하자 누이동생은 고기를 드리고 싶은 마음이 들어 무슨 일이 있더라도 나무라지 않겠다는 다짐을 받고는 고기를 구워냈다. 지재는 그 고기를 다먹고 집을 나오면서 수행했던 아전들에게 명하여 “이 집은 법을 어겼으니 이 집 종을 잡아 가두라.”고 하명하였다. 종을 잡아가두고 법대로 처분하는데 벌금인 속전(贖錢)을 자신의 녹(祿)에서 대납을 했다. 사돈인 홍참봉에게 예의를 지킨 것이다. 홍참봉이 민판서를 찾아가 “공이 법을 엄하게 지키는 것은 가당한 일이나 먹지말고 다스릴 일이지 먹고나서 다스린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고 따졌다. 그러자 지재가 말하기를 “지친(至親)의 정으로 여동생이 권하는데 어찌 먹지 않을 수 있으며 법금(法禁)을 범한 사실을 안 이상 어찌 사정(私情)을 쓸 수 있겠습니까.” 하였다’ 한다.

세상살이가 조화롭게 유지되자면情理(情理) 만으로는 안되고 의리(義理)만으로도 안되며 그렇다고 법리(法理)만으로도 안되는 것이다. 이 세가지 이치는 늘 상충되게 마련인데 이 어려운 삼리(三理)를 슬기롭게 조화시킨 사람이 바로 지재 민진후이다. 지재는 우암 송시열의 문인으로 1681년 생원이 되고 1686년 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승문원 정자(正字)가 되었다.예조판서, 한성부판윤, 의

정부우참찬등을 지냈고 개성부유수로 재직중 죽었다. 시호는 충문(忠文)이고 저서로는 <지재집>이 전한다. 묘소는 가남면 안금 2리 대보산(大寶山 - 현 대포산) 자락에 있다.



▲ 민진후 신도비



▲ 민진후 묘

민진원(閔鎭遠)

노론의 도움을 얻어 임금자리에 오른 영조에게 있어서 탕평책의 수행이 그
 노리 쉬운 일은 아니었다. 영조임금은 자신의 지지세력인 노론에게 기득권을
 포기하라고 종용하는 한편 자신을 역적으로 몰았던 소론을 용서하고 등용해야
 하는 이율배반적 위치에 처해 있었기 때문이었다. 여주사람들이 영조의 탕평책
 에 지대한 공헌을 했다는 사실은 익히 알려져 있다. 그러나 영조의 탕평책을 강
 하게 거부한 여주사람도 있었다. 그가 민진원이다. 민진원(閔鎭遠, 1664~1736)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성유(聖猷), 호는 단암(丹巖), 세심(洗心). 아버지는 여
 양부원군 유중(維重)이며 어머니는 좌찬성 송준길(宋浚吉)의 딸이다. 민진원은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오빠이기도 하다. 송시열의 문인으로 1691년 증광문과에
 을과로 급제하였으나 당시는 인현왕후가 유폐되고 노론이 탄압을 받던 때라 등
 용되지 못하다가 1694년 갑술옥사(甲戌獄事)로 인현왕후가 복위된 뒤 벼슬길이
 트였고 1697년 증시에 을과로 급제하여 본격적인 벼슬길에 올랐다. 병조좌랑, 지
 평, 집의, 전라도 관찰사, 공조참의, 강화부유수를 지냈고 1712년 사은부사로 청
 나라에 다녀왔다. 대사성, 이조 호조 공조판서, 우의정, 좌의정, 중추부영사, 봉조
 하가 되었다. 노론의 중심인물이었던 민진원은 소론의 대표로서 백사 이항복(李
 恒福)의 현손인 이광좌(李光佐), 이태좌(李台佐)등과 크게 대립하고 있었다. 이
 들도 나름대로 공명정대한 왕도정치를 위해 탕평책을 주장하였으나 임금과는
 극명한 방법의 차이를 보였다. 영조 2년 1월 1일, 민진원이 “옳은 것을 상주지
 않고 그른 것을 죄주지 않으며 너그럽지 않을 데에 너그럽고 준엄할 데에 준엄
 하지 않으므로서 탕평은 커녕 난망(亂亡)하는 길로 나아가고 있습니다.”라며 임
 금을 꼬집었다. 영조 9년 2월 3일 이광좌가 아뢰기를 “‘처지를 바꾸면 같다.’고
 하셨는데 대개 사람은 각각 같지가 않은데 어찌하여 처지가 바뀐다고 해서 같아
 지겠습니까? 신이 죄가 있다면 죄를 받아야 할 것입니다. 청컨대 큰 벌을 내려
 나라의 체통을 높이게 하소서.” 하면서 줄건 주고 받을 건 받겠다는 단호한 입
 장을 보였다. 이에 임금이 오른손으로는 이광좌의 손을 잡고 왼손으로는 민진원
 의 손을 잡고서 회유하였으나 이들은 듣지 않았다. 영조 11년 7월 15일 마침내
 이들 사이는 함께 대궐에 입시하는 것조차 꺼려할 정도로 멀어졌다. 영조 12년 3
 월 19일 임금이 이번에는 민진원과 이태좌를 화해시키기 위해 이들을 회정당(熙
 政堂)으로 불러 술자리를 벌였다. 민진원의 아들 민형수(閔亨洙)와 이태좌의 아
 들 이종성(李宗城)도 함께 불렀다. 임금이 명하여 술잔을 가져다가 마주대하여

마시면서 유감을 풀도록하고 이르기를 “어찌하여 서로 다투느냐? 하자 이종성이 취하여 아뢰기를 ‘민형수의 아버가 신의 아버와 함께 기로소에 들어갔으니 신의 아버는 바로 그의 아버와 같습니다. 그의 상소에 신의 아버를 기롱한 말이 있었는데 이는 불초(不肖)한 자식입니다.’ 하고 ‘이 당(黨)’이니 ‘저 당(黨)’이니 하면서 서로 용권(用權)하였다고 배척하면서 양보하지 않았다. 자리를 파함에 이르러 임금이 민진원과 이태좌에게 의자 앞으로 나와서 서도록 명하고 손을 잡고 위유(慰諭)하고는 문피(文皮)를 내리고는 의자에서 내려와 전송까지 하였다.” 그러나 이해 11월 28일 민진원이 죽음으로서 화해의 결말은 보지 못하고 말았다. 민진원이 죽자 임금이 몹시 슬퍼하며 하유하기를 “민봉조하는 휴척(休戚)을 함께하는 신하로서 고집하는 것은 막힌 점이 있으나 나라를 위하는 단심(丹心)은 변함이 없었으니 내가 전후에 간격없이 대우했던 것은 그것 때문이었다. …” 하였다. 민진원은 여주읍 단현리에 90여칸 짜리 집을 짓고 남한강 가에 침석정(沈石亭)이라는 누각을 세워 노후를 즐겼다. 침석정이 있었던 바위에는 단암(丹巖)이라는 글씨가 새겨져 있는데 그의 호는 여기서 따온 것으로 보인다. 글씨를 잘 쓰고 문장에 능하였다. 묘는 가남면 안금리에 있다. 시호는 문충(文忠).



▲ 민진원묘

인현왕후(仁顯王后)

조 선왕조를 통틀어 가장 예의가 바르고 덕성이 높아 국모로서 만백성의 추앙을 받은 이가 누군가를 묻는다면 서슴없이 인현왕후를 지목할 수가 있다.

인현왕후(仁顯王后, 1667~1701)의 아버지는 여양부원군 민유중이며 어머니는 송준길의 딸이다.

인현왕후하면 장희빈을 떠올리지 않을 수 없는데 역사가들 중에는 이 두사람간의 궁중비사를 정치적으로 해석하려는 이들이 있다. 그들의 시각으로 당시 역사를 간추리면 이렇다.

남인이 축출되고 서인이 집권한 경신대출척(庚申大黜陟) 이듬해에 노론의 핵심가문이었던 민유중의 딸인 인현왕후가 왕비로 간택되었고 서인이 밀려나고 남인이 집권한 기사환국(己巳換局) 뒤에 인현왕후가 폐위되고 장희빈이 왕비로 승격되었다. 장희빈의 아버지는 일찍 죽었고 오촌 아저씨인 장현은 중국 사신의 역관으로 나라의 거부로 불릴만큼 재산을 많이 모았다. 장현은 남인계 인물들과 가깝다하여 경신대출척때 유배를 당했던 인물이었다. 다시 남인이 축출되는 갑술환국(甲戌換局)때에 인현왕후는 복위되고 왕비 장씨는 희빈으로 강등되었다가 인현왕후가 병사하자 장희빈도 죽임을 당하였다.

그러나 인현왕후와 장희빈의 엇갈리는 명암을 정치적으로 해석한다 하더라도 인현왕후의 인품과 덕성에는 하등 흠이 되질 않는다. 인현왕후의 면모를 짐작케 하는 몇가지 대목을 간추려보자.

숙종과 장희빈의 관계를 눈치챈 대비 명성왕후(明聖王后 : 숙종의 어머니)가 장희빈에게 대궐 밖으로 추방령을 내리자 인현왕후가 <임금의 은총을 입은 궁인이 오랫동안 민가에 머물러 있는 사체가 지극히 미안하니 다시 불러들이는 것이 마땅합니다.>하고 아뢰었다. 그러자 명성왕후가 <내정이 그 사람을 아직 보지 못하였기 때문이오. 그 사람이 매우 간사하고 악독하여 주상이 만약 꺾에 빠지게 되면 국가의 화가 됨은 말로 다할 수 없을 것이니 내전은 후일에도 마땅히 나의 말을 생각해야 할 것이오.>라고 말하면서 허락하지 않았다. <단암만록에서>

<왕비 민씨를 폐하여 서인(庶人)으로 삼아 소교에 태워 요금문으로 내쫓으니 이때 재야의 선비 및 다수의 유생이 통곡하며 그 뒤를 따랐다.> 조선왕조실록

이무렵 거리에서 아이들이 불렀다는 노래 한 대목.

미나리(인현왕후 민씨)는 사철이요
장다리(희빈 장씨)는 한철일세
철잇은 호랑나비 오락가락 노니느니
제철가면 어이놀까
제철가면 어이놀까.

이처럼 백성들의 사랑을 한몸에 받았던 인현왕후는 자랑스런 여주인이자 명성황후의 5대 조모이다.



▲ 명릉 : 숙종과 인현왕후의릉

홍치중(洪致中)

조 선시대 생원·진사합격자 명단인 사마방목(司馬榜目)에 보면 여주출신 양시자(兩試者)가 조수익에 이어 또 한사람이 등재되어있다. 홍치중이 그사람이다.

홍치중(洪致中, 1667~1732)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사능(士能), 호는 북곡(北谷). 선정을 베풀어 음관으로서는 드물게 강원도관찰사에 임명된 홍득우(洪得禹)의 아들이다. 1699년 식년 생원·진사시험에 모두 합격하였고 1706년 정시에서 병과로 급제하였다. 1712년(숙종38) 조선과 청나라는 국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각기 협상단을 파견하여 백두산을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압록강(鴨綠江)을, 동쪽으로는 토문강(土門江)을 경계로 국경을 정하였다. 같은 해 조정에서는 국경표시가 제대로 되어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홍치중을 북평사(北評事)로 임명하여 파견하였다. 국경지대를 면밀히 살펴보던 홍치중은 토문강의 수원이 되는 물길이 땅 속으로 들어갔다가 다시 솟아나와 다른 지류와 합쳐지는데 이 물길이 두만강으로 이어지지않고 북간도의 토문강으로 흘러들어 송화강에 연결되고 있음을 알아내고는 임금에게 상소를 올렸다. [... 대저 목척이 끝나는 곳은 바로 국경의 한계가 나누어지는 곳입니다. 두나라의 경계를 정하는 일이 얼마나 중대한 일입니까. 그런데 한 두 차원(差員; 하급관원)의 뜻만으로 조정에서 알지도 못하는 물에다 강역을 제멋대로 정했으니 이는 마땅히 징치(懲治)하여 강토에 관한 일을 중히 여김을 보여야 합니다....] 홍치중의 이 조사보고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와 중국의 국경이 두만강인지 토문강인지에 대한 의문이 제기되었으나 아직도 해결의 실마리를 풀지 못하고 그 논의만 분분한 채로 지금에 이르고 있다. 홍치중은 조선통신사로서 일본에도 다녀왔다. 1716년 도쿠가와 요시무네(德川吉宗)가 일본막부의 제8대 쇼오군(將軍)이 된 것을 축하하기 위해 3년 뒤인 1719년 4월에 홍치중은 479명의 사절단과 함께 6개월여의 일본여정에 올랐다. 당시의 기록을 살펴보면 일본에서는 조선통신사에 대해 어삼가(御三家)에 해당하는 예우를 갖추었다고 한다. '어삼가'란 황제의 근친을 일컫는 말로 조선의 3정승에 비길 수 있었다. 사절단의 대표격인 정사(正使) 홍치중, 부사(副使) 황선(黃璫), 종사관(從事官) 이명언(李明彦)의 식탁에는 아침, 저녁으로 753가지의 반찬이 올라왔고 점심에도 553가지의 반찬이 마련되었다고 기록되어있다. 당시 조선임금의 수라상이 십이첩반상으로 장과 찜, 국을 포함한다해도 30가지를 넘지못했으니 이를보더라도 일본인들의 대접이 매우 융숭했음을 짐작할 수 있겠다. 홍치중

이 데리고 간 사절단 속에는 조선의 재인(才人)들도 포함되어 있었다. 이들이 에도성(지금의 도쿄) 승마장에서 조선의 전통승마술인 마상재(馬上才)를 시연하였는데 말 위에서 물구나무서기, 모로눕기, 거꾸로 머리놓고 말달리기 등 변화무쌍한 재주를 선보이자 쇼오군을 비롯한 수많은 구경꾼들이 모두 넋을 잃고 감탄하였다.

1729년 홍치중은 탕평책(蕩平策)을 추진하던 영조의 신임을 얻어 영의정이 되었다. 이무렵 영조는 정국을 자신의 의도대로 이끌기위해 쌍거호대(雙擧互對) 방식을 적용했는데 예를 들어 노론의 홍치중을 영의정으로 삼은 뒤 소론의 이태좌를 좌의정으로 삼아 상대하게 하고 이조판서에 노론 김재로, 참판에 소론 송인면, 참의에 소론 서종옥, 전랑에 노론 신만으로 상대하게 하는 방식이었다. 이는 홍치중이 원만한 성격의 소유자였기에 가능했던 일이다.

[1732년 6월 23일 영의정 홍치중이 졸하였다. 홍치중은 사람됨이 자애롭고 신실하며 침착하고 중후하여 평생토록 남을 해롭게 하거나 미워하는 행동과 급히 서두는 얼굴빛이 없었다. ...]

이재(李緯)

국립중앙박물관에 소장되어있는 초상화를 감상하노라면 유복(儒服)차림에 복건을 쓰고 흰수염에다 형형한 눈빛으로 인해 깨끗한 인상을 풍기는 조선선비를 만나게 된다. 그가 300여년 전 여주 근동면 대거리(지금의 상·하거리)에 살았던 이재다.

이재(李緯, 1680~1746) 본관은 우봉(牛峰), 자는 회경(熙卿). 호는 도암(陶菴) 또는 한천(寒泉). 할아버지는 우의정을 지낸 이숙(李勳)이고 아버지는 진사 이만창(李晩昌), 어머니는 민유중(閔維重)의 딸로 인현왕후(仁顯王后)의 언니다. 1702년 알성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1713년 형조참의, 성균관 대사성 1716년 동부승지 1721년 사헌부 대사헌을 지냈다. 이재는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작은아버지의 가르침을 받고 자랐는데 신임사화(辛壬士禍)때 작은아버지 이만성(李晩成)이 옥사하자 은퇴하여 학문연구에 전념하기도 하였다. 1725년 영조가 즉위한 뒤 복직하였으나 1741년 예문관 제학을 끝으로 벼슬에 나가지 않았다. 김창협(金昌協)의 문인이며 예학에 밝았고 글씨를 잘 썼다.

초상화에서 보여지듯 이재는 성품이 강직한 사람이었다. 1704년 기사관(記事官)으로 있으면서 노산군일기(魯山君日記)를 단종대왕실록(端宗大王實錄)으로 고치도록 임금을 설득한 일은 유명하다. 1709년 헌납(獻納)이었던 이재가 [전하께서 총명하고 예지하신 자품으로 유정유일(惟精惟一)의 교훈을 받들고 계시는데도 다만 공정해야하는 의리를 항시 치우치는 사정(私情)으로 빼앗겨 버리고 조급해지는 병폐가 매양 희노(喜怒)의 절차에서 나오게되어 덕을 지킴이 굳건하지 못하고 일 처리에 있어 순서가 없으시므로 아침하는 말이 쉽게 들어가 의혹이 많아지게 되고 착한 단서가 잠깐 싹뻗다가도 곧 도로 어두워지며 억측을 잘 하시므로 의심이 생기게 되고 이기기 좋아하시므로 과오를 저지르게 되어 갈수록 격렬하게 괴로워져서 병폐의 뿌리가 더욱 깊어지고 계십니다.]라고 하는 뼈있는 상소를 올려 임금을 곤혹스럽게 하였는가 하면 1711년 상소에서는 [전하께서는 명예(明譽)는 넉넉하시나 침잠(沈潛)함이 부족하시어 그 함양하는 공부에 일찍이 마음을 붙여 노력하지 않은 까닭으로 사령(辭命)을 시행하고 조치하는 사이에 대략 너무 날카로운 잘못을 저지름이 많습니다. 이 병을 제거하지 않으면 마음에서 일어나서 정사에 해를 끼치는 것이 어찌 한둘을 헤아리겠습니까.]라고 하여 임금으로부터 유념하겠다는 대답을 받아내기도 하였다.

1746년 10월 28일 이재가 죽었다. 그의 졸기에 이르기를 [이재는 품성이 맑고

순수하며 어려서부터 문장으로 이름이 났고 벼슬길에 나아가서는 인망이 당대에 뛰어났었다. 신축년, 임인년의 화가 일어났을 적에 그의 숙부인 판서 이만성이 무옥(誣獄)에 연루되어 죽자 드디어 어머니를 모시고 인제의 설악산으로 은퇴하여 벼슬길에 생각을 끊고 성리학을 깊이 연구하였다. 을사년 경화(更化)이 후에는 누차 부름을 받았으나 단 한번 서울에 들어와서 임금(萬言)의 봉사(封事)를 올려 입을 다물고 어물어물하는 시론의 폐단을 진술하였다. 하지만 이때에 임금이 바야흐로 탕평책에 뜻을 기울이고 있는 참이어서 그의 말을 등한히 여겨 받아들이지 않자 드디어 용인으로 물러나 살았다. 이에 사방에서 배우러 찾아온 자가 매우 많았고 근세의 모든 선비들이 그를 종장(宗匠)으로 삼았다. 이때에 와서 죽으니 나이 67세였다. 학자들이 도암선생(陶菴先生)이라고 일컬었다.] 순조때 이조판서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문정(文正)이다. 이재는 강원도 인제로 가기전에 어머니가 돌아가실 때까지 여주에서 살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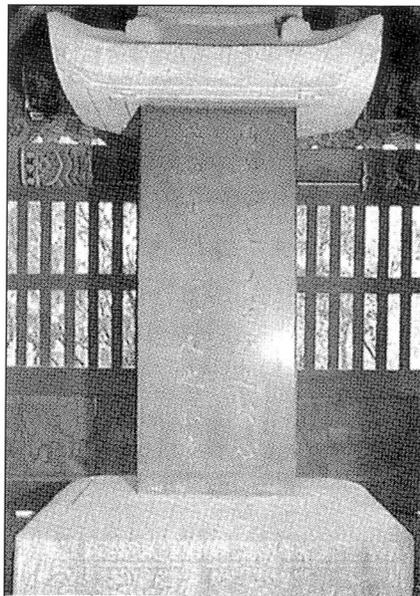


▲ 이재초상화

원경하(元景夏)

원 평부원군(原平府院君) 원두표(元斗杓)의 손자가 효종대왕의 다섯째 사위인 흥평위(興平尉) 몽린(夢麟)이고 몽린의 손자가 경하(景夏)다. 원경하의 큰아들이 인손(仁孫)으로 젊은시절 한때 국수(國手)라 불리울 정도의 이름난 노름꾼이었다. 어느날 원경하가 아들의 솜씨를 시험해보고자 투전장 속에서 미리 인장(人將)을 빼내 감추어놓고서 인장을 찾아 뽑아 올리라 하였다. 못하면 크게 매질하겠다는 엄포가 뒤따랐다. 인손이 투전장을 받아쥐고 한참동안을 만져보더니 ‘이 속에는 인장이 없습니다.’ 하니 원경하가 손에 쥐었던 인장을 내어보이고는 감탄하여 말을 잊지 못하였다. 이런 아들을 잘 다독거리며 과거를 준비시켜 마침내 우의정으로 만든 이가 원경하다. 원경하(元景夏, 1698~1761) 본관은 원주(原州). 자는 화백(華伯), 호는 창하(蒼霞) 또는 비와(肥窩). 홍주목사를 지낸 명구(命龜)의 아들로 대신면 상구리에서 태어났다. 1721년 진사시험에 합격하고 1736년 정시문과에 장원으로 급제하였다. 이때 영조임금이 원경하를 인견하고 이르기를 “영릉(寧陵)의 외손(外孫)이 이제 비로소 등제하였으니 성조께서 아셨다면 가열(嘉悅)하실 것을 상상할 수 있다. 군신은 부자와 같은 것이니 내가 그대를 경계시키겠다. 근래의 유생들은 청금(靑衿)으로 있을 때 이미 쓸데없이 시상(時象)에 대한 의논이 있는데 그대가 처한 처지는 척신과 다를 것이 없으니 다른 사람들보다 배나 근신해야 된다. 인조·효종 두 조정에서 지성으로 조정(調停)했던 일을 그대로 들었을 것이니 모쪼록 우러러 본받도록 하라. 만인 시상을 벗어나지 못한다면 그대는 그대의 가묘(家廟)에 들어갈 수 없게 될 것이다.”하였다. 이에 고무된 원경하는 “생각하건대,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조정을 화합시킨다는 것에 지나지 않을 뿐입니다. 대저 조정이라는 것은 한나라의 근본인데 근본이 화합하지 않고서 그 나라를 다스릴 수 있다는 말은 신이 듣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전하께서 지극한 정치를 바라신다면 먼저 조정을 화합시키시는 것 만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마음 안에 황극(皇極)을 세워서 동서남북의 사람이 황극을 따르도록 가르치고 행하여 화평한 정치와 교화를 펴고 나서야 황극의 정치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고 아뢰면서 한걸음 더 나아가 “탕평의 정사는 아름답지 않은 것이 아닙니다마는 노론과 소론만을 호대(互對)하면 어찌 인심을 복종시킬 수 있겠습니까? 동인, 서인, 남인, 북인을 물론하고 재주에 따라서 쓴 뒤에야 공도(公道)를 넓힌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라며 당시에 시행되고 있던 소탕평(小蕩平)을 반대하고 이른바 대탕평(大蕩平)을 주

장하기에 이르렀다. 이로써 원경하는 소론의 온건파 조현명(趙顯命)과 함께 임금의 탕평책을 펴는데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 1737년 호남별견어사(湖南別遣御史)가 된 원경하는 전라도 부안에서 두레의 농기인 낫밭과 풍물의 연장이 백성들의 반란시에 중요한 구실을 할 것으로 보고 이를 관아로 압수하였는데 농민들의 백년민속(百年民俗)을 금지시킨 것이라 하여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일은 풍물에 관한 최초의 탄압으로 기록되어있다. 1761년 5월 27일 원경하가 죽었다. 그의 졸기에 보면 “봉조하(奉朝賀) 원경하가 즐하였다. 문벌과 집안이 존귀하였는데 원경하가 젊어서부터 문사(文辭)를 좋아하였으며 몸단속하기를 검소하고 간략하게 하여 야윈 말에다 헤어진 안장을 쓰고 의복을 소박하게 입었으므로 사람들이 그가 도위(都尉) 집안의 손자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속마음은 바르지 않고 험악하며 거칠고 사리에 어긋나 다른 사람과 뜻이 맞는 경우가 적었으며 경대부(卿大夫)로서 자기에게 아첨하지 않는 자는 기를 꺾고 험담하였으므로 그가 내뱉는 말에는 완전한 선비가 없었다.”고 되어있다. 영의정에 추증되었고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 탕평비

김양행(金亮行)

1779년 8월 6일, 정조임금이 영릉(寧陵)에 배알하러 왔다가 여주에 살고 있던 김양행을 만났다. “내가 경을 보려는 마음이 목마를 때에 물마시기를 생각하는 것과 같을 뿐아니라 이에 앞서 돈소(敦召)한 것도 여러번이었으나 성의가 천박하여 멀리하는 마음을 돌리지 못하다가 이제야 비로소 서로 만나니 내 마음이 기쁘다.” 임금으로부터 이처럼 사랑을 받았던 신하가 김양행이다.

김양행(金亮行, 1715~1779)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자정(子靜), 호는 지암(止菴) 또는 여호(驪湖). 영의정 김수항(金壽恒)의 증손으로 아버지는 참판에 추증된 김신겸(金信謙)이고 어머니는 좌의정 이이명(李頤命)의 딸이다. 세자익위사 세마(世子翊衛司洗馬), 사간원 정언, 장령, 집의, 호조·예조·공조참의에 임명되었으나 부임하지 않다가 정조때 형조참판을 지냈다. 김양행이 대답하기를 “신이 본디 젊어서 고아가 된 까닭에 배우지 못하여 재주와 지식이 거친데 외람되게 초선(抄選)줄에 끼었으니 마음이 부끄러워 용납될 곳이 없습니다. 전하께서 즉위하신 이후로 잇달아 돈소를 내리시어 사지(辭旨)가 간절하므로 신이 두렵고 부끄러우며 감격하여 계속해서 명을 어길 수가 없어 병을 조리고 길을 떠나겠다는 뜻으로 앞서 아뢰었으나 평소에 앓던 병이 요즈음 또 도져서 아직도 움츠려 엎드려 있으니 황송하여 못견디겠습니다. …” 하였다. 이 임금과 신하가 청심루(淸心樓) 옆에 있던 행궁에서 극적인 만남을 가졌다. 임금이 말하기를 “유현(儒賢)은 나이가 몇인데 수염과 머리털이 다 희었는가?” 하며 김양행이 말하기를 “나이는 이제 예순 다섯인데 머리털이 다 희었습니다.” 하였다. 임금이 말하기를 “앞으라. 내가 낮을 보고싶다.”하며 김양행이 말하기를 “신도 천안(天顏)을 우러러 보기를 바랍니다.”하니 임금이 윤택하였다. 김양행이 몸을 펴고 서서 조금있다가 다시 부복하여 말하기를 “신이 오늘 천안을 우러러 볼 수 있었으니 내일 죽더라도 참으로 여한이 없습니다.” 하였다. 김양행은 영조 34년 7월 홍계능(洪啓能), 송덕상(宋德相)등과 함께 초선되어 벼슬길이 열렸다. 성품이 온화하고 자량(慈良)하며 학문에 대한 조예가 정밀하고 심오하다는 이유에서였다. 하지만 벼슬에 뜻이 없었던 김양행은 여주에 머물며 학문연구에만 전념하였고 그러던 중 이날에 이르러 정조임금과 만나게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들의 만남은 때가 너무 늦게 이루어졌다. “...나의 목마른 사람같은 소망을 생각한다면 어찌 이토록 무심할 수가 있느냐? 시급히 소원하게 여기는 마음을 돌이켜 즉일로 별떡 일어나 오라.”는 임금의 간청에 못이겨 병든 몸을 일으켰던 김양행은 임금과 마

주한 지 불과 4개월 만에 죽고 말았다. 1779년 11월 23일 형조참판 김양행이 졸하였다. 젊어서부터 경학에 힘쓰고 행실을 깨끗이 하였으며 고 대사헌 민우수(閔遇洙)에게 수업하였다. 영조 무인년에 학문에 독실하고 실천을 힘쓰는 것으로 천거되어 대직(臺職)에 제수하였으나 응소하지 않았다. 찬선 송명흠(宋明欽)이 엄한 견책을 받았을 때에 상소하여 경계를 아뢰었는데 영조가 노하여 면직하여 서인(庶人)이 되었다. 금상이 즉위하여 여러번 불렀으나 병을 이유로 나오지 않았다. 기해년에 임금이 영릉에 전알하였을 때에 김양행이 여주에 살았으므로 명을 받고 행전에 들어와 뵈고 거가(車駕)가 돌아올 때에 따라서 조정에 나왔다가 곧 돌아갔다. 이때 홍국영(洪國榮)이 권세를 부리고 날뛰었으므로 금문에 들어가는 자는 다 문안하였으나 김양행만은 돌아보지 않았는데 임금이 늘 말하기를 '풍의(風儀)가 칭고한 것이 불만하니 근세의 유자(儒者)중에 으뜸이라 하겠다.' 하였다. 이조판서에 추증되었으며 시호는 문간(文簡)이다.

임윤지당(任允摯堂)

조 선시대에 부녀자들이 교육을 받고 학문을 닦는다는 것은 매우 드문 일이었다. 이런 통념의 틀을 깨고 남자와 여자의 존재를 음양의 우주질서와 같이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인식하여 여자도 남자와 마찬가지로 우주와 사회에서 똑같이 중요한 필수적 구성원임을 갈파한 여인이 있었다. 그녀가 이백 오십여년 전에 여주에서 살다가 원주로 시집간 임윤지당이다.

임윤지당(任允摯堂, 1721~1793) 본관은 풍천(豊川), 아버지는 함흥판관을 지낸 임적(任適)이며 어머니는 이조판서로 증직된 윤부(尹扶)의 딸이다. 부친이 양성현감으로 부임하던 해에 태어났다. 8세때 아버지를 여의고 9세 되던 해 청주근처 옥화(玉華)라는 곳으로 이사하였다. 17세때 조상들의 선영이 있던 여주에 와서 살다가 19세때 원주의 선비 신광유(申光裕)에게 시집갔다. 28세때 청상과부가 된 윤지당은 생가와 양가의 두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효성을 다하고 가정을 화목하게 이끌어 주위의 칭송을 받았다. 결혼 후 난산 끝에 아이를 하나 낳았으나 어려서 죽었고 그 후에는 자식을 갖지 못하였다.

동생 윤호(雲湖) 임정주(任靖周)가 기록하기를 [나이 열한살 때 청주 옥화에서 여주로 이사가 살게되었다. 여주는 변화한 곳이어서 친구들이 밀고 당겨 나도 모르게 방자하게 되었다. 누님이 조용히 타이르시기를 ‘왜 방심한 마음을 거두지 아니하고 남들을 따라 다니면서 두레박처럼 오르락 내리락 놀기만 하나?’ 하셨다. 내가 이 말씀을 듣고 깊이 뉘우치고 곧 마음을 바로 잡았다. 누님께서는 순순히 가르치시고 타이르는 성의가 간절하셔서 사람들을 감동시키기에 충분하셨다. 내가 지금까지 큰 죄를 면하게 된 것은 실상 우리 누님께서 그때 깨우쳐 주신 덕분이다.] 하였다. 윤지당의 둘째 오빠로 성천부사를 지낸 성리학자 녹문(鹿門) 임성주(任聖周)는 도암(陶庵) 이재(李穡)에게서 수학하면서 10살 아래인 윤지당을 가르쳤다. 윤지당은 오빠로부터 효경, 열녀전, 소학, 사서등을 배웠고 5남 2녀 였던 형제들과 경전, 사서등을 강론하였는데 식견이 탁월하여 사람들을 놀라게 하였다. 낮에는 부녀자의 일에 진력하고 밤이 깊어서는 소리내지 않고 책을 읽어 공부하는 티를 내지 않았다. 가족들도 그녀의 학문진취를 알지못하였으나 경전에 대한 조예와 성리학의 이해는 당시의 대학자들에 견주어 손색이 없었다. [윤지당유고]는 그녀가 일생동안 저술한 글을 모은 문집으로 그녀가 죽은지 3년 후인 1796년에 친정동생 임정주와 시동생 신광우가 간행하였다. 상편에는 인물전기인 전(傳) 2편, 역사인물 평론이라 할 수 있는 논(論) 11편, 책

의 후기인 발(拔) 2편, 철학적 논문에 해당하는 설(說) 6편이 수록되어있다. 한편에는 자경문이라 할 수 있는 운문체의 잠(箴) 4편과 명(銘) 3편, 인물예찬서인 찬(讚) 1편, 가족들의 영전에 올린 제문 3편, 저자 서문에 해당하는 인(引) 1편, 유교경서의 해석서인 경의(經義) 2편이 수록되어있다.

윤지당이란 당호는 둘째오빠 임성주가 지어준 것인데 윤지(允摯)는 '태임(太任)과 태사(太姒)를 독실히 신봉한다'는 뜻이다. 이는 주자의 윤신지(允莘摯)라는 글귀에서 따온 말로서 신(莘)은 문왕의 부인이었던 태사의 친정고향이며 지(摯)는 문왕의 어머니인 태임의 친정고향이다. 태임의 성씨가 임씨(任氏)였으므로 윤지당과 임성주는 더욱 친근감을 느꼈던 것으로 보인다.

국사편찬위의 이영춘 편사연구관의 인물평을 통해 윤지당의 됃됨이를 가늠해보자.

[윤지당은 우리나라 여성사에서 매우 독보적인 인물이다. 그녀는 우리 역사에서 가장 뛰어난 업적을 이룬 여성학자였을 뿐만아니라 당시의 봉건적 사회분위기로 보아 매우 진보적인 여성론을 제기하였다. 즉 남녀는 비록 그 역할이 다르지만 천성적으로 타고난 성품은 하등의 차이가 없으며 따라서 여성도 교육과 수양을 통해 성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한 것이다. 이 때문에 윤지당은 여성들의 교육을 통한 실력배양과 윤리적 실천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그녀의 여성론은 서양 여성학 이론을 금과옥조로 여기고 있는 한국 여성운동가들에게도 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이소(金履素)

으럭 정월 대보름 다음날이면 가남면 본두리에서는 이 마을 전통민속인 낙화놀이(落花놀이)가 흥겹게 펼쳐진다. 묘촌(본두 1리)과 해촌(본두 2리)이 해마다 번갈아가며 주관하는 이 낙화놀이는 여주와 안동 두곳에서만 그 명맥이 유지되고 있는 독특한 민속놀이이다. 묘촌은 큰 묘가 있어서, 해촌은 고승이 심은 해나무가 있어서 마을이름도 이로부터 유래되었다고 하는데 묘촌에 있던 큰 묘의 주인공이 정조때 좌의정을 지낸 김이소다.

김이소(金履素, 1735~1798) 본관은 안동(安東). 자는 백안(伯安), 호는 용암(庸庵). 아버지는 부사 김탄행(金坦行)이며 영의정을 지낸 김창집(金昌集)이 증조 할아버지다. 병자호란당시 충신의 후손들만을 위하여 시행된 충량정시(忠良庭試)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770년 홍문관교리를 거쳐 1776년에 대사간, 강원도관찰사 1778년에 도승지, 대사성을 역임하고 예조·이조·형조·병조·호조판서를 지냈다. 1719년 동지사(冬至使)로 청나라에 다녀와서 우의정이 되었고 1793년 사옹원도제조로 있다가 좌의정이 되었고 진하사(進賀使)의 정사(正使)로 다시 청나라를 다녀온 그 이듬해 영돈녕부사가 되었다. 정조임금은 체제공과 더불어 김이소를 꽤나 신임하였다. 1792년(정조16) 10월 11일, 김이소를 우의정에 임명하며 이르기를 “내가 경에게서 취한 점은 무게가 있는 것이고 바라는 바는 기강을 진작시켜 달라는 것이며 권면하고 싶은 것은 모두 화합했으면 하는 것이다. … 그리하여 화합하고 더욱 화합하며 서로 돕는 일에 힘을 다한다면 오늘의 국가는 그것으로 절반 넘게 다스려진 셈이 될 것이다. 밤낮으로 옆자리를 비워두고 그대를 기다리는 마음 목이 마른 정도가 아니니 경은 정승으로 임명한 근본 취지를 이해하고서 바로나와 숙배하고 이 어려운 시기를 타개하도록 하라.” 하였다.

신임이 두터웠던 김이소가 비록 한시적이었지만 삭탈관직(削奪官職)과 문외출송(門外黜送)을 당하는 일이 발생하였다. 1796년(정조 20) 1월 24일 임금이 아버지인 사도세자의 무덤(현릉원 ; 뒤에 용릉으로 개칭)에 배알하고 돌아오는 길에 만천(蔓川; 용산구 신창동)의 성문이 닫혀 임금의 행렬이 길에 머물게 되니 유도대신(留都大臣; 임금이 서울을 떠나 있을 때 도성을 지키던 신하)으로 있던 영돈녕부사 김이소가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없었던 것이다.

김이소에 대한 정조의 신임은 그의 즐기에 잘 나타나 있다.

[1798년 8월 24일 영돈녕부사 김이소가 죽었다. 김이소의 자는 백안이고 충헌공 김창집의 증손이다. 영조 갑신년에 충량과로 등제하였는데 상의 충애가 극진

하였으며 관직을 두루 거쳐 호조와 양전의 판서에 이르렀고 임자년에 정승이 되었다. 질박 정직하고 확고부동하여 옳은 것을 보면 굳게 지키면서 흔들림이 없었으므로 재유(才猷)와 문학으로 세상에 드러난 것은 없었어도 위에서 의지하며 늘 중하게 여겼다. 그의 동생이 홍락순의 사위가 되었는데 홍락순이 죄로 쫓겨날 적에 온 조정이 성토하였으나 그만은 도헌(都憲)으로 있으면서 의리상 인피하며 사직하니 상이 늘 그의 돈독한 우애심을 칭찬하였다. 김이소의 병이 위독해지자 상이 어의를 보내 진찰하게 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죽자 하교하기를 '세상을 하직했다는 소식을 갑자기 듣고보니 참말이 아닌 것처럼 의심되지만 한다. 놀랍고 가슴아픈 심정을 어떻게 말로 하랴. 확고부동하게 지키는 바가 있어 모습만 보아도 어떠한 인물인지 알 수가 있었는데 조정에서 그를 따르고 의지한 것이 과연 어떠했던가. 연전에 한번 겪어보고는 바로 경탄하였는데 더구나 고가(古家) 교목(喬木)의 나뭇잎이 시들어 떨어지니 더욱 심회를 금할 수가 없다.'] 시호는 익헌(翼憲).



▲ 묘촌낙화놀이



▲ 해촌낙화놀이

박준원(朴準源)

정조 11년(1787) 2월 8일 삼간택(三揀擇)을 행하여 사복시 주부 박준원의 3녀를 빈으로 정하라는 어명이 떨어졌다. 정조와 효의왕후 사이에 자식이 없었고 의빈(宜嬪) 성씨가 낳은 문효세자(文孝世子)도 정조 10년에 요절했기 때문이다. 이 박준원의 셋째 딸이 수빈(綏嬪)으로서 순조임금의 어머니다.

박준원(朴準源 1739~1807)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평숙(平叔), 호는 금석(錦石). 아버지는 공주판관을 지낸 박사석(朴師錫)이고 어머니는 기계(杞溪) 유씨(兪氏)이다. 부인은 원평부원군 원두표(元斗杓)의 4대손으로 이조참판에 증직된 원경유(元景游)의 딸이다. 박준원은 어려서부터 독서를 좋아하여 육경(六經)과 백가(百家)에 두루 통하였으나 1786년 사마시에 합격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벼슬길에 나왔다. 이듬해 딸이 정조의 빈으로 간택되면서 보은현감에 제수되었다가 순조가 탄생하자 궁궐에 들어와 순조를 돌보는 일을 맡았다. 1800년 순조가 즉위하자 수렴청정하던 정순왕후의 총애를 받아 공조, 형조판서와 판의금부사, 판돈녕부사, 금위대장등을 역임하였다.

외할아버지 박준원에 대한 순조의 기억은 혈육이상의 것이었다. 박준원의 부음을 듣고 순조는 [병환은 비록 위독하였으나 마음속으로는 회복할 것을 기대하였는데 이제 세상을 떠다는 흉음을 받으니 놀랍고 한탄스러운 슬픈 마음을 견디지 못하겠다. 자후(慈候)가 요사이 미령함을 우려하고 있는데 이런 망극한 일을 당하였으니 장차 어떻게 우러러 위로할 것인가? 아! 경술년 탄강한 뒤로 지금까지 보호한 정성은 정으로 말하자면 조손(祖孫)의 친함이 있었고 겸하여 보덕의 스승이 되었다. 18년이란 오랜 세월동안 궁중에서 직속한 것이 하루와 같았으며 경신년 이후 큰 공과 위대한 업적을 이루다 말할 수 있겠는가? 나에게 오늘이 있게 된 것과 나라가 태평세월이 된 것은 이 누가 내린 것이며 이 누구의 힘인가? 그런데 지난해 선달 한번 만난 것이 천고토록 영원히 이별이 될 줄은 생각지도 않았다. 아! 이제부터 내가 누구를 의지할 것이며 어느날 다시 보겠는가? 통탄스럽고 통탄스럽다.]하였다.

순조가 직접 지은 박준원의 신도비명에는 [공은 태어나면서부터 특이한 기질이 있고 골격이 청아 수려하여 순수하게 생겼다. 부모가 매우 귀여워 하였으며 행실이 예절에 어긋남이 없었다. 신사년에 이르러 어머니 유부인의 병이 위독하여 지자 친히 팔을 찢어 피를 내어 어머니 입에 넣기까지 하였으며 아버지 찬성공이 병들어 늙자 아버지의 똥을 맛보아 길흉을 점치며 하늘에 기도하기까지 하

였다.]고 되어있다.

박준원의 인간 됬됨이가 이러했으므로 사관들의 평가도 후했다. [박준원은 반남인으로 수빈 박씨의 아버지이다. 임금이 탄강한 처음부터 정묘의 명을 받들어 궁중에 들어와 거처하며 보호하고 교도하는 책임을 전담했는데 조심스런 마음으로 공근하여 밤이나 낮이나 해이하지 않았다. 임금이 등극하자 지위가 더욱 높아졌으나 더욱 더 겸손하고 두려워할 뿐이었고 성문(聲聞)이 외정에 들리지 않았다. 그리하여 성학(聖學)이 성취된 것은 그의 공이 많았다.]

박준원의 시호는 충헌(忠獻)이고 그의 묘는 여주읍 가업리에 있다.



▲ 박준원묘

이문원(李文源)

선정비(善政碑)는 관리의 은덕을 오래도록 기리기 위해 백성들이 세우는 것으로 불망비(不忘碑)라고도 부른다. 일반적으로 관리가 바뀐 다음에 백성들에 의해 자발적으로 건립되던 것이나 더러 현직 관리를 위해 강제적으로 세워지기도 했다. 영월루 동남편에는 10여기의 선정비가 있는데 정조 10년 여주목사를 지낸 이문원의 선정비가 눈에 띈다. 선정비에는 행목사 이공문원 선정비(行牧使李公文源善政碑)라 쓰여있다. <경국대전>에 보면 품계가 높은 사람을 낮은 관직에 임명하는 경우 직함앞에 행(行)이라 쓰고 품계가 낮은 사람을 높은 관직에 임명하는 경우 수(守)라 쓴다고 되어있는 바 이때 이문원은 품계가 정2품인 정헌대부였으므로 정3품인 여주목사에 보해짐에 따라 관직앞에 행(行)자가 붙은 것이다.

이문원(李文源, 1740~1794년) 본관은 연안(延安), 자는 사질(士質), 옥천군수 주신(舟臣)의 손자이며 영의정 천보(天補)의 아들이다.

성격이 활달하였던 이문원은 이천보의 양자로 들어와 놀기만 하였다고 한다. 그러자 화가 난 이천보가 그를 생가로 다시 쫓아 버렸다. 집으로 쫓겨가는 그를 측은하게 여긴 하인이 말했다. ‘도련님은 어찌하여 하라는 공부는 아니하고 이렇게 쫓겨가십니까? 양가에서는 매일 기름진 음식에 좋은 옷을 입을 수 있으나 생가는 지금 콩보리밥도 못먹는 형편입니다.’ 그러자 이문원이 이렇게 대답하였다. ‘창고에 가득한 책을 모두 읽어야 하니 나는 죽어도 그것은 못하겠다.’ 하인이 이 말을 듣고 그대로 이정승에게 전하자 이천보는 그를 다시 데려오라고 했다.

위의 이야기에서만 보면 이문원이 글공부를 무척 싫어했던 것 처럼 보이나 실은 그렇지 않았다. 이문원은 1763년 진사시험에 합격하였고 음보(蔭補)로 참봉직을 제수받았으나 사양하다가 1771년 정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성균관 대사성, 대사간, 대사헌, 공조판서, 경상도 관찰사, 지경연사, 형조판서, 병조판서, 이조판서, 함경도 관찰사, 예조판서 등이 그가 역임한 벼슬이다.

이문원은 일처리를 함에 있어 남달리 뛰어난 데가 있었다. 그가 시관(試官)으로 있을 때 정승에게 청탁하지 않은 사람만을 합격시켰던 일화는 유명하다. 함경도 관찰사로서 의릉(義陵: 도조의 능)의 석물을 개수할 때에는 백성들에게 능력의 피해를 주지않고 직접 감독하여 일을 처리함으로써 정조임금으로부터 내구마(內廐馬: 임금의 거둥에 쓰려고 내사복사에서 기르던 말)를 하사받기도 했

다.

호방했던 이문원이지만 상하와 공사의 구분은 엄격했다.

정조 17년 12월 1일 '벼슬과 품계의 높낮이에 따라 길거리를 왕래할 때 길을 양보해야 할 사람이 양보하지 않고 말머리를 돌려야 할 사람이 말머리를 돌리지 않으며 몸을 숨겨야 할 사람이 몸을 숨기지 않음'을 지적하여 임금이 즉각 수명(修明)할 방도를 강구케 하였다. 병조판서로 있을 때는 매서(妹壻)인 오재순(吳載純)이 이조판서에 임명되자 사직하기를 청했고 함경도 관찰사 시절엔 경상도 관찰사 이조원(李祖源)과 황해도 관찰사 이시수(李時秀)등 한 집안에서 동시에 3명의 관찰사가 보임되자 지나친 광영이라하여 사직소를 올리기도했다.

이문원이 판서로 있을 때 하루는 남산에서 친구들과 시회(詩會)를 열었다. 친구들은 글재주가 없는 이문원을 골려주기 위해 시를 짓지 못하는 사람은 별주를 마시도록 정했다. 이때 이문원이 자청해서 다음과 같은 우스꽝스런 시를 지음으로서 율(律)과 운(韻)등의 형식에 얽매인 선비들을 비웃었다고 한다.

왈그락 달그락 登南山하니 (나막신을 왈그락 달그락하며 남산을 오르니)
여기저기 桃花發이라 (여기 저기에 복숭아 꽃이 피었네)
諺書 眞書 섞어 作하니 (한글과 언문을 섞어 시를 지으니)
曰可曰否 皆狗子라 (왈가왈부하는 자는 모두 개새끼이다)



▲ 이문원선정비

정수영(鄭遂榮)

조선시대의 후기회화는 실학의 영향으로 생활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그림 소재를 택하면서부터 일반인과 친숙한 한국적 회화로 발전하게 된다. 이무렵 겸재 정선에 의해 ‘진경산수화’가 화단에 정착하기 시작했고 그의 영향을 받은 문인화가들이 속속 등장하게 되는데 그들 중의 한사람이 여주의 아름다운 풍광을 화폭에 담은 지우재 정수영이다.

정수영(鄭遂榮, 1743~1831) 조선후기의 화가. 본관은 하동(河東), 초명은 수대(遂大). 자는 군방(君芳), 호는 지우재(之又齋). 정인지의 후손으로 실학자이며 지리학자인 정상기의 증손자이다. 평생 관직에 나가지 않고 기행과 탐승을 하면서 시 서 화에 흠뻑 빠져 일생을 보냈다.

정수영은 겸재의 영향을 받아 그림을 시작했으나 진경산수를 좀더 개성이 강한 문인화풍으로 발전시키므로서 18세기 화단에서도 이색적인 느낌을 주는 독특한 화가로 알려져 있다.

대표적인 작품으로는 <한강임강유람사경도권 漢江臨江遊覽寫景圖卷> <해산첩 海山帖> <금강산도> <춘강고주도 春江孤舟圖> <추경산수도 秋景山水圖> 등이 있으며 화조(花鳥), 어해(魚蟹), 영모(翎毛) 등의 화재(畫材)도 여러점 전해지고 있다. 정수영의 그림은 유탄을 사용하여 스kets치풍으로 대강 대강 그린 듯 거칠지만 간결한 필선과 격조있는 구도, 대담한 화면구성등으로 조선후기 화단에서는 그 예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참신함을 지니고 있으며 한국적인 분위기를 풍기는 특유의 화풍을 보여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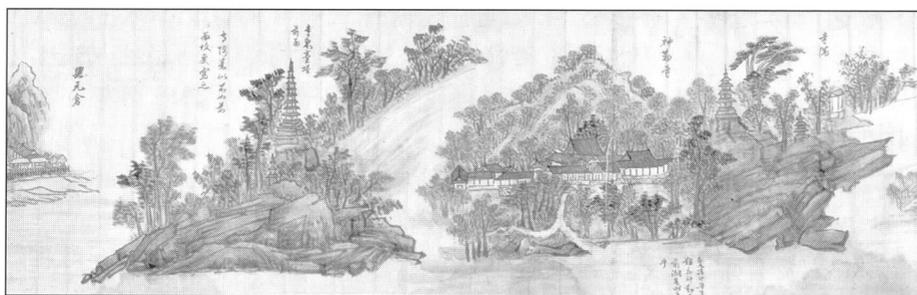
<한강임강유람사경도권>에 실린 그림들은 정수영이 금강산으로 떠나기 전인 1796년에 한강과 임진강의 명승들을 돌아보며 그린 그림이다. 광주를 출발하여 여주를 지나 원주의 상류까지 한강의 14군데와 영평, 삭녕등 임진강 상류와 관악산등 12곳의 풍경을 긴 화폭에 담았는데 때로는 질푸른 먹색으로 울창한 여름 숲을, 그리고 때로는 연록색의 버드나무를 그려 한강변의 정취를 한껏 느끼게 해준다. 이 그림은 봄, 여름, 가을등 여러 계절이 묘사된 것으로 보아 여러번의 여행을 통해 제작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폭 24.8cm 길이 58m 되는 종이를 계속 이어 만든 두루말이 화면 위에 그렸고 각 장면마다 화면 길이는 대상에 따라 자유롭게 선택되었다. <한강임강유람사경도>는 정수영 자신의 화풍이 형성되던 시절의 끝을 장식하는 대작이다. 정수영은 정선, 강세황, 이인상, 심사정의 화법 가운데 일부를 배워와 스스로 종합한 뒤 이 그림에 그 흔적을 남기고 있다. 또 그는

당대 화가들이 정선의 그림을 본떠 반쯤 하늘에서 내려다 본듯한 반조감도 형식으로 그리던 행태를 탈피해 작가가 현장에서 보는 그대로의 시점을 택하므로써 실재에 가까운 사물의 형상을 묘사해내는데 성공했다.

〈한강임강유람사경도〉를 그리기 위한 여행을 시작하면서 정수영은 한편의 시를 남겼다.

안개 속의 벚꽃은 건너 섬에서 외롭게 보이고
 돛배 앞의 풀내음은 광주 쪽에서 날아오네
 무수한 상선(商船) 앞다퉈 떠나지만
 내일 아침 다함께 여주에서 만나네
 잠든 배 세척은 어젯밤 마포에서 올라왔고.

2000년 전 정수영이 그린 여주의 그림들을 마주하니 그 시절 그 때의 풍광과 사람들이 지금인 듯 정겹다.



▲ 한강 임강 유람사경도 ; 신륵사부근



▲ 한강 임강 유람사경도 ; 여주부근

김관주(金觀柱)

천덕봉 기슭아래 자리한 동네가 흥천면 외사리다. 이 부근에 금반형(金盤形)이라는 명당자리가 있는데 여기에 집터를 잡으면 36대를 두고 장상(將相)이 난다하여 그 소문이 국내는 물론 중국에까지 퍼져 있었다. 임진왜란때 우리나라에 온 명나라 장수 이여송(李如松)이 금반형에 대한 소문을 듣고 그 기록을 중국으로 가져갔던 모양이다. 훗날 사신이 되어 중국에 갔던 김관주가 이 기록이 담긴 문헌을 이여송의 후손으로부터 건네 받았다. 임무를 마친 뒤 배를 타고 서해바다를 건너 돌아오던 중 별안간 일진광풍이 휘몰아쳤다. 배가 요동을 치자 사람들이 어찌할 바를 모르고 당황하였다. 이때 배의 선장이 용신(龍神)이 노하였으니 중국에서 가져온 보물을 모두 바다에 버리라고 하였다. 배 안의 사람들은 서로 눈치만 보다가 결국 몸애 지닌 패물들을 모두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러나 노한 바다는 점점 드세게 일 뿐 멈출 기미가 보이지 않았다. 그때 위급한 풍랑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열심히 책만 읽는 선비가 있었다. 사람들이 저 선비 때문에 바다가 노했다고 수근거리자 선비는 읽고 있던 책, 즉 금반형에 관한 기록이 담긴 책을 바다에 던져버렸다. 그러자 풍랑이 조용히 가라앉고 배는 순조로운 항해를 계속할 수 있었다. 그 배안의 선비였던 김관주는 귀국하여 관직에서 물러난 다음 머리속에 기억해 두었던 흥천면 외사리 금반형에 와서 아흔 아홉칸의 집을 짓고 살았다고 한다.

김관주(金觀柱, 1743~1806) 본관은 경주(慶州). 자는 경일(景日). 아버지는 영조의 장인인 김한구(金漢耆)의 사촌동생 김한록(金漢祿)이다. 1765년 식년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정언, 홍문관교리를 지냈다. 정조임금 시절에는 크게 쓰이지 못하다가 순조임금이 즉위하고 영조의 계비인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하자 이조참판, 이조판서, 광주유수를 거쳐 1802년 우의정이 되었다. 정순왕후는 사도세자의 죽음에 찬동하였던 벽파의 실세 김귀주(金龜柱)의 누이로 벽파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물불을 가리지 않는 인물이었다. 어린 순조를 대신해서 권력을 권 정순왕후는 친정 6촌오빠인 김관주를 요직에 앉히고 심환지, 정일환, 김달순등 벽파인사를 대거 기용하였다. 이들은 정조의 탕평을 보좌하였던 인물들을 제거하는 한편 천주교 박해를 시작하므로써 강력한 벽파정권을 수립하게 된다. 그러나 1805년 정순왕후가 죽자 벽파는 다시 몰락의 길을 걷게 되었다. 그동안 실권을 잡고 있던 김관주는 정조의 뜻을 배신한 죄와 왕비의 삼간택 방해를 방조한 죄목으로 탄핵되어 함경도 경흥으로 유배가던 도중 이원에서 죽었다. 김관주의

몰락이후 등장한 순조의 장인 김조순은 나이 어린 왕을 보좌하면서 안동 김씨 세도정치의 서막을 열게되었던 것이다.

삼사(三司)가 관작삭탈과 문외송출을 주장하면서 나열한 김관주의 죄목은 이렇하다. [...정승의 자리에 나가서 숙배하고 나서는 남의 꾀에 빠져 정일환을 사우(死友)로 일컬었으며 상부(相府)에서의 사업은 오직 공의를 배반하기만을 일삼아 심환지의 비호하는 법을 수행했습니다. 그리하여 주야로 치밀하게 계획하는 것이 인물을 해치는 것을 벗어나지 않았으며 시종 영위한 것은 모두 사당(私黨)을 수립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보다 앞서 1803년 8월 17일 이이명(李頤命), 이건명(李健命), 조태채(趙泰采)에게 부조지전(不祧之典)을 베풀게하고 정몽주(鄭夢周)의 집에 치제하고 그 자손을 녹용할 수 있도록 한 것은 오로지 우의정 김관주의 공이었음이 실록에 기록되어있다. 이를 보면 김관주가 의(義)를 아는 인물이었음을 알 수 있다. 뒤에 신원되었고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정순왕후(貞純王后)

세도(世道)란 세상을 올바르게 다스리는 도리를 뜻하는 말로서 사림정치(士林政治)에서 표방되었던 통치원리였다. 그러나 세도란 말은 정조때에 이르러 충신 또는 척신들이 제멋대로 권력을 휘두르는 세도정치(勢道政治)로 변질되고 만다. 이 세도정치의 효시는 정조의 은인으로 알려진 홍국영이었고 정조사후 어린임금 순조가 즉위하자 수렴청정을 하게되는 정순왕후에 의해 척족세도정치로 발전하였다.

정순왕후(貞純王后, 1745~1805) 영조의 계비. 경주 김씨로 오흥부원군 김한구(金漢耆)의 딸이다. 충남 서산시 음암면 유계리에 오흥부원군 김한구의 4대 조부인 학주 김홍욱의 집이 있는데 충청남도는 효종이 하사한 이 집을 도기념물 제 68호로 지정하고 정순왕후의 생가로 홍보하고 있다. 그러나 정순왕후는 충청도가 아니라 1745년 11월 10일 여주에서 태어났다. 왕실족보인 「선원보감」에 그렇게 기록되어있다. 정순왕후는 15살이 되던 1759년 6월 영조의 두 번째 왕비가 되었다. 이때 영조의 나이 66세였다.

왕비를 간택할 당시의 일화다. 간택을 위해 처녀들이 대궐 큰방에 모였다. 그 방에는 방석이 가지런히 깔려 있었고 방석에는 처녀들의 아버지 이름이 쓰여져 있었다. 다른 처녀들은 모두 자기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진 방석에 가서 앉았는데 한 처녀만은 방석 옆에 다소곳이 앉아있었다. 이를 본 노상궁이 까닭을 물었다. 그러자 “어떻게 감히 아버님의 존함이 쓰인 방석을 깔고 앉을 수가 있습니까. 자식이 아버지의 이름을 깔고 앉는다는 것은 크나 큰 불효를 저지르는 것입니다.”라고 대답했다.

한가지 이야기가 더있다. “이 집 지붕의 기와골이 몇이나 되는지 말해보라.”는 질문이 던져지자 다른 처녀들은 밖에 나가 지붕을 쳐다보며 몇개라고 대답하는데 아까 그 처녀만이 방안에 가만히 앉아 정답을 맞추었다. 비가 온 뒤라 추녀 끝에서 빗방울이 떨어져 땅이 꽤였고 그 숫자가 기와골과 일치하므로 굳이 밖에 나가 기와골을 세어보지 않아도 되었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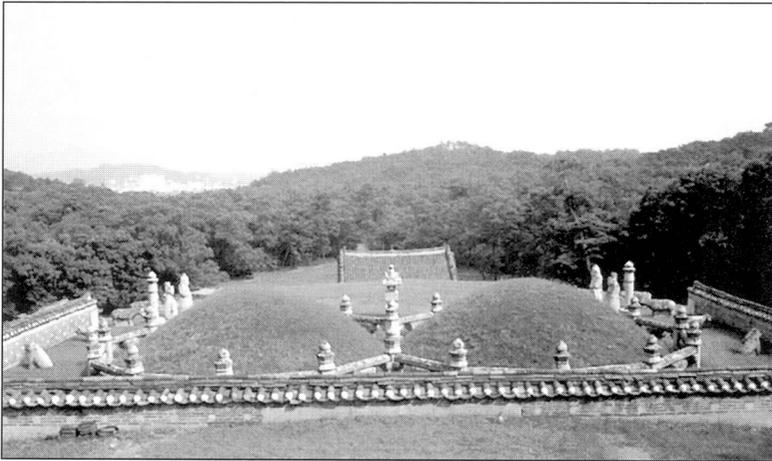
영조도 왕비간택자리에 있었던 모양이다.

영조가 물었다. “하늘아래 어느 것이 가장 깊은가.” 처녀가 대답하기를 “사람의 마음이 가장 깊습니다. 바다의 물은 알 수 있으나 사람의 마음은 알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또 임금이 물었다. “어느 꽃이 가장 좋은가.” 처녀가 대답하기를 “목화가 가장

좋습니다. 옷을 만민에게 입히기 때문입니다.”

이렇듯 영특하고 효심깊었던 처녀가 바로 정순왕후였다. 그러나 역사는 정순왕후의 말년을 실패로 규정하고 있다. 그녀가 정조시기에 이루어졌던 많은 진보적 업적들을 전면적으로 부정하고 나옴으로서 역사의 발전을 한걸음 후퇴시킨 사람이라는 것이다. 1800년 정조가 갑작스레 승하하고 11살의 순조가 왕위에 올랐다. 전례에 따라 정순왕후가 수렴청정을 시작하였으나 그녀는 자신에게 돌아온 정치권력을 친정가문과 가문이 속한 노론벽파만을 위해 쓰고 말았다. 천주교도에 대한 대규모 박해가 일어난 것도 정순왕후 때의 일이다. 당시 노론의 정적인 남인중에는 권력에서 밀려나 서학에 심취한 이가 많았는데 노론이 이를 악용해 우회적인 탄압을 가했던 것이다. 권력은 늘 그렇듯 무상했다. 4년만에 수렴청정을 거두고 1년 뒤인 1805년 정순왕후가 승하하자 정치권력은 순조의 장인인 김조순에게로 넘어갔으니 이로부터 경주 김씨를 대신하여 안동 김씨의 세도가 시작되었다.



▲ 원릉 : 영조와 정순왕후묘

정약용(丁若鏞)

수 많은 인걸들이 여주와 인연을 맺었다. 조선후기 실학의 최고봉으로 꼽히는 다산(茶山) 정약용도 예외가 아니다. 그가 20대이던 젊은 시절에 여주목사 권이강(權以綱)이 정약용과 그의 부친을 초대하여 청심루에서 잔치를 베풀었다. 아름다운 여주의 풍광에 취했을 두 부자의 모습이 정겹게 그려진다.

정약용(丁若鏞, 1762~1836) 본관은 나주(羅州). 초자는 귀농(歸農), 자는 미용(美鏞). 호는 사암(俟菴), 자하도인(紫霞道人), 철마산인(鐵馬山人), 다산(茶山)등이며 당호는 여유(與猶)이다. 아버지는 진주목사를 지낸 정재원(丁載遠)이고 어머니는 해남 윤씨로 윤두서의 손녀이다. 정약용은 4남 2녀중 4남으로 남양주시 조안면 능내리에서 태어났다. 1783년 경의진사가 되었고 1788년 대과에 갑과 2위로 급제하였다. 사간원 정원, 사헌부 지평, 경기도 암행어사, 동부승지, 황해도 곡산부사등을 역임하였다. 정조임금의 총애를 받았으나 임금이 승하하자 책룡사건(冊籠事件)으로 체포, 투옥되었다가 경상도 장기를 거쳐 전남 강진에서 18년간의 귀양살이를 했다. 정약용은 이 귀양시기에 500여권의 책을 저술함으로써 <경세유표> <목민심서> <흙흙신서>와 같은 명저서를 펴낼 바탕을 마련하여 마침내 실학사상을 집대성할 수 있었다.

부친 정재원의 묘가 충주에 있었으므로 유배지에서 고향으로 돌아온 정약용은 큰형 약현(若鉉)과 함께 배를 타고 남한강을 거슬러 성묘를 다녔다. 그 무렵의 여주풍경이 그의 시에 고스란히 남아있다.

양덕(仰德)마을은 조그마하나 완평부원군 이원익(李元翼)의 은거지여서 널리 알려졌고 구미포(龜尾浦)는 임진왜란때 수군영이 있던 곳, 그러나 강가의 노인 은 여주명장 원호(元豪)를 알지 못한다.

부래산(浮來山)이 목은(木隱) 이색(李穡)의 사당과 비스듬히 마주했고 택리지(擇里誌)에서 이르듯 백애촌(白厓村)은 사람살기 가장 적당한데 파사보(婆娑堡)의 승장 의엄(義嚴)을 기억하는 이 없으며 다만 영릉 주변 초목들과 팔대수(八大藪)가 푸르게 우거졌다.

기생을 실은 배가 떠있는 황령고을은 색채도 화려한데 우림위(羽林衛)가 게잡는 불을 설치하고 기병들이 고기잡이 배를 거느렸던 40년전 정조임금 이곳에 머물렀던 일이 역력히 생각난다.

강 서쪽 청학동(靑鶴洞)은 깊고 그윽해서 이름있고 신록사는 다시 수리한 절인데 동대의 탑이 완연히 서 있다.

강은 넓고 맑은 물은 깊지만 이미 신령한 말의 자취없으니 숨은 용이나 신음
하고 있을는지...

정약용에게 있어서 여주는 의지하고 싶은 땅이었다.

(중략)

세월시천권(歲月詩千卷) 세월은 시 천권을 남기고
풍파주일준(風波酒一樽) 풍파는 한동이 술로 풀어버리네
점능회담박(漸能懷澹泊) 차츰 담박한 삶을 동경하는데
누기역한온(屢已歷寒溫) 차고 더운 세상역경 자주 겪었네
춘만황려군(春晚黃驪郡) 저물어가는 봄날 여주 고을엔
정화기처번(汀花幾處繁) 몇군데나 물가 꽃 활짝 피었나

박종경(朴宗慶)

MBCTV 사극 드라마 '상도(商道)'가 끝이 났다. 주인공 임상옥이가 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이윤만을 추구한 것이 아니라 더불어 의(義)를 추구하는 사업철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이다. 성실함으로 주위의 도움을 불러 들였고 그를 바탕으로 일어섰으며 그리고 가진 것을 다시 베풀므로서 사람사는 바른도리가 무엇인지를 알려주는 드라마였다. 이 드라마에 사실과는 좀 다르게 임상옥을 괴롭히는 이조판서 박종경이 등장한다. 박종경은 여주와 인연이 깊은 인물이다. 그는 여주읍 가업리에 묻혀있는 순조임금의 외할아버지 박준원의 아들이며 여주목사를 지냈으며 여주사람 이술모(李術模)의 사위이자 순조때 문과에 급제한 이노병(李魯秉)의 자형(姉兄)이기도 하다.

박종경(朴宗慶, 1765~1817) 본관은 반남(潘南), 자는 여회(汝會), 호는 돈암(敦巖). 아버지는 판서 박준원(朴準源)이고 어머니는 증 이조참판 원경유(元景游)의 딸이며 누이는 순조의 생모인 수빈(綏嬪)이다. 1790년 진사시에 합격하고 음보(蔭補)로 동몽교관, 사옹원주부, 순안현령, 충훈부도사등을 역임하였다. 순조가 즉위하면서 총애를 받기 시작한 박종경은 1801년에 문과에 급제한 후 6조의 판서직을 두루 거치게 된다. 그가 조정안에서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게 되자 그에 대한 비난도 가중되었다.

1811년 흥경래가 난을 일으키면서 타도의 대상으로 그를 지목하였다.

[... 지금 나이 어린 임금이 위에 있어서 권신들의 간악한 짓은 날이 갈수록 더 심해지고 김조순, 박종경의 무리가 국가의 권력을 제멋대로 하니 어진 하늘이 재앙을 내려 겨울 번개와 지진이 일어나고 재앙별과 바람과 우박이 없는 해가 없으니 이 때문에 큰 흉년이 거듭 이르고 굶어 부황든 무리가 길에 널려 늙은이와 어린이가 구렁에 빠져서 산 사람이 거의 죽음에 다다르게 되었다. ...]- 흥경래의 격문

1812년에는 대사헌 조득영이 상소를 올렸다.

[... 외척 박종경은 요행히 지극히 가까운 친척에 의탁하여 많은 은택을 후히 입었으니 진실로 조금의 이성이라도 있다면 마땅히 백배나 겸양하고 두려워해야 할 것인데도 그는 어찌하여 심술이 바르지 못하고 수단이 더욱 교활해야 합니까? 관직에 나온지 몇해 안에 재빨리 재상의 반열에까지 이르렀지만 탐려가 본디 그의 기량이요 호화와 사치를 부려 전혀 분수를 모르고 있습니다. 전원고 장획을 팔도의 전장에 두어 산과 바다를 포괄하여 구마와 음악, 여색으로 사시

절을 즐겁게 놀며 항상 술과 가무에 빠져있습니다. 제택이 연속되어 멀리 바라다 보이니 집모퉁이에서 원망이 높고 인척들이 아첨하느라 번갈아 드나드니 요행의 문이 열려 기세를 부립니다...]

인간사가 늘 그렇듯 박종경에 대한 평가에도 명암이 교차한다. 역사는 박종경의 업적도 기록하고 있는 것이다. 그는 1813년 군사교범인 용원필비(戎垣必備)를 편찬하였다. 이 책은 각종무기를 도해하고 그 규격과 용법등을 기술한 책으로서 임진왜란이후부터 조선후기까지이 화기 발달과정을 알려주는 귀중한 자료이다. 1816년에는 개인 돈을 들여 20만자나 되는 활자를 주조하였다. 전사자(全史字)라고 불리는 한자체와 박종경체로 불리는 한글체가 그것인데 특히 한글체는 단순 간결하고 기하학적 대비가 일품이어서 훗날 흥선대원군이 운현궁으로 가져가 책을 찍어 '운현궁자(雲峴宮字)'라고 불리기도 했다. 박종경이 죽자 순조임금은 친히 제문을 지어보내고 문정(文貞)이란 시호를 내렸다.

여주의 순교자들

1784년 이승훈이 북경에서 세례를 받고 돌아오면서 조선의 천주교회는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러나 조선천주교회는 곧 정부의 박해에 직면하여 수많은 순교자를 내게 된다. 특히 신유(辛酉 1801년), 기해(己亥 1839년), 병오(丙午 1846년), 병인(丙寅 1866년) 등 이른바 4대 박해때 전국적으로 1만명 이상의 순교자가 발생하였는데 그중에 여주사람들 상당수가 들어있었다. 지금까지 밝혀진 사람들의 명단이다.

- 이중배(李中培) : 1801년 3월 15일 여주에서 순교(50세)
- 원경도(元景道) : 1801년 3월 15일 여주에서 순교(28세 이중배의 외사촌동생)
- 최창주(崔昌周) : 1801년 3월 15일 여주에서 순교(53세 원경도의 장인)
- 정종호(鄭宗浩) : 1801년 3월 15일 여주에서 순교
- 임희영(任喜永) : 1801년 3월 15일 여주에서 순교
- 이중보 : 1801년 3월 15일 여주에서 순교(27세)
- 윤유오(尹有五) : 1801년 3월 15일 여주에서 순교(윤유일의 동생)
- 윤관수 : 1801년 3월 15일 여주에서 순교(윤유오의 숙부)
- 윤운혜(尹雲惠) : 1801년 4월 2일 서울에서 순교(윤유오의 사촌동생)
- 정진철 : 1801년 4월 3일 서울에서 순교
- 정순매(鄭順每) : 1801년 5월 24일 여주에서 순교(25세 윤운혜의 올케)
- 윤점혜(尹點惠) : 1801년 5월 24일 양평에서 순교(26세 윤운혜의 언니)
- 이국승 : 1801년 충주에서 순교
- 조루까 : 1866년 수원에서 순교(50세)

<조선순교사료 참고집>에 이중배와 원경도의 체포경위가 실려있다.

“여주읍내에 사는 이중배와 그의 사촌 원경도는 이중배의 친구인 김건순(金建淳)에 의하여 입교하였으며 그의 온 가족도 천주교를 믿고 있었다. 경신년(1800) 3월에 이중배와 원경도는 같은 동네에 사는 친구 정종호의 집으로 부활축일을 지내러갔다. 정종호의 집안 역시 가족 모두가 천주교 신자였다. 정종호는 개를 잡고 술을 많이 장만하여 잔치를 벌였다. 이들은 큰소리로 ‘알렐루야’와 부활삼종경을 외우고 나서 바가지를 두드려가며 기도문을 노래하였다. 그런다음 고기와 술을 먹으며 춤추고 장구치고 호적불고 물구나무서기를 하는 등 마음껏 마시며 노니 그 흥취가 남한강 강물 위에 등등 떠다녔다. 해가 서산을 넘도록 이런 진풍경이 계속되자 신자가 아닌 이웃사람이 여주관아로 이 사실을 알렸고 곧 포

졸들이 나와 잔치에 참여한 11명을 잡아갔다. 잡혀가는 도중 원경도의 집앞을 지날 때 그의 늙은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잠시만이라도 아들을 보게해달라고 청하였으나 허락되지 않았다. 여주관아에 이르니 관장이 '너의 공범자와 너희들을 꺾 자들을 대고 천주를 배반하라.'고 말하였다. 원경도가 모든이를 대신하여 말하였다. '어떤 사람을 밀고하는 것은 엄금되어있으니 죽을지라도 저희들은 누구에게도 해를 끼칠 수 없습니다. 천주를 배반하는 일은 더구나 불가능 한 일입니다.' 관장이 화가 나서 '주리를 틀고 붉은 몽둥이로 치라.'고 명령하였다. 이들은 6개월 이상 옥에 갇혀있으면서 보름에 한번씩 관장앞에 출두하여 문초를 받고 형벌을 받았으나 소용이 없었다." 이들은 여주관아에서 남쪽으로 1리쯤 떨어진 대로변에서 참수형을 받아 순교하였다. 이곳은 지금의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 서지점 부근으로 추정되고 있다.



▲ 농협중앙회 여주군지부 서지점

박규수(朴珪壽)

박규수(朴珪壽, 1807~1877) 본관은 반남(潘南) 초명은 규학(珪鶴) 자는 환경(桓卿, 獻卿) 호는 환재(桓齋, 獻齋) 연암 박지원의 손자이며 현령을 지낸 종채(宗采)의 장남, 어머니는 유영(柳詠)의 딸이다. 1866년 7월 11일 미국상선 제네랄 셔먼호가 대동강을 거슬러 올라왔다. 당시는 대원군에 의해 천주교 탄압이 시작되고 있던 터라 이국선이나 서양인의 왕래가 금지되고 있었다. 돌아가 달라는 조선정부의 거듭된 요청을 거부하고 대동강 양각도(羊角島)에 머물러 있던 셔먼호는 마침내 조선군에 의해 불태워지게 된다. 이 전투를 지휘한 이가 평안도 관찰사로 있던 박규수였다. 비록 정부의 방침에 따라 서양인들을 물리치기는 하였으니 박규수는 개화주의자였다. 그의 개화사상은 실사구시와 외래문물의 수용을 주장했던 할아버지 연암에게서 영향을 받은 바 크다. 40세가 넘어 벼슬길에 나선 박규수는 2차례에 걸쳐 북경을 다녀왔는데 북경행에서 청나라를 압박하고 있는 서구열강의 실체를 경험한 그가 개화를 선택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귀결이라 할 수 있다.

이무렵의 박규수를 제자 김윤식은 다음과 같이 회고하고 있다. [그때 나는 선생을 옆에서 모셨다. 선생은 탄식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지금 우주내의 정형(情形)은 날로 바뀌고 동서열강이 서로 대치하여 옛날 춘추 열국시대와 같고 서로 연합하거나 정벌하는 분방함이 끊어질 않는다. 우리나라는 작지만 동양의 중추로서 정(鄭)나라가 진(晉)과 초(楚)사이에 있는 것과 같이 내치외교가 시의(時宜)를 잃지 않으면 역시 스스로를 지킬 수 있지만 그러지 못하고 우매해져 망국의 길을 걷게된들 누구를 탓하겠는가. 내가 듣건데 미국은 지구의 여러나라중에서 가장 공평하다고 일컬어지고 난리를 배제하고 분쟁을 잘 해결하며, 또 육주(六洲)에서 가장 부유하며 영토확장에 대한 욕심이 없다한다. 저쪽에서 말이 없더라도 우리가 마땅히 나서서 조약을 체결하고 맹약을 굳게하여 고립의 근심을 면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도리어 이를 물리치는 것이 어찌 나라를 도모하는 길이겠는가.”하였다.]

1874년 벼슬에서 물러난 박규수는 역관 오경석(吳慶錫), 중인 유대치(劉大致), 개화승 이동인(李東仁)등과 교류하는 한편 서울 계동 자기집 사랑방에서 훗날 갑신정변의 주역이 된 김옥균, 박영효, 홍영식, 서광범등을 가르치게 된다. 이 박규수가 글씨를 통해 여주와 한가닥 인연을 맺고 있다. 1873년 윤 6월 20일 성균관 유생 이세우등이 대원군에게 대로(大老 : 덕이 높고 학식이 풍부하여 존경할

만한 노인)의 존호를 올릴 것은 상소하여 임금의 허락을 받는다. 조선에는 대로가 둘이 있었는데 우암 송시열과 흥선대원군 이하응이었다. 하늘 아래 2개의 태양은 없는 법이라 그랬는지 흥선대원군이 대로라 불리게 되자 우암의 사당인 대로사(大老祠: 여주읍 하리 201-1)가 강한사(江漢祠)로 이름이 바뀌게 된다. 이때 박규수가 왕의 명을 받아 현판을 쓰게 되었던 것이다. 우암의 후학들은 강한사보다는 대로사란 이름이 더 좋았던 가 보다. 어느 틈엔가 사당정면에는 정조가 하사한 대로사 현판이 다시 걸려 있고 박규수가 쓴 해서체의 강한사 현판은 사당 뒷벽에 걸어놓았다. 존경받는 거유(巨儒)의 사당 현판을 마음대로 갈아치울 정도로 기세 등등하던 대원군이 같은해 11월 5일 10년 권좌에서 밀려나게 된다. 역사의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 강한사 현판

홍순목(洪淳穆)

선비란 인격의 완성을 위해 끊임없이 학문과 덕성을 키우며 대의를 위하여 목숨까지도 버릴 수 있는 지조를 가진 사람을 말한다. 사군자로 통하는 매화, 난초, 국화, 대나무에서 보듯 꺾이지 않는 절개와 고고한 기상이 이들 선비가 지향하는 바로 선비정신인데 조선왕조 오백년의 역사가 이 선비정신에 의지한 바가 크다. 요즘 드라마속에서 국난을 맞아 갈팡질팡하며 당황해하는 영의정 홍순목이 등장한다. 작가의 의도에 의해 사실과는 달리 우스꽝스럽게 그려지고 있지만 일국의 영의정을 두 번씩이나 지낸 여주인 홍순목이 그렇게 독특한 인물이 아니었기에 한마디 거든다.

홍순목(洪淳穆, 1816~1884)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희세(熙世), 호는 분계(汾溪). 승지를 지낸 홍종원의 아들이며 1884년 갑신정변의 주역인 홍영식의 아버지다. 1884년 증광별시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여 지평, 수찬을 지내고 1846년 초계문신에 뽑혔다. 헌종이 승하하자 빈전도감도청이 되고 1858년 이조참의가 되었다. 대사헌으로 있던 1863년 고종이 즉위하자 황해도 관찰사가 되었고 이후 이조판서, 예문관제학, 홍문관제학, 한성부판윤, 규장각제학 다시 이조판서, 예조판서, 우의정등을 역임한 뒤 1872년 영의정이 되었다. 이듬해 대원군을 탄핵한 최익현을 처벌하라고 주장하다 파직되었으나 한달 뒤 영돈녕부사에 복직되고 1875년 판중추부사가 되었다. 1882년 임오군란이 일어나던 해에 두 번째 영의정이 되었으나 아들 홍영식과 김옥균등이 주도한 갑신정변의 여파로 관직이 삭탈되었고 이어 자살하였다.

그가 황해도 관찰사로 있었을 때의 일이 고종실록에 나오는데 ‘황해감사 홍순목이 자기의 녹봉을 털어 성을 수축한 것은 첩으로 가상하니 특별히 품계를 올려 줄것이다.’라는 임금의 포상지시가 그것이다.

1872년 7월 아들 홍영식이 16세 나이로 대과에 급제하자 홍순목은 임금에게 아들이 관직을 맡기에는 아직 아나가 어리니 더 공부할 수 있도록 배려해 달라는 주청 끝에 2년간의 사가독서를 허락받았다.

영의정으로서 임금에게 중요한 정무를 상주할 때의 일이다. ‘신이 전번에 호남에 갔을 때 그동안 여러번 풍년이 들어 응당 관청이나 개인들에게 저축이 있고 여유가 넉넉히 있을 것이라 생각했으나 조세와 부역이 번거롭고 과중하여 다 같이 빈털털이입니다. 그러므로 조세와 군포등의 고질적 폐단을 크게 뜯어 고쳐야 할 줄로 압니다. 대체로 땅에서 나는 것이 풍부하지 않은 것이 아니지만 사

람들에게 돌아가는 것은 언제나 모자랍니다. 만일 사람들이 검박하게 생활한다면 한 톨의 쌀로도 넉넉할 것이고 만일 모두 쓴다면 산더미 같이 저축하여도 부족하다는 것은 자명한 이치입니다. 그러므로 먼저 대궐과 관청으로부터 사치를 부리는 버릇을 막고 되도록 검박한 기풍을 숭상하도록 하여 인심을 다스리고 사람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야 할 것입니다.' 하니 임금의 '진술한 말이 절실하니 마음에 새겨두겠다.'고 답하였다.

홍순목은 이런 사람이었다.

갑신정변 발발 사흘 만에 아들 홍영식이 죽자 그 영향이 가족들에게까지 미치게 되었다. 1884년 11월 1일 홍순목과 큰아들 홍만식이 관직에서 삭탈된 이날. 홍순목은 가족 20명에게 독약을 주어 자결케하고 자신은 마지막으로 자택 대들보에 목을 매고 자살하였다. 한평생 부끄러움 없이 살아왔던 그였기에 자식으로 인해 나라에 씻을 수 없는 죄를 짓게 되자 선택한 것이 이 길이었다.

홍순목과 그의 아들들은 1894년에 복권되었다. 홍순목의 시호는 문익(文翼)이다.



▲ 홍순목 불망비

최시형(崔時亨)

이 땅에 동학이 등장하던 시기는 제국주의에 의한 외압이 거세지고 왕조체제의 모순으로 인해 위기와 혼돈이 가중되던 시기였다. 또한 다양한 개혁의 시도와 이를 거부하는 보수의 물결이 교차되던 시기였으며 태동하던 민중의 거대한 힘이 제국주의적 탄압에 의해 왜곡되고 억압되던 시기이기도 했다. 동학은 바로 이런 혼란의 시기에 새로운 시대의 필연적 도래를 예언하는 ‘후천개벽론’과 만민의 평등을 주장하는 ‘시천주 사상’으로 기층민의 애환을 감싸안으면서 희망적 미래를 제시한 세계관이자 종교였다.

1864년 교조 최제우가 죽은 후 동학은 전승의 위기에 부딪혔다. 수운의 카리스마를 누군가가 계승해야 했고 그가 예언했던 후천개벽의 시대가 언제 실현될 것인가에 대해 구체적인 언급이 필요해졌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현실정치에 쏠리고 있던 동학교도들의 관심을 돌이켜 동학을 명실상부한 종교로 승화시킨 인물이 바로 우리가 오늘 만나고자하는 동학 2세 교주 해월 최시형 선생이다.

해월(海月)은 1827년 3월 21일 경주 동촌 황오리에서 태어났다. 본명은 경상(慶翔)이고 부친은 최종수이며 모친은 배씨였는데 5세때 어머니를, 12세때 아버지를 여의었다. 계모 슬하에서 어렵게 생계를 유지하던 해월은 17세때 조지소에서 일하였고 19세때 의암 손병희의 여동생과 결혼했으며 35세때 동학에 입문했다.

수운에 의해 시작되고 해월에 의해 발전된 동학사상은 ‘천지만물 막비시천주’라는 범천론적 사상이다. 사람만이 하늘님이 아니라 온 우주만물 모두가 하늘님이라는 사상이다. 어린이도 하늘님이요, 머느리도 하늘님이요, 날아가는 새와 들에 핀 한송이 꽃도 받들고 위해주어야 할 하늘님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확대 발전된 동학사상은 신분제에 의해 핍박받고 있던 모든 계층들 즉 아난층의 서얼들과 중인, 평민, 천민들의 지지를 받으며 강력한 신분 해방사상으로 기능하게 된다. 특히 머슴 출신이었던 해월은 ‘사인여천’을 유일한 화제로 삼아 사람과 사람사이의 빈부귀천과 남녀노소와 적서노주의 차별을 두지말 것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동학의 평등사상은 의암 손병희와 백범 김구의 동학입교동기에서도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당시 일반 민중들에게 커다란 영향을 끼쳤던 것으로 생각된다.

1871년 이괄제가 주도한 병란의 실패이후 동학은 경상도 북부지역으로부터 강원도 지역과 전라도 지역으로 그 중심지를 옮겼다. 이때부터 신중한 처신과 비

밀포교로 동학의 기반을 닦아온 해월은 자신이 임명한 호남의 접주 전봉준과는 달리 동학교도들이 무력사용에는 부정적 입장을 보이게 된다. 그는 각자가 철저히 수도하고 동학의 가르침에 따라 생활하면 반드시 후천개벽의 새로운 지상 천국이 실현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물론 그 역시 후천개벽의 시대는 시운에 의해 실현될 것이라고 보았다. 그는 언제나 “때를 기다리라”고 말하였고 후일 전봉준등의 봉기에 대하여는 “현기를 누설하지 말고 시운의 도래를 기다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새시대는 무조건적이고 운명적으로 오는 것이 아니고 인간의 수도와 도에 입각한 생활이 전개될 때 도래할 수 있는 조건적인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로써 동학사상은 신비주의 적이고 운수론적인 사사으로부터 윤리적인 고등종교로 발전하는 기틀을 마련하였던 것이다.

동학교도들의 움직임을 순수한 종교적 영역, 즉 교조의 신원과 동학포교의 자유획득에만 국한하던 해월도 1894년 동학혁명 1차 봉기이후 일본군의 상륙과 정부의 요구조건 불이행을 이유로 일어난 9월 2차봉기때 드디어 각 접주들에게 총동원령을 내리게 된다. 같은 해 12월 청주전투에서 참패한 후 숨어지내던 해월은 1898년 4월 강원도 원주 송골에서 체포되어 그 해 6월 2일 교수형을 당했다. 그의 나이 72세였다.

금사면 주록리 산 96-19.

해월 최시형 선생의 묘소가 있는 곳이다. 인간이 인간으로서 제대로 대접을 못받던 시절. 그러나 모두가 소중한 인간임을 깨우쳐 주기위해 고뇌했던 아름다운 사람, 해월!

그가 잠들어 있는 천덕봉 기슭은 지금 푸르름이 한창이다. 계곡의 물소리와 새소리를 들으며 가파른 길을 숨가쁘게 오르면 탁 트인 전망과 함께 잘 단장된 해월의 묘소가 나타난다. 잠시 고개숙여 그의 숭고한 뜻을 기린 후 비문에 새겨진 글을 읽고 조금 아래쪽에 위치한 부인 손씨의 묘소를 둘러 보노라면 문득 우리가 간직해야 할 또 하나의 여주정신과 만날 수 있다.

1998년 6월 2일은 해월 최시형 선생이 이 땅을 떠난 지 꼭 100년이 되는 날이다.



▲ 최시형묘

이사벨라 비숍

여주를 방문한 최초의 외국인. 좀 더 정확히 말해서 여주를 둘러보고 글을 남긴 최초의 서양인 여자. 그녀가 바로 이사벨라 비숍이다. 이사벨라 버드 비숍(Isabella Bird Bishop, 1831~1904). 영국 요크셔 지방의 보로브리지 태생. 왕립지리학회 최초의 여성회원.

요즘 세계도자기 프레엑스포 행사가 신록사 일원에서 열리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여주를 찾고 있다. 이들에게 여주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비춰지고 있는 지 100년전 이 땅을 처음 찾아왔던 이의 시각을 빌어 가늠해 보고자 한다.

「1894년 4월 19일. 첫 번째로 중요한 곳이고 왕후(명성황후)가 태어난 곳이기도 한 여주에 도착했다. 여주는 비록 적대적이지는 않았지만 떠들썩하고 불쾌했던 사람들로 기억되는 최초의 읍이었다. 군중은 더러웠고 거리는 지저분하고 쇠락해 있었다. 무엇보다도 나뻐던 것은 관아였다. 관아의 정원 안에는 국왕을 위해 훌륭하게 장식이 많이 된 누각이 있었으나 어린아이들의 놀이터가 되어 쇠락한 상태였다. 목재는 부서지고 대들보와 서까래는 내려 앉았으며 칠은 벗겨져 떨어졌고 종이는 찢어져 격자 창문에서 너덜거렸으며 때가 낀 벽에 회반죽이 매달려 있었다. 한때는 근사했을 누각도 곧 붕괴될 것 같았다. 마당에는 판석이 나뒹굴었으며 그 벌어진 틈바구니에서 개썩갓과 냉이가 자라고 있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가난과 무관심 그리고 우울함이 가득했다. 관아의 문에는 조선의 활력을 빨아 먹는 사람들로 가득했다. 군인들도 티끌 사람들이 쓰는 모자와 진한 푸른색의 조야한 면직 군복을 입고 있었으며 많은 관아의 심부름꾼들과 서생, 부정한 관리들 그리고 전령들이 급한 용무가 있는 척했었으며, 많은 작은 방들에는 더 많은 사람들이 길다란 담뱃대에다 담배를 피우며 바닥에 앉아 있었고 필기구가 그 옆에 있었다. 결코 정중하지 않았던 한 관속이 내 관자(關子: 관청의 허가서)를 관리에게 갖다 주고는 매우 거칠게 작은 방으로 안내했다. 안쪽에 있는 방에는 관리들이 몇 명의 노인들에 둘러싸여 바닥에 앉아 있었다. 나는 머리 숙여 인사를 했으나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다. 한 관속이 지방관에게 담뱃대를 주었는데 그것은 그가 혼자 불을 붙일 수 없을 정도로 길었다. 동행한 밀러씨는 그의 건강을 빌어주었으나 지방관은 대답이 없었으며 쳐다보지도 않았다. 밀러씨가 방문의 목적이 근처의 사정을 좀 알고 싶은 것이라고 설명했으나 대답은 통명스럽기만 했다. 그토록 위대한 사람이 부하 한사람에게 말하기 시작하더니 거친 말들이 튀어나왔다. 우리는 조선말로 정중하게 작별을 고했으나 대꾸도 없

었다. 나는 조선정부의 외무아문에서 받은 화려한 관자를 여기에서 단 한번 사용할 수 있었다. 그것도 주민들이 팔고 싶어하지 않는 닭 한 마리를 높은 가격으로 사는데 썼을 뿐이다.」 - 〈조선과 그 이웃나라들에서 발췌〉

지금 열리고 있는 도자기 행사는 2001년 여주, 이천, 광주에서 동시에 개최될 세계도자기 엑스포에 대비한 행사다. 행사목적은 우리가 지닌 도자기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함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상품개발에만 주력해 왔다. 그러나 이제는 여주를 찾은 이들의 시각과 기호를 고려하여 구매의욕을 자극하는 환경조성에도 힘을 기울여야 할 시점이다.

세계도자기 엑스포가 빚어내는 상황은 우리에게 결코 유리하지 않다. 행사의 중심지가 이천이고 지리적으로는 광주에 잇점이 있다. 또한 개최기간이 동일하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누려왔던 개최시기(여주 5월, 이천·광주 10월)의 차별성을 잃어버렸다. 내년 도자기 엑스포는 8월 10일부터 10월 28일까지 80일 동안 계속된다. 이때 여주를 찾아 올 국내의 관람객들에게 감동을 줄 그 무엇이 이번 프레 엑스포를 통해 함께 모색되고 창출되어야 하리라 믿는다.

이세보(李世輔)

조선시대 여주목사를 지낸 사람이 300여명에 이르지만 증친이 임명되었던 경우에는 드문데 1869년 9월부터 1871년 4월까지 여주목사로 재직하며 왕족으로서 선정을 베풀었던 이가 경평군 이세보다. 이세보(李世輔, 1832~1895) 본관은 전주(全州). 자는 좌보(左甫). 아버지는 순창(淳昌)군수를 지낸 단화(端和)이며 어머니는 해평(海平) 윤씨로 응선(應善)의 딸이다. 인조(仁祖)의 동생인 능원대군(綾原大君) 보(備)의 8대손으로 1851년 풍계군(豐溪君) 당(塘)의 후사가 되어 이름을 호(皓)로 고치고 경평군(慶平君)의 작호(爵號)를 받았다. 1853년에는 정1품인 현록대부로 승품하여 철종(哲宗)의 수라상을 감선하는 직책을 맡았다. 그러나 1860년 판중추부사 김좌근(金左根)과 영은부원군 김문근(金汶根)의 횡포를 비난하다가 오히려 그들의 탄핵을 받고 전라도 강진의 신지도(薪智島)로 귀양을 갔다. 이때 작호가 환수되어 원래 이름인 이세보로 불리다가 흥선대원군이 정권을 잡고 왕실 및 그 일족의 족보를 통합할 때 이름을 인응(寅應)으로 다시 고쳤다. 이세보가 귀양에서 풀려날 때의 극적인 상황이 이야기로 남아 전해지고 있다.” 철종 14년(1863)에 권력을 잡은 신하들이 다시 임금에게 이인응을 잡아다 국문하기를 권하고 이어서 사약을 내리도록 명하게 하여 금부도사가 이인응을 결박하여 호송하는 도중 천안(天安) 지역의 갈림길에 이르게 되었다. 그때 마침 노루 한 마리가 셋길로 넘어가거늘 이인응이 도사에게 청원하였다. ‘방금 노루 한 마리가 셋길로 넘어가는 것을 보았는데 이는 좋은 징조인 듯 하며, 이쪽으로 가는 것이 훨씬 빠를 것 같으니 이 길을 따라서 가게 해주시오.’ 도사가 그 길로 가도록 허락하였다. 한편 사약을 가지고 내려 온 금부도사는 큰길을 따라 갔었기 때문에 길이 서로 어긋나게 되었다. 그럭저럭 과천(果川)에 이르니 그렇게 늦은 시간은 아니었다. 그런데 이인응의 신병이 갑자기 발작하여 한 걸음도 떼어 놓을 수 없게 되었다. 하는 수 없이 도사가 그곳에서 하룻밤을 묵어 가도록 하였는데 그날밤 철종이 승하하고 이튿날 그를 용서하라는 왕명이 내려 마침내 사형을 모면하였다.” 그후 이세보는 한성부좌윤, 병조·형조·공조·호조참판, 여주목사, 개성유수를 거쳐 5번의 공조판서, 6번의 판의금부사, 2번의 한성판윤을 지냈다. 그가 여주목사로 오게 된 배경이 황현(黃玑)의 매천야록(梅泉野錄)에 실려있다. “경평군 이세보는 철종의 종부형제(從父兄弟)이다. 철종때에 장동(壯洞) 김씨에게 뭇게보여 거의 죽을 뻔한 위기를 몇차례 당하였다. 그는 갑자년(1864) 이후에 이름을 인응으로 개명하고 군(君)을 파하고 과거에 등제하였다.

대원군은 김병기(金炳冀)의 굴강(倔強)함을 꺼려해서 그를 제거하려 하였으나, 그의 종족들이 강성함을 두려워하여 오랫동안 은인자중하고 있었다. 이때 김병기가 여주땅으로 물러가 살게되자 이인응을 여주목사로 임명하여 갖은 곤욕을 치르게 하였다. 그러나 끝내 능히 시해하지는 못했으니 가히 장동 김씨의 세도가 얼마나 무서웠나를 알 수 있으며 이러한 까닭으로 그들을 두려워 함이 깊숙히 숨어 있었다.” 배경이야 어찌되었든 이세보는 여주목사로서 청렴한 생활과 백성들을 돕는 선정을 베풀어 1870년 고종(高宗)이 특별히 품계를 올려주기도 했다. 19세기를 대표하는 시조작가이기도 했던 이세보는 여주목사로 부임할 때 아전 유진희(柳晋熙)에게 여주에 오는 기쁨을 편지로 보냈는데 계층간의 차별의식이 엄존했던 그 당시에는 파격적인 일로서 그의 자애로운 인간성을 엿볼 수 있다. 이세보는 몸에 비하여 머리가 크고 키가 작았으며 술을 아주 좋아했다. 게다가 몸이 병약해서 여주목사 시절에는 하루에 두홉의 밥도 못먹었다. 영월루 아래 절벽에는 해서체로 힘있게 마암(馬巖)이라고 쓴 그의 글씨가 새겨져 있다. 이세보는 1895년 명성황후의 시해를 슬퍼하며 통곡하다 병을 얻어 11월 23일 죽었다. 시조 462수를 남김으로서 조선시대 최다작가로도 알려져 있다.



▲ 마암

홍계훈(洪啓薰)

1882년 6월 신식군인들에 비해 홀대를 받아오던 구식군인들이 난을 일으키니 이것이 임오군란이다. 난병들이 왕비를 표적으로 삼아 궁궐에 침범하여 대신들을 살해하며 살기등등해 있을 때 왕비를 위기에서 구해낸 이가 무예별감 홍재희다. 홍재희는 나중에 '계훈'으로 개명하는데 1895년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던 날 시위대 연대장으로 광화문에서 일본군을 저지하다 전사했다. 명성황후와 연관된 그의 삶을 들여다 보면 SBS TV 드라마 '모래시계'에서 고현정을 향한 이정재의 끊임없는 보호본능을 떠올리는 것은 지나친 상상일까. 홍계훈의 초명이 '재희'였고 이정재의 극중 이름이 '재희'였음에 초점을 맞추어도 그것은 그냥 우연일까.

홍계훈(洪啓薰, ?~1895) 본관은 남양(南陽). 초명은 재희(在羲), 자는 성남(聖南), 호는 규산(圭珊).

1882년 임오군란때 명성황후를 탈출시킨 공으로 명성황후의 환궁직후인 8월 8일 포천현감에 임명되었고 1885년 충청도 수군절도사가 되었다.

1892년 5월 동학교도들이 충청도 보은에서 척외양창의(斥倭洋倡義)를 내걸고 모였을 때 장위영정령관으로 임명되어 경군 600명을 이끌고 청주로 출동하였다. 1894년 동학혁명이 일어나자 양호초토사로 장위영군사 800명을 이끌고 출전하였다. 그해 5월 31일 전주성이 동학군에 의해 점령되자 총공세를 취하지 않고 위협적인 포격만 가함으로써 되도록 회유하여 해산시키려는 전략을 구사하였다. 6월 11일 홍계훈은 전봉준이 제시한 폐정개혁안을 받아들임으로써 이른바 전주화약이 성립되었고 동학군은 유혈싸움없이 철수 할 수 있었다.

홍계훈은 1895년 8월 20일 전사했는데 실록에는 다음과 같이 기록되어 있다. [19일 군부대신 안경수가 훈련대를 해산하자는 의사를 밀지(密旨)에 의해서 일본공사 미우라에게 가서 알렸으며 훈련대 2대대장 우범선도 같은 날 일본공사를 가서 만나보고 알렸다. 이날 날이 쌀 무렵에 전 협판 이주희가 일본사람 오카모도와 함께 공덕리에 가서 대원군을 호위해 가지고 대궐로 들어오는데 훈련대 병정들이 대궐문으로 마구 달려들고 일본군사도 따라 들어와 변이 터졌다. 시위대 연대장 홍계훈은 광화문 밖에서 살해당하고 궁내대신 이경직은 전각 뜰에서 피해를 입었다.]

홍계훈의 고마움을 잊지 않고 있던 고종은 1907년 3월 “지난 임오년에 변란이 가까이에서 일어나니 대궐에서 크게 놀라 모진 고생을 하며 피난을 가게까지 되

었다. 그런데 다행히도 당시 충성스러운 신하들이 성의를 다하여 호위하였던 덕에 나라의 형편이 처음에 위태롭다가 나중에 안정되었고 나라의 제도가 거의 없어지다가 다시 정돈되었으니 짐이 어떻게 잊을 수 있겠는가. 특별히 사의를 표시하여야 하겠으므로 죽은 충문공 민영위, 충문공 민응식, 충정공 윤태준, 충정공 윤태원, 충의공 홍계훈의 사당에 시종을 보내어 제사를 지내주도록 할 것이다.”하였다.

실록에 의하면 홍계훈은 임오군란때 명성황후를 호위하면서 화개동 윤태준의 집까지 간 것으로 되어있다. 이후 명성황후에 관한 행적은 장호원 민응식의 집으로 이어지는데 그사이에 여러 논문들은 명성황후가 여주 능현리 민영위의 집에 잠시 머물렀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고 능현리에서 대를 이어 살아온 이들의 증언도 일치하고 있다. 그렇다면 대원군과 난병들의 추적을 뿌리치면서 명성황후를 호위했던 무관은 오직 홍계훈 뿐이었으며 그가 명성황후와 함께 황후의 고향인 여주를 들렸으리라는 것은 어렵지 않은 추측이다.

을미사변때 광화문에서 전사한 홍계훈은 군부대신에 추증되었고 충의공이란 시호를 받았으며 1900년에 이경직과 함께 장충단에 제향되었다.

홍만식(洪萬植)

1884년 갑신정변이 실패한 후 정변 주역의 한사람이었던 홍영식이 청나라 군사들에게 살해되자 줄지에 역적의 가족이 된 홍순목일가 20여명이 자결했다는 이야기는 전회에서 한 바 있다. 이때 함께 독약을 마셨으나 죽지않고 용케 살아난 이가 있었으니 그가 홍영식의 형인 홍만식이다. 홍만식(洪萬植, 1842~1905) 본관은 남양(南陽). 자는 백헌(伯憲). 호는 호운(湖雲). 영의정 홍순목의 아들이며 영식의 형으로 1849년 홍순목의 큰형인 홍순경에게 양자로 들어갔다. 1866년 3월 고종이 춘당대에서 춘도기를 행하였을 때 홍만식은 제술의 부에서 1등을 하여 전시에 직접 응시할 자격을 얻었고 이어 열린 5월의 한림소시에서 급제하였다. 1868년 홍문관 교리, 1874년 평안도 청천강 이남 암행어사를 거쳐 1875년에 여주목사가 되었다. 여주목사로 재직하면서 선정을 베풀어 이조참판까지 올랐으나 갑신정변수 체포되어 복역하였다.

홍만식에게는 딸이 하나 있었다. 이 딸이 신정왕후 조씨(조대비)의 조카인 조영하의 아들 조동윤에게 시집을 갔는데 나이 12살 때 갑신정변이 일어났고 시아버지인 조영하가 난리 중에 피살당했다. 사돈지간이 원수사이로 돌변한 것이다. 매천야록에 의하면 조동윤과 홍만식의 딸인 홍씨부인은 금술이 매우 좋았으나 아버지 조영하가 피살되자 의리상 원수 집안의 딸과 배필이 될 수 없다고 하여 아내를 친정으로 돌려보냈다고 한다. 그러자 홍씨부인은 다시 머리를 풀어 땀은 후 처녀로 자처하면서 “맹세코 살아서 다시 조동윤의 처가 되겠다.”고 다짐을 하였다고 한다. 이후 소박을 맞고 친정 여주로 돌아 온 홍씨부인의 비참한 생활은 13년간이나 계속되었다.

홍순목, 홍만식, 홍영식 등은 1894년 갑오개혁으로 복권되어 역적의 오명을 벗었다. 이처럼 홍씨 집안에 대한 사회적 분위기가 호전되자 1897년 서재필은 독립신문에 조동윤이 이미 김상준의 딸을 새부인으로 맞이하였고 또한 법에는 두 명의 부인을 두지 못한다고 되어있으나 홍씨부인의 경우는 특별한 경우이므로 이 불쌍한 부인을 다시 받아주기를 정부와 조씨 집안에 탄원하는 논설을 기고하였다. 이에 조씨 가문에서는 문중회의를 열어 수절중인 홍씨부인을 다시 받아들이기로 하고 조동윤의 형인 사직서제조 조동만으로 하여금 임금에게 아뢰어 두 아내를 적처로 데리고 살게 해달라고 청을 넣게 하였다. 소청을 접수한 장례원에서는 춘추시대 주나라 조쇠와 숙종때 영의정 여성제가 법의의 양처를 허락받았다는 사실을 예로 들고 조동윤의 경우도 이에 부합한다고 아뢰자 임금이 조동윤

에게 홍씨부인을 좌부인으로 삼아도 좋다고 허락하였다.

복직된 홍만식은 춘천부 관찰사에 제수되었으나 응하지 않다가 일본인들에 의해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분함을 참지 못하여 다시 음독자결을 기도하였으나 또 실패하였다. 1904년 황해도 고나찰사로 부름을 받았으나 부임하지 않았으며 얼마후 의정부 찬정에 제수되었으나 역시 출사하지 않았다. 홍만식은 상소 때마다 직함을 쓰지 않고 다만 미사신이라고만 써서 스스로 죄인임을 자처하였다. 1905년 일본에 의해 을사조약이 강제로 체결되자 분개하여 음독 자살하였다. 임금이 이 소식을 듣고 “홍만식은 과묵한 천품과 지성스러운 뜻을 지녔는데 현 시국이 몹시 간고해진 것과 관련해 우려와 의분심으로 자살하였으니 어찌 슬픔을 금할 수 있겠는가.” 하고는 종1품 의정부 참정대신으로 추증하고 정문을 세울 것을 명하였다. 시호는 충정(忠貞)이다.

민응식(閔應植)

입 오군란이 일어나 명성황후가 긴급히 피난길에 올랐을 때 광주를 거쳐 여주, 장호원까지 목숨을 걸고 황후를 모신 이들이 있었는데 민응식도 그중의 한사람이다.

민응식(1884~1903) 본관은 여흥(驪興). 자는 성문(性文). 호는 우당(藕堂). 민한준(閔漢俊)의 아들로 나중에 민영우(閔泳愚)에게 입양되었다. 민응식은 임오군란이 진압되고 명성황후가 환궁한 직후 실시된 과거시험에 합격하여 벼슬길에 올랐다. 그의 합격에는 여러가지 파격의 요소들이 겹쳐있다. 우선 생원, 진사를 거치지 않고 유학으로 39세의 늦은 나이에 합격한 것이 그렇고, 정시와 다른 없었던 황감제를 통해 전시에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을 임금으로부터 얻은 것이 그렇다. 이후 민응식의 출세가도는 그 유례를 찾기 힘든 파격의 극치다.

1882년 11월 2일 합격자 발표가 있었고 11월 3일 홍문관 부수찬(종6품) 임명을 시작으로 같은 날 규장각 직각(종4품), 같은 해 12월 17일 승정원 우부승지(정3품), 1883년 5월 24일 군국사무참의, 7월 4일 이조참의, 12월 9일 충주목사겸 군국사무독관에 임명되었고 계속해서 이조, 병조, 예조판서등 요직을 두루 거쳤다. 이같은 벼락출세의 배경에 명성황후가 있었음은 두말할 나위가 없다. <개벽>이 폐간된 후 뒤를 이어 발간이 시작된 <별건곤> 제 63호(1993년 5월 1일)에 민응식에 관한 흥미로운 글이 실려있어 소개한다.

[민응식이 시골성장인 만큼 문학의 소양이 없고, 또 성격이 난봉 비슷한 점이 있어, 소년에 그 삼촌 민영위의 눈에 아주 들지 못하여 과거도 민병석의 당숙이 되면서 민병석 보다 나중에 하였다. 민영위가 시골집에 살 때 김좌근이 대신으로 성묘하러 여주로 왔다가 민영위를 심방하였는데 민영위는 자기 조카인 민응식을 불러 보였더니 그 수작 행동이 양반의 행세에 맞지 않아 시골자식이라 할 수 없다는 꾸지람을 그 삼촌에게 듣고 그때부터 눈밖에 나서 민영위가 보국까지 하였으되 그 조카는 재량 참봉하나 안시키고 그대로 끝렸다. 민응식은 낙척불우하여 충주, 죽산 등지로 돌아다니며 막걸리 신세만 지었고 그 삼촌 민영위가 명안감사 때에 다니러 갔다가 여간 박대를 받지 않았다. 이런 고생 저런 고생 끝에 명성황후 덕분에 세마가 되었다. 세마한 지 몇 달 안되어 임오군란이 일어났다. 그때 서울서 오래 벼슬하던 민씨는 군총의 눈에 익어 닥치면 해버리는 판이라 죽은 이외에도 쥐구멍을 찾고 도망하는 판인데 민응식은 무명씨였고 또 생소한 까닭으로 화를 면하였다. 명성황후가 도망하는 바람에 민응식이 앞잡이를

서서 장호원 자기 시골집으로 호종하여 여러 달 지성으로 섬기고 명성황후의 등창을 입으로 빨아 치료하였다. 그러자 명성황후가 도로 비위(妃位)로 복위하여 민응식은 호종공신에 첫 자리를 차지하여 그 해 바로 과거하고 한 몫을 보기 시작하였다. ... 갑오, 을미 이후로 여주로 내려가서 서울 일을 상관하지 않고 술만 먹다가 세상을 버렸다.]

민응식에 대한 세평은 이처럼 별 볼일 없었어도 고종임금이 그에게 쏟은 정성은 각별한 바가 있었다.

1903년 3월 22일 민응식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고종은 “이 중신(重臣)은 무던한 풍채와 깊은 도량을 가지고 처신을 신중하게 하면서 말보다 실천을 잘하였다. 지난 해(임오군란 때)에 시종일관하게 호위한 일을 통해서 그의 지극한 성의와 충성심을 볼 수 있었다만 아직 한껏 써보지도 못했는데 갑자기 왜 그렇게 되었는가. 얼마나 가슴아픈 일인가. 참으로 한스럽고 애석하다.”하였다. 민응식의 시호는 충문(忠文)이다.

명성황후(明成皇后)

명성황후는 1851년 9월 25일(양력 11월 17일) 여주읍 능현리에서 태어났다. 아버지는 민치록(閔致祿: 추증 여성부원군)이고 어머니는 한산 이씨(韓山李氏: 한창부부인)이다. 무남독녀였던 명성황후는 어려서부터 무척 영리하고 독서를 좋아하였다. 1858년 9월 서울 안국동 감고당(感古堂)에서 민치록이 사망하였으므로 이 시기를 전후하여 명성황후는 여주를 떠난 것으로 추측된다. 1866년 3월 인척간이었던 흥선대원군의 부인 민씨의 추천으로 왕비가 되었다. 1873년 11월 시아버지인 흥선대원군이 실각하고 고종이 친정을 시작하자 명성황후는 국왕을 도와 정치전면에 나서게 되었다. 명성황후는 국가의 문호를 개방하고 선진 문물을 받아들여 침체된 조선을 부강한 국가로 만들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이를위해 신사유람단, 영선사, 보빙사 등을 해외에 파견하여 우수한 선진산업을 보고 배우게 하였다. 그러나 임오군란, 갑신정변과 같은 내부혼란과 주변국가의 비협조로 명성황후가 꿈꾸었던 강력한 왕권통치국가의 건설은 여의치 못했다. 1894년 갑오농민전쟁이 일어났고 이것이 청일전쟁으로 비화했다. 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청나라를 대신해서 조선의 내정을 간섭하였다. 이에 반발한 명성황후가 러시아세력을 통해 일본을 견제하려하자 일본은 1895년 10월 8일 새벽, 경복궁에 무단 침입하여 명성황후를 시해했다. 1897년 3월 명지(明智)와 성덕(成德)에서 따온 명성(明成)이란 시호가 정해졌으며 1897년 10월 국호가 대한제국으로 바뀌고 고종이 황제에 즉위하면서 명성황후로 호칭되었다. 이해 11월 21일 일본의 방해로 미루어왔던 명성황후의 국장(國葬)이 거행되었다. 고종황제와 명성황후는 남양주에 있는 홍릉(洪陵)에 묻혀있다.



▲ 홍릉

명성황후 연표

- 1851년 (철종2) 9월 25일 (양력 11월 17일) 탄생 (경기도 여주군 여주읍 능현리 250-2)
- 1859년 (철종10) 9월 17일 아버지 민치록(여성부원군) 사망 (서울 안국동 감고당)
- 1863년 (고종즉위) 12월 13일 고종즉위 (26대)
- 1865년 (고종2) 5월 9일 대원군을 국태공에 보함
- 1866년 (고종3) 2월 25일 초간택
- 2월 29일 재간택
- 3월 6일 왕비간택
- 3월 9일 납채례(納采禮)
- 3월 11일 납징례(納徵禮)
- 3월 17일 고기례(告期禮)
- 3월 20일 책비례(冊妃禮)
- 3월 21일 친영례(親迎禮), 동뢰연(同牢宴)
- 3월 22일 조현례(朝見禮)
- 12월 30일 전국호구조사(1,582,995호. 남자 3,395,918명. 여자 3,355,776명)
- 1871년 (고종8) 4월 25일 전국에 척화비 설립
- 10월 7일 산실청 설치
- 11월 4일 원자 출산(11월 8일 사망)
- 1873년 (고종10) 1월 1일 산실청 설치
- 2월 13일 공주 출산(9월 28일 사망)
- 11월 5일 국왕 친정선포(대원군 실각)
- 1874년 (고종11) 1월 3일 산실청 설치
- 2월 8일 대군 출산(순종)
- 11월 28일 민승호부자 폭사
- 11월 30일 어머니 한산 이씨(한창부부인) 사망
- 1875년 (고종12) 2월 18일 세자 책봉
- 3월 3일 산실청 설치지시
- 4월 5일 대군 출산(4월 18일 사망)
- 1876년 (고종13) 2월 2일 조일수호통상조규 조인(조선 개국)
- 11월 27일 민치록에게 시호를 내림. 순간(純簡)
- 1881년 (고종18) 4월 10일 신사유람단 파견 (일본)
- 8월 29일 이재선(대원군 서자) 추대음모 적발
- 9월 26일 영선사 파견 (청나라)

- 1882년 (고종19) 1월 20일 왕세자 관례
 2월 19일 왕세자 혼례 (세자빈 민태호의 딸)
 4월 6일 조미수호통상조약 조인
 4월 21일 조영수호통상조약 조인
 6월 5일 임오군란
 6월 10일 왕비사망 발표
 6월 12일 소림
 6월 14일 대렴
 6월 18일 성북례
 6월 27일 능호를 '회릉'이라 정함
 7월 13일 청나라 오장경, 대원군 납치
 7월 25일 왕비의 장례도감 철폐
 8월 1일 왕비 환궁
 8월 5일 칙화비 철거
 8월 17일 대원군, 청나라 보정부에 유폐
- 1883년 (고종20) 1월 27일 태극기를 국기로 제정
 10월 1일 한성순보(최초의 근대신문) 발간
 10월 27일 조독수호통상조약 조인
- 1884년 (고종21) 윤5월 4일 조이수호통상조약 조인
 윤5월 15일 조로수호통상조약 조인
 6월 22일 개신교 포교허용
 10월 17일 갑신정변
- 1885년 (고종22) 3월 1일 영국함대, 거문도 불법점령
 8월 27일 대원군 귀국
- 1886년 (고종23) 1월 2일 노비세습제 폐지
 5월 3일 한불수호통상조약 조인
 10월 22일 왕비, 이화학당 교명하사
- 1888년 (고종25) 3월 미국인 여의사 홀튼, 왕비의 전속의로 취임
- 1889년 (고종26) 11월 29일 왕비가 40세되는 것을 종묘에 고하도록 함
- 1890년 (고종27) 4월 17일 대왕대비 조씨 사망
- 1894년 (고종31) 1월 10일 동학혁명
 6월 21일 일본군, 경북궁침입(갑오변란)
 6월 23일 청일전쟁
 6월 25일 갑오경장
 12월 17일 왕실존칭 변경(주상전하 → 대군주폐하, 왕비전하 →

왕후폐하)

- 1895년 (고종32) 윤5월 14일 국왕·왕비 암살음모 발각
8월 20일 (양력 10월 8일) 명성황후시해 (을미사변)
8월 22일 왕비 폐서인조치 발표
8월 23일 왕비의 빈호를 복위
9월 2일 왕비시해사건 관련 일본인 30여명 퇴환명령
10월 12일 춘생문 사건
10월 15일 왕비사망 발표
10월 17일 소림
10월 19일 대림
10월 22일 성복례. 시호 순경(純敬), 전호 덕성(德成), 능호 숙릉(肅陵)
11월 14일 왕비시해 관련자 교살형 선고
11월 15일 단발령
- 1896년 (고종33) 1월 1일 양력 사용 (음력 1895. 11. 17)
2월 11일 아관파천
3월 10일 국장, 빈전혼전, 산릉도감의 공역중지(1차 국장연기)
3월 백범 김구. 왕비시해 보복으로 일본육군중위 살해
- 1897년 (고종34) 1월 3일 산릉을 청량리로 정함
1월 6일 시호 문성(文成), 능호 홍릉(洪陵), 전호 경효(景孝)
2월 20일 국왕, 경운궁으로 환어
3월 2일 시호 명성(明成)으로 다시 정함
3월 20일 난간석 안에서 유해발견 (2차 국장연기)
5월 20일 인산일정 재조정 지시 (3차 국장연기)
8월 23일 인산일정 재조정 지시 (4차 국장연기)
9월 24일 인산일정 재조정 지시 (5차 국장연기)
10월 11일 국호를 대한제국으로 결정
10월 12일 황제 즉위식 (왕후 → 황후, 왕태자 → 황태자로 개칭)
11월 21일 명성황후 국장거행

명성황후를 기리며

준암 조성문

하늘의 맑은 기운이 모여
감로(甘露)로 내리던 날
용마의 땅에
님께서 오셨습니다
온화하고 공손하신 바탕 위에
학문이 깊고도 가득차서
넉넉히
왕도(王道)가 머물만 하였으니
님으로 인해
기강이 바로서고
비로소 국풍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어둠 속에서
빛은 더욱 환한 법
갑술(甲戌), 임오(任午), 갑신(甲申), 갑오(甲午)의
험난한 때에도
고결하신 덕은 오히려 높았습니다
사교(四敎)의 준수를 한결같이 하시고
금슬이 종고(鐘鼓)를 이루시어
다시금 치국의 큰 뜻이 도타워지려던 때
님은
불의의 칼날아래
홀연히 스러지셨습니다.

1895년 10월 8일 새벽의 옥호루(玉壺樓)
가슴을 찌르듯
살이 썰리듯
애통한 마음은 여전합니다
우둔하고 미욱하여
님을 위한 바른 길을 찾지 못하고
다만 하늘을 향해 그 답을 물을 뿐입니다
다행히 천지의 운행이 강건해서
님을 기리는 마음들이
산과 바다를 이루어 돌아오니
가납(嘉納)해 주십시오.

새천년
희망의 시대입니다
님께서 미처 펴지지 못한
그 세상을 향해
저희가 지금 가오니
명지(明智)로 임하시고
성덕(成德)으로 이끄시고
천세(千世) 만세(萬世) 유구하십시오
님이시여!
님이시여!
명성황후님이시여!

2000년 12월

홍영식(洪英植)

우리나라에 처음으로 근대화된 우편제도를 도입한 이는 홍영식이다. 홍영식은 1855년(철종6년) 12월 29일 서울에서 출생하였다. 영의정 홍순목의 둘째 아들로 자는 중육(仲育)이요, 호는 금석(琴石)이다.

홍영식은 1873년(고종10년) 5월 22일 18세의 나이로 식년과 별시에서 문과에 병과로 급제하였다. 1873년은 대원군이 10년 권좌에서 물러나던 해다. 이 무렵부터 홍영식은 개화사상에 심취하게 되는데 그의 스승으로는 연암 박지원의 손자 박규수, 31운동당시 33인중의 한사람인 오세창의 부친 오경석, 그리고 오경석의 친구 유대치등이 있었고 함께 어울리던 청년들로는 박영교, 김옥균, 서광범등이 있었다.

1876년(고종13년) 2월 26일 한일수호통상조규가 조인됨으로서 타의에 의한 개국의 길로 들어선 조선정부는 개화파 인사들과 함께 재야 유생층의 반발을 억누르면서 통리기무아문 설치, 별기군 창설등 본격적인 개혁정책을 추진하게 된다. 그 정책의 일환으로 홍영식은 1881년(고종18년)5월 7일 신사유람단의 일행이 되어 명치유신을 통해 근대국가로 면모를 일신한 일본을 3개월 동안 돌아보았고 1882년 9월 16일 수신사로서 다시 일본을 방문하여 근대적 문물의 시찰은 물론 일본 정계의 조야인물들과 광범위한 접촉을 가지게 되었다. 1883년 7월 8일에는 보병사의 일원으로 미국을 방문해서 20대 대통령인 아더와 만나기도 하였다. 이처럼 개화된 일본과 미국을 돌아보면서 그 위력을 실감한 홍영식은 서둘러 신문명의 국내 도입을 역설하였다. 대중적 교육제도 실시와 우편제도의 개혁등이 그것이다.

그러나 임오군란 이후 청국의 간섭이 심해지면서 보수파가 득세하게 되자 홍영식을 비롯한 개화파들은 급진적인 방법에 의한 개혁을 모색하게 된다. 1884년(고종21년) 12월 4일 우정국 총판이 된 홍영식은 우정국 낙성식 축하연을 이용하여 정변을 일으키니 이것이 갑신정변이다. 3일 천하로 정변이 막을 내리던 날 고종의 마음을 돌리기 위해 북관묘까지 임금을 따라갔던 홍영식과 박영교(박영효의 형)는 청병에 의해 피살되고 만다. 아까운 나이 30세였다.

황현은 매천야록에서 정변직후의 일을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 ‘영식의 아버지 홍순목이 탄식하면서 말하기를 “늙은 신하가 역적 아들을 길러 세상에 죄를 얻었으니 만번 죽은들 어찌 속죄하랴.” 하였다. 영식에게 아들 하나가 있었는데 아직 열 살도 못되었다. 순목이 말하기를 “이 씨를 어찌 남겨 둘 수 있으랴.” 하면

서 독약을 먹여 죽였다. 대궐을 향해 머리를 숙이고 자기도 약사발을 끌어다 마시고 죽었다. 영식의 아내 한씨도 또한 자살을 했는데 영식의 형인 만식이 시켰다.’

흐르는 세월 속에선 사람도 흘러가고 그가 남긴 흔적들도 변화하기 마련인가 보다. 홍영식이 만든 우정국은 그 명칭이 체신부로 되었다가 다시 정보 통신부로 바뀌었고 여주에서만도 하루 평균 발송되는 우편량이 1만여통에 가깝다하니 격세지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시대를 앞서 새로움에 눈을 뜬 사람.

못난 조국의 현실에 가슴 아파하던 그 청년이 지금 흥천면 문장 2리 산 82번지 야트막한 산위에서 잠들어 있다.

홍영식이 일본을 둘러보면서 새로운 문명의 힘을 국내로 도입하기 위해 노심초사했던 때가 바로 117년 전 6월이다.



▲ 홍영식묘

민용호(閔龍鎬)

조 선말기 전국 각처에서 일어난 의병은 일본침략에 대한 민족적 저항운동의 발로였다. 이무렵의 의병활동은 크게 전기(1894년~1896년), 중기(1904년~1907년 7월), 후기(1907년 8월~1909년 10월)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전기 의병장으로서 여주와 관련된 최초의 인물이 민용호다.

민용호(閔龍鎬, 1869~1922) 본관은 여흥, 일명 진호(晋鎬), 구호(毬鎬). 호는 복재(復齋)다. 민정중의 후예로 명성황후와는 인척간이 된다. 1895년 10월 8일 을미사변으로 명성황후가 시해되자 민용호는 여주에서 송형순(宋炯淳)등과 함께 거의(擧義)하였다. 의병을 일으키면서 민용호는 경기도 지역의 여러 의병진과의 합동작전보다는 산악지방인 관동방면으로 진출할 생각을 갖고 있었다. 이는 무기 및 훈련이 부족한 의병세력으로 일본군과 전투를 벌이려면 평지보다 산악이 지형적으로 유리했기 때문이다. 1895년 12월 3일 원주 신림을 거쳐 영월, 평창, 정선에서 의병을 모집한 민용호는 12월 16일 강릉으로 들어가 관동창의도병소를 설치하고 관동지방을 장악하였다. 이 당시 민용호의 심정을 짐작케 하는 포고문이 관동창의록에 실려있다.

[오늘 병사를 일으키려는 것은 또한 자위하려는 것이 아니고 국모의 원수를 갚으려는 것이다. 대개 어머니의 원수를 갚기위해 아버지의 군사를 부리는 것은 떳떳한 이치이며 대의이다. 만약에 아들이 어머니의 원수가 있으면 아버지의 명을 기다린 후 복수한다고 한다면 이것이 어찌 아들이 어머니의 원수를 갚는 것이겠는가? 지아비도 지어미의 원수를 갚는 것이다. 이것이 내가 재주와 능력을 헤아리지 않고 시세를 살피지 않은 까닭이다. 호연히 결속하여 동지와 더불어 약속하고 마음으로 복수를 맹세할 따름이며 삼가 여기에 게시한다.]

강릉의 토착세력의 지지를 모으고 의병의 전력을 향상시키면서 강릉에 머물고 있던 민용호는 조령, 죽령의 두 요지를 점령하여 여주, 충주의진(義陣)과 합세하고, 안동·상주일대의 의병을 모아 낙동연로의 일군을 방어하면서 호남의병을 고무하겠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었다. 이에 반해 군사(軍師) 박동희는 먼저 원산을 점령하고 서북으로 진출, 그곳에서 군사를 모은 뒤 청나라와 연합하자고 주장했다. 민용호는 협소한 원산에서 패배를 당할 경우 지속적으로 의병항전을 펴기가 어렵다는 이유로 반대하였으나 결국 박동희의 주장에 따라 원산공략에 나섰다. 1896년 3월 2일, 북진의 장도에 오른 강릉의병의 수는 2,380여명이었다. 3월 17일 원산으로부터 7, 80여리 떨어진 신평에 도착한 강릉의병은 뜻하지 않게 몰

아닥치는 풍설을 만나 전진을 못하고 있던 중, 19일 원산에서 파견된 일본군의 기습을 받고 백병전까지 벌이는 사투 끝에 패퇴하고 말았다. 이 전투에서 군사 박동의를 잃고 어쩔 수 없이 강릉으로 되돌아 온 민용호에게 조정으로부터 뜻밖의 소식이 전해진다. 고종의 아관파천이후 친일세력이 몰락하였으니 의병을 해산하라는 임금의 칙유(勅諭)가 내려졌던 것이다. 이에 민용호는 일본세력을 완전히 물리치지 못한 상황에서 물러난다면 더 큰 화를 자초할 것이라며 의병항전을 계속할 것임을 천명하였다. 그러나 처음 의도와는 달리 의병전쟁은 의병과 일본군과의 전투가 아닌 의병과 관군과의 대립으로 변질되어갔다. 이렇듯 의병 봉기의 명분을 잃게된 민용호의 강릉의병은 여름장마로 인해 주무기인 화승총이 무용지물이 되자 급격히 무너지게 되었다. 이즈음 강릉의병과 쌍벽을 이루어 오던 유인석(柳麟錫)의 제천의병이 관군에 밀려 서북행을 단행하고 있었다. 이에 고립의 위협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 민용호의 강릉의병도 서둘러 북상길에 올랐다. 이들은 추격해 오는 관군과 소규모 전투를 벌여가며 장진 - 청산령 - 삼수를 지나 압록강을 건넜다. 여기서 민용호는 휘하의 의병들을 이양희에게 맡겨놓은채 청나라의 원조를 기대하자며 심양(瀋陽)으로 들어가니 10여개월에 걸친 민용호의 의병항전도 사실상 종말을 고하고야 말았다.

27세의 청년의병장 민용호의 강릉의병은 비록 큰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해산되었으나 그들의 애국적 반일 활동은 국민들에게 침략에 저항할 수 있는 용기를 불어넣음으로서 중기의병전쟁의 촉발을 가능하게 했다고 역사는 평가하고 있다.

염계달(廉季達)

판소리라 하면 소리꾼이 고수의 북장단에 맞추어 장편의 서사적인 이야기를 판소리(창)와 아니리(말)에다 발림(너름새, 몸짓)을 곁들여 구연하는 창악적 구비(口碑) 서사시를 일컫는다. 판소리는 본래 춘향가, 심청가, 박타령(홍보가), 토끼타령(수궁가), 화룡도(적벽가), 배비장전, 응고집전, 변강쇠타령, 장끼타령, 무숙이타령, 가짜신선타령, 강릉매화전등 12마당으로 구성되어 있었는데 19세기 후반을 전후하여 양반들의 감성이나 미의식에 적합하지 않았던 7마당이 탈락되고 오늘날에는 춘향가, 심청가, 홍보가, 수궁가, 적벽가의 다섯마당만 전해지고 있다. 판소리 유파는 동편제(東便制)와 서편제(西便制) 그리고 중고제(中高制)로 나뉘어진다. 송흥록을 시조로 삼아 섬진강 동쪽 남원, 순창, 구례, 곡성등지에서 발전한 것이 동편제요, 박유전을 시조로 삼아 섬진강 남쪽 광주, 나주, 화순, 보성등지에서 발전한 것이 서편제이다. 이와는 달리 염계달과 김성옥을 시조로 삼아 경기, 충청도에서 발전된 것이 중고제다. 이 판소리 중고제의 시조인 염계달이 여주사람이다.

염계달(廉季達 ;생몰년 미상) 순조, 헌종, 철종 연간에 활약했던 전기 8명창중의 한사람이다. 여주에서 태어나 충주에서 살았으며 모흥갑(牟興甲), 송흥록(宋興祿)과 동년배이다.

그가 소리공부를 시작하던 시절의 일화를 소개한다.

[염계달은 어려서부터 소리에 남다른 재질을 타고 났지만 집안이 가난하여 18세가 되어서야 자신의 평생 소원인 소리공부를 위해 부모님의 승낙을 얻어 벽절(신록사)로 갔다. 가는 도주에 길에서 (장끼전) 이야기 책 한권을 줍게 되는데 '이는 하늘이 나를 도우심이라' 며 몹시 기뻐했다고 한다. 뒷날 염계달은 이때 주운 (장끼전)을 판소리로 창작하여 명성을 얻게되었고 특히 헌종의 총애를 입어 동지(同知)벼슬을 제수받고 어전광대가 된다. 10년 소리공부를 작정하고 벽절에 도착한 염계달은 주지승에게 절에서 머슴 일을 하는 대신 식사와 잠잘곳만 마련해 달라고 사정하였고 마침내 허락을 얻어 경내 청소와 나무, 설거지등을 해주면서 나머지 시간은 절 뒤편의 동굴방에서 소리공부에 열중했다. 밤에 소리를 연습할 때면 졸음을 쫓기 위해 상투에 끈을 연결해 천장에 매달아서 잠을 깨우며 공부에 열중하였다. 이런 정진 끝에 (춘향가)와 (홍보가)의 연마는 물론 (장끼전)을 만드는데 심혈을 기울여 마침내 득음을 이루었다. 그런데 절에 들어 갈 때 가진것이라고는 옷 한 벌 밖에 없었던 염계달은 해가 거듭됨에 따라

옷이 해져 누덕누덕 기운 누더기 옷이 되었다. 공부를 마친 염계달이 세상밖으로 나가고자 하였으나 입고 나설 옷이 없어 고민하던 어느 날 법당에 거물급 손님이 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혹시 옷이라도 한 벌 얻어 입을까하여 그곳을 기웃거리다가 키다리 스님에게 거지꼴로 어디를 기웃거리나며 썩 꺼지라는 호통을 받았다. 모멸감과 비애감에 젖어 자기 방으로 돌아온 염계달은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홍보가)중에서 가난타령을 불렀는데 그 처절하고 슬픈 소리가 절 구석 구석까지 울려 퍼져 불공을 마친 부인의 귀에까지 들리게 되었다. 그부인은 충주 부사의 수청기생 ‘보영’이었는데 염계달의 딱한 사정을 듣고 옷과 돈 20냥을 내놓았으며 며칠후 충주감영에서 소리를 할 수 있도록 주선까지 해주었다. 거기서 염계달은 (장끼전)을 불렀고 이후 세상에 널리 명성을 얻게 되었다.]

판소리는 우조(羽調), 평조(平調), 계면조(界面調)외에 경드름, 설령제, 추천목 등의 선율구조로 구분되는데 염계달은 경드름과 추천목의 창시자이기도 하다. 경드름은 경조(京調)라기도 하며 주로 서울사람이나 왈자(건달)들의 행동을 묘사하는 대목에 사용된다. (춘향가)중 ‘이몽룡이 춘향을 달래는 대목’이나 ‘남원골 한량들이 변사또를 욕하는 대목’이 경드름에 해당된다. 추천목은 반경드름이라고도 하며 (춘향가)중 ‘잡은 사랑가’, (수궁가)중 ‘세상으로 살아나온 토끼가 자라를 욕하는 대목’ 등이 여기에 해당된다. 특히 수궁가에서 토끼가 별주부에게 욕하는 대목에서는 ‘경기도 여주 염계달 경조로 해보던 것이었다.’를 반드시 붙인다고 한다.

설을 맞아 효도, 사랑, 충절, 공경, 지혜, 용기, 우애등의 소중한 덕목들이 담겨 있는 판소리 한 대목을 들어보는 것도 뜻이 있을 듯 싶다.

나혜석(羅蕙錫)

1879년 노르웨이 작가 입센의 희곡 <인형의 집>에서 노라의 가출이 유럽의 여권의식에 각성을 촉발시켰다면 우리나라 여권운동은 나혜석의 결혼과 이혼으로부터 시작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당시 ‘여자도 인간이외다.’라고 한 그녀의 외침은 남성우위 사회에 대한 폭탄적 선언이었다. 한국 최초의 여류 서양화가, 최초의 여성운동가 정월 나혜석. 그녀는 19세이던 1915년 여주공립보통학교(지금의 여주초등학교)에서 1년간 교원으로 근무했다.

나혜석(羅蕙錫, 1896~1948) 본관은 나주(羅州), 호는 정월(晶月). 한말에 용인과 시흥군수를 지낸 나기정(羅基貞)의 5남매중 둘째딸로 수원에서 태어났다. 1913년 서울의 진명여학교를 졸업하고 신미술인 양화를 전공하기 위하여 도쿄의 사립여자미술학교로 유학을 떠났다. 일본에서 오빠 친구인 게이오 대학생 최승구를 만나 사랑에 빠져있었던 나혜석은 1915년 잠시 귀국했다가 다른 사람과 결혼하라는 아버지의 강요에 못이겨 휴학을 하게된다. 아버지에게 반발하여 집을 나온 나혜석은 여주에서 교사생활을 하면서 모은 돈으로 다시 복학을 하였다. 그러나 1916년 첫사랑 최승구가 폐결핵으로 죽게 되는데 만일 최승구와 사별하지 않았더라면 그녀의 말년이 그토록 비참하지 않을 수도 있었다고 훗날의 나혜석은 술회하고 있다. 1918년 미술학교를 졸업하고 일본에서 귀국한 나혜석은 이듬해 이화학당 지하실에서 비밀회합을 가지며 3.1운동에 여학생 참가를 계획하다 체포되어 5개월 간의 옥고를 치렀다. 1920년 첫부인과 사별한 김우영과 정동교회에서 결혼했다. 이날 나혜석은 동아일보에 우리나라 최초의 결혼청첩장을 내었다. 결혼 직후 신혼여행대신 남편과 함께 전남 고흥에 있는 첫사랑 최승구의 묘에 비석을 세우니 나혜석의 자유분방한 기질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나혜석은 경성일보사 후원으로 서울에서 첫 개인전을 연 화가였으며 1922년 제 1회 조선미술전람회 입선을 시작으로 10여년간 매회 특선과 입선을 한 저력 있는 작가였다. 또한 나혜석은 신문, 잡지등에 여권신장과 자유연애에 관한 글들을 줄기차게 발표한 문인이기도 했다. 1927년 남편과 함께 구미여행길에 오른 나혜석은 법률공부를 하겠다는 남편을 베를린에 남겨두고 자신의 그림공부를 위해 파리에 머물던 중 3.1운동 당시 민족대표 33인중의 한사람이었던 천도교 지도자 최린을 만나 잠시 열애에 빠졌다. 이 일이 사단이 되어 1930년 남편 김우영과 이혼을 하게 된다. 네 아이의 어머니였던 나혜석은 홀로서기를 위해 미술과 문학에 더욱 몰두하면서 1934년 정조의 책임을 여자에게만 지우는 사회적 인습과

몰이해를 통렬히 비판하는 '이혼고백서'를 발표하는 한편 1935년 변호사 소완규를 통해 최린에게 정조유린에 대한 위자료 청구소송을 제기한다. 조선중앙일보와 동아일보에 보도되어 세인의 주목을 받았던 이 사건은 소송취하의 조건으로 최린에게서 수천원의 돈을 받으며로서 일단락 되었으나 이후 나혜석에게 쏟아진 비난의 화살들은 나혜석으로 하여금 견딜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 주었다. 1948년 정신이상과 신체 마비증세로 양로원과 사찰을 전전하던 나혜석은 서울 시립남부병원 무연고자 병실에서 쓸쓸히 세상을 떠났다. 무덤조차 남기지 못했기에 안주할 곳을 찾기위해 구천 어딘가를 떠돌고 있을 그녀의 영혼은 매일신보에 실렸던 자작시의 마지막 구절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으려는지.

노라를 놓아라
 최후로 순수하게 엄밀히 막아 논 장벽에서
 견고히 닫혔던 문을 열고
 노라를 놓아주게



▲ 나혜석



▲ 자화상

황월선전(黃月仙傳)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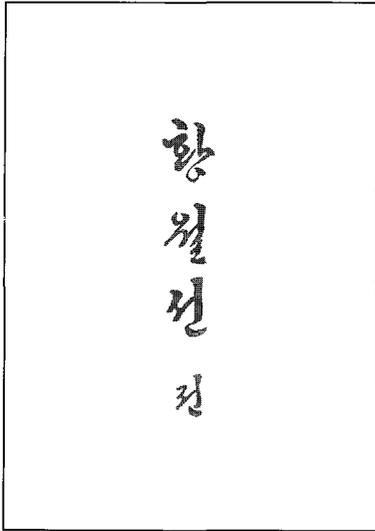
여주는 사람이 살만한 곳이라 하여 예로부터 품격을 갖춘 시인 묵객들이 시를 읊고 풍류를 즐겨왔다. 그런 이유로 여주는 우수한 문학작품속에 자주 등장하게 되는데 <황월선전>도 그 가운데 하나다. <황월선전>은 조선시대 고전 소설로 작자와 연대가 미상인 작품이다. 한글 활자본과 필사본이 전해지며 활자본으로는 1928년에 간행된 덕흥서림(德興書林)판이 있고 필사본은 성암문고(誠庵文庫)본이 있다. <황월선전>의 배경은 여주 문촌이다. 각종 문헌에 전라도 문촌이라 기재되어 있으나 1991년 시흥시 향토사료실이 입수한 청주 한씨 문중 소장본에 따르면 '각설 조선국 경기도 여주 문촌'이라 되어있어 전라도 운운은 잘못된 듯 싶다. <황월선전>은 장화홍련전과 비슷한 점이 있는 계모형 가정소설이다.

잠시 그 작품내용을 감상해 보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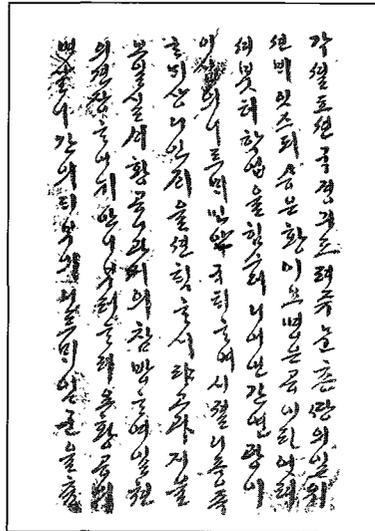
「간신의 참소를 받아 벼슬에서 물러난 황공(黃功)이라는 선비가 여주로 낙향해서 부인 김씨와 함께 살았다. 뒤늦게 딸 월선(月仙)을 낳았으나 월선이 10세 되던 해에 부인이 세상을 떠난다. 황공은 이웃마을에 사는 박씨를 새부인으로 맞는다. 박씨는 사람됨이 간악하고 교활하며 부덕이 없어 월선을 학대한다. 박씨는 월룡(月龍)이라는 아들을 낳았는데 어미와는 달리 마음이 어질고 착했다. 이때 황공은 억울함이 밝혀져 다시 벼슬길에 오르고 중국 사신으로 떠난다. 황공이 없는 틈을 타서 박씨는 월선을 구박하는데 마음씨 착한 월룡이 눈물로 애원하며 말려도 소용이 없었다. 박씨는 월선을 음녀(淫女)로 몰기 위하여 갖난 강아지의 가죽을 벗겨 이불 속에 넣어두고 월선이 낙태하였다고 소동을 피운다. 이를 엿본 시비 춘섬은 그날 밤에 서울로 도망하여 남의 종살이를 하며 황공이 귀국하기만을 기다린다. 월룡은 월선에게 아버지가 돌아오실 때까지 피해 있다고 권한다. 귀국한 황공이 춘섬으로부터 저간의 사정을 듣고는 크게 노하여 박씨를 친정으로 쫓아내고 월룡으로 하여금 월선을 찾게 한다. 한편 집을 나간 월선은 한 노파의 도움으로 결혼을 하였고 과거에 급제하여 여주군수가 된 남편을 따라 여주읍에서 살고 있었다. 월룡의 주선으로 황공은 월선과 사위를 만나 쌓였던 한을 풀게 되고 월선과 월룡의 효성깊은 청을 들어 박씨를 다시 데려온다.」

이 작품은 여타 소설과는 달리 계모의 소생인 월룡을 선량하게 묘사하였고 시비 춘섬이가 계모의 음모를 폭로하고 있다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작품 전개

에 있어서도 전기성(傳奇性)이나 우연성(偶然性)을 배제하고 있어 계모형 소설로는 가장 현실적으로 쓰인 대표작이라고 학계는 평하고 있다.



▲ 황월선전 필사본 표지



▲ 황월선전 필사본

어떤 여주여인

고추당추 맵다해도 시집살이 더맵더라
시아버지 호랑새요 시어머니 꾸중새요
동서하나 할림새요 시누하나 뽕족새요
시아지비 뽕중새요 남편하나 미련새요
자식하난 우는새요 나하나만 썩는샬새
귀먹어서 삼년이요 눈어두워 삼년이요
말못하여 삼년이요 석삼년을 살고나니
배꽃갈던 요내얼굴 호박꽃이 다되었네
<시집살이 노래>에서

시집살이는 예나 지금이나 우리나라 여성들이 겪는 삶의 체험 중에서도 가장 힘들고 어려운 것이기에 그 애환들이 이심전심으로 공감되어 여성문학의 중요한 주제가 되어왔다.

이 시집살이를 막 시작하려는 조선조 여주 여인의 편지 한통이 우리의 심금을 울릴 만하여 소개한다. 편지의 주인공인 이 여인은 여주의 가난한 양반 남원 윤씨의 딸로서 마당과부가 된 여인이다. 마당과부란 결혼식만 올려놓고 신행을 가기 전에 남편이 죽은 여인을 말한다. 여인의 시댁은 충남 임천(林川)이라고 했다. 어느날 시댁에서 사람을 통해 시아버지가 위독하다는 기별을 보내왔다. 부랴 부랴 오빠가 후행(後行)을 서고 연두저고리에 분홍치마 차림의 신부는 가마를 타고 대엿새만에 시댁에 당도하니 시아버지가 아니라 남편이 죽었다는 것이다. 신부는 친지가 고요하고 막막해져 애호일성(哀號一聲) 한마디 끝에 기절하였다. 이 기막힌 사연을 친정 어머니와 오빠는 미리 알고 있었다. 어머니가 딸에게 보낸 편지 속에 “... 네 오라비 너를 속여 앞세우고 가는 속이 오죽했으며 불쌍도 해라, 너는 그것도 모르고 화복(華服; 색있는 비단옷)으로 가던 양 목불인견(目不忍見)이요...” 하는 대목이 이를 말해준다. 시댁에 당도한 그날 밤 남편의 죽음 앞에 망연자실하던 이 여인이 다음날 아침 친정으로 돌아갈 오빠편에 보내기 위해 어머니께 편지 한통을 쓴다.

“어머님 전 소상사리(素上白是; 상제가 사되어 올린다는 뜻)

사념(思念)하시는 자모(慈母)의 뜻을 생각하와 미정(未定)한 경혼(驚魂)과 홀어진 정신을 거두어 지필(紙筆)을 대하오니 새로이 일만 비회(悲懷)가 흉역(胸

臆)에 쌓여 무슨 말씀을 아뢰오리까...”

하고는 자신은 죄가 막중해서 이렇게 되었지만 80가까운 홀시아버지께 설움을 끼치고 어머니께는 근심을 끼치게 되었으니 죽지 못한 것이 한이라고 자책한다. 이어서 “5남매가 다 좋으려 하면 귀천(貴賤)이 어이 있겠삽나이까. 제가 혼자 불행하므로써 하늘이 다른 형제들에게 더 복을 주실지 어찌 알겠사옵니까...”하고 어머니를 위로한다. 그리고는 “자녀에 대한 부모의 애정이야 차등(差等)이 없사오나 경중(輕重)은 있사오니 중대한 오라비들 층층이 시좌(侍坐)하고 있사온데 딸로 인해 어머님 쇠경(衰境)에 과상(過傷)하지 마옵소서”하며 끝을 맺는다. 극한 상황 속에서도 이성을 잃지 않고 의연히 대처하는 23세의 이 여인에게서 비록 가난했어도 법도와 품위를 잃지 않았던 옛 여주여인들의 고결하고 숭고한 향취를 느낄 수 있지 않겠는가?

갑돌이와 갑순이

가수 김세레나가 한창 이름을 날리던 시절, 라디오와 TV를 켜면 어김없이 흘러나오던 노래가 있었다.

1. 갑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대요 둘이는 서로 서로 사랑을 했대요 그러나 둘이는 마음뿐이래요 걸으로는 음음음 모르는 척 했대요

2. 그러다가 갑순이는 시집을 갔대요 시집간 날 첫날 밤에 한없이 울었대요

갑순이 마음은 갑돌이 뿐이래요 걸으로는 음음음 안그런 척했대요

3. 갑돌이도 화가 나서 장가를 갔대요 장가간 날 첫날 밤에 달보고 울었대요

갑돌이 마음은 갑순이 뿐이래요 걸으로는 음음음 고까짓 것 했대요

이 ‘갑돌이와 갑순이’가 그저 여염집 처녀총각을 가리키는 말인줄로만 알았는데 실상은 그게 아니었다. 40여년 전 김다인 작사 전기현 작곡의 ‘온돌야화’라는 노래가 발표되었다. 이병한, 함석초 두 남녀가수가 가사내용에 따라 한소절씩 주고받으며 번갈아 불렀기에 그 극적인 요소로 하여 감칠맛을 더해주던 민요조의 노래였다. 그런데 ‘온돌야화’에 등장하는 남자인물의 이름이 갑돌이가 아니고 박돌이였으며 박돌이와 갑순이가 여주사람들로 노래의 가사처럼 그런 애꿎은 사랑을 나누는 실제 인물이었다는 것이다. 노래는 이렇게 시작된다.

(대사) 그 사기(史記)에 적혀있는 일은 아니로되 지금으로부터 한 60여년 전 경기도 여주땅에는 박돌이란 총각과 갑순이란 처녀가 있었답디다

1. 박돌이와 갑순이는 한 마을에 살았오 두사람은 서로 서로 사랑을 하였대요 그러나 그것은 마음 속뿐이요 걸으로는 음 서로 서로 모르는 척 하였오

2. 그러는 중 갑순이는 시집을 갔다나요 시집가는 가마 속에 눈물이 흘렀대요 그러나 그것은 가마 속 일이요 걸으로는 음 아무런 일 없는 척 하였오

3. 화가나서 박돌이도 장가를 들었대요 그날밤에 서방님은 하늘높이 웃었오 그러나 마음은 아프고 쓰리었오 걸으로는 음 그까짓 년 하여도 보았오

4. 그 후에도 두 사람은 한결같은 옛생각 안타까운 상사념을 잊을 수는 없었오 그러나 그것은 마음 속뿐이요 걸으로는 음 서로 서로 모르는 척 하였오

지난해 8월, 서울 명동창고극장에서 연극인 장순안이 쓰고 연출한 신파극 ‘박돌이와 갑순이’의 공연이 있었다. 이 작품을 준비하던 이들이 ‘박돌이와 갑순이’가 여주에 실재했던 인물들이라는 것과 맺어지지 못한 이들의 애릿한 사랑을

극으로 꾸며 유랑극단 배우들이 공연을 하다가 부르기 쉽게 ‘갑돌이와 갑순이’로 이름을 바꾼 사실을 찾아내었다.

노랫말과 가락이 사람의 심금을 울리고 일체감을 이루어왔음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진작에 ‘갑돌이와 갑순’가 100여년 전 여주에 살았던 여주사람들의 이야기라는 것이 널리 알려졌더라면 우리 여주가 그 노래를 들었던 모든 이들의 다정한 고향으로 다가설 수 있었으리라는 안타까운 상상을 해본다. 이일을 교훈으로 삼아서 매년 열리는 세종가요제에 참가곡을 여주에 관한 소재로 제한한다든가 문학, 미술, 음악등 다양한 장르에 여주를 담아내는 일을 격려, 지원하는 제도를 만들어서 널리 알렸으면 싶다. 여주는 모든 이들로부터 사랑받기에 충분한 매력을 지닌 곳이기 때문이다. 구르는 낙엽을 보면서 다시 움터올 새싹을 유추해 내는 그 마음으로 ‘박돌이와 갑순이’의 부활과 새로운 ‘갑돌이와 갑순이’의 탄생을 기다린다.

여

백

여주와 함께 한 사람들

발행일 : 2003년 4월

편집·발행 : 여주군·여주문화원
여주군사편찬위원회

디자인/제작 : 여성종합인쇄

※ 이 책은 여주군의 지원금으로 발간되었습니다.



畫景之美
吾未見
張花常
而畫
如畫真
月桂樓